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21

김태오 문학전집2

- 동극·아동문학 평론편 -

이동순 엮음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21

김태오 문학전집2

- 동극·아동문학 평론편 -

본서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한국학 저술 출판 지원을 받아
저자가 원고를 작성하고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간행한 것임.

『김태오 문학전집2』를 엮으면서

김태오는 광주출신의 아동문학가다. 1920년대와 1930년대 한국 아동문학의 핵심에 있었으나 해방 이후에 문단과 거리를 두고 교육자로 투신하여 잊힌 작가가 되었다. 『김태오 문학전집-동요·동화편』 1권에 이어서 『김태오 문학전집』 2권을 꾸미는 뜻은 한 시대를 살다간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 수습하여 문학적인 성과를 알리는 자리가 절실해서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주전남 근현대 최초의 시인, 박용철이나 김현승보다 이른 시기에 시와 동요, 동화, 동극, 평론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었던 작가 김태오는 1903년 7월 16일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읍 금계리 124번지에서 김윤흥(金允興)과 김덕연(金德然)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동요 작가로, 동요 이론가, 동화작가, 평론가로 1920년대와 1930년대 아동문학의 중심에 있었던 욕심 없이, 티 없이 맑게 뛰어놀기를 바라면서 어린이들의 세상을 위해 동요를 썼던 김태오는 1933년 『설강동요집』을 내는 것으로 동요창작의 정점에 있었다. 그리고 「동요 잡고 단상」을 비롯하여 수 편의 글을 통해 동요의 장르개념과 동요를 창작하는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동요창작을 도왔다. 동요의 이론체계를 확립하려 애썼고 동화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동요를 쓰고 동화를 쓴 것은 조선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운동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동요 「봄맞이 가자」와 「강아지」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어린이 전문잡지의 흥수 시대를 열었던 1920년대는 『어린이』를 필두로 『아희생활』 등 어린이를 독자로 삼은 잡지의 발행이 줄어 있었다. 글쓴이와 읽을거리가 부족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린이

전문잡지사와 언론사가 고안한 것은 독자투고를 받아 작품을 선별하여 게재하는 것이었다. 어린이 전문잡지사와 언론사가 동요운동에 동참하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것은 한국 아동문학을 탄생시키고 견인했다. 이때 김태오는 소년운동가로 여러 매체에 작품을 발표하였고 전문적인 작가가 되어 많은 독자를 거느린 소년운동지도자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민족운동과 창작활동은 창작과 비평의 기준을 제시하고 운동의 방향을 실천해 가는 면모를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광주에서 전국 최초의 소년단을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래 전국의 소년단체와 연대하고 연맹체를 조직함으로써 일제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영역을 넘나드는 창작으로 시대정신을 담고자 했다. 1918년 여름 ‘양파정’에서 소년단을 조직했고, 1927년 시인 정지용, 윤극영 등과 ‘조선동요연구협회’를 창립하여 동요운동도 전개하였다. 그리고 광주기독교청년회, 광주청년동맹, 신간회 광주지회 등에서 민족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소년으로부터 민중으로부터 지역으로부터 실천했던 운동가이자 창작하는 문학인이었기에 광주 문학사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김태오는 『설강동요집』(1933)과 『초원』(1939)을 냈으나 동화집이나 평론집을 남기지 않은 탓에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어 문학적 성과도 묻혔다.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와 동화, 소년운동이론, 아동문학평론 등 분야를 넘나드는 창작활동으로 남긴 작품은 산재해 있다. 이에 작품을 수습해서 『김태오 문학전집1- 동요·동화편』에 이어서 『김태오 문학전집2-동극·아동문학평론』을 낸다. 두 권의 전집이 갖는 연속성을 위해서 편의상 3부와 4부로 구성하여 3부에는 동극 7편, 4부에는 평론 및 산문 48편을 묶었다. 부록으로는 작품연보와 생애 연보 및 해설을 실었다. 7편의 동극은 동요극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단막극으로 구성되었다. 주인공 한 명을 중심에 두고 여러 어린이가 등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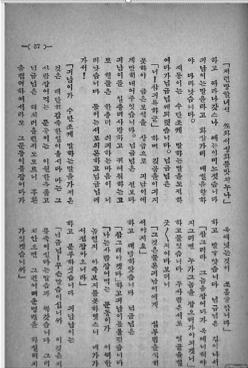
노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로 기독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광주기독교청년회 중심에 있었던 그의 생애와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48편의 평론은 동요 이론,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당부, 동화작가 안데르센에 대한 소개, 소년운동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정 인물과 다룬 논쟁도 흥미롭다. 운동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나 있어 그의 열정과 투철했던 시대정신을 엿볼 수 있다.

많은 시간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다. 한국전쟁을 비롯한 현대사의 부침 속에서 망실된 자료가 많고 매체가 온전하게 전하지 않는 탓이다. 여러 곳을 찾아다녔으나 일제의 검열과 삭제 등으로 소실되고 발표했던 지면이 확보되지 않아서 누락된 작품도 있다.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수정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김태오 문학전집 -시·시조·평론』 3권을 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완성이 되면 김태오 문학의 온전한 성과가 드러날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누군가 후속 작업이 있으리라 믿는다. 이 전집이 김태오의 문학적 성과를 넘어 광주전남 지역문학사 뿐만 아니라 한국 아동문학사가 풍성해지고 촘촘해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기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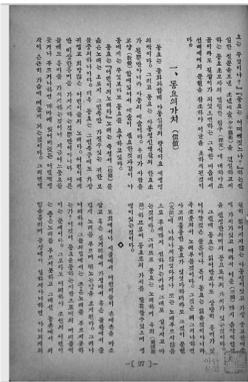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자료를 기꺼이 내어준 평론가 최명표 선생님, 근대서지학회 오영식 회장님, 호남학 연구의 교두보로 출판을 지원해준 한국학 호남진흥원 홍영기 원장님과 권수용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열심히 보답하겠다.

2024년 무등산자락에서

엮은이



▲ 「말하는 말」, 『아희생활』 3권 3호 (1928)



▲ 「현대동요연구」, 『아희생활』 7권 7호 (1932)

朝鮮兒童

研究協會創立

현조선의동요 작가한정동(韓鼎東)鄭芝鎔(鄭芝鎔)신재항(辛在恒)김래오(金泰午)윤규영(尹克榮)고장환(高長煥)씨등의발기연구협회의(朝鮮童謡研究協會)를창립하고조선동요연구회를위하여차와나가리라는데장령(網領)은아래와같으며 뜻있는일반 소년소녀는만히 참가하기를바란다하며사무소는림시로데부동칠번디(禮府洞七)에두었다고

綱領

- 一、我等은朝鮮少年運動文化戰線의一部내에立함
- 一、我等은童謡의研究와實現을期하고그普及을圖함

▲ 「조선아동연구협회」, 동아일보, 1927. 9. 3.

어린이날을당하여

어린이들에게

먼저조선을알고후준의
힘써뛰어나는인물이되자

金泰午

오늘날은요망되는五日날은
가라쳐서 유쾌하게 노닐을압
우파어린이의날이올시다
어린이의날이날! 얼마나
즐거웠던날이냐? 사랑하
는소녀여러분이날은
그대들을위하여
진조선의민
지키는명철한이름이다
경상
비웃하여 산관관내의
방방곡곡에는 어린이를위하여
머러가지들이가아스나
아마도
모를가지각별곳이피어
새로

어린이의날이날! 얼마나
즐거웠던날이냐? 사랑하
는소녀여러분이날은
그대들을위하여
진조선의민
지키는명철한이름이다
경상
비웃하여 산관관내의
방방곡곡에는 어린이를위하여
머러가지들이가아스나
아마도
모를가지각별곳이피어
새로

어린이의날이날! 얼마나
즐거웠던날이냐? 사랑하
는소녀여러분이날은
그대들을위하여
진조선의민
지키는명철한이름이다
경상
비웃하여 산관관내의
방방곡곡에는 어린이를위하여
머러가지들이가아스나
아마도
모를가지각별곳이피어
새로

▲ 「어린이들에게」, 동아일보, 1929. 5. 4.

어린이의 날

어린이날! 이 날의 행복복합날

어린이의 날은 어린이들이 행복복합날을 맞이하는 날이다. 어린이들은 이 날을 통하여 건강과 지식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놀며,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이 날은 어린이들이 자라나고,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날이다. 어린이들이 이 날을 통하여 행복복합날을 맞이하고, 이 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少年運動者에게

統一을바람

金泰午

少年運動者에게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은 나라의 단결과 화합을 의미한다.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만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통일된 나라는 강대국이 되고, 국민들은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 통일운동자들은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라.

덕充實하게

李光

덕을 충실히 채우는 것은 인성의 기초이다. 덕은 지혜와 용기를 낳고, 성공과 행복을 이끈다. 우리는 덕을 쌓아 사회에 기여하고, 남을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덕을 채우면 마음은 평안하고, 행위는 바르게 된다. 덕을 충실히 채우자.

社會에보낸

힘써도오라

洪善英

사회에 보낸 힘써도오라. 사회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사회에 힘써야만 사회가 발전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힘써도오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라.

▲ 「소년운동자에게 통일을 바람」, 조선일보, 1930.5.4

幼稚園 童謡 軍악대

金泰午

따따따따 따따따
나팔소리 나구요
궁덕궁덕 궁덕궁
북소리두 나두나.
봉빠라 봉빠!
봉빠라 봉빠!
군악대가 나간다
오늘밤에 음악회
구경오란 광고라

동리애들 모혀서
송내송내 부리췌
하하하하 하하하
그것재미 잇구나.
봉빠라 봉빠
봉빠라 봉빠

군악대가 나간다
오늘밤에 음악회
구경오란 광고라

▲ 동요 「군악대」, 동아일보, 1937. 7. 8.

제3부_동극 · 13

- 어린音樂家 · 14
- 꿈에 본 仙女 (歌劇) · 22
- 老獸의 音樂會 (唱歌劇) · 29
- 양양·양돼지 · 35
- 숨박꼭질 · 43
- 크리쓰마쓰 추리 · 52
- 달밤 · 55

제4부_아동문학 평론 및 산문 · 59

- 童話會와 警察當局에게 · 60
- 어린이의 동무 『안더-센』 선생 一五十二年祭를 맞고 · 61
- 全朝鮮少年聯合會 發起大會를 압두고 一言함 · 65
- 童話의 元祖 안더·센氏 (五十二年祭를 마지하며) · 69
- 心理學上 見地에서 兒童 讀物 選擇 · 72
- 西北 地方 童話 巡房記 · 79
- 丁卯 一年間 朝鮮 少年運動 一氣分運動에서 組織運動에 · 87
- 少年運動의 指導 精神 · 93
- 少年運動의 當面 問題 一崔靑谷 君의 所論을 駁함 · 96
- 認識 錯亂者의 排擊 一曹文煥 君에게 與함 · 110
- 理論 鬪爭과 實踐的 行爲 一少年運動의 新展開를 爲하야 · 118
- 네 가지 부락 · 127
- 어린이날을 當하야 어린이들에게
一먼저 조선을 알고 꾸준히 힘써 뛰어나는 인물이 되자 · 129

- 科學知識涵養 • 132
- 어린이날을 맞으며 學父妹님께! • 133
- 童謠 雜考 斷想 • 137
- 새해를 마치하며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먼저 굿건한 뜻을 세우라 • 144
- 넷들을 마치하며 새로 드리는 네가지 부탁 -먼저 조선을 압시다 • 147
- 古代 兒童 生活의 研究 • 150
- 統一을 바람 -少年運動者에게- • 197
- 조선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 198
- 藝術教育의 理論과 實際 • 200
- 세계 어린이의 동무 안더-센 선생 • 223
- 少年文藝運動의 當面에 任務 • 226
- 童謠運動의 當面 任務 • 242
- 농촌에 있는 어린 동생에게 • 247
- 가난한 설음 -어린 동생 哲洙에게 • 249
- 어린 누이동생에게 • 251
- 東京있는 兄님에게 • 253
- 경성 동무에게 • 256
- 北滿있는 동무에게 • 259
- 農村의 봄 서울유학간동무에게 • 261
- 現代 童謠 研究 • 264
- 새해 새날에 어린 동무들에게 • 278
- 健實한 文學 樹立 • 280
- 당신이 가신그뒤로 -남편에게보내는第一信 • 282
- 朝鮮에 燈臺가 되라 • 284
- 머리말 • 285
- 동요 짓는 법(童謠 作法) • 286
- 五月과 어린이날 • 306
- 童謠運動의 當面任務 • 308
- 童心과 藝術感 • 312
- 童謠 藝術의 理論과 實際 • 314

朝鮮 童謠와 鄉土 藝術 • 324

兒童과 映畫 • 328

盧良根 氏의 童話集을 읽고 • 332

안데르센의 生涯와 藝術 — 그의 死後 六十年을 當하야 • 334

제5부_연보 및 해설 • 341

일러두기

- 이 전집은 김태오의 아동문학 작품을 장르순, 발표순으로 수록한 것이다.
- 작품이 중복 발표된 경우에도 실어 수정 사항을 드러내었다. 그가 발표한 작품을 『설강동요집』에 수록한 경우, 최초 발표작과 시집의 연도를 따라 그대로 실었다.
- 작품은 원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띄어쓰기만 현대식 표기법에 따랐다.
- 원문의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은 숫자만큼 ○표로 처리하거나 내용을 밝혔고, ×는 원문에서 삭제된 것이다.
- 시의 연과 산문의 행을 구분한 표시(×, ◇, ○)는 모두 삭제하고, 한 줄을 비웠다.

제 3 부
동극

어린音樂家

登場人物

仁男 十二三才의 少年 少年少女 十人

青年 音樂家 二十五才 假量の 青年

靈 五十才의 老人(假裝하여도 無關

仙女 七八才의 少女 二人

舞臺裝置 일흔 봄동산에 지려는 夕陽.

時 일흔봄 저녁놀이 빛칠재.

第一場 仁男의 설흠

■ 一圓紅日은 발서 기우러져 黃昏을 재축할 새 지는 산모퉁이 잔디밭 그 속에서 홀노 애달르게 울며 도라가신 아버지를 펍도 그리워하고 있다.

아! 그 소래의 主人公은 누구인가? 나희는 겨우 十三才쯤 되는 어엽부고도 可憐한 어린少年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일즉히 明星히 날이 썰치던 樂聖 月波先生이었다. 그러나 그의 運命은 길지 못하여 번거러운 발자취를 먼 나라로 옮기였다. 그리하고 仁男이는 아버지의 紀念으로 항상 어린 가슴에 품고 잇는 싸요린 그것으로 벳을 하여 외로운 몸이 붓칠 곳이 업시 슬흔 노래와 애처러운 눈물로 그의 親山을 멀니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恒常 부르는 노래는 이것이었다.

사랑하시던 아버지 어대가셨나
외로운나를두고 어대로그셨나
바이업시해매이는 외로운내몸
뉘를밧고살야고 바리고가셨나

아! 도라가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싸요린 선수로 有名한 音樂家라는 稱號를 드르셨다. 그러나 나는 엇지하여 安만하여도 되지를 았나!!.

이러케도 하여보고 저러케도 하여보나 되지를 안코 그 소리는 거치렀다 그리하고 仁男이는 울여고까지 하였다.

아! 安만하여도 아니되는구나!!.

▣ 하며 仁男이는 먼산을 바라보며 힘이 업시 한숨을 지우며 잇슬 害에 아해들 소리가 갓가히나며 八九의 少年, 少女가 뛰어나오며 登場한다. 습唱 曲調맞추어 舞蹈를 하면서 습唱.

하나둘셋넷 발을맞춰뛰여라 뛰여라
네손 내손서로잡고 발도가볍게
삼분々々삼분나갈새 拍子맞처라
노래하며 즐거웁게노라봅세다.

▣ 仁男을 에워싸고 圓形 列을 지어 曲調를 맞초아 舞蹈를 此에 適當하고 滋味잇는 무도를 各自 隨意로 할 것.

金童 야들아! 보아라 저 아해가 仁男이가 아니냐?.

哲童 仁男이제! 아버지는 싸요린선수이였다.

金童 야! 仁男아 音樂家! 도흔 曲調 하나 들려주게.

仁男 미안하다마는 나는 할 수 업다 아직 배호지를 못하여서.

金童 말마라 아니 배왓기로 쉬운 것으로 조금이야 못하겠니? 音樂家 아닌 아들 나도 조금은 할 줄 안다.

童哲 야! 그러지 말고 한 번 하여 보렴으나!.

金童 야! 너의 아버지가 잘하시던 『쌍々々々々』그런 것이지 야! 그것 참 재미엇더라.

一同 자! 한 번 하여다고 응……

仁男 자! 너희들이 너무 그러니 한 번 하여보아 잘 될지는 모르겠다.

▣ 하면서 싸요린을 들고 케여보았스나 그 소리는 거치고 듯기 싹헛다
어린 동무들은
『쌍々々々々』하고 흥내를 내면서 도라서서 팔々々 웃는다. 그리하고
仁男이를 놀린다.

一同 아하~ 참 잘한다 音樂家 아드님 다르기도 하다.

金童 앗다 그 녀석을 호랑겔칠가! 히영가릴칠가?.

壽童 야! 히영가래나 한 번 쳐주자!.

一同 그러자!!

▣ 하며 모든 아해들은 달여들어 仁男이를 번적 들어 빙빙돌리다가 나
려눕코 썩돌아선다 仁男이는 내려 노은채 그대로 안저운다 少年少女들
은 다시 손을 잡고 썩썩돌며 소래하면서. -(退場)-

幕內合唱(합창)

음악가아드님 어대로갓나
그애의일흠은 인남이라지
하-로종-일 차자보아도
어대로갓는지 알수업네.

▣ 壽男이는 以上 合唱에 맞추어 舞蹈하면서 登場.

壽, 仁, 對唱(若干의 表情을 하면서)

壽 아하 아하 여기잇고나

壽 싸요린 한 번 들려주게.

仁 나는 아직 할 줄 몰나요.

壽 한 번만 썩-하여다고.

仁 아하아하 그리하시오

壽 아하~ 잘도한다.

『壽男이는 습함에 맞추어 退場하면 少年들 舞蹈면서 登場.』

습함 습함할 때에는 活潑하게 뛰며 露西亞舞蹈(웬겔가)式으로 하되
各自 隨意대로 할 것.

一, 쌍쌍이 선수 어린 音樂家

뚝기실케 잘도 한다 쌍々

쌍々쌍々 쌍々쌍々

코먹은 싸요린

二, 쏘다시 한 번 들여주게

하하~ 잘도 한다 쌍々

쌍々쌍々 쌍々쌍々

코먹은 바요린

- 『아이생활』 1926. 2.

■ 노래를 쓴친 후 (우와)하고 仁男의게 달려들어 흥내를 내다가 무도하
면서 退場.

仁男 아! 부끄러워 엇지하나! 뭐 나의 아버지씨서는 이 싸요린을 주시
면서 音樂의 材操는 아니 주고가셨나!. 아 하나님 나의게도 넷전
나의 아버지의게 주시엿든 그 재조와 그 힘을 이 不祥한 仁男이
의게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못사람의게 보이
며 도라가신 나의 아버지 일흠을 욱되히 하지 말게 하여주소서.
하고 슣히고 애답은 노래를 싸요린에 맞추어.

온세상이사랑업서

랭담함을아나나
곳곳마다자미엽서
탄식소래썸이라.

악을선케만들고
희망으로채우는
사랑위해더희를
오래기다렸도다.

사랑업는연고로
사랑업는연고로
사랑위해더희를
오래기다렸도다.

▣ 하며 노래를 하고 업대여 울면서 잇다가 그대로 잠이들자 꿈나라에 한 幕이 열린다. 불은 끄고 막은 내림. 고요하고도 은々히 싸요린 伴奏의 애숫는 一曲이 처량이 들린다.

▣ 仙童 이불을 밝혀 들고 中央에는 白衣 白髮老人이 나타난다.

▣ 仁男이는 저의 아버지를 뵈오면서 반기여 두 손을 벌니면서.

▣ 靈이 나타나는 압흐로 向할 때에.

靈 그리웁다仁男아 외로운네몸
 어나곳서彷徨하나 不祥한仁男아!
 너를두고져난아비 너를 生覺코
 晝夜長天너를爲해 눈물짓난다.

仁男 사랑하신아버지 어대가섯소

이 어린 몸바리고 어델가섯소
다려가오다려가오 아버지 품에
오래영원히영원히 안어주세요.

靈 아아니다인男아 저기를보라
반가운네의成功 기다려있다
나아가라나아가라 아비뒀짜라
쉬지말고나아가라 성공할새까지.

▣ 간단한 表情을 하면서.

仁男 아버지아버지는 이빠요린을
내게서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렇치아니하시면 이내몸에도
힘을주오재조주오 아버지갓치.

靈 녀너마라녀너마라 네너를위해
너를도아인도하리 저기서불넛다
그를짜라그를짜라 네몸의탁코
부대네몸성이 잘잘잇거라.

▣ 령은 사라지자 電燈은 켜고 仁男이는 그대로 울고 아버지를 부른다.
그때 었던 靑年 音樂家가 지나다가 仁男이를 보고 異常히 생각하며 仁
男이를 흔들여 깨운다. 인남이는 卽時 깨우자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
며 운다.

靑年 그는 當時 靑年 音樂家로 名聲이 높흔이였다.

靑年 야! 너는 누구인데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우느냐?

▣ 하며 머리를 어루만지매 仁男이는 놀나깨여 물너안즈면서.

仁男 지나가시는 어른의게 無禮히 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靑年 아니다. 잘못하였다고 할 것이 업다. 그러나 너는 누구인데 이곳에서 울고 잇느냐?

仁男 저의 일흠은 仁男이올시다.

靑年 너의 집은 어대이며 너의 아버지는 누구시냐?

仁男 집도 없시 외로운 몸이올시다.

靑年 야! 가이업슨 아해로구나! 그런데 너의 아버지의 존함은 무슨자 무슨자이냐?.

仁男 月字波字올시다.

靑年 月字波字? 月波先生!! 그러면 네가 樂聖 月波先生의 아달이란 말이냐?.

仁男 네! 그릇습니다.

靑年 아! 果然 歲月이란 빠르기도 하다. 先生의 門下에서 자라나 만흔 恩惠를 받고 잇다가 일즉히 外國遊覽(유람)에 뜻을 두고 先生을 떠난 후 멀니서 작고하심을 듯고 슬흐고 애닦흔 마음을 禁치 못하였더니 뜻밖게 너를 여긔서 맛날 줄을 누가 아랏스랏!! 너는 엇지하여서 울고 잇느냐?.

仁男 아버지씩셔 도라가신 후 외로운 어린 몸은 의지할 곳 업시 오직 이 싸요린만 가졌슬 썬이외다. 그러나 싸요린도 잘 할 줄 모르매 리웃 아해들은 놀니고 욱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當하고 奮하여 올다가 업대여 꿈을 꾸니 도라가신 나의 아버님을 뵈옵고 너머도 반가워 울엇습니다.

靑年 아! 仁男아! 울지마라 내가 너를 다려다가 가르쳐 주마 자! 이려 나라.

仁男 네! 先生님 썬셔 저를 가르쳐 주시겟습니까? 感謝하옵니다.

靑年 오냐! 녀려마라. 나 亦是 先生님의 무덤에 參拜次로 가든 길이니 갖치 갔다가 우리가 함씩 우리집으로 가자!.

▣ 하면서 仁男의 손을多情히잡고. 途々히 退場.

…………『終』…『幕』…………

— 『아이생활』 1926. 3

꿈에 본 仙女 (歌劇)

登場人物

順玉

少女 四五人

盲兒 一人

孤兒 一人

賣兒 一人

商人 一人

女王 一人

仙女 十人假量

第一幕

開幕

舞台後園

舞台 中央에 椅子 한 개가 노여있다.

開幕될 때에 順玉이가 노래를 부르며 舞台 左便으로 登場(등장).

順玉의 獨唱

석양하날불던해는
넘어간지오래고
지저귀던뭇새들도
제깃차저가도다
나무입은살작<
싹쳐부는바람은
오날저녁저달빛을
노래하고잇는듯
야!턴지만물이

모다적막하고나.

順玉 아! 오날 저녁에는 참으로 심々도하도다 왜 오날 저녁에는 놀너 오는 동모들도 업슬까?.

아! 오날 저녁에는 나혼자 놀기가 참으로 적막하다? 나의 지극한 동모들이 지금 왔다면 나는 그 얼마나 좃코! 그리-고 쏘 저-밝은 달을 노래부르며! 깃부게 춤추고 쥘면 노라볼가?.

아! 그리운 동모야? 놀고 십흔 동모야? 너의들은 어데를 가서 홀노 있는 나를 채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順玉이는 椅子에 거러안저서 즐인듯이 하품을 한 번 하고 아! 아! 즐니어 죽겠다.

◎…順玉이는 몽흔이 잠이든다.

仙女 舞台右便으로 登場.

仙女의 舞歌

녹음좃코물조흔
우리노는저선국을
어서깨여이러나
차저오너라!
너선국차저오며는
너선국차저오며는
우리와함씩쥘면서
즐겁게노라보리라
녹음좃코물조희
우리노는저선국을
어서깨여이러나
차저오너라.

청천명월
빛추여오는대
너만혼자
잠들었니?.

◎…노래가 끝난 뒤에 女王이 가만가만이 順玉에 옆으로 와서.

女王 아! 고요한 밤! 왜롭게 잠들은 나의 사랑하는 順玉아! 너는 이곳에서 이와갓치 홀로 잠만자지말고 어서 깨여일어나 우리사는 선국을 차져오너라! 그리하면 그곳에는 모든 보지 못하던 영화와 깃땀이만라 영원이 즐기며 뛰며 춤추며 전년생애를 길이길이 살 것이다? 너는 이 세상에 모든 이는 다중에도 더욱 어엽분 어린 마음을 가졌고 이 세상에서 조흔 일만 하엿슴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 사는 선국을 허락하고 예비하여 준 것이다 그러니 너는! 행여 동모들의 썬이는 말을 듯지말고 그리고 쏘 우리 사는 선국을 차져올 때에 길에서 불상한 사람을 만나거든 구원하여주고 동정하여주는 것을 행여잊지 말어라.

◎…女王은 다시 먼저 섰든 자리로 가서고 여러 仙女는 다시 歌舞로 退場.
仙女의 歌舞

청천명월
빛추여오는대
너만혼자
잠들었니?
녹음쫓코물조흔
우리노는저선국을
어서깨여이러나
차져오너라
너선국차져오며는

너선국차져오며는
우리와함께뛰면서
즐겁게노라보리라
녹음죏코물조흔
우리노는져선국을
어서깨여이러나
차져오너라.

◎…仙女 退場한 後 조금잇다가.

順玉이가 눈을 부비며 깨여서.

順玉 아참-아참내가 지금 꿈을 꾸었는데 아마도 내가 꿈을 쓴 것이 틀
림이 없서? 아! 지금 그것이 꿈이라 하면 그-어대잇는 선녀들이
와서 날보고 잣고만 차자오라고 하얏다 암만 생각하여도 이상한
일이다 차져오라는 그 선국을 한 번 차져가 볼싸? 그러나 만약
차져나갔다가 못차지면 엇저나! 오! 녀녀할 것이 업다 그래도 내
가 힘써 차져가면 어대던지 그 선국이 잇슬 것이다! 그리고 그 선
국에 女王이 차져오라는 것이니싸 모든 것을 조금도 녀녀할 것
이 업다! 자 그러면... 어서 가려던 길에 갈행장을 수습하여야 하
갓다!.

◎…順玉(순옥)이가 막-退場(퇴장)하라 할 새에 여러 少女(소녀)들이
노래부르며 登場(등장).

少女歌舞

달도달도 발고나
오날저녁에
우리우리즐겜은
이아니냐?

우리들은함께
노래불너뛰며
오날저녁저달밧헤
노라봍세다

◎…노래가 쫓나며 少女 한 사람이 반가이 뛰여와서 順玉이의 손을 붓
들며.

少女一 애-順玉아? 너입째까지 이곳에서 우리들을 기다리엿고나?
퍽 오래 기다리엿지?.

順玉 아니! 그러케 오래 기다리지는 안엿다!.

少女一 애! 우리들은 네가 도라간 줄 알고 급히 오는 길이란다.

順玉 오! 그러냐? 그러면 숨도 퍽 차갯다! 녀의들!.

少女一同 아니! 그러케 숨차지 안타!.

少女一 애! 順玉아? 너 입째까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잇섯니?.

順玉 나 말이나?.

少女一 응-그래!.

順玉 나는 이곳에서 한잠을 실컨 자고 낫단다!.

少女一 무엇? 잠을 잤서! 하.....

少女一同이 一時에 웃는다.

順玉 애들아! 그런대 내 말을 좀 들어라!.

少女一洞 그래 무슨 말이나?.

順玉 그런대 참 이상한 이야기야!.

少女一 글세 엇덧튼지 이야기나해?.

順玉 그런대 내가 앓가 잠을 자지 아니하엿니?.

一同 그래!.

順玉 그래 잠을 자는데 별안간 어데서 붓터오는 선녀들인지 무척
만히 나의 압흐로와서 노래부르며 춤추는 대 썩 잘 추더라.

一同 그래 엇덕게 되엿단 말이나?.

順玉 그럭케 춤을 추더니 노래와 춤을 쫓치겠지!.

一同 그래서.

順玉 아-그러더니 女王이 가만< 나의 압흐로나와서 하는 말이 너어서 깨여서 우리잇는 선국을 차져오너라 하겠지! 그러더니 다시 춤을 추며 어대로 갖는지 가버리고 나는 고만 놀나서 벌떡이러나니싼 한 꿈이라든 말이야!.

少女一 나는 무슨 정말 재미잇는 이야기라고 아이구!.

順玉 애 정말이다! 거짓말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선녀들이 차져오라고 하는 그 선국을 차져 갈 터인데!.

少女二 머-엇져고 엇제? 엇에를 차져가!.

順玉 선국을 차져가!.

少女一同은 허리를 부러쥐고 웃는다.

順玉아! 너 참 밋쳤니? 아직 자든 잠이 옛태 깨지를 안엇니? 응....

順玉 애들 좀 바! 거진말인줄 아라! 꼭 앓가 꿈에 선녀들이 와서 그 랫는데...?.

少女四 애 그런 소래하지 말고 놀기나 하자? 야.

順玉 일업다 나는 인제부터 너희들하고 놀지안코 저 선국을 차져 갈 터이다.

少女一 애가 밋쳤나! 참 왜이래? 암만하야도 잠이 안 깨인 모양이야? 좀 뛰며 노라야지?

◎...少女一은 순옥이의 손을 잡고 이리 끌고 저리 끌며 쫓 썰 때에 순옥이는 잡힌 손을 뿌리치고.

順玉 애! 노아라! 나는 너희들하고 놀기가 실어! 너희들은 일업다 인제부터! 그러니 너희들 씨리나 잘들 놀아라.

◎...순옥이는 천々히 退場할새 여러 少女들은 순옥이를 놀리며 노래.

少女 습창

저런바보보아라
우서죽겄네
선국차자간다고
혼자간다네
저런멍텅구리가
엇에잇슬가
하々々々々々々々
옛기바보야.

◎…노래가 끝난 후 少女一同은 웃는다.

少女一 아이그-참 오날 별-우슨 꼴을 다 보았네.

少女二 그런대 순옥이가 별안간 왜 그렇게 밋쳤니?.

少女三 아마도 앓싸 자던 잠이 들 깨인 모양이야?.

少女四 아니 그렇게 안이라 밤이 체하였나 보다.

少女一同 하하..... 一時에 웃는다.

少女一 애들아! 우리 고만 웃고 우리씨리 놀자.

少女一同 그래 어서 놀자.

◎…少女一同은 손목을 마조잡고 춤을 춘다.

少女의 歌舞

달도달도 밝고나 오날저녁에

우리우리즐거움 이아닌가?

우리들은함께 노래불너뛰며

오날저녁저달밋헤 노라봅세다

-(고요이 幕)-

- 『아이생활』 1926. 4

老獸의 音樂會 (唱歌劇)

全一幕一場 (一東山の 綠陰間)

登場人物

馬, 一人 犬, 一人 猫, 一人 牛, 一人 少女, 四人

(十二歲의 少女)

化粧, 짐생들은 나히 만허서 늙은듯한(馬, 犬, 猫, 牛) 얼굴의 冠을 쓰고 馬와 猫는 黑色의 衣服과 犬과 牛는 白色의 衣服을 입을 것이다. 少女들은 簡單한 옷을 입고 머리는 풀어 한 편으로 치우칠 것

舞臺, 開園에 壽木等을 세워 公園 비슷한 氣分을 짙을 것 그리고 中央에는 簡單한 舞蹈가 될 만한 餘裕를 둘 것이다.

開幕, 개가 라팔을 들고 곱은 하나 업시 올라온다.

犬唱歌 나히만흔이내몸을 누가기를가
우리주인슬여하여 바리엇스니
이내몸을어나누가 먹여길을가
우리주인슬여하여 바리엇스니

(이 개는 事實인즉 나히 만허 집 안에서 망녕된 짓만 하다가 그만 主人에게 쫓겨나서 갈 새를 몰나 굴머죽게 된 일을 걱정하는 셈이다.)

(이 唱歌가 甯난 후 한편 구석에 덜푹 주저안저 손에 든 라팔만 가지고 손짓이나 하고 있다. 이 새에 쏘 말이 登場 말은 손에 북을 들었다.)

馬唱歌 나히만흔이내몸을 누가길을가
우리주인슬여하며 바리엇스니
이내몸을어나누가 먹여길을가
우리주인슬여하여 바리엇스니

犬, (말을 쳐다보고) 아! 압집 말이니?
 馬, 오-똥집 흰둥이니
 犬, 옛전 일이나 여긔까지 이러케
 馬, 나는 하여간 너는 집이나 직히지 안코 멀허러 여긔 삭지 왔니?
 犬, 나 말이니 애 참 말이 아니다. 애 지금!
 馬, 머이 엇더게 그러니?(馬도 대강 짐작이 잇는 모양머리를 쓰덕<하며)
 犬, 네게 말 못할 것이 머잇니 햄! 내가 사정형편 말씀을 다-하시겟다. 나도 이전 젊엇슬 때에는 제법 괴운이 짱짱하고 날내기도 해서 주인령감이 산양가실 때에는 손살가티 압호로 달려가 썰도 물어오고 노루도 물어나리고 저녁에는 마루미테 안젓다가 도적놈만 올듯하면 막 지저자치고 主人님 들어오실 때는 소리치고 달려가면 호주머니 담은과자 모다 쓰어내주고 아츰 저녁 고기국에 흰 쌀밥만 먹엇드니- 인제 나도 나히 만허 로망한 연고인지 어제스밤에 우리 주인이 대문 열고 들어오시는 걸 도적인 줄 잘못 보고 곳 달녀가서 물엇드니 고만 성을 잔득 내어 몽둥이로 수려패고 로망해서 못 쓴다고 쏘차내기에 허는 수 업시 이리로 왔다.
 馬, 어허-참 말이 아니로군 나는 할말도 업다.
 犬, 너는 왜 그랬니(犬도 대강 눈치를 채고 머리를 쓰덕<)
 馬, 나 역시 내 말도 네 말이니 마찬가지로 네게 사정담이나 한다. 나도 제전 젊엇슬 때에는 다리가 짱짱하고 괴운이 제법 만코 날내기도 하며 우리 주인 령감을 등에 실코 하로 千里식이나 달녓더니 지금은 나히 조금 들어간다고 다리가 힘이 업서져서 어제 주인을 태우고 집에 도라오다가 개굴진 구렁에 한 번 넘어젓드니 고만 성을 밧작 내서 채로 막 후려 갈기고 내어쏘차서 허는 수 업시 그저 여긔 까지 왔다.

(매우 짝한 모양을 하고 쌍을 굴운다)

이 때에 猫가 피리를 들고 登場

猫唱歌 나희만흔이내몸을 누가길을가
우리주인슬혀하야 바리엇스니
이내몸을어나누가 먹여길을가
우리주인슬혀하여 바리엇스니

馬, (고양이가 창가를 하고 나오는 꼴을 보고) 아-건너 집 괴니?

猫, 아! 넘어 집 말이니 (犬은 그대로 쌍에 안젓다)

馬, 애! 엇전 일이니? 이러케 여끼까지

猫, 야-나는 말말 아니다 애! 엇절게냐 이걸

馬, 멀 엇지했게 그러니? 말이나 해봐라

猫, 내가 네게 말 못할 것이 잇겠니! 내 형편 이약을 쭉-해주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전 젊엇슬 때에는 가장 날내기도 하고 눈
도 밝어서 집안에 쥐라는 놈들은 숨을 쉬지 못하더니 요새는 제
법 나이 들어간대서 그런지 쥐가 잇서도 잘 보이지 안코 보여도
달려 갈 수가 업서서 어제두 집에서 쥐놈들이 쌀을 먹기에 고놈
을 잡으러 가다가 괴운이 짓쳐 넘어져 잡지 못했더니 고만 주인
령감 성을 밧작 내어 밥도 주지 안코 쏘차냄으로 그저 이러케 여
끼까지 왔단다

馬, 어허 참! 우리 역시 다른 놈들이 아니라 (犬을 보고) 애! 흰둥아
동무 하나가 쏘 생겼구나 이 괴생원도 쫓겨서 왔단다 애!

犬, (쳐다보고 헛우슴치며) 어허! 참 이리 오너라 애!

猫, 가기는 가지만 엇절 것이니 애들아!

(이 때에 소가 바울린을 들고 나온다)

牛唱歌 나희만흔이내몸을 누가기를가
우리주인슬여하여 바리엇스니
이내몸을어나누가 먹여길을가
우리주인슬여하여 바리엇스니

猫, (소를 보고) 아! 큰 집 소니?

牛, 오-적은 집 괴니?

猫, 엇전 일이니 여기까지 이러케

牛, 큰일났다 야 말이 아니다.

猫, 왜 그러니 멀 엇지 헛게! 이어나 좀 해봐라

(대강 짐작이 잇는 모양을 고개를 쓰덕쓰덕)

牛, 그래 내 말이나 하마 정말 말이 나오질 아는다마는 사정 이야기 나 하시겟다. 그런데 나도 이전 젊었을 때에는 괴운이 만허서 구루마도 잘 쓰을고 장괴질도 썩 잘 하고 짐도 잘 실코 단것지만 지금은 나이들어 늙어 간대서 괴운이 점々 업서져서 쟁기를 틀 메주면 쓰을 수가 없섯드니 주인령감이 골을 내고 소리를 벽력 가티 지르더니 막 두들겨서 쏘차냄으로 그저 여기까지 이러케 왔단다

犬, 馬, 猫, 어허! 큰일이다. 큰일 우리 역시 일반이다 애!

猫, 일와 안기나 해라.

(가티 안저서 쌍들과 두다리고 약 이분 동안 안졌다.)

犬, (이러서며) 자! 너희들 머 한 개식 가진 것잇지?

一同 그래

馬, 나는 북이다.

猫, 나는 피리다.

牛, 나는 바울린이다.

犬, 자-나는 라팔이다. 이것 바라 (분다) 휘휘々々

一同 야! 그것 참 듯기 조타 애

(먼저 근심들을 다 이저바리고 모다 이러스다)

그것 한 번 더 불어봐라 애

犬, 자-내가 이것만 불 것이 아니라 너이들도 다 한가지식 가졌스 니 우리 모다 합해 불어서 音樂會를 한 번 열자.

一同 울치 울치 뗏다 돼 그 말 참 조타

犬, (곳 다음 唱歌를 부른다)

犬,　　지금부터나는라팔 불어들여줄터이다

一同,　올타< 네가< 라팔불어줄터이나

犬,　　쫘々짜짜짜짜짜 쫘쫘쫘쫘두두쫘々쫘々

一同　아하 그것 묘하게도 참도 듯기에 조쿠나

(이와 가티 이와 가티 개가 하면 一同은 찬성하고 칭찬한다.)

(다음 창가를 가티 反復한다.)

馬,　　지금부터나는복을 두들기어줄터이다.

一同,　올타< 네가< 복다두다러줄터이나

馬(마),　둥둥< 탁탁< 둥덩< 둥둥탁탁

一同　아하 그것 묘하게도 참 듯기 조쿠나

猫,　　지금부터 나는 피리 불어들여줄 터이다

一同　올타< 네가< 피리불어줄 터이나

猫,　　비비< 썩썩< 비비썩썩비비비비

一同　아하 그것 묘하게도 참도 듯기 조쿠나

牛,　　지금부터 나는 바올린을 키여줄 터이다

一同　올타< 네가< 바올린을 킬 터이나

牛,　　미미도미솔소소미 래랠래도래미미소

一同　아하 그것 묘하게도 참도 듯기 조쿠나

(창가를 할 때는 재미있게 발을 굴리며 한다.)

一同 (一同이 습하여 各其分の 二節의 唱歌를 四五次 反復할 것 二節 二段도 亦是 가티 습하여 부른다. 마치 오-게스토라를 하는 것 가티 재미있게)

(適當한 때에 一同은 다스치고 犬이 다음 창가)

犬,　　인젠< 썩스하며 더 즐겁게 노라보자

一同,　올타< 그말< 참도 조흔 말이다.

犬,　　자 그러면 인제부터 보기조케 돌너스자

一同,　올타< 지금부터 보기조케 돌너스자

(계속하여 댄스로 시작한다 曲 伴奏者는 舞曲을 彈奏 댄스는 「왈스」種
類의 간단한 것으로 三段의 節段을 區하여 잇는 것을 探할 것)

一同 舞臺 第一段

(무도 一段이 窸날 지음에 少女들이 登場하야 老獸들의 第二段 舞蹈를
자미있게 求景하고 憧憬하는 모양이 얼굴에 나타난다.)

老獸一同 舞蹈 第二段

(舞蹈 第二段이 窸날 지음에 少女들도 興에 못 니기어 함께 달녀들어
따라가며 가치 춤을 춘다)

少女老獸合同 舞蹈 第三段

(舞蹈 第三段이 窸나면 곳 舞曲이 窸나고 一同도 웃죽며 물너서서 서
로 울골을 건너다 보고 놀나며 다음 창가를 가티한다.)

少一, 나의 사랑하며 놀든 우리 힌둥아(犬에게)

少二, 나의 사랑하며 놀든 우리 말이여(馬에게)

少三, 나의 사랑하여주든 우리 고양이(猫에게)

少四, 나의 사랑하여 키든 우리 황소야(牛에게)

후렴

너와나와 즐거웁게 지내여보자

너와나와 즐거웁게 지내여보자

(一同은 손을 잡고 둘러서서 다음 唱歌)

우리서로 사랑하는우리동모들

손뼉잡고즐거웁게지내어보자

너와나와즐거웁게지내어보자

(窸주일 上演할 것)

-幕-

- 『아이생활』 1929. 6.

양양·양돼지

(일)

양양·양돼지

(일막(一幕))

무대에 나올사람

◇수동이 十二歲

◇칠청이 十三歲

◇일남아 十一歲

◇복동이 九歲

◇간난이 八歲

◇수동이 어머니(少女가 粉裝해도 可)

때—어느때든지

곳—동내골목

배경(背景). 동내골목이다 양편으로 담벼락이 느러잇고 행길가에 전신주(電信柱)가 서잇는 담모퉁이 아이들이 놀기 적당한 곳이다

—開幕—

—막이 열리면 칠성이하구 일남이하구 둘우에 안저서 이야기한다.

칠성이 『일남아 오늘은 멀 하구 놀싸?』

일남이 『글세 새금좃길하구 놀싸』

칠성이 『그런데 수동인 아직두 안나오는구나』

일남이 『그애갓흔 욱심쟁인 세상에 업슬걸』

칠성이 『그리게 말야』

- 이때 무대 바른 편으로부터 복동이하구 간난이하구 어깨동무를 하구 나오면서

동무동무 싸자
아지매 아지매 싸자
닉동무가 짬이나
내동무가 짬이지

註……이 노래는 전라도에서 어린아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구 땡기며 혼이 부르는 노래다.

- 복동이는 바른 손에 옥수수 과자를 쥐구 간난이는 왼손에 쌍밥(누룽갱이)를 쥐구션 어깨동무하구 노래를 부르면서 나온다.

칠성이 『오! 복동이하구 간난이 하구 아주 씨리씨리 나오는구나』

일남이 『복동아 옥수수과자 좀 다구』

복동이 『그래 주마』

-복동이는 조공식 다 난 와주구 잇노라니

칠성이 『아! 간난이 그쌍밥좀 안주련?』

간난이 『가만있서 나두주께』

-간난이두 다 조공식 빼어준다

-일동은 옥수수과자와 쌍밥을 나옴나옴 맛있게 먹구있다

일남이 『거 참 맛있구나』

일동 『그리게 말이다』

칠성이 『수동이 녀석은 아직 두 안나오는구나 그녀석은 머든지 저혼자
만 퍼먹이서 꼭 양돼지처럼 배가 쏠룩 하겠지』

일남이 『그러구 사탕이나 과일을 제 어머니가 사주면 행길루 나와서
 우리보고 남—남 사랑히며 먹는 쏘이 보기실혀 죽겟더라』
 일동 『그러게 말야』
 칠성이 『애들아 우리 수동이를 양돼지라구 놀려주자』
 일동 『하하하 그것쫓타』
 칠성이 『나 하는대루 짜라해라』
 칠성이 『양양 양돼지』
 일동 『양양 양돼지』
 칠성이 『양양 양돼지』
 일동 『양양 양돼지』
 일남이 『애들아 수동일 남남이라구 하면 어찌니?』
 일동 『허허허 그도 쫓다』
 일남이 『나짜라 하렴으나 남남 남남이』
 일동 『남남 남남이』
 일남이 『남남 남남이』
 일동 『남남 남남이』
 간난이 『조기 수동이 온다』

—수동이가 사탕봉지는 손에 들구 능금 배는 양복주머니 속이 뽕뽕이
 넋쿠션 사탕을 먹다가 능금을 비어먹다가 하면서 무대 임편으로 登場

— 『조선일보』, 1933. 08. 16.

(一幕)

칠성이 『수동아 너 멋 먹니?』—일동은 수동이를 주목해 본다
 수동이 『사탕두 먹구, 능금두 먹구, 배두 먹구』
 일남이 『수동아 우리 좀 안 주련?』
 수동이 『아나 사탕! 능금! 아나 배!』

-하나씩 내보이면서 자랑만 한다

복동이 『그것 좀 난와 먹자』

수동이 『실타 얘!』

-일동은 놀리는 표정으로 이아래 노래를 합창한다

-일동합창-

사탕먹구 남남

과일먹구 남남

자랑 잘하는

압집 수동이

남남남

동무끼리 한쏘각두

논아 먹지 안쿠

혼자서만 퍼먹으니

남남이지 머-

일동 『히히히히』(拍手한다)-수동이는 얼굴을 씨푸리구 듯고있다
가 울상이 되어서 우둑허니 서있다

수동이 『너이들 한동이 되어 날 골리구? 난 울엄마 더러 일를테야』

칠성이 『일너라 일너! 너 혼자만 남남거리며 먹으니 그러치』

일남이 『얘! 그러지 말구 가티 난와먹자』

수동이 『안 할 테야 머 날 원통 골리구 능듬 한 쏘각이나 주나봐라』

일남이 『남남 남남이』

일동 『남남 남남이』

칠성이 『양양 양돼지』

일동 『양양 양돼지』

- 수동이는 어영어영 울면서 손등으로 눈물을 씨스면서

수동이 『이자식들! 잇다 봐라 내 어머니더러 일늘 테야』

일동 『이리쟁이가 맛나냐 알쟁이가맛나지』

- 수동이는 무대 왼편으로 울면서 退場
 - 일동은 수동이 가는 것을 보면서 잠간 침묵한다
 복동이 『애들아 수동이 대가린 쪽 장구가리 갖구나』
 일동 『허허히 그도 그래』
 간난이 『수동이의 배재긴 장구 배재기지』
 일등 『호호호 그도 그래』
 칠성이 『그리구 수동인 일쟁이야』
 일남이 『그뿐인가 또 울기쟁이야』
 복동이 『수동인 이름두 만고나』

- 『조선일보』, 1933. 08. 18.

一幕

간난이 『글세 말이다』
 - 이새 무대 왼편으로부터 수동이 어머니가 새파라케 질린 얼굴로 수
 동이 손을 끌고 나오면서 아이들잇는 곳을 보구는
 어머니 『어쨌놈이 우리 수동일 재럿냐 응?』
 일남이 『재리긴 누가 재려요?』
 수동이 『저녀석이 날더러 남남이라구 그래요』
 칠성이 『손이나 댓스면 큰일 낫겠네 수동아! 누가 재리든?』
 어머니 『늑놈이 울애기 재럿구나』
 수동이 『아까 칠성이 녀석은 날더러 양돼지라구 막 놀려주구』
 어머니 『아이머니나 망측도 해라 남남이니 양돼지니 다 머냐? 이 가난
 뱅이 말라빠질 색기들! 놀면 조켓 놀지』
 일남이 『가난하니 어쨌말이우 우릴 먹여살렸수? 고사진 부자나 실혀요』
 어머니 『이놈 말대답 잘한다 방정 마진놈!』
 - 수동이는 엄마가 여정을 드러주니 조화서 거짓 울음을 울다가 소매
 찌락으로 눈물을 닦는 척하면서

수동이 『아까 조놈들이 사탕이랑 과일이랑 달나기에 안 줬드니 날 막
 폴리겟쇼』

어머니 『네 이 비렁뱅이가튼 녀석들! 주긴 왜 저? 내일 수동이 생일에
 떡 하나 주나바라』

일남이 『그러니까 남남이지 머』

칠성이 『그러니까 양돼지지 머』

어머니 『네이놈 늑어내더러 그래라 배운대 업는 상놈의 자식들!』

일동 『돼지 팔어 석냥반-』

- 간난이는 공순한 태도로 수동이 어머니께 가서

간난이 『여보세요 팬이 잘못 알구 그리세요 비렁뱅이니 상놈이니 하니
누가 좃켓서요 그만두시구 도라가세요 비-』

어머니 『얘! 수동아 집으로 가자 인제 고녀석들 하구는 아예 놀지마라』

수동이 『아예 난 좀 놀구 갈테야 머』

어머니 『어여! 어서 가자애!』

- 수동이는 못 이긴듯시 어머니께 끌려서 퇴장(退場)

- 일동은 미운 눈초리로 나가는 것을 보구있다.

- 조금 있다가 수동이는 문어(文魚발)를 찌저먹으면서 남남 하에 登場

- 『조선일보』, 1933. 08. 23.

一幕

-일동합창-

수동이의 대가린 장구대가리 압이마와 뒤통수 불쑥 나왔쵸 공-부는 못
해두 먹긴 잘 하구 저 혼자만 남-남 욕심쟁이쵸

우리우리 동무들 덩지 되어서

압뒤꼭지 쑹나팔 쭉쭉 불어라

-약간의 표정을 하면서 쭈면 노래한다

수동이 『애들두 참 장구대가리가 다 머냐?』

간난이 『수동이의 배째긴 장구배째기』

- 일동합창-

수동이의 배째긴 장구배째기 고루 난와 먹으면 조을 텐데요 가난한 집
동무들 하나 안 주구 저 혼자만 남 -남 옥심쟁이죠 우리우리 동무들 덩
치 되어서 배불쑥이 수동인 양양 양돼지

- 이절누 약간 표정을 하면서 할 것이다

- 수동이는 듯고 잇다가 분이 나서 아이들 압흐로 닥어스면서

수동이 『이놈들! 장구배대긴 다 머냐응? 난 울엄마더러 쏘 일늘 테야』

- 일동은 더욱 놀려대면서

일동 『일너라 일너라 이리쟁이가 맞나냐 알쟁이가 맞나지』

- 일동은 수동이한테 달려들면서

일동 『와--양돼지』

- 수동이는 어영 어영 쏘 울면서 팔쪽으로 눈물을 닥그면서

수동이 『어영 어영 이놈들! 잇다 보자 가만두나 바라 어영 어영』

- 수동이는 분하기두 하구 한편 부끄럽기두 해서 풀기가죽 가지구 어
슬렁어슬렁 退場

칠성이 『애들아! 인제 수동이 이름좀 세여보자 (손가락을 꼽으며) 수동
이 일느쟁이 울기쟁이 장구대가리 장구배째기 남남이 양돼지
야- 일곱 가지로군! 어느게 쥔 조흐냐?』

일남이 『남남이하구 양돼지하구 쥔조하』

일동 『그러타 그러타』

칠성이 『자-우리동무싸구 노래하자 우리는 다 가튼 동무다 한 덩치다』

일동 『올타 그러타』

—일동합창—

(어깨동무를싸며)

동무동무 싸자
정다웁게 싸자
니동무가 젼이나
내동무가 젼이지
일등 남남 남남이이 양양 양돼지』

—閉幕—

—『조선일보』, 1933. 08. 25.

숨박꼭질

△무대에 나올 사람

- 少年…수남이(12세), 씨동이(10세)
 - 少女…순덕이(11세), 복순이(9세)
 - 복순이 어머니이……(少女가 扮裝해도 可)
 - 그 동무들…돌이(12세), 차돌이(9세)
 - 幕內 合唱隊……여덟 사람(少女)
- (出演 兒童數는 廣狹에 따라 增減할 수 잇슴)

[舞臺面] (野外에도 좋다)

동구(洞口)밖에 커다란 은행(銀杏)나무가 있다. 그 옆에 가을
풀들이 나 있는 그 새이로 망두석(돌비석)이 우뚝허니 서있고,
드물에는 누런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가온대 키다리 허
수아버가 서있다. 논두렁길이 꼬불꼬불 히미하게 보이고, 그
뒤로 적은 산이 보인다.

[照明] (동글한 달이다. 처음 솟아오를 때 누런 빛으로, 나중엔 하연
빛으로 할 것이다. 舞臺面에는 처음엔 히미한 빛으로, 나중엔
푸른 빛으로 빛일 것이다.)

△때: 달 밝은 가을밤

△곳: 洞口밖 은행나무 아래

[合唱]

1.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노든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스니

2. 달아달아 밝은달아
가을에두 보름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옥토끼가 방아찌쿠.

(수남이, 씨동이, 순덕이, 복순이는 등장(登場)해야 각각 둘 우에 자리를
정해 앉구 떠오르는 달을 쳐다보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노래 첫 절은 합
창(合唱)하면서 막이 고요히 열린다. 열리면 고대루 앉아서 둘째 절을 합창
할 것이다. 노래가 끝나자 그 중에 작난꾸레기 수남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수남이 『애들아! 오늘 밤 달이 펍 밝구나.』

일 동 『그래. 밝구말구.』

수남이 『우리 오늘 밤 멀하고 놀까?』

순덕이 『숨박꼭질하구 놀자.』

일 동 『웁다. 그게 좋다.』

(이동은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른다.)

수남이 『그런데 예들아! 숨박꼭질하기 전에 먼저 양반내기를 할텐데,
다리들을 쪽- 뺏어라. 안하면 대갈통이야!』

복순이 『그 앤 괜이 그래. 숨박꼭질하자는데.』

수남이 『하긴 할테야. 그런데 내가 노래해서 떠러진 놈이 양반인데, 그
애가 도둑놈이야.』

일 동 『그럼 그러자.』

(일동은 다리들을 쪽쪽 짚는다. 수남이는 앉아서 갱청갱청 뛰며 다리를
짚어가며 고개짚을 하면서 노래한다.)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김제 맨경 도맨경

짹발이 새양근

도르마 짹짹 장두개

머구발에 독사리

칠 팔월에 무사리

동지 선달에 대사리.(註: 이 노래는 남도에서 흙이 아이들이 작난
하며 부르는 노래다.)

(하필 이 노래가 씨동이의 다리에 떨어졌다. 씨동이는 발딱 이려서더니,
없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씨동이 『에헴! 내가 양반이다.』

순덕이 『허허허. 애두! 참 망측해라.』

수남이 『돼지 팔아 두 낭반!』

일 동 『하하하.』

수남이 『애들아! 그런데 우리끼리는 좀 적으니 다른 애들두 좀 부르자.』

일 동 『그러자.』

[숨창]

숨박꼭질 할아이 어서오너라

숨박꼭질 할테니 얼른오너라

숨박꼭질 할아이 어서오너라

숨박꼭질 할테니 얼른오너라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순덕이 『애들아! 어쩐 일이니? 아무도 안 오니.』

복순이 『그러나 인제 늦었다.』

수남이 『곧 올테니 또 부르자 부르자.』

(일동은 또 노래를 부른다.)

숨박꼭질 할아이 어서오너라

늦게오면 우리편 압드려준다

숨박꼭질 할아이 어서오너라

늦게오면 우리편 앓드려준다
(그러구 아모두 앓나온다.)

복순이 『그래도 안 나온다. 이젠 늦었다. 난 집에 갈테다. 어머님이 야
단하시겠다.』

순덕이 『괜찮아. 나하구 같이 가자 얘!』

수남이 『좋다. 우리끼리만 하자. 그러면 씨동이 네가 도둑잡기지?』

씨동이 『싫다 얘! 아까 윈통 놀려주구? 짱겐뽕해서 진 사람이 도둑잡기야.』

복순이 『저 앤 늘 변덕쟁이지.』

씨동이 『허허허. 나더러 변덕쟁이라구? 참 기막혀. 넌 아까 왜 집에 갈
려구 했니 응? 그게 변덕쟁이야!』

복순이 『듣기 싫다 얘!』

수남이 『애들아! 그걸 갖이구 멀 그러니? 그럼 다 용서해줄 테니, 노래
하구 참 한 번 추구 짱겐뽕하잠으나.』

일 동 『자- 그라자.』

(幕內 合唱隊와 같이 할 것이다.)

가을에도 달밤에 어린동무들
은행나무 밑에서 노래하다가
숨박꼭질 하자구 공논이돌아
재미있게 일제히 시작을 하네

(이 노래에 맞춰 댄스가 끝나자)

수남이 『자 다같이 짱겐뽕하자.』

(일제히 동그러케 뭉아 서서 짱겐뽕한다.)

1. 짱겐뽕 아이꼬다쇼
 짱겐뽕 내가이겼다

1. 짱겐뽕 아이꼬다쇼

짱겐뽕 내가이것다

1. 짱겐뽕 아이꼬다쇼

짱겐뽕 내가이것다

(제일 첨엔 순덕이가 이기고, 그 다음엔 수남이가 이기고, 다음다음엔 씨동이가 이겼다. 하는 수 없이 복순이가 도둑잡기가 되었다.)

[幕內 숨唱]

짱겐뽕 아이꼬다쇼

[숨唱隊 一同]

오냐오냐 복순이 네차레고나

(복순이는 손으로 머리를 긁고 잇다가 노래가 끝난 후에)

복순이 『아이구! 이를 어째. 재수 없네.』

수남이 『복순이 오늘 너 재수가 대통이로군.』

씨동이 『뭇 세면 숨기 할까?』

수남이 『스물다섯 세기로 하자. 만일 세다가 눈뜨든지, 중간에 아니 하면 도둑놈 잡기 세 번식할 테야. 그 별로…….』

일 동 『옳다. 그러자 그러자.』

복순이 『애들두 참. 난 싫여!』

(복순이는 고개를 비꼬며 말한다. 이것은 하긴 하면서구 기집애들의 항용 하는 버릇이다.)

[숨唱隊와 一同]

스물예두 다섯을 세일동안에

꼭- 꼭 숨자구 약속하였네.

(이때에 왁돌이와 차돌이 登場. 다름박질하는 발자죽 소리가 저벅저벅 들리며 소리 난다.)

악돌이 『애들아! 우리두 간다. 가만 잊거라.』

(둘이는 bat작 닥어서면서 빈정대며 숨찬 소리로)

악돌이 『너이들끼리만 놀기냐? 우리두 좀 놀자. 수남이 녀석은 꼭 기집
애들만 대리구 놀겠지.』

차돌이 『나두 한 목 끼자. 오! 씨동이두 왔구나.』

(수남이는 악돌이가 핀잔을 주니 슬그머니 골이 나서 두 팔을 벌리구 악
돌이허구 차돌이를 쫓아내면서)

수남이 『않된다 앓돼! 아까 오랄 때 안 오구.』

악돌이 『그럼 너이들 못한다 못해!』

순덕이 『아이그! 망측이야. 왜 못한다 말이나?』

차돌이 『우린 안 드러주니 그렇지.』

씨동이 『누가 늦게 오련.』

수남이 『아 요놈들을 행가랠칠까? 호랑겔칠까?』

일 동 『행가랠치자.』

(수남이허구 순덕이허구는 악돌이를, 씨동이허구 복순이허구는 차돌이
를 머리와 다리를 잡아서 서너 밖위 행가랠치구선 수남이는 얼른 악돌
이에게 달려들어 바른 팔뚝을 비틀어서 내쫓으니, 악돌이는 입을 삐죽
삐죽하더니만 어슬렁어슬렁 뒤를 도라보며 나가면서)

악돌이 『수남이 연석 이놈! 내일 보자. 가만 두자 봐라.』

수남이 『내일 보잔 놈 무섭잖다.』

(심술꾸레기 악돌이건만 그래두 골목대장 격인 수남이에겐 못해 보는
터이다.)

차돌이 『얼레 얼레 기집애청-사내청-』

(악돌이하구 차돌이하구는 분이 나서 목청을 한층 돌아 가지구)

기집애청 사내청

동구밖에서 논다.

기집애청 사내청

동구밖에서 논다.

(이렇듯 편잔을 주는 소리가 삼사 차 멀리 살아져 갈 때, 복순이는 은행 나무 옆으로 가서는)

복순이 『애들두 참! 팬이 휘방을 놓는구나.』

수남이 『자- 고놈들 그만 두구 우리끼리만 솜박꼭질을 시작하자. 복순이 얼른 세어라.』

(복순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구 은행나무에 기대서서)

복순이 『자- 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숨었니?』

일 동 『가만 잇자, 아직 멀었다.』

(순덕이하구 씨동이하군사갓 속으루 숨어버리구, 수남이는 아직두 못 숨구 수선 떠다.)

복순이 『다 숨었니?』

수남이 『조금만 조금만 다시 세어라.』

(복순이는 또 세이기를 시작한다. 조금 잇다가)

복순이 『인제 찾는다.』

수남이 『찾어라 찾아라.』

(수남이는 망두석 뒤루 숨어버렸다.)

[복순이 독창]

하나둘셋 스물두 못세엇건만

산지사방 흠어져 숨어버렸네

[幕內 숨창]

초롱같은 눈알을 번쩍거리며

도둑놈들 찾으러 뛰어들가세

(복순이는 요리조리 헛청대구 땡기다가 찾었다는 듯이 망두석을 보구선)

요놈요놈 여깃다 씨동이구나

아차아차 헛봤네 망두석일세

(또 헛청대다가 저편 허수아비를 보구)

조놈조놈 나오라 냉큼나오라

엑키엑키 헛빚네 허수아빌세.

[幕內 合唱]

요놈요놈 여깃다 씨동이구나
아차아차 헛빚네 망두석일세
조놈조놈 나오라 냉큼나오라
엑키엑키 헛빚네 허수아빌세.

(복순이는 또다시 한참 동안이나 헤매며 찾아댕겼으나, 못 찾겠슴으로
은행나무 밑에 돌 우에 앉엇드니 하품을 하다가 선잠이 들었다)

(이때에 복순이 어머니 登場)

어머니 『복순아! 복순아! 어델 갖니?』

복순이 『…….』

어머니 『아까 노래 소리 나더니 이 애가 어델 갖나?』

복순이 『…….』

어머니 『복순아! 어서 집에 가자. 밤이 깊어 간다. 이 애가 집으루 갖나?』

(찾어댕기다가 아무 소리도 업스므로 다시 나아간다.)

(복순이는 그 소리에 눈을 떠보군 가만이)

복순이 『에그! 하마터면 들켰지. 하다가 구만 두면 도둑잡기 세 번인데…….』

[복순이 독창]

나는나는 이곤에 앉어잇어두
어머니는 모르구 지나가시네
아버지와 어머니 불러불러두
숨박꼭질 하는게 정말좋아요.

(복순이는 이러서서 또 찾으나 눈에 띄이지 않는다.)

복순이 『에그! 참, 다 어데루 숨엇슬가? 애들이 꼭 귀신 숨듯 숨엇으니.』

(그곤을 다섯 번이나 돌아댕기며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복순이는 다시금
그 돌 우에 앉엇노라니 가을바람만 쌀쌀이 지나갈 뿐이다. 복순이는 그만
무서운 생각에 무심코 눈뚫을 바라보노라니, 앗불사! 키가 구척같이 큰
도둑놈이 두 활개를 버리구 복순이를 향하여 쫓아오므로 벌떡 이러서더니)

복순이 『아이구머니나! 도둑놈이야! 도둑놈!』

(복순이는 별안간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복순이 『애들아! 나오너라. 도둑놈이 쫓아온다.』

(숨엇든 수남이, 씨동이, 순덕이가 모두 눈이 동그레 가지구 뛰여 오면서 놀라는 표정으로)

일 동 『어디 오냐 어디?』

복순이 『저기 바라 저기! 헌 털뱅이 옷입은 키다리갈 날보구 쫓아오는구나!』

(일동은 가웃가웃하면서 복순이가 가르키는 데를 뿌러지게 바라본다.)

수남이는 조금 잇다가 제 불기짜을 탁! 치더니, 그제야 알엇다는 듯이)

수남이 『응! 고개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복순이 『에그! 난 도둑놈이라구.』

씨동이 『복순이는 바보 멍텅구리야. 허수아비두 모르나?』

순덕이 『난 혼이 낫구나. 정말 도둑놈이 온 줄 알구.』

수남이 『애들아! 이젠 밤두 깊구 그랫으니 집으루 돌아가자.』

일 동 『그러자 그러자.』

수남이 『오늘 밤 참 잘 놀앗다. 갈리기 전에 우리 재미있게 노래하구 가자.』

일 동 『웁다. 그러자.』

(일동은 관중을 향하여 수남이, 씨동이, 순덕이, 복순이 차례대루 서서 노래를 부른다.)

[一同 合唱]

가을에두 달밤에 어린동무들

숨박꼭질 다하구 돌아가누나

놀때에는 놀때엔 재밋게놀구

공부할때 공부해 큰일꾼되자

(일동은 「큰 일꾼 되자」 할 때에 손들을 다 잡구 무슨 결심을 한 듯이 힘 있게 한올로 향하여 팔을 처든다.)

-(고요히 幕)-

- 『아이생활』, 1933. 9.

크리스마스 추리

△곳은-어느 시골 동산

△때는-크리스마스 전날

◇登場人物◇

○少女3人…主校生徒 甲, 乙, 丙(12, 3歲)

○그 집 少女 1人…(12歲)

(막이 열리면, 세 소녀는 이야기하며 登場)

甲 『애들아! 요런 산동쫄야 전나무 하나라도 잇을 테지?』

乙 『참 그러게 말야.』

丙 『잠간 기다려라. (우뚱 서며) 난 지난번 우리 학교 원쪽갈 때 이 근처를
지내노라니 어느 집 뜰 앞에 성한 나무가 많이 서잇두군아.』

乙 『그런대 그 집은 요 근방인가?』

丙 『글세. 꼭 기억은 안 되나, 요 근방 같애!』

(이러케 말하고 조금 걸어가며 사면을 살펴보더니, 그것을 인제야 알엇
다는 듯이)

丙 『아아 애들아! 저기다 저지…….』

(세 아이는 그 지으로 걸어가며 기쁘듯이 얘기한다.)

甲 『애! 참 좋구나. 조로케 나무잎이 파릇파릇하담! 이러케 치운 겨울
에두 크리스마스 추리만은 참말 싱싱하구나.』

乙 『참 증말…….』

甲 『애! 누가 이 집으루 들어가서 크리스마스에 쓰젯다구, 저 뜰 앞에
잇는 전나무 하나를 좀 달라구하험!』

丙 『난 작으니깐 잘 앓될 걸.』

甲 『거 무슨 말이나? 작으면 누구나 더 귀엽게 여긴단다.』

丙 『그럼 내 하지.』

乙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서이 모두 들어가자꾸나.』
 (이러케 이야기하며 어선두선 할 때, 그 집 주인의 따님이 그 소리를 듣
 구 나온다.)
 甲 (그 집 아이의 앞으로 다가서며) 『애! 좀 용서해다구.』
 少 『응. 그게 무슨 말이냐?』
 甲 『저 거시기 우리들은 예배당에서 왔는데, 다른 게 아니라 미안하지
 마는 너의 집에 있는 전나무 하나를 좀 줄 수 잇겠니?』
 少 『난 왜 그런다구. 그 전나무말야. 응 그거야 줄 수 잇겠지. 잠깐만 기
 둘러라. 내 아버지께 옛주고 올 테니.』
 (이러케 말하구 안으루 들어갔다가 또 나오며)
 少 『아버지께서 꼭 긴하게 쓸 데 잇다면, 한 개나 두 개는 괜찮다구 하
 시더라.』
 甲 『애! 참말 고맙다. 그러면 남자들에게 그 말을 하여 가질러 올 테니
 꼭 부탁한다. 응?』
 少 『그건 염려마라. 그런데 전나무는 멧에 쓰겠니?』
 乙 『저 크리쓰마쓰 추리(상한 나무)로 쓰는 게야.』
 少 『크리쓰마쓰는 머냐. 응?』
 (고개를 가웃둥한다.)
 丙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란다.
 少 『예수님?』
 乙 『응. 옳다.』
 甲 『그런데 아마도 모른 모양이군! 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잘 못
 들었니?』
 少 『응. 난 어릴 적부터 이 산중에서만 자라고 예배당엘 아직 못 가서
 잘 모르겠다.』
 甲 『그래. 예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일천 구백 삼십여년 전에 유태국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하누님의 아들이시란다.』
 少 『아! 저런. 하누님의 아들?』

甲 『그리고 예수님은 것처럼 착한 분이시지만, 죄 많고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대신 참혹하게도 십자가(十字架)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다.』

少 『아! 저런 가엾게도…….』

甲 『그래두 도리혀 예수님이 얼마큼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지 알 수 잇겠니?』

少 『아! 참 고마우신 일이다. 그럼 크리스마스는 그런 좋은 예수님이 나신 날이로군!』

甲 『그러단다. 해마다 12월 25일은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장식을 찬란하게 해놓구 시뵈 노래를 부르기도 하구, 크리스마스 축하 연극두 재미있게 한단다.』

少 『그거 참 좋겠다.』

乙 『얘! 너 내일 밤 꼭 저 읍 안 우리 교회당에 오느라, 응?』

少 (동경하듯이) 『나 같은 것도 가두 괜찮니?』

甲 『괜찮다마다. 예수께서 너 같은 착한 아이를 더욱 사랑하신단다. 내일 밤 종소리나거든 잇지 말구 꼭 와다구 응? 이것이 프로그램(순서지를 주께)이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님도 모시고 오너라.』

少 『예구! 고맙다. 아버지와 어머님께 엿줍고 꼭 가겠다. 어찌면 이러케들…….』

丙 (고개를 끄덕이며) 『꼭 기달릴 테야, 응?』

甲 『그러면 저 나무는 내일 아침이나 가질러 올 게다.』

少 『응. 그래. 염려마라.』

丙 『참 고맙다. 얘! 잘 잇서 응?』

少 『응. 그래…….』

(섭섭하다는 표정을 하며 물끄럼이 바라보고 있다. 甲, 乙, 丙, 少女 退場하자 고요히 幕)

- 『아이생활』, 1933. 11.

달밤

△나올 사람

동리 아이들……幼年 6

동리 아이들……幼年 6

토끼들……幼年.幼女 8

옥토끼……幼年 1

(무대의 넓이에 따라서 나올 사람은 隨意로 할 것)

△背景: 洞里 뒷 東山이다. 아이들이 달밤이면 노는 곳. 하늘에는 둥근 달이 웃고 있다.

△舞臺: 東山の 場面이다(간단히 裝置할 것).

幕內 슴슴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노든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옥토끼가 방아찡구

-(幕이 열리면 幼年들이 노래하면서 뛰면서 무대 두 바퀴를 돌고 왼편으로 나간다.)

달두달두 밝아서 놀기 좋구나

우리동무 팻동무 함께모여서

금-방울 은방울 차고다니며

달두밝다 캥쿠캥 노래부르자.

-(무대 左右便에서 토끼들이 깡똥깡똥 뛰면서 노래하며 나온다.)

깡똥깡똥 또깡똥

토끼동무 모여라

달두달두 밝고나
깡똥깡똥 또깡똥.

-(노래가 끝나면 무대 中央으로 가서 한 일자로 쪽- 느러 앉는다.)

달달두 밝다
별별두 밝다
영천의 수까락
꼭질렀다 저까락
때-때 저고리
다홍치마 곱다

◇토끼들의 노래

아가씨 아가씨 어서오세요
오늘은 우리생일 어서오세요

◇유녀들의 노래

토끼야 토끼야 언제왔느냐
오늘은 달두 밝다 언제 왔느냐

-(토끼들은 빙- 둘러 서드니 손에 손을 잡고 뛰면서 노래)

도 도 동무야
 동산에서 뛰놀자
다 다 달밤이다
 무두나와 춤추자
오늘은 우리생일
 아하하 좋다 좋다

幼女 一同 『야! 참 잘한다.(손뼉을 친다)……』

-(이때 幼年들은 女幼들이 동산에 올 걸 알고 툭툭히 골려주려고 고양이

이, 부형이, 개, 토끼, 호랑이탈을 쓰고는 제각금 짐승소리를 내면서
똑같이 『와-스!』 하고 몰려온다.)

- 幼女들과 토끼들은 무서운 表情을 하다가 『와-스』 소리에

유녀들·토끼들 『에그머니나……아-스!』

(놀래어 뒤로 몰려서 도망가려 할 때, 아이들은 탈바가지를 벗고)

유녀들 『자 애들아! 우리아 우리야!』

유녀들 『오! 너이들이구나.』

유녀 1 『애들두 참. 혼났다 애!』

유녀 1 『너이들 동산에 놀러왔다기에 놀러줄려구 그랬지 머.』

유녀들 『싫어 애!』

유녀들 『용용 죽겠지! 용용 맛있지!』

유녀들 『용용 약올라. 닭이다리 꼬끼요!』

- (토끼들은 그제야 적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련님 도련님 같이노세요

오늘은 우리생일 같이노세요

◇유녀들 노래

토끼야 토끼야 이쁜토끼야

오늘밤 같이놀자 이쁜토끼야

- (이때 달나라 옥토끼가 왼편에서 깡똥깡똥 나온다. 幕內 合唱할 것)

◇옥토끼 노래

깡똥깡똥 또깡똥 동무들아 오너라

달두달두 밝고나 깡똥깡똥 또깡똥

유녀 『옥토끼야 옥토끼. 왜 그리 두 눈이 둥그냐?』

옥토끼 『여러 동무 볼려구 요렇게 둥글지.』

◇옥토끼 노래

도련님 아가씨 모두 모였네

오늘밤 토끼생일 춤추며놀세

우리들은 손을 잡고 춤추며 놀세…….

-(一同은 빙- 둘러서 손을 잡고 노래하고 춤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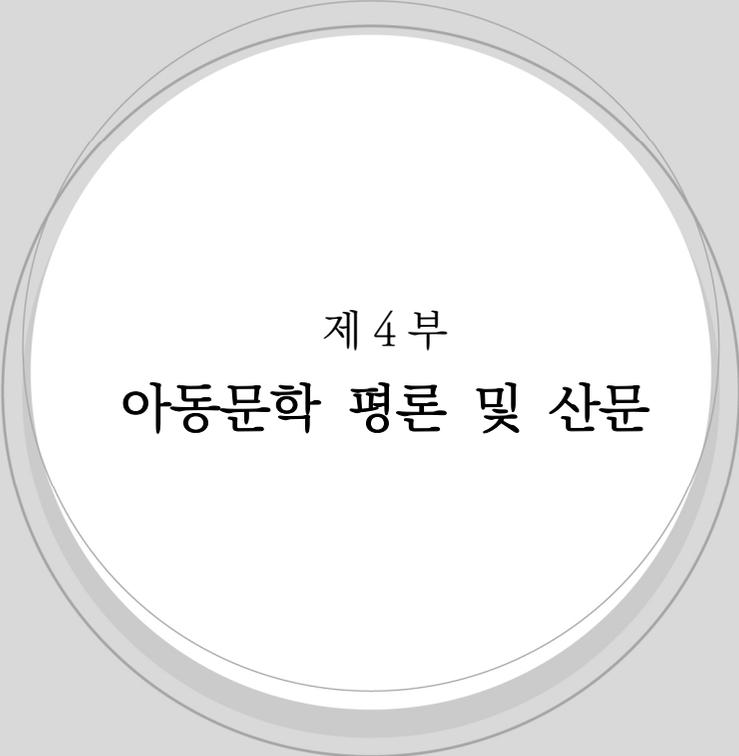
도 도 동무야 동산에서 뛰놀자

다 다 달밤이다 모두나와 춤추자

오늘은 토끼생일 아하하 좋다 좋다

-(幕)-

- 『아이생활』, 1937. 11



제 4 부
아동문학 평론 및 산문

童話會와 警察當局에게

筆者는 참다 못하여 이 펜을 드노라 諸君이여! 우리는 決코 그대들의 短處를 發見指摘하려고 苦心하는 不德漢은 아니다.

去般光州基督少年會主催로 陰端午를 期하여 어린이날 宣傳과 童話會를 開催하기로 諸般準備가 着着進行中이던 바 突然히 警察當局의 呼出命令으로 宣傳과 童話會는 絶對禁止를 하였스니 그의 橫暴無適한 非行을 憤慨하는 同時에 一矢를 放하여 反省을 促코져 하는 바이다.

諸君아! 抑何心鵬으로 童話會까지 禁止할 必要가 무엇인가? 諸君의 標題인 不穩思想을 宣傳함인가? 諸君도 人非木石이여든 沈蒙에 熟思를 거듭하면 應當良心의 움직임이 잇슬 것이다. 그리고 그 無邪氣하고 天真이 爛漫한 어린 少年少女에게 도리혀 큰 衝動과 刺激을 준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우는 아이는 짜릴수록 더 운다! 이와가티 오늘날의 思想取結는 單純한 高壓的手段으로 到底히 그 目的을 達할 수가 업는 것이다. 自由를 拘束하여 苦生을 식힌다고 少年運動者로 그 思想이 變革될 줄 아는가? 도리혀 反抗心을 培나 더욱 增加식힐 뿐이다.

或은 期會自體가 將次 무슨 計畫으로 如何한 事業을 하는 것이 아니라 會員이 事業을 進行하는 줄을 모르는가?

最後도 警告하는 것은 이후부터는 좀 더 冷却한 頭腦로 襟度を 넉리하는 人格者가 되기를 바라며 現下에 잇서 무엇보다도 貴한 이 少年運動에 滿腔의 援助의 態度를 取하라 그리고 君等所謂職을 司法에 奉하는 者인 바에는 恒常職務를 行함에 公平無私하여야 할 것은 贅論을 不要하는 바이다.

(雪岡生)

— 『조선일보』, 1926.06.25.

어린이의 동무 『안더-센』 선생 —五十年祭를 맞고

「오는 팔월 사일은 『덴마크』의 『안더센』 선생이 도라가신 날이외다. 우리 어린이들은 반드시 그의 사적을 한 번 아라들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어린이의 동무 안더-센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지 금년이 오십일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八月四日, 이 날은 어린 사람의 장래라는 것을 모르고, 그를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히 찬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게, 가장 열렬하게 어린 사람의 세계를 고조(高調)한 안더-센 선생이 떠난 기념의 날임으로, 온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해마다 해마다 성대히 기념제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명말에서, 영국에서, 불란서에서, 독일에서, 이태리에서 세계에 어린 사람이 사는 모든 나라에는 이 날을 의미 있게 기념합니다.

펼대로 펴보지 못하고 자라나는 우리 배달의 어린 령들은 온 세상의 어린 혼들을 위하여 참으로 알려주는 그를 생각하고 추억함도 뜻이 있는 일이 될가 하여 그 선생의 전기(傳記)를 이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네전부터 어린이를 위하여 동화를 쓴 이는 세계 각국에 펍 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엽시 곱고 아름다운 동화의 뜻을 피여 노아 가장 존경을 받고 칭송을 드러오기로 유명한 사람은 내가 지금 소개하는 『안더-센』이라는 선생입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百二十二년 전 쏫피고 새우는 고흔 봄날인 四月二일에 북쪽 구라파 덴마크(丁抹)란 나라 푸렌이란 섬 가운데 있는 오덴스란 조고만한 마을에서 낫습니다. 아버지는 구두 곳치는 사람이요, 어머니는 한채는 거지까지 하든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물론 학교에도 못 다니고 배꼽하 우는 가난한 신세였습니다. 그는 十八세에 이르도록 일자무식이라는 별명까지 드러왔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업시 거지노릇까지 하여 온 불상한 신세였으나, 그 반면에는 독서(讀書)와 소설(小說)을 조와하는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와 『아라비안 나이트』가튼 이야기가 쾌활한 자기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올 때에, 그는 부지중에 문학(文學)에 마음이 몹시 끌리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구두 곳치는 직업을 계속하고 잇으면서도 늘-책임기를 게을리 하지 안었습니다. 그는 벌써 위대한 문학자 되기를 자기 혼자 마음으로 결심을 하였습니니다. 그 후 얼마 아니 되어 희곡창작(戲曲創作)을 시작하여 점차로 시(詩)와 동화를 만히 세상에 남겨 새스별 가튼 눈을 반작이는 온-세계 소년소녀에게 보내는 무수한 선물, 재미있는 동화를 주었습니다.

안더-센이 아동학에 힘쓰게 된 동기는 그 아버지의 교훈하신 영향이라고 할 수밖게 업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안더-센은 나희 겨우 十四세 되는 해에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영원의 나라로 스러지고 말었습니다. 그제에 어린 안더-센의 슬픔이 엇더하였겠습닛가? 그러나 안더-센은 모든 일에 힘쓰면 된다는 굳세힌 의지를 품고, 어머니가 개가(改嫁)를 가거나, 의부가 학대를 하거나 모든 것을 참고, 견대여 잇던 재봉사에게 가서 재봉일도 한 일이 잇섯습니다. 장래의 시인(詩人)이 될 안더-센은 마침내 그가 18세 되는 해에 어머니의 허락을 어더 덴마크의 서울 고벤하-겐을 차저갔습니다.

- (상), 『동아일보』, 1926. 8. 1

그리하여 연극의 배우를 지망하였으나, 아모 극장에서도 채용해 주지를 아니 하였습니니다. 그리는 동안에 얼마 안 가진 노비까지 모조리 업서지고 객지에서 방황하는 참으로 불상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음성이 조왓슴으로, 모든 모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성악(聲樂)을 연주하겠다고 음악학교를 차저가서 도아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었던 훌륭한 음악가의 도움으로 었던 연극장에서 노래를 해주면서 겨우 지내고 잊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일년지 다행일년지 그의 목소리는 얼마 아니 가서 거츠러 젓슴으로, 그는 하는 수 업시 겨우 멧 달이 못 되어 슴흠에 압흔 가슴을 부등켜안고 고향인 오덴스로 도라왔습니다.

고향에 도라온 안더-센은 참으로 빈궁한 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그는 열심으로 각본을 써서 열심으로 각 극장에 보내여 상연하기를 청했습습니다. 그래 그의 열심에 감동된 한 선배의 주선으로 그 나라의 국비 류학생이 되어 바다스라켈스의 라렌이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공부를 다 맞친 뒤에 영국, 독일, 불란서, 이태리, 동양 한 편까지 유람을 하여 그 여러 나라의 경치와 풍속을 만히 연구하였습니다.

그가 유명한 이약이책 첫 권을 세상에 내여 노키는 三十一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약이책이 그의 일흠을 영원히 빛나게 한 것입니다.

그의 소설 중에서 유명한 것은 「즉흥시인(卽興詩人)」, 「연명초(延命草)」, 「그림 업는 화첩」 등 외에 수십 편이며, 동화로는 「인어(人魚)」, 「추한 가압(醜의 家鴨)」, 「설의 왕야원의 백조(雪의 王野原의 白鳥)」 가 튼 것입니다.

그의 사상은 건전하고, 종교덕 실미가 있습니다. 안더-센 작품이 모든 사람에게 찬양을 받는 것은 그 튼진의 시찰을 재료로 하여 거죽업시 순연한 아동의 공상을 그대로 것침입시 활동해 가는 것을 청신한 자연의 필치로 된 싸담입니다. 그는 62세가 되었을 때에 크게 성공한 몸이 되어 다시 정 만코 짜뜻한 고향에 도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고향 사람들은 그의 도라움을 밋출 듯이 깃버 날뛰며, 동화의 튼사가 온다, 이 약이의 아버지가 온다고 하며 그 마을은 밋치 경축일(慶祝日)과 갖치 학교에서 공부까지 쉬이고 변화하게 장식하여 그의 오는 길에는 보기에 도 조흔 쫓까지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세계의 아동을 위하여 만흔 로력을 하시다가 一八七五年八月四日에 그 나라 서울 코벤하-겐에

서 七十세를 일기로 영원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보신 바와 갖치 이러케 훌륭한 선생님의 력사를 그전에는 잘 모르다가 알고 보니 얼마나 반갑습닛가? 그리고 우리 조선에서도 서울 식골 할 것 업시 각 소년회에서나 어린이들은 이 날을 의미있게 그를 추억하고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미리 소개한 것입니다.

- (하), 『동아일보』, 1926. 8. 4

全朝鮮少年聯合會 發起大會를 압두고 一言함

오래스동안 懸案으로 내려오든 少年聯合會. 이것은 其間 만흔 波瀾을 격고 겨우 이제야 成案을 지은 貌樣이다. 荒蕪地 가튼 遙遠하고 쓸쓸한 人間 社會의 법판에서 彷徨과 咀呪로써 힘 업시 자라나는 朝鮮의 어린 靈들을 爲하여 兒童 擁護 機關인 少年運動의 切實한 高調를 意味한 少年會 看板이 只今에 二百餘 團體이다. 그러나 少年 擁護 運動의 歷史가 옛틈을 따라 아즉까지 氣分 運動이었스며, 形形色色으로 各自가 千層萬層으로 指導하며 主張해 왔다.

그리면 언제든지 이 方向과 形式이 다른 少年運動을 高唱할 것인가? 아니다. 거기에는 廢亡이 잇슬뿐이오, 잘아서 進展을 어더 볼 수도 업슬 것이다.

그리하야 이에 만흔 寤김을 가진 五月會 幹部 몇 사람과 斯界의 有志들이 糾合하야 全朝鮮에 흐트져 잇는 二百餘 少年團體의 運動을 統一하며 其 前進을 圖謀하기 爲하야

- 一. 朝鮮 少年運動은 統一的 組織의 充實과 發達의 敏活의 圖함
- 二. 朝鮮 少年運動에 關한 研究와 實現을 圖함

이란 二大 標語下에 全朝鮮少年聯合會 發起 準備會를 새로히 組織하고, 各 地方에 잇는 團體에서도 이에 對한 共鳴이 증짚부터 큰 바 잇서, 이제 六十 個體 團體와 四個 聯盟 團體의 承認을 得하고 來 三日을 期하야 發起大會를 召集케 됨을 무엇보다도 朝鮮 어린이의 다시 업는 길잡이가 되고 將來 朝鮮의 幸福이 이에 잇슬 줄 確信한다.

그러나 意思別論으로 破裂의 感情을 唱導하는 幾個 團體가 잇슬는지 모른다. 그러나 在來의 因循과 習慣으로 相煎의 禍를 짓는 齷齪의 賊이 되지 말어야 한다. 자- 吶吶히 말할 것 업시 朝鮮 各地에 散在한 少年 細胞 團體를 總合하야 中央集權의 最大 機關을 造成하는 것이 急務이며, 가장 適切한 方法이오 武器이다.

자! 우리의 處地와 環境이 가튼 白衣 大衆아. 一致的으로 共鳴하여 한데 뭉치자! 그러면 우리의 運動과 使命을 다함에는 其 武器는 무엇인가. 一. 統一, 二. 組織, 三. 個體, 이것을 우리는 唯一한 武器로 活動하며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少年運動이 있든지 四, 五年에 統一的으로 되지 못하고 破裂的으로-組織的으로 되지 못하고 散組的으로-計劃的으로 되지 못하고 臨時的으로-하여 왔다. 그럼으로써 만흔 金錢과 努力을 虛費하여 왔지만, 그에 對한 別스런 效果를 얻지 못하였다.

그럼으로 佩渴이 莫甚한 우리로써 生命水를 求함에, 반다시 우물(井)을 파서 돌이나 나무로 방들을 싸어야 물이 고이며, 그 판 우물을 맞볼 것이다. 萬一 방들을 찢치 안코 파기만 할 것 가트면, 만흔 努力만 虛費만 하고 말 것이다.

우리의 少年運動은

一. 統一的으로 하자!

나의 말하는 統一은 알렉산더의 英雄的 統一이 안이오, 實際 우리 少年運動에 잇서 가장 適切한 思想으로 產出되는 運動의 中樞인 最高 機關으로 大衆이 團結하여 計劃的으로 指揮하며 一致 行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健全 人格 鞏固 團結, 이것을 우리 少年運動 建設의 標語로 하자. 過去의 우리 모든 經營 가운데 龍頭蛇尾와 가치 有始無終하여 事業의 失敗가 만흔은 무슨 싸닭인가 하면, 첫째로 指導하는 그 사람의 人格이 健全하지 못하고, 둘째로 일하는 그 덩이의 團結이 鞏固하지 못함에 잇는 줄 안다. 卽, 非常한 일을 할 人格, 그 일을 일울 原動力이 되는 鞏固한 總合 團體 이것을 언제든지 부르짖는다. 자- 우리는 一言以蔽之하고 한데 뭉치자! 大同團結하자! 그러면 巴야흐로 머지 아니 한 將來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二. 組織的으로 하자.

何事業을 勿論하고 組織的이 안이면 未久에 破滅이오 成功을 期待할 수 업슬 것이다. 組織은 씨와 날이 숨하여 베도 되고 무명도 되고 명주도 되는 것이다. 萬一 날이 날대로, 씨는 씨대로 잇스면, 이야말로 베도 무명도 명주도 되지 못할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그럼으로 組織은 獨立이 안이오 連結性을 가졌다. 그래서 나의 말하는 組織的 運動은 前에 하든 單獨 行爲를 버리고 連結 一致 行動을 取하자는 말이다.

- (1), 『동아일보』, 1927. 7. 29

三. 計劃的으로 하자!

計劃이 업는 일은 成功이 업다. 그래서 우리들의 運動이 힘은 힘대로 쓰고 무슨 불만한 成算을 짓지 못하는 것이다. 家屋을 建築하는 者 먼저 圖形을 그려 가지고 그 圖形대로 집을 準備하고 豫備하는 法이다. 萬一 이런 圖形과 算이 업시 집을 짓는다 하면, 그야말로 空中樓閣이다.

우리는 이 慘愴한 悲境 속에서 全 家屋이 破壞된 우리가 그래도 압날의 希望을 두고 새로운 希望과 튼튼하고 凜凜한 아름다운 집을 建設하려는 우리로써 運動 進行의 아모 計劃도 업시 막 썩드는 것으로 일이 될 수 업고 함부로 일을 저질러 늦는 것으로 成功될 수 업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處地와 環境으로써 무슨 計劃에 對한 말을 터 노코 할 수도 업고, 計劃이 잇스든 實行하기가 極難한 우리의 身勢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周圍의 事情과 旣의 形勢를 仔細히 살펴 其 事情에 適合한 길을 取하고 무슨 方法으로던지 이 準備 運動을 實踐하는데 明哲한 計劃이 잇서야 할 것이다. 칼과 총을 둘러메고 戰爭하러 나아가는 軍士가 어떠한 成算, 計劃이 잇스 然後에야 動할 것이고, 그러한 方法을 取함에 반드시 勝利의 月桂冠이 到來할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의 하고야 말 少年運動을 爲함에는 努力이 統一的으로

되어야 하겠고, 犧牲도 組織的 計劃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結論

끗으로 一言하고자 하는 것은 少年少女의 指導者된 이는 어린이를 對할 때나 어른을 對할 때 좀더 熱情的 態度로써 하며 서로 兄弟요 同伴임을 覺悟하고 끈임업시 同友가 되자! 그리고 哈로뵈비 全朝鮮 少年 團體의 總團結과 指導者의 大同團結로 한 뭉치가 되어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加込치 못한 細胞 團體는 速히 共鳴하기를 바란다.

서로 손을 잡고 뛰고 노래하며 웃고 울고 하는 其 天真의 兒童의 態度 是 新 朝鮮을 建設할 天分이 具한 그것이다. 果然 그들의 하는 모든 짓 거리가 모다 創造的 衝動을 發揮하여 地上의 眞理와 善美와 慈悲와 의 儼存을 立證할 새 天使가 아닌가!?

아! 白衣 大衆아. 아모 所有가 업다고 落心마라. 目前 當場에 보배로 운 所有를 보고 깃버 雀躍하소서. 果然 어린이야말로 朝鮮 民族의 富이 다. 先朝와 우리들이 저질러 노흔 恥辱을 그들이 저다가 十字家에 못 박혀바릴 하나님의 어린 羊이다.

우리는 모든 所有의 代表인 少年少女를 잘 指導함에 우리의 所有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巴야흐로 멀지 아니 한 將來에 우리 醬 우에도 남 부럽지 아니 할만한 파라다이스가 올 것이다. 마즈막으로 全朝鮮 少年 聯合會 發起大會가 아모 故障 업시 順調로 잘 進行됨에 따라서 上述한 巴와 如히 統一, 組織, 計劃이 三個 條項을 吟味함에 만흔 成功이 잇기 를 祝福하고 이만 펜을 놓는다.

- (2), 『동아일보』, 1927. 7. 30

童話의 元祖 안더·센氏 (五十二年祭를 마지하며)

『八月四日是 어린사람의 世界를 高調한 안더-센先生이 지금으로부터 五十二年 前에 世上을떠난 紀念의 날임으로 世界 各國에서는 이날을 해마다 해마다 盛大히 紀念祭를 들입니다. 우리 朝鮮에서도 그 先生의 作品紹介도 種種잇섯습니다마는 全世界 어린 靈들을 爲하여 참으로알 어주는 그를 다시금 되풀이하여 생각하고 追憶함도 意義잇는 일이 될 가하여 그 先生의 傳記를 簡單히 紹介하겠습니다.』

世界童話界에서 그 이름이 높흔 丁抹의 偉大한 詩人 한쓰, 크리스찬, 안더-센은 北歐의 巨星이오 丁抹의 자랑거리다. 그리고 世界의 寶玉이오 兒童世界의 天使다! 그는 只今으로부터 一百二十二年前春四月三日 『덴마크』의 푸렌이란 小島 오덴스라는 조고마한 村에서 出生하얏 나니 그의 父親은 구두 修繕하는 靴工이오 母親은 不祥한 漂泊의 女子 이었다. 이러듯한 環境 속에서 날뛰며 貧窮한 家庭에서 자라난 그는 階級的으로 教育을 바들 幸運兒가 되지 못하여 十八歲에 일으도록 一字 無識이라는 別名까지 들어왔섯다 한다.

그러나 한때는 거지 노릇까지 하여본 貧困하고 陰鬱한 어머니를 가진 反面에 讀書와 小說을쓰직히도 조와하는 아버지를 가지엇든 것이다. 그리고 그의 父親은 自己職業以外的 餘暇에는 晴明한 봄날 달밤은 가을밤에는 안더-센과 가티 海邊에 散步하며 『아라비안나이트』가튼 傳說을 들려주었다.

이 이야기가 안더-센의 귀로 되풀이하여 들어갈 때에 未來의 幻想世界에 對한 가슴을 울렁거리며 그의 아버지의 感化를 바더 讀書와 思索에 醉하기 始作할 때 그는 벌서 偉大한 文學者 되기를 스스로 心中에 誓約하였던 것이다. 어린 안더-센의 머리는 感情이 강한 性格者이며

딸아 空想的이어서 童話나 傳說中에 잇는 어린 王子도 되고 어느 貴族 집 젊은 主人도 된 것가티 생각하얏다 한다. 未來의 幸福을 꿈꾸는 안더-센은 나히 겨우 十四歲되는 해에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永遠의 나 라로 스러지고 말었다.

어린안더-센은 이제 얼마나 설고 애닦엇슬가? 그는 슬픔에 가슴을 부등겨안고 모든 것을 힘쓰면 된다는 굳세힌 意志下에 어머니가 改嫁 를 가거나 義父가 虐待를 하거나 堪耐하여 왔었다.

將來의 詩人인 안더-센은 마츄내 어머니의 許諾을 어더 丁抹의 首府 『코펜하-겐』으로 가서 演劇의 俳優를 志望하얏었다. 그러나 아모 劇場에서도 採用치 안했다. 그는 落望中에 冒險的으로 그 나라 音樂學校에 가서 援助를 請하얏다. 그는 그러케 神奇치 아니한 援助를 어더 冒險的演奏의 初舞臺는 마치었다. 其後幸일는지 不幸일는지 當時 聲樂家의 讚揚을 바다 어느 劇場의 歌手로 잇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아 니되어 그의 美音은 衰退하여졌다. 그래 허는 수 업시 다시금 故鄉에 돌아와서 戲曲創作을 爲始하야 漸次로 詩童話의 經路를 밟아서 脚本은 各劇場에 보내어 熱心으로 上演하기를 請하얏다.

이러케 熱中하게 하는 功이 잇서 필경에는 國立劇場管理人的 推薦으로 二十四歲되는 해에 國費留學의 特典을 바다 스라켈스의 라렌이 란 學校에서 배우게 되었다. 이로부터 안더-센의 純實한 藝術的 生活 이 始作되었던 것이다.

藝術家인 안더-센은 詩人으로 戲曲作家로 小說家의 理想을 가진 이었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보내는 無數한 선물 滋味잇는-童話를 만 히 써 世上에서 남겨 어린이들로 하야금 永遠히그들의 世界에서 살게 하고 지금으로부터 滿五十二年前인 一八七五年八月四日七十一歲의

天壽를 다하고 北歐의 巨星 兒童의 恩人是 永眠하였다한다.

이러듯 功이 만흔 先生을 紀念하기 爲하여 世界의 구석구석에서는 지금에 새스별가튼 눈을 반짝이는 少年少女가 丁抹에서 佛蘭西에서 獨逸에서 스칸디나비아에서 伊太利에서 그 外의 陸地가 連하여 잇고 어린이가 사는 모든 나라에서는 이날을 意味있게 紀念한다. 이제 우리 薄幸한 朝鮮의 어린이 펼쳐로 펴보지 못하고 자라나는 그들을 爲하여 世界의 어린이들을 참으로 알어주는 그 先生을 우리 朝鮮에서도 京鄕 各地 少年團體에서는 그를 意義있게 紀念하는 同時에 우리 어린이를 한걸 더 貴重하게 워해주며 마즈막으로 이 甞에도 오래지안허 그러한 人格者가 出現될출 밋고 甞아서 우리의 少年運動이 氣分運動의 한 階級을 밟어 組織運動의 促進을 바라며 압호로 열리려는 朝鮮少年聯合會에 만흔 祝福이 잇기를 빌고 이만 그친다.

一九二七, 七, 二二 (끝)

— 『조선일보』, 1927. 8. 1

心理學上 見地에서 兒童 讀物 選擇

現下 朝鮮에 잇서 兒童 讀物이라 하면 最近까지 發刊하고 잇는 十餘 種의 少年少女 雜誌와 其外 七, 八 種의 童詩集과 若干의 科學 種類일 것이다. 朝鮮 兒童의 讀物이 外國에 比하면 淸く나 貧弱하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게 疑는 바는 아니겠지만, 淸く나 뒤떨어짐을 말하지 안할 수 업다.

從來 朝鮮에 少年 讀物이 잇섯다 하면 大部分이 童話와 童謠일 것이다. 童話와 童謠가 少年 讀物에 잇서서 가장 重要한 要素를 占領하고 잇다 하면 從來에 말할 수 업는 混沌 狀態에 빠져 잇섯든 것은 事實이다. 勿論 우리의 立場과 周圍의 環境이 許諾치 안할 만큼 論할 수 업는 形便이었다. 그러나 淸く나 內容이 不徹底하고, 그것의 骨子를 차져볼 수 업섯다는 것이다. 讀物 選擇이라 하면 過去에 잇섯든 것을 選擇하고 評한다 하는 것은 甚히 警戒할 일이다. 그럼으로 압날의 讀物 選擇에 對하여 생각하고 取할 것은 取하고, 버릴 것은 敢然히 除去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今年 夏期에 平安道, 黃海道, 京畿 一部分의 各 重要한 都市로만 一個月 餘를 두고 童話 巡廻를 하든 中, 當地의 少年運動者 몇 동무들이 兒童 讀物에 對한 質問과 今後 兒童에 잇서서 어찌한 讀物을 選擇해야 되겠느냐는 討議가 잇섯다. 그래 그네들의 參考와 童話 童謠作家와 쫓는 글쓰는 이들과 父兄 諸氏에게 한갓 參考로 提供하려 한다.

그리고 所謂 朝鮮少年聯合會 教養部라는 重且大한 責任을 마튼 筆者로서는 이 問題에 對하여 慎重히 考慮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 辭讓하였다가 心理學的 考察로 본 나의 感想을 少年 雜誌 執筆者와 一般 父兄에게 公開하고, 朝鮮에 아즉것 讀物 選擇에 對한 具體的 批判이 업는 只今에 잇서서 이것이 議題의 焦點이 되어 嚴正한 批判으로써 朝鮮 少年運動과 兼하여 等閑視할 수 업는 兒童 教育 問題에 關聯한 解決이 잇기를 바라며 만흔 評論으로 압날의 向上 發展을 빈다.

그런데 日前 『朝鮮日報』에 記載된 申孤松 님의 少年 雜誌 讀後感이

라든가, 果木洞인의 어느 小評 그것도 조흔 것이다. 나는 여기에 對해서 말하지 안흐려 한다. 그러나 이 압호로 評을 한다면—어느 形式과 派閥主義에 拘碍되지 말고, 그리고 評者는 公正한 眼目과 冷靜한 態度로 觀察하여 그 作品에 對한 內容을 大凡하게 具體的으로 嚴正한 智識으로써의 批評과 論爭이 잇슴에 諍하 압날의 發展을 企待할 수 잇으며, 모든 것이 理想대로 展開되리라고 맞는다.

讀物이라고 하면 精神의 糧食이다. 身體를 養育하는데 食物이 絶對的으로 必要한 것과 마찬가지로 精神을 養育하는 데는 讀物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身體의 適當한 食物만이 身體를 잘 기르는 것과 가티, 精神의 要求에 適當한 讀物 그것이 精神을 잘 기르는 것이다. 萬若 그러치 못하면 畢竟에는 害毒이 잇을 뿐이오, 有益은 全無할 것이다. 그럼으로 兒童 讀物 選擇의 問題가 생기는 것이다.

— (1), 『중외일보』, 1927. 11. 22

一般이 成長하는 兒童의 身體는 成長 그 時期에 依하여 要求하는 食品을 變更하게 되는 것이다. 個人的에는 그 體質에 適當한 食物을 選擇한다고 하면 發展하고 잇는 兒童의 精神도 亦 發展의 時期에 要求하는 讀物도 다를 것이다. 또 그 個性에 依하여 讀物을 定하는 것이다.

精神上 動作과 生命度를 心理學上으로 考察하여 본다면, 一歲 乃至 六歲에 一 時期를 짓고, 七歲 乃至 十一歲가 또다른 一 時期를 造成하여 動作과 生命의 度數가 此期는 顯著히 飛躍 向上한다. 그리하여 前者를 幼稚期라 하고, 後者를 兒童期라고 稱한다. 그리고 十二歲 乃至 十九歲까지는 心理의 活動이 兒童期로부터 一段 向上하는 것이다.

이것을 青年期の 準備라고 한다. 只今 問題가 되어 잇는 讀者에 關하여 少年少女라고 하면, 卽 兒童 後期の 十歲로부터 十四, 五歲까지의 年齡者를 包含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此 期間에서 어저한 讀物을 選擇하여야 될 것인가를 心理的으로 考察한다면, 第一은 少年期の 心身

活動에 順應할 種類를 選擇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第二는 青年期 壯年期에 잇서서 心身に 正常한 發達을 啓導하고 充實 生活을 持續할 適用物을 選擇하여야 할 것이다.

兒童 精神發達의 時期로부터 吟味하여 보면 幼少한 새는 아즉껏 幻想 世界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으로 少年少女의 讀物은 한편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多種多樣的 것을 넘혀주어야만 되는 것을 父兄들은 注意해야 될 것이다. 少年에게는 勇敢스런 것과 自然科學의 風이 잇는 것—少女에게는 『센티멘탈』한 구습흔 이약이 少女小說風이 잇는 그것으로만 制限을 하고, 男女의 差別을 부친다거나 하는 것은 滋味스럽지 못한 것으로 思惟한다. 願컨대 雜誌나 무엇이든지 十四, 五歲까지 少年 讀物은 구지 少年少女 區別을 하면 兒童에게 滋味업는 印象을 너허주는 것이니, 될 수 잇는대로 避하자는 것이다.

身體의 營養은 雜多의 糧食이 必要한 것과 가티, 精神上 營養에도 男女의 差別을 될 수 잇는대로 無視하고 여러 가지 讀物을 平等으로 넘혀 주어야 할 것이다.

神話, 傳說, 童話, 童謠들도 勿論 조흐나 八, 九歲의 幻想의 꿈世界를 깨우치는 男子에게는 英雄談, 冒險談, 歷史談, 事實談 가튼 것을 짚겨한다. 女子에게는 可憐하고 少年少女에 關한 삶고 애담은 이약이 가튼 것에 趣味를 부치게 된다. 다음 十二, 三歲쯤 되어 性的 傾向이 눈쓰게 되면 趣味가 또 一層 넓고 깊혀져서 現代의 小說과 詩나 劇 가튼 것을 要求하게 된다.

그리고 이 方法을 大概 말하기를 感情的 要求에 應한 것으로써 所謂 文藝讀物이라고 한다. 이것은 兒童 讀物의 一部分이다. 그것이 滲透하여 活動하면 空想에 갖잡고, 感傷的 傾向으로 기울어진다. 精密히 事物을 觀察한다거나, 正確히 徑路를 追求하여 判斷한다거나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좀 強硬한 讀物로 나아가면 精確히 넘을만한 勇氣를 일허버리고 現階段에 선 兒童은 재미를 부치지 안게 된다.

— (2), 『중외일보』, 1927. 11. 23

이처럼 興味를 못 얻는데 對해서는 自然界에 對한 好奇心에 應하여 觀察力이 減少되는 것이다. 汽車, 汽船, 飛行機 等に 對한 興味를 부치고 工夫 考察力을 기르기 爲하여 理科的 讀物을 提供하는 것도 조할 것이다. 이것은 늦드라도 八, 九歲쯤 되어 鮮명한 그 힘을 보고 깨닫기 始作하여 普通學校를 卒業하고 中學校에 入學하여 理科 教育을 適當하게 修行할 것도 한 가지 條件이라고 생각한다. 이 方面의 重要的 것은 理智的 要求에 應하여 所謂 科學 讀物이라고 한다.

어쨌든 少年期에 顯著하게 發展하는 機能은 運動과 知覺이다. 外部 動作이 急速히 敏捷하게 되고, 巧妙한 可能性을 크게 가지고 잇는 時期이다. 外界에 對한 視覺, 味, 臭의 知覺이 銳利 精細하게 되는 可能性을 크게 發揮하는 것은 此 時期에 하는 것이다. 卽, 精神의 外向的 方面이 顯著하게 發展하는데 잇서서 思慮, 反省과 가티 內向的 方面은 또 青年期程에 盛하게 되는 것이다.

上述한 바와 如히 少年의 心理는 禽獸, 蟲魚, 樹木, 沙石, 日月星辰等, 自然界의 事物에 크게 好奇心과 興味를 늦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을 因果로 하여 種種의 戲作遊遙를 始作한다.

그럼으로 自然의 事變 事物을 少年의 好奇心과 興味에 適當한 것, 그리고 自然에 相當한 理解를 알려주며 『이솝프』 物語 가튼 것은 敎訓에 不過하는 가장 짧은 寓話이다. 어느 程度까지는 禽獸가 相談하고, 꽃과 열매가 서로 이약이하며 別님의 이약을 하는 想像化한 것도 조타. 그러나 넘우 虛荒無稽한 것은 少年에게 오히려 虛僞에 빠지게 하는 害가 될 念慮가 잇스니, 이 點에 特히 注意하지 안하면 안 된다.

또 少年은 膽力이 增進하는 時期인 만큼, 活潑 勇敢 그러한 動作을 조화한다. 그러나 只今 少年의 興味만으로써 지은 冒險談은 돌이켜 害가 적지 안타. 少年 自體가 理解할 만한 어느 程度까지는 正義를 目標 삼고 勇敢 活潑하게 지은 作品은 少年 讀物으로써 가장 適當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少年 文藝는 少年의 適當한 心理의 欲求에 糧食이 됴으로써 少年의

마음을 正善으로 指導하지 안하면 안 될 것이다.

『씨푸링』의 『쌍글썩』 中의 이약이는 如上의 見地로써 보아 抽獎할 만한 天空快闊의 讀物이다. 惑은 英雄 史談이나 『스마일스』의 自助談 가튼 것은 少年 精神上 保健的 讀物이라고 생각한다.

現下 朝鮮에 잇서 特히 白衣 少年에게 適當한 讀物을 選擇함에 그에 對한 管見과 注意는 各人の 意思別論으로 主義主張이 다르겠지만, 나의 가장 重大하게 생각하는 것은 左와 如히 三種目으로 列舉하라 한다.

一. 衛生上 障礙가 업는 것으로, 그리고 文字의 大小, 紙質, 眼의 衛生上 害되지 안는 것으로 選擇할 것을 第一 注意할 것이다.

二. 近來 多種의 少年 雜誌가 뒤를 니어 出刊되는 이세에 그 雜誌를 모도 다 맘 노코 넘을 것이냐, 그러치 안타. 여러 子弟들에게 넘히는 父兄들은 雜誌의 選擇에 만흔 注意를 가지지 안하면 안 될 것이다.

— (3), 『중외일보』, 1927. 11. 24

兒童은 善惡을 判定치 못한다. 萬若 그들이 善惡을 判定하는 能力이 잇다면 우리는 教育의 必要를 늦기지 못할 것이며, 實하서 讀物 選擇의 問題가 생길 必要도 업슬 것이다.

讀物로써 感化되는 힘이 가장 偉大한 것이니, 兒童이란 白紙에 스치는 대로 善惡을 긋지 안코 臆見 그대로 記憶하얏다가 다시금 어느 時期에 利用하게 됨으로, 사람은 善에도 強하며 惡에도 強하다. 그리고 兒童은 憤한 記事를 넘을 새에는 義憤을 일으킴을 알며, 젊고도 닳은 記事를 볼 새에는 同情하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리고 惡한 것 強豪한 것이 敗하고 征服이 되면 가장 喜悅하며 安心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道德的 觀念과 情緒의 活動을 助長시키기에 適當한 讀物을 選擇해야 한다.

內容은 兒童에게 興味잇는 것으로…… 그러나 好奇心을 助長시키며 虛榮心을 일으키는 非教育的 記事는 害가 적지 안타. 讀物의 生命은

兒童이 그 內容에 感應 如何에 잇는 것이다. 또 넘우나 興味主義로만 치우치는 讀物은 教育的 意義가 抹殺하기 쉬운 것이다. 近日 出版物 中에는 종종 兒童의 劣等한 興味 그것으로 맘을 살려고 하는 것이 만타. 이것을 判斷하는데는 父兄과 教師의 責任이 크다고 생각한다.

三. 그 個性을 考慮하여 이것에 適當한 것을 取하며…… 讀物에는 一般으로 文學的 趣味에 尙當한 것도 조흐나, 넘우나 치우치게 되면 兒童은 『센티멘탈』의 氣分이 濃厚해질 念慮가 생긴다. 그럼으로 科學的 趣味가 잇는 것과 文學的 趣味가 잇는 그것을 適當하게 料理하여야 個性의 短處를 補充하고, 어느 意味에 잇서서는 個性의 長處를 發揮하는 것에 用意하지 안흐면 안 된다고 思惟한다.

— (4), 『중외일보』, 1927. 11. 25

結論

쓰트로 우리의 少年運動, 其他 모든 運動이 過去의 分散的이오, 孤立的이오, 派閥의인 氣分運動에 날뛰는 그것을 欣然히 버리고 모든 것을 清算하여 統一集力으로 鞏固한 團結로써 組織的 運動으로 方向을 轉換했다고 하면, 우리 少年文藝運動도 在來의 混沌 狀態의 아모 主義主張이 업는 劣等의 拙品, 卽 自己의 이름 내기 爲하여 우에 말한 意義에 未及하는 記事는 쓰지 말기로 하자. 그리고 『요술王』이니 『公主』니, 『王子님』이니 『人形』이니 하는 가튼 童話는 朝鮮 少年과는 懸隔한 距離가 있다. 그러타고 保守的, 傳說的 意味에서 말한 것은 아니다. 外國 童話나 童謠를 收入하는데 가장 先入見을 가지고 白衣 少年에게 무엇 보다도 周圍의 事情에 適合하게 생각되는 能히 그것이 잘 消化되는 것으로 收入하여야 할 것이다. 收入하여 滯症이 생기어서는 안 된다. 過去의 少年 讀物은 넘우나 『센티멘탈』의 氣分이 濃厚한 것이 大部分이었다. 우리의 處地인 만큼 그런 記事를 歡迎하였든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現階級에 잇서 더욱이 만흔 羈絆에 만흔 苦痛과 困難을 當한 少年

들에게 感傷的 그것에만 나아가서는 안 된다. 좀더 科學的 讀物을 要求하며 愉悅을 줄 수 있고 偏奇的 成長에서 解放하며 活潑 勇敢한 記事 美談, 冒險談, 歷史談 그리고 現實을 가장 잘 描寫하는 作品을 要求한다.

좀더 朝鮮의 氣分이 있는 童話 또는 朝鮮의 흠냄새 나는 童謠를 推獎 하여야 된다. 그리고 民族意識이 있는 것으로…… 特히 虐待받고 짓밟히며 차고 어두운 속에서 자라나는 朝鮮의 少年을 爲하여 어린이의 精神生活을 指導하고, 完全한 人格과 充實한 役割을 養成함에 좀더 힘입는 xx의 意識을 너허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少年 教養에 있어서 꾸준한 努力을 함에 우리의 理想鄉이 巴야흐로 멀지 안해서 展開되리라고 미드며, 다음 機會로 밀우고 이만 붓을 놓는다.

— (5), 『중외일보』, 1927. 11. 26

西北 地方 童話 巡房記

京城에서는 기와장이 튀고 車牛가 너머지는 炎熱을 무릅쓰고 모든 多事로운 일거리를 막 처버리며 斷然코 西北 地方을 向하야 京城驛을 떠난 그새가 八月十日 밤 十시 五十五分車이었다.

八月十日=新義州(晴)

京城驛「폴넛폼」에서 오로지 둘도 없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벗 K君을 떨어버리고 奉天行에 몸을 실은 나는 汽笛一聲이 漢陽天地에 한 줄기의 波動을 일으키자, 汽車는 黑煙을 吐하며 떠나기를 始作한다. 그리고 L의「행거취푸」를 내들루며 말업시 눈물만 지우는 그를 그윽히 바라보는 나로서는 帽子를 버서서 흔들었다. 마즈막으로 K君은 『兄님! 大成功하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몸소 健康하십시오.』한다. 그새 나는 마치「캣추사」와「넥홀루도」가 시베리아별판에서 斷腸의 離別을 하는 것과 가티 애처러운 생각이 그윽히 찌도랴다. 그리고 가삼 애는 쓰리고 압흔 눈물이 방울방울 써오름을 깨달았다. 汽車는 벌써 한 모퉁 두 모퉁 지나 新村驛을 부르짖는다. 나는 하는 수 업시 자리에 안저 終日 行裝을 準備하노라고 이리저리 헤매고 나니 께으나 困하여 자리에 누었다.

車 안에서 몸이 몹시도 시달핀 나는 넷 回想이 다시금 새로운 新義州에 倒着하기는 十一日 午前 十一時 三十分이었다. 이곳은 몇번이나 지낸 일이 있고, 또는 나의 가장 잘 아는 知友가 잇는 곳이라, 速히 倒着하여 그를 맞아서 모든 것을 말하리라. 그리고 스테이슌까지 나와서 나를 반갑게 마즈리라. 그뿐 아니라 少年團體의 本社 支局에서도 폴넛폼까지 나와서 마즈렸다 하고, 마춤내 行具를 가지고 나리고 보니 나는 落望치 않을 수 업섯다. 한 사람도 나를 마르져 오는 이는 업섯든 것이다. 하지만 나는 歡迎 그것보다도, 나의 할 실속만 차지면 그만이라고 主張을 해 온 나로서는 그리 怪異하게 생각지는 아니엇섯다.

第一着으로 本社 支局을 차젓스나, 다 아지 못한다고 한다. 더구나

看板이 업는 싸담이다. 新義州 支局도 精神을 채리엇스면 조깅는 것이 다. 그래 하는 수 업시 旅館을 먼저 定하고, 『東亞』 支局을 차저 案内를 밧엇다. 그리고 보니 그날은 分泌가 업서 그 이튿날 十二日 夜 八時 半에 第二禮拜堂에서 童話大會를 本社 支局 主催로 基督教青年會와 『東亞』, 『中外』 兩 支局的 後援으로 開催하얏는데, 少年少女로만 모인 聽衆이 五百餘名에 達하여 新義州에서는 처음 보는 大盛旺이라고 한다. 閉會 後에는 멧 同伴들과 北道 名物인 「렁면」을 한 그릇식 채우고 旅館으로 도라와섯다.

그런데 어제튼 新義州 社會團體가 꺾으나 微弱하다고 볼 수 있다. 卽, 民衆을 爲하여 犧牲하는 相當한 團體가 업고, 모다 有耶無耶 中 꺾으나 沈滯 狀態에서 看板만 維持하는 模樣인가 한다. 新義州 社會여! 좀도 民衆을 爲하여 노력하소서. 特히 『中外』 支局 尹秉炯 氏와 墓靑이 李鳳首 氏와 張亨錫 君에게 感謝를 마지 아니 한다.

十三日=義州(晴)

午後 一時 自動車로 新義州 發하엿다. 途中에 두 번이나 조마한 「쏘트」로 連絡을 하엿다. 그것은 日前 新義州 地方 洪水로 因하여 그처럼 된 것이며, 農作物의 被害가 적지 안타. 그래 한시에 셔난 것이 二時 半애야 舊義州에 倒着하엿다. 이곳에 이른 나는 다시금 가슴에서 용소슴 치고 무엇이 멩기멩기 셔돈다. 이곳은 내가 六年 前 教鞭을 잡든 養實學院을 머릿속에 그리고 某某 知友와 其前 코스물을 흘리며 배우던 弟子들이 그 동안 만히 크고 췌 變헛스렀다 하고 생각할 췌에, 곳 췌어가고 십헛다. 想像하던 것 가티 果然 그럿타. 모든 知友와 내게 배우던 어린 동모들이 꺾으나 반갑게 마지하여 주엿다. 그들은 벌서 어른이 되다 십피 되엿다. 今般 巡廻에 나는 이곳에서 第一 짜뜻한 사랑을 만히 밧엇다는 것이다.

그래 그날 義州少年聯合會 主催로 當地 公會堂에서 童話大會를 開催하니, 聽衆이 무려 六百餘名에 達하여 空前의 盛旺이라 한다. 그재 演題는 「말 잘 들는 少年」 義俠少年이엿다. 閉會 後에는 同伴 四, 五人

이 作伴하여 義州 名勝 統軍亭 下에서 어름 두 그릇식을 채우고 十五夜
바야흐로 둥근 달은 온 대디 우에 빗칠 던질 때, 은빛의 알분 그림자를
발버가며 恨만흔 눈물을 짓고, 밤 十二시에 도라와 旅窓의 자리에 누었다.

十四日 午前에는 義州少年會 創立 紀念式에 參席하여 祝辭 한 마디
를 던져두고 西會堂에서 童話 하나를 선물노 주고 도라왔었다. 當夜에
는 少年問題 講演을 하기로 포스다까지 붓치고 暴雨로 困하여 中止하
고 말었다.

이곳은 國境인만큼 크게 찌드는 곳이다. 그런데 少年運動도 北鮮에
서는 가장 큰 權利를 잡고 있다. 指導者도 만히 研究하려고 애쓰는 것
을 본 나는 敬意를 表한다. 그리고 少年文士들이 만히 게신 곳이다. 其
前 내게 배우던 少年들 中에 만히 잇슴을 나 亦 깃버하는 바며, 將來의
朝鮮을 爲해서 努力할 巨大한 役軍일 것을 미리 말해둔다. 그리고 그들
의 힘으로 北鮮 唯一의 少年少女 雜誌 『朝鮮少年』을 發行하고 있다.
스스로 그들의 卞날의 幸福과 發展을 祝福한다. 特히 崔澤永 氏와 『東
亞』 支局 李昌洙 氏와 基督教青年會 柳仁珪 氏와 朝鮮少年社, 李明植,
劉宗元 兩君에게 感謝함을 마지 아니 한다.

十五日=安東縣(晴)

正午 二時에 知友 一人과 同伴하여 조코마한 帆船에 몸을 던져 恨만
코 뜻깊흔 鴨綠江 上에 한가히 찌서 中國을 向하는 돛단배 江山을 바라
볼 때, 無情한 느낌이 사뭇쳐 흐른다. 船客 中 한 모퉁이에서 손을 가르
치며 숙덕이며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샛파란 물이 용소슴치는 江
물 우에 몸을 던진 한 사람이 잇섯스니, 그는 現實의 不安을 한껏 慈主
하고 最後 一刻을 其江中에 마치고 만 것이다. 아! 그 얼마나 不祥한 人
生에나? 이 所聞을 들은 나의 「하-트」, 참말 말할 수 업는 感激의 눈물
을 禁치 못하였다.

船上에서 쉬임업시 흘러가는 파란 江물을 그윽히 바라보고 잇던 나
의 「하트」는 其刹那에 엇전지 「센티멘탈」化가 되었는지, 全身이 麻醉
狀態인 것 같혔다. 무엇에 그리도 몹시 醉했는지 나 自身도 모른다.

人類는 永遠히 平和가 가득찬 平野(水平線)에서 살지 못하는 條件인가!
아지 못하는, 發見 못하는 「오아시쓰」는 果然 어대 잇스란 말인가?
나는 이러한 詩를 불렀다.

熱情에 뛰노는 鴨綠江水에
외로운 내 靈을 던지려 하노라
애쓰는 마음을 가슴에 안고
漂泊의 길을 써나려 하노라.

얼마 후에 安東縣 船艙에 倒着하였다. 知友의 勸勉으로 人力車를 타고 『東亞』 支局을 찾게 되었다. 賃金은 十里 가량이나 되는데 十五錢이다. 서울 갖해서는 四, 五十錢이나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自己 事務를 보러 간다고 作別을 告하였다. 人力車 우에 올라탄 나로서는 넘우나 惶悚 千萬이었다. 그 우에 올라탄 놈은 누구며, 쓰이는 놈은 누구인가? 다 갖튼 人生이란 박아지를 둘러싼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이곳의 生悚한 노로써는 어찌할 수 업는 形便이었다.

支局을 경 차저 온 後 車夫와 約束한 外에 五錢을 더 주었다. 그러나 절을 허리가 굽실굽실하면서 두어 번 한다. 나는 푸른 옷 낚은 中國人이지만, 저윽히 不祥한 生覺이 들어갔다. 支局長은 못 만나보고 그곳 基督教青年會를 차졌다. 그러나 會館에는 한 사람의 會員도 업고, 쓸쓸하기 그지 업섯다. 나는 혼자서 그곳을 헤매이며 돌아단이다가 午後 三時에 다시 와 보니, 그재이야 所謂 支局長이 安東取引所에서 도라왔다고 한다. 그러나 펍 冷情함을 느꼈었다. 어쨌어 수룩한 記者에게 서투른 紹介를 한다. 하 우습고도 各급症이 생기어 『日前 通知는 바다보셨지요?』 하니, 事實 與否는 仔細히 모르나, 어디 갔다가 오늘이야 와서 밧다고 한다. 그러면 記者도 업단 말인가? 日程이란 安東서는 오늘 하로 썩인데, 午後 五時까지 「포스다」는 드만두고라도, 宣傳도 안 해 노앗스니 開催할 加望은 보이지 안었다.

어쨌든 나는 어린이를 모아 가지고 나의 품은 뜻을 말하는 것이 이번
巡回의 本意라면 그래도 會集하자고 그곳 記者와 基督理事長을 차저
後援을 請했다. 그러나 그도 무슨 通知를 못 받느니, 이제 느졌느
니…… 하는 서투른 말을 쓰낸다.

午後 六時半에 朝鮮民會와 其外 團體를 訪問하니, 그들은 펍으나 未
安한 同情으로 말한다. 진즉 알지 못한 것을 恨한다고, 그래 主催까지
하겠다고, 하로만 더 잇서 달나고 懇請했스나, 日程을 慎重히 녀이는
나로써는 決코 더 잇슬 수 업슴으로 그날 밤은 親切한 金 氏의 案內로
市街의 第一 繁華地로만 視察 求景하고, 其前 五, 六年 前에 보던 安東
과는 判판이라 할만큼 變해졌슴을 알었다. 밤 十二時에 旅館에 도라와
자리에 누었다.

— (1), 『아이생활』, 1927. 11.

十七日=宣川(曇, 雨)

아침 여덟시(朝鮮과 한 시간 差)에 安東驛에서 行具 檢査를 맞치고
宣川을 向하여 車에 몸을 실었다. 壯嚴한 鴨綠江 鐵橋를 지날 때에 「世
界一週歌」의 一節을 불렀다.

午前 十一時에 宣川驛 着하여 『東亞』 支局 記者의 案內로 宣川 基靑
과 四角少年會를 차지니, 미리 桂炳鎬 氏가 마지러 나왔다. 同伴과 가
티 同伴하여 山水조흔 곳에 가서 冷浴을 하니 精神이 如干 상쾌하였다.

오늘은 午後 五時부터 비가 내려붓기 시작하여 줄곧 내려붓는다. 그
리하여 못할 것이라고 斷念하고 잇섯더니, 七時 半쯤 되어 비가 좀 머저
서 童話會는 如前히 開催하였는데, 豫想 以外の 盛旺을 일우워 만흔 滋味
를 보았다. 閉會 後에는 三人이 作伴하여 市街 求景을 하고 氷水 두
그릇씩 먹고 도라와 밤 十二時에 자리에 누었다. 淸호로 桂炳鎬, 鄭道
元 兩氏에게 感謝를 마지 아니 한다.

十八日=定州(曇)

午後 一時에 定州驛에 到着하였다.

『東亞』支局을 차졌다. 그런데 『支局 記者와 其外 青年 二人이 驛頭까지 마즈러 왔으나, 서로 모르고 왔섯든 것이다. 그날 (포스타)는 宏壯히 부치었다. 밤에 그곳 會堂에서 五百餘名의 盛旺이었다.

閉會 後에는 當地 青年 十餘人의 準備하여 노흔 茶菓會에 參席하여 서로 懇談을 討하며 少年運動에 對한 話題로 만흔 재미를 보았다. 그리고 少年會도 組織하라고 하며 本誌도 大々的으로 宣傳한다고 하였다. 특히 金俊煥 先生과 音年 同伴들에게 感謝를 마지 안는다.

十九日=安州(晴)

下午 一時 半에 新安州에 到着하였다. 그리고 二時에야 价川行 輕鐵道를 타고 갔섯다. 엇지 그리 느린지 馬車보다도 더디다는 生覺이 들어다. 車內는 中國 商人들이 거반 占領하다십피 되었다. 一時 半에 安州驛에 着하여 本社 支局을 차졌다. 支局長은 身病으로 修養하러 가시고, 金鶴坤 氏의 親切한 案内로 各 新聞 支局을 訪問하고, 支局 主催아 各 新聞과 新興少年會의 後援으로 童話會 及 少年問題 講演會를 開하니, 演題는 「當面한 朝鮮 少年運動」이었다. 聽衆은 無慮 六百餘名의 盛旺으로 마치었다.

특히 安州는 百祥樓와 望月臺 가튼 古蹟과 傳說이 만은 것으로 보단지, 朝鮮의 第二 開城으로 아즉까지 白衣人이 商權을 모조리 잡고 잇는 것이라던지, 그리고 青年運動, 思想, 社會, 少年, 各 運動도 西北 地方에서는 가장 偉大한 權威를 잡고 있다. 나는 安州에 對한 愛着心이 自然히 發露된다.

마즈막으로 본사 지국과 維新書館 金鶴天 氏와 『東亞』에 玄昌炯, 『中外』丁履日 兩氏에게 感謝를 마지 안는다. 그리고 新興少年會에 만흔 發展을 빈다.

十九日=平壤(晴)

二十日

二十一日

下午 三時에 平壤驛에 着하니, 어린 동무 四, 五人이 나와서 마지한다. 그리하여 나는 곳 案内를 밟아 其前부터 親分이 잇는 南宮懋 牧師宅에 行具를 멈추었다. 平壤 電車 賃금이 빛사다는 생각도 적지 안었다. 그날 午後 五時에 平壤少年會를 차자 가노라니, 到處마다 童話大會의 포스다가 이곳저곳에 붙쳐어 있다. 當地 少年會에서 미리부터 大活動을 開始하여 만흔 準備를 하였슴에 敬意를 表한다. 十日날 밤에 平壤 基督教青年會館에서 童話大會를 열어 만흔 滋味를 보고, 그 이튿날은 少年問題 講演을 하기로 廣告까지 해 노코 當局의 關係로 하지 못하고, 그날 午前은 特히 本誌와 만흔 連絡이 잇는 許震 先生의 招請으로 蓮花洞 主日學校에 가서 童話 「마부와 제비」를 하고 만흔 滋味를 보았다.

午後 五時에 基督教青年會 總務 曹晚植 先生과 가티 簡易食堂에서 그의 親切한 嚴格한 말슴은 낭 만흔 느낌을 주었다. 閉會 後에는 平壤 少年會, 天道教少年會 멧 사람과 茶菓會가 有하다.

스스로 南宮懋, 曹晚植, 許震 先生과 李德仁 氏에게 진심으로서 사례를 마지 한는다.

二十一日 午前에는 少年과 作伴하여 平壤 名勝 乙密臺를 다시금 차져 浮碧樓에서 大同江 綾羅島를 건너다볼 새며 清流壁을 등지며 지나갈 새, 얼마나 感慨無量하였스랴!

平壤에 가서 滋味보고 感想된 것은 이후 時間을 얻으면 다시 쓰려 함으로 簡單히 이것으로서 마칩니다.

二十二日=黃州(晴)

午後 三時 京城行 列車를 탈 터인데, 基督書院에서 相議 件이 있다고 나를 잡기 때문에 하는 수 업시 잡히었다. 그것은 나의 童話集을 大宣傳 하겠다는 約條이였다. 그래 下午 六時 車도 썰나 七時에야 黃州에 倒着하여 當地 養成學校에서 童話大會를 開하니, 黃州에서 어린이 모듬으로는 처음 盛旺이라고 當地 青年은 말한다. 閉會 後 三人이 黃州 名物 冷麵과 黃州 林檎을 먹고 市街地를 一週한 後 밤 一時에 旅館에 도라와 자리에 눕다. 마즈막으로 黃州教會에 感謝함을 마지 안는다.

이 다음 沙里院, 信川, 載寧, 海州, 仁川 童話 巡訪 記事는 페이지의 關係로 來月號에 실리겠습니다. 愛讀者 諸氏는 기다리십쇼. 去番 巡廻에 物質과 精神 兩 方面으로 만흔 便宜를 圖謀해 주신 少年團體와 個人과 本社 支局에게 진심으로 謝禮를 드립니다.(記者)

- (2), 『아이생활』, 1927. 12.

丁卯 一年間 朝鮮 少年運動

一氣分運動에서 組織運動에

緒論

朝鮮의 少年運動이 잇슨 後 過去 一年과 같이 熾熱한 때는 일즉이 업섯다고 본다. 熾熱하였다가보다도 思想上的 分野가 잇서 그저 萎縮하야 무어라 指名키 어렵든 過去의 少年運動이 彼我的 分別이 明白해지고 좀 더 徹底한 意味가 보이게 되었다.

一九二六年에 陣容을 整制한 朝鮮 少年運動이 一九二七年에 至하야는 그에 一步를 더하야 組織的이었고, 深刻味가 잇섯다. 『그저 되나 보자구나』 하든 過去의 氣分 乃至 切利心에 依據하였든 少年運動이 적어도 一定한 方式 앞에서 具體的인 打算案을 가지고 當하게 되었던 것이다.

實로 一年間의 朝鮮의 少年運動은 質로던지 量으로던지 적지 아니한 收穫을 어뎠든 것이다. 混沌, 缺裂, 紛亂의 渦中에서 彷徨하든 朝鮮의 少年運動이 全朝鮮少年聯合會를 一線으로 하야 階段을 넘어 그 歸着點을 發見하게 되었다 아니할 수 업스며, 實하서 氣分 運動에서 組織的 運動으로 方向이 轉換됨에 對하야 確實히 우리는 자랑할 바이며, 또한 少年團體의 郡 同盟이 各地에 組織되고 道 聯盟을 일으키게 된 것이 라던지, 또는 職業別의 勞動少年團體가 생긴 것으로 보아 그 얼마마한 長足の 進歩를 하얏다 할가!

一九二七年에 朝鮮의 少年運動은 一九二六年 그것에 比하야 實로 隔世의 感이 잇다 할 것이며, 質으로 量으로 發生 또는 教育되었다고 볼 수 잇는 것이다.

이제 過去 一年間의 全朝鮮의 少年運動을 至極히 簡單하나마 其 大體만을 分裂에서 統一 … 方向轉換 … 實際 運動 … 理論 鬪爭의 順序로 論하야 보고자 한다.

分裂에서 統一로

우리는 一九二七年을 少年의 ××的 結成 過程으로 본다. 우리의 唯一한 武器는 團結이다. 團結이란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요, 大衆 自體의 間斷업는 實踐에 依하여 戰取되는 것이니, 運動이 出發하자마자 곳 結成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 가지 大小 過程을 지내야 비로소 結成되는 것이다.

그런데 朝鮮 少年運動은 미처 그런 過程을 過程하지 못한 것이니, 所謂 分裂이 單一路線의 編成을 妨害하여 왔다. 그 結果는 實로 運動의 前進을 沮喪하였나니, 一九二七年은 드디어 運動 自體로 하여금 分裂에 對한 大膽한 開戰을 命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其後 少年運動에 잇서서는 少年運動者協會라던가 五月會가 從來의 派閥의인 『아이씨』를 揚棄 乃至 克服하고, 七月三十日에 이르러 全 運動을 團體化 集中化하기 爲하여 從來의 軋轢 中傷을 超越하여 少年運動의 最高 機關인 朝鮮少年聯合會 發起大會를 六十八 個 團體와 四 個 聯盟의 承認으로써 六十餘名의 代議員이 侍天教堂에 모인 일에 發起大會를 無事히 마치고 創立 準備委員 十五人을 認定하여 各 其 任務에 當게 되었었다.

이것은 두 말을 기다리지 안코 必然的으로 그러케 된 것이니, 卽 五月會 對 少年運動者協會에 對하여 必然的으로 일어나는 刷新派, 中間派의 大勢는 이 두 樹立의 存在를 內的으로 必要치 안하였고, 또 全朝鮮 解放運動이 社會主義 對 民族主義의 兩立으로 必要를 늦기지 안코 單一運動으로 展開됨에 צל아 少年運動의 『모-토』도 決定的으로 社會的 進出을 要求하게 되었든 것이다.

換言하면, 在來의 自然生長期로부터 昨年 七月은 最高 派閥運動의 總決算으로 하고, 意識 있는 組織的 運動期에 들어 왔었다.

十月에 들면서 斷案으로 내려오든 朝鮮 少年運動의 總力量을 集中한 最高 本營인 朝鮮少年聯合會 創立大會는 豫定과 가티 天道教 紀

念館에서 十六, 十七 兩日間の 會議가 創立되었나니, 이 會集이야말로 朝鮮 少年運動의 歷史的 會議라고 하지 안할 수 업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말로 離散으로부터 統一에, 氣分運動으로부터 組織的 運動에 轉換할 絶對 必要의 當面的 確然性を 가져 온 것이다.

方向轉換

過去의 少年運動은 氣分的으로 少年會 組織 또는 雜誌 刊行 … 卽 다시 밧구어 말하자면, 少年保護運動의 進出에 不過하였든 것이다. 그리하여 이 運動은 何等 思想이나 主義를 加味치 안코 純然한 少年의 趣味 增長, 學校 教養의 補充 教材를 하여 왔섯든 것은 事實이다.

朝鮮의 社會運動이 自然生長的 組合主義의 ××으로부터 政治運動으로 方向을 轉換하였다. 다시 말하면 社會主義 對 民族主義의 幄手는 또한 全 運動의 一 部門이라고 할 수 있는 少年團體까지도 波及케 되었다. 말하자면 少年運動도 朝鮮 모든 社會運動과 가티 『클라식』運動에서 大集團의 運動으로 『모-토』를 轉換하게 되었다. 卽, 自然生長期로부터 目的意識期에 들어 왔다는 것이다.

少年運動者協會와 五月會의 對立은 其 裡面에 엇더한 衝突이 잇었음을 말하기 前에, 其 重大한 原因은 思想的 分野가 잇섯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卽, 民族主義를 加味한 思想이라든가, 社會主義를 標榜한 運動이었다. 그럼으로 初期의 必然으로 잇는 分裂이 잇섯다. 卽, 五月一日 『어린이날』을 두고 보더라도 其 醜態를 알 수가 잇는 것이다.

客觀的 情勢란 무서운 것이다. 五月會 對 少年運動者協會에 對한 各 地方 團體의 熾熱한 反對運動이 蜂起하여 그의 中間派는 다시금 大集團運動을 일으키어 朝鮮少年聯合會를 創立하였나니, 이것이야말로 少年運動 自體의 內的 發展이라 하겠다. 그러면 方向轉換의 實證的 產物이란, 卽 朝鮮少年聯合會 그것이다.

- (1), 『조선일보』, 1928. 1. 11

實際 運動

五月 一日의 全朝鮮의 어린이날 紀念은 每年 宣傳하야 왔스나, 丁卯年 가티 盛大하게 舉行하기는 過去에 잇서서 일즉이 보지 못하얏다. 京鄉 各 地方에서 旗 行列, 童話會, 講演會, 園遊會 等, 中止 禁止, 解散 裡에 그래도 盛旺하게 舉行되였다.

京城에서는 五月 三日에 旗 行列에 參加한 少年少女가 實로 五千餘名에 達하야 京城 天地를 뒤흔들었스며, 映畫 大會 惑은 演藝 大會는 자못 前에 보지 못하던 盛況이였다.

그리고 往年 米國人 許時模의 少年 私刑 事件을 비롯하야 釜山, 大邱, 咸興 等, 各地에서 發生하얏던 私刑 事件에 對한 各 少年團體의 蹶起는 자못 非常한 氣勢를 보히였다. 그리고 또 少年團體 解體에 對하야는 咸興 洪原 事件이 잇섯고, 江原道 華川 少年會 件에 對하야는 積極的으로 擁護 又是 對抗策을 研究하는 한편, 特派員을 派送하야 事件 顛末을 調查하야써 大衆에게 闡明 又是 公布하야 어느 程度까지 好 結果를 보히였다. 그뿐만 아니라 大邱, 光州 等地的 製絲工場의 少年聯盟 事件에 잇서서도 相當히 收穫이 잇섯다고 볼 수 잇는 것이다.

七月에 들며 朝鮮少年文藝聯盟이 創立되였고, 九月 一日에 朝鮮에 優秀한 童謠作家를 網羅하야 朝鮮童謠研究會가 創立되였다. 그리고 十月 下旬에 들어가서는 朝鮮 兒童에 對한 教養 問題와 根本策이 되는 兒童圖書館을 몇몇 有志들의 손으로 發起하게 되였다. 이 모든 것을 보야 一九二六年에 比하야는 隔世의 感이 엇다고 할 수가 엇는 것이다.

理論 鬪爭

理論이 엇는 實踐은 妄動이오, 實踐이 엇는 理論은 空論인 줄을 우리는 잘 안다. 그리고 理論이란 社會運動뿐만 아니라 少年運動에 잇서서도 絶對 不可缺의 것이다.

그러커늘 朝鮮에 잇서서는 從來에 理論이 等閑視되어 왔다. 그러나

그 잘못의 決定的 原因은 少年運動者에게 물리는 것보다 其 運動 自體의 發展 階段이 幼稚하였다는 것에 물리는 것이 正當할 것이다. 그러나 過去 一年間의 理論은 相當히 展開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일찍히 丁洪教 君이 五月 一日 어린이날을 期하여 方向轉換論을 簡單하나마 쓴 적이 있는 줄 안다. 仔細히 記憶되지는 아니 하나 氣分 運動에서 組織 運動으로의 方向을 轉換하는 同時에, 派閥主義를 除去하여 統一的 方向으로 展開하여 나아가자는 것이 그 骨子인 듯싶다.

그리고 筆者도 「朝鮮少年聯合會 發起 大會를 압두고」란 題目下에 일찍히 멧 마디 쓴 일이 있었다. 其 大要是…

『朝鮮 少年運動은 方今 一大 轉換의 必要에 다다랐나니, 分立으로부터 統一로의 劃時期的 飛躍이 그것이다. 小黨 分立은 運動이 幼稚한 때에만 있는 것이니, 運動의 發展에 딸아서 그것은 또한 必然的으로 統一로의 轉換을 要求하게 된다. 漸漸 有力하게 展開되는 朝鮮의 少年運動은 『分裂에서 統一로』, 이 重大한 轉換이야말로 全 生命에 關한 一大 重要 問題이다. 이 重大한 轉換을 速히 實現시키기 爲하여 傳來의 모든 精神과 싸워서 統一의 陳頭에 날리게 하자!』

換言하면, 朝鮮의 少年運動은 統一的으로 …組織的으로… 計劃的으로 하자는 理論의 展開이었다.

八月에 崔靑谷 君은 「方向을 轉換해야 할 朝鮮 少年運動」이란 題下에 簡單히 『中外』 紙上에 發表한 것이 있었다. 나는 이것을 記憶한다. 其 大要是…

『朝鮮 少年軍의 任務, 朝鮮 少年 文藝運動의 任務(其外 一은 생각나지 않는다), 엇재든 朝鮮 少年 大衆이 無產者인만큼 小 資本主義의 運動으로부터, 換言하면 沒落 過程에 있는 少年運動의 『모-토』를 轉換하여 無產文學을 少年에게 紹介하자는 것이다.』

九月에 들며 申孤松 君의 少年 雜誌 讀後感을 비롯하여 果木洞人, 筆者의 兒童 讀物 選擇에 對한 論文이며, 宮井洞人과 赤兒 君의 雜誌 總評이라던가, 實로 불만한 것이 만하였다.

年終에 臨迫하여 洪銀星 君의 「少年運動과 그의 文藝運動의 理論的 確立」이란 論文을 發表한 것을 안다. 그리고 同君 對 赤兒 君의 理論 鬪爭이 잇섯다. 筆者는 무엇보다도 洪 君의 意見이 나와 가틈을 보고 未知의 健實한 同志임을 말하여 둔다. 꾸준히 努力하기를 바란다.

結論

여러 가지 環境이 少年運動을 일으키게 한 것은 確實한 일이지마는, 그러케도 ×××의 高壓이 잇슴에도 不拘하고, 反動分子(灰色分子)의 沮 害가 잇슴에도 不拘하고, 얼마 되지 않는 남은 동안에 今日의 發展을 보게 된 것은 얼마나 반가운 일이나.

經濟的 政治的 ××××의 ××에 ××하는 朝鮮××은 恒常 生活 不安과 思想의 苦痛으로 不滿의 氣分과 態度를 取치 안할 수 업섯다. 이러한 生活을 背景으로 한 우리는 오로지 少年運動을 일으키어 왔다.

不過 六, 七年의 歷史를 가진 朝鮮의 少年運動이 偉大한 戰績은 업섯스나, 過去 一年의 朝鮮 少年運動을 總觀하면 氣分에서 組織으로 … 分立에서 統一로… 運動의 陣容이 整頓된 感이 업지 안타. 이에 轉換期를 넘는 朝鮮의 少年運動이 小數 思想家의 손을 떠나 農村에서 工場에서 街路에서 實際的으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니, 이곳 少年運動의 民衆化가 그것이다.

— (2) 『조선일보』, 1928. 1. 12

少年運動의 指導 精神

朝鮮의 少年運動이 있는 後 過去 六, 七年間 어느 程度까지는 發展이 있엇으나, 넘우나 混沌 決裂 分裂의 渦中에서 彷徨하였든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過去 一年間의 少年運動은 質로든지 量으로든지 적지 아니한 收穫을 어뎠다고 아니 할 수 업스며, 一九二六年의 그것에 比하여 隔世의 感이 있다 할 것이며, 더욱이 紀念할만한 事實이 陰으로든지 陽으로든지 發生 又は 發育되었다고 볼 수 있다.

氣分에서 組織 運動으로, 自然生長期로부터 目的意識期로 왔다. 다시 말하면 過去의 自然生長期로부터 昨年 七月 三十日을 期하여 過去 派閥 運動의 總決算을 하고 意識 있는 組織的 들어왔다는 것이다.

從來의 朝鮮 少年運動에 잇서 指導 精神이 넘우나 混沌 狀態에 沒落되어 아무 主義主張 업시 理論 確立을 볼 수 업섯든 것이 九月에 잡아 들어 漸次 理論 鬪爭이 展開되어 各自의 意識別論으로 少年運動과 兼하여 少年文藝運動에 對한 理論이 展開됨에 따라서 만흔 興味를 느끼게 되었다.

現下 朝鮮 少年의 指導 精神에 對하여 나는 이제 簡單하나마 적어보려고 한다.

少年은 青年보담 한 거름 더 느껴서 將來에 잇서서 社會 經營의 責任을 擔當할 이들이다. 俗談에 『사람 될 것은 석넙부터 안다』고 하는 것과 가티, 어렸을 때에 한번 精神이 바로 박히면 그것이 꺾으나 힘있게 그 一年生 行路를 決定하는 것이니, 이러한 點을 生覺할 때에 社會의 將來에 對하여 向念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指導 精神을 等閑視할 수 잇스랴!

그럼으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잇서서던지 初等教育이라는 것이 國民教育으로 되어서 或은 義務의으로 或은 勸誘的으로 되어 그 普及에 向하여 必然的으로 努力할 것이나, 그것은 참으로 當然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第二 國民으로써 任務를 가지게 된 少年은 여기에 必然的으

로 初期 運動의 中心이 靑年運動이 되는 同時에 少年運動의 任務가 甚히 重大하여지는 것이다. 더구나 改革的 任務가 있어서 그러하나니 中國의 國民革命運動이 아직까지 學生運動을 그의 가장 重要的 部門으로 알고 있고, 露西亞에서 少年及 幼年의 敎養 修練에 가장 細心의 注意를 하고 잇슴은 우리의 잘 아는 바이다. 그러면 朝鮮의 少年運動에 있어서 그 指導 精神은 어찌하여야 할까? 여기에 나는 張皇히 말코져 안커니와, 現實을 輕視하는 少年運動은 民族的 一 部門으로의 少年運動의 任務를 遂行하지 못할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 (상), 『중외일보』, 1928. 1. 13

이 點에 있어서 우리 靑年運動과 少年運動에 對하여 그의 根本的 指導 精神에 있어서 어찌한 特殊한 差別을 두고져 아니 한다. 다시 말하면 少年運動도 다른 모든 運動과 가티 그의 指導 精神을 樹立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留意하여야 할 것은 朝鮮 民族의 現實的 環境이 되어야 한다.

或者是 少年運動의 本意가 天真性的 涵養에 잇다 한다 하여 現實에 置重함을 反對한다. 그러나 少年運動의 任務가 第二 國民으로의 敎養에 잇고, 現實을 떠나서 살 수 업는 民族의 生活이 不可能한 것은 누구나 否認치 못할 事實이기 때문이다.

朝鮮의 情勢는 時時刻刻으로 變한다. 階級과 階級의 路線은 나날이 急迫해 온다. 이 때에 다만 情緒運動에 安住할 수는 업는 것이다. 過去의 運動은 일로써 清算해버리고, 다시금 新方向을 展開하지 아니 하면 안 될 것이다.

朝鮮의 少年의 八, 九割은 無產者인만큼 그들은 農村에서 工場에서 過重한 勞役に 울부짖고 잇지 안흔가? 그날의 糊口의 難을 免치 못하여 조밥이나마 변변히 어더먹지 못하는 오늘날 이 現實을 어찌케 보는가? 現實, 그것이 달려드는 것이다.

勿論 少年과 幼年은 青年과 달라서 趣味로써 쓰이고 그의 天真性을 涵養함에 不節히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만 執着됨으로 指導 精神을 閉却하고 말은 根本 精神을 이짓다 아니 할 수 업슬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戊辰年을 際하여 特히 이와 가튼 指導 精神에 留意할 것을 少年指導者 諸氏에게 말하여 둔다.

或者는 少年을 教養하는 機關이 完備되면 特別히 少年運動이라는 것이 그 必要가 업스리라 한다. 그것도 어느 程度까지는 主張될 말이다. 그러나 學校教育 以外에서 어더질 少年의 訓練이라는 것을 이르킬 수 있는 것이니 『쏘이스카우트』 가튼 것은 그러한 意味에의 少年運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現下 朝鮮에 잇서서의 少年運動이라는 것은 그 指導 精神이 『쏘이스카우트』와는 斷乎히 다를 것이 잇서야 할 것은 重言할 必要가 업다는 것이다.

朝鮮의 少年運動은 民族的으로 社會的으로 世界 大勢의 必然에 應하여 人類教育의 重大한 精神에 依하여 指導하지 안하면 안 될 것이니, 換言하면 人類의 最高 理想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光線을 비롯하여 그것을 비취어 보아서 살길을 차져내지 안하면 안 될 것이다.

朝鮮 少年의 環境은 그것에 그대로 副應해 나갈 性質의 것이 아니다. 何如間 그 指導 精神에 잇서서 만흔 理論 鬪爭이 公開되어야 하겠고, 實해서 指導 精神을 確立하여 참으로 眞正한 意味에 잇서서 世界 平和와 人類의 幸福을 爲하여 努力하는 것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럼으로 이와 가튼 重大한 使命을 지고 나갈 鬪士들은 모든 難關을 물리치고 꾸준히 싸와 나아감에 반듯이 成功이 잇을 것으로 믿는다.

一九二七. 一. 一〇

— (하), 『중외일보』, 1928. 1. 14

少年運動의 當面 問題

— 崔靑谷 君의 所論을 駁함

辯論

近日『朝鮮日報』를 통하여 崔 君의 少年運動의 當面 諸 問題라는 커다란 標題를 걸고 文章의 粗雜한 것은 그만두고라도 要領不得의 잡고 대 가튼 소리를 羅列해 노았다. 그런데 이 問題가 重且大한 問題인 만큼, 가장 慎重하게 嚴正한 態도와 冷靜한 頭腦로써 觀察 又は 理論을 展開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적어도 過去 七, 八年間의 歷史를 가진 朝鮮의 少年運動을 一切 否認 云云하고, 自己 以外에는 少年運動者가 업는 것처럼 大言壯語하였다. 무슨 運動이나 더욱이 少年運動에 잇서서는 그야말로 同志들의 舉動 一致의 努力에 依하여 促成된 것이오, 決코 一小 클럽의 獨占的 功績이 아닌 것은 勿論이다. 獨斷과 偶然을 論하는 觀念論者가 아닌 以上에는, 全體의 功績을 一部에서 騙取自誇하여 傍若無人의 態度를 取할 者는 업슬 것이다. 적어도 唯物史觀을 알고 因果關係에서 事物을 理解하고 辨證法的으로 現狀을 分析 把握하는 우리로써는 決코 그와 가튼 妄斷을 敢行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러한 徒輩가 잇다 하면, 그들은 虛榮的 反動輩와 妄自尊大로써 徹底히 排擊치 아니 하면 안 될 것이다.

이제 張皇히 말치 안커니와, 나는 崔 君의 頽廢한 論을 읽고서 黠過할 수 업슴으로 이제로부터 崔 君의 論文을 引用하여 나의 主見을 樹立하는 同時, 崔 君의 少年運動에 對한 誤謬 認識의 錯誤를 條目을 들어 檢討하려고 한다.

崔 君은 이리케 말하였다.

『분명한 의상과 주장으로 대한다면 모르거니와, 맹목적이오 독재적이오 전재적인 소년운동자가 얼마나 잇슬는지 구구히 이곳에서는 말삼을 피하나, 소년운동을 위하신다는 말 조케 운동자의 양심의 고백을 희

망하길 마지 않습니다. 얼마마한 그 진영으로, 얼마마한 그 주장으로, 얼마마한 성의로 소년운동자의 행세를 하는지, 소년운동을 하여 소년운동은 진실로 한심하기 마지 않습니다.』

以上은 贅言을 羅列해 노았다. 君은 不知 못하는가? 朝鮮의 少年運動이 잇슨 後 過去 七, 八年間 어느 程度까지 發展이 잇섯스나, 넘어나 混沌 紛亂의 渦中에서 彷徨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否認치 못할 事實이다. 一九二六年에 陣容을 整制한 朝鮮 少年運動이 一九二七年에 至하여야 그에 一步를 더하여 組織的이었고 深刻味가 잇섯다. 『그러 되나 보자구나』 하는 過去 氣分 乃至 功利心에 依據하였던 少年運動이 적어도 一定한 方式 알에에 具體的 打算案을 가지고 일에 當게 되었던 것이다. 全朝鮮少年聯合會를 一界線으로 하여 其 歸着點을 發見하게 된 것이라던지, 氣分 運動에서 組織的 運動으로 方向이 轉換됨에 對하여 質로던지 量으로던지 적지 아니 한 收穫을 어뎠다 아니 할 수 없으며, 確實히 우리의 자랑할 바의 事實이 아닌가 말이다.

一九二六七의 朝鮮의 少年運動은 過去 七, 八年 그것에 比하여 隔世의 感이 잇다 할 것이며, 더욱히 祈念할 事實이 만나 하는 것이다. 換言하면, 氣分 運動에서 組織的 運動으로—自然生長期로부터 目的 實踐期로 왔다.

— (1), 『조선일보』, 1928. 2. 8

崔 君은 現下의 朝鮮 少年運動의 情勢를 잘 알고 말했스면 조켓다 함 에도 不拘하고, 眼下無人格으로 獅子가 잠잘 때 호랑이 제 멧에 짓쳐 덤비는 셈으로 그야말로 脾胃가 傷하지 안힐 수 없다. 君의 말과 가티 아모 意識과 主張이 업시 일에 對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몰으켓다마는, 적어도 누구나 意識이 업시 덤비는 사람은 업슬 것이다. 그리고 盲目的 이오 獨裁的이오 傳統的인 少年運動者뿐이라고? 過去 넛날에 잇서서 는 몰으켓다. 또 運動의 幼稚한 때에는 小黨分立 專制獨斷은 必然的으

로 잇슬 過程임을 우리는 잘 안다. 그리고 運動의 發展에 쌓아서 必然的으로 統一로의 轉換을 要求하게 되는 것이다. 漸漸 有力하게 發展되는 朝鮮 少年運動은 分裂에서 統一로의 全生命에 關한 一大 重要 問題가 이미 昨年 一年을 通하여 其 歸着點을 보지 안헛는가 말이다. 君으로써 이제야 이 말을 늘어 놓는 것은 넘우나 時代의 뒤스찌러지는 소리로 看做할 수맛게 업다는 말이다.

나는 君에게 反問하려 한다. 君은 大關節 얼마마한 主張으로 如何한 誠意로 少年運動者의 行勢를 하였는가 말이다. 君의 良心의 숨김업는 告白을 公開하였고……?. 君이야말로 實踐을 爲한 理論이 아니고 理論을 爲한 妄論에 不過한 말이다.

地方에 잇는 執行委員 乃至 代議員을 君의 獨占的으로 無視한다고 윈눈이라 ㅅㅅ할 배 萬無하지만, 君과 가튼 少年運動의 妄動者에게는 xx를 내리지 안할 수 업다. 그러타고 놀라지 말 것이다. ㅅㅅ까지 鬪爭을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君의 處地로써 아즉 어린 少年運動者로 것처럼 輕舉妄動할 줄이야 ㅅㅅ하지 아니 하얏다는 말이다. 君은 大體 中央機關에 잇서서 무엇 하나 내노흔 것이 잇스며, 中央常務委員의 一人으로써 君의 言及한 以上の 條件을 남김업시 實踐하고 大言壯語하는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人格上 큰 損失임을 마지 안는가?

그리고 眞實한 少年運動者는 中央에서 功利心에 依據에 엄병덤병하는 그네들보다(勿論 다 그러타는 말은 아니다) ㅅㅅ다운 少年運動者를 차져보자면 모름직이 地方으로 農村으로 차져오라는 말이다.

細胞 團體의 再組織

어느 運動을 勿論하고 其 組織體가 完全히 結成되어야만 일에 잇서 容易하게 運轉해 갈 수 잇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안다. 그리고 健全 人格(四字 略)이야말로 少年運動의 重要한 要素일 것이다.

그럼으로 나는 일직이 同志 멧 사람과 委員會 席上에서 우리 組織體를 完全히 함에는 從來의 局部的이오 孤立的이오 封建的인 非組織體

를 解體하는 同時에, 朝鮮青年總聯盟에서 樹立한 組織 原則上에 빚치어 一層 大乘의 總力量을 集中하고, 現下 朝鮮青年總聯盟의 組織體와 가티 少年運動의 指導와 統制를 敏活히 하고, 單一 少年群 同盟으로 組織을 擴大 革新하자는 地方 代議員 및 同伴들과 가티 建議案을 提出 惑은 力說함에도 不拘하고, 中央機關에 잇서 君 亦是 反對論者의 一人 이 아닌가 말이다.

反對 理由에 잇서 這間에 ××運動이 潛在해 잇섯슴을 여기에 구구히 말을 避하고 쉽다. 엇제튼 聯合會體이란 文句부터가 極 微弱해 보이고, 다시 말하면 何等의 情熱의 ××가 들어가지 안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君은 이제야 새삼스러히 멧침이나 뒤스려러지는 소리를 내놓게 되니 얼마나한 時代的 錯覺者이나? 君의 云云한 바 細胞團體의 再組織은 中央組織의 最高機關이 根本的으로 組織體를 總同盟體로 再組織을 하기 前에는 細胞團體는 잘아서 容易하게 實現될 수 업슬 것이 어느 程度까지 體驗한 바 事實이다.

- (2), 『조선일보』, 1928. 2. 9

그럼으로 나는 組織 問題에 잇서 朝鮮 少年運動의 總力量을 集中化한 最高 本營인 朝鮮少年聯合會 그것을 總同盟體로 今年 三月 定期大會를 期約하야 새로히 組織體를 變更하야야 되겟다는 것을 再三 主張하며 力說하고 쉽다. 그러면 全朝鮮 各地에 散在한 細胞團體는 自然히 必然的으로 그대로 實行될 것은 여기에 啾啾한 說明을 要치 안는 것이다.

그리고 綱領과 規約을 새로히 制定하야야 하겟고, 무엇보다도 緊急한 것은 오늘날 朝鮮 少年運動의 指導 精神을 確立하고, 모든 父兄 箇箇와 大衆에게 公布하야 우리 少年運動을 民衆化하게 努力할지며, 在來의 運動보다 一層 今年 戊辰年에 잡아들어 새로운 面目으로 새 運動의 陣容을 展開해 나아가지 안흐면 안 될 絶對 必然性을 가지였다. 君은 또 左記와 가튼 말을 하얏다.

『조선 소년운동은 봉건덕 사상과 항쟁함으로써 출발한 것이나 하등의 가명과 연락을 못하고 그 가명의 눈을 피하여 소년은 용납하였으나 정세는 출발 당시보다 보잘 것이 업스며 눈썹 지식계급조차 이 운동을 진실로 인식치 아니함으로, 데일선에선 그 운동도 할 수 업시 기회주의로 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로는 데일선에선 운동자의 고통받는 그것뿐이지요 할 짜름입니다.』하였다.

筆者亦是 어느 程度까지 君의 論을 是認 안하는 바는 아니나, 이 말은 벌써 할말을 이제 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朝鮮의 모든 運動의 現階段에 있어서 過去의 自然生長期로부터 目的意識期로 轉換함에 우리 모든 運動의 總力量을 集中化한 民族的 單一黨인 新幹會가 있지 안하냐?

現下에 있어서 우리 社會運動의 一 部門인 少年運動을 否認하며 反對할 이는 업스리라고 思惟한다(萬若 있다고 하면 別人物 問題로 말하고). 오늘날 ××運動을 함에 少年運動을 가장 重要한 部門으로 알고 있고, 少年 及 幼年의 教養 指導에 細音의 注意를 가지고 잇슴은 우리의 잘 아는 바의 事實이다.

또 君은 左記와 가튼 要領不得의 말을 敢行하였다.

『지안을 몰래 나와서 소년회로 오는 少年으로 목덕의식이니 방향전환이니 하는 말을 듣고 엇지 무지한지 아니 우슬 수가 업습니다. 급히 말씀하면 청년운동에 있어서든 소년운동에 있어서던지 靑年을 少年으로 글자만 바꾸어 사상 서적에서 번역하기에 애를 쓰매 소년운동의 실재를 무시하는 막론자로 만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선소년연합회 교양부위원장 김태오 씨의 교양부 위원을 맞혔스면 합니다.』

筆者는 君의 頽廢한 論에 있어서 其 骨子를 차저볼 수 업다는 것이다. 누가 少年을 向하야 目的意識이니 方向轉換이니 하였다는 말인가? 누구나 그 말이 잇섯다 하면 指導者에게 하는 말일 것이다. 君은 그 글을 對함에 웨 그리도 觀察力이 不足한가 말이다. 참으로 進行의 아모 計劃이 업서 막 찌드는 것으로 일이 될 수 업고, 함부로 일을 저질러 놓는 것으로 成功할 수 업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君은 目的意識이 있다는 것을 否認하는가? 萬一 否認한다면 君의 態度가 尤甚 模糊하다. 宇宙의 모든 事物의 一舉一動이 모다 目的이 있다는 말까지 否認하겠는가?

그럼으로 觀念 我가 假像의 觀照에 沒入하였다고는 할 수 업는 것이고, 그것이 必然性을 가져야 目的意識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고야 말 少年運動도 반드시 目的意識을 세워 노코 일에 當케 되어야 한다.

- (3), 『조선일보』, 1928. 2. 11

君은 또 方向轉換 反對論者이다. 오늘에 잇서서 모든 運動을 通하여 이러한 人物은 要求치 안는다. 우리는 徹頭徹尾 이러한 分子는 排擊하여야만 하겠다. 君은 또 『青年運動에 잇서서를……少年運動에 잇서서……』하고 云云하였다. 그러면 思想家로 看做하는가? 君은 確實히 灰色分子이다. 派閥運動者이다. 君아- 보아라. 오늘날 少年運動은 民族的 一 部門으로의 現實을 無視하는 少年運動은 少年運動의 任務를 遂行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그럼으로 少年運動은 全××運動의 正統的 連鎖的 機關임이 否認치 못할 事實이다. 그래서 少年運動을 따로 孤立하여 외스싼길을 取하며, 單 方向으로 進行할 수 업는 必然的 條件이 눈압헤 擡頭하여 있다.

그뿐 아니라 目下 朝鮮 少年運動者(指導者)들은 舉皆 青年運動者임이 틀림없다. 中央에 몇 사람을 除한 外에는 地方에 잇서서는 十分之九割은 青年運動者임이 숨길 수 업는 事實이다. 君은 言必稱 青年運動者로써 少年運動에 발을 맞추는 사람은 反動分子로 看做할 수밖게 업다고 했지만, 그것은 現下 朝鮮의 運動을 沒覺하고 하는 말이다. 길게 말하지 안커니와, 朝鮮의 모든 運動-少年, 青年, 勞働, 農民, 衡平, 女性, 各 運動을 新幹會로 總力量을 集中하여야 할 것은 지금에 啾啾히 說明치 안트라도 다 아는 正統的 事實이다.

君은 또 나더러 『少年運動에 만흔 研究를 한 後에 教養部 委員을 맞

흐라』고 하였지? 君의 冷靜한 忠告라면 달게 받겠다. 그러나 敎養部에
잇서서 自稱해서 責任을 맞춘 것도 아니요, 衆望에 依하여 委員들이 選
擧함에 不得已 職任에 當케 되었든 것이다.

그런데 아직 君의 處地로써 이 말을 敢發함은 넘우나 지나치는 일일
것이다. 말이 나왔스닛가 말이지, 나 亦是 少年運動을 爲하여 싸워 온
지가 모름직이 十餘 星霜의 長久한 歲月이엇음을 말하지 안할 수 업다.

一九一九年 여름에 光州 楊波亭에서 同志 十餘人이 會集하여 呱呱
의 聲을 發하여 少年團을 組織하고 씩씩한 同志를 糾合한 後, 各其 任
務에 當케 되어 오늘날까지 모름직이 꾸준히 싸워 왔든 것이 事實이다. 朝
鮮 少年運動의 最初 發產地를 晉州라고 하지만, 그 實은 光州일 것이
다. 其 當時 新聞에 發表는 안헛슬 썬이다. ××運動을 實際的으로 展開
하여 나가면 그만이라는 信條와 主張을 가지기 재문이다. 그리고 君은
만은 研究를 하라고 고마운 말이다. 그러나 나는 實際 運動에 모름직이
꾸준한 奮鬪를 해 온 줄은 光州썬 아니라, 朝鮮을 두고 아는 이는 다 안
다. 그리고 五, 六年間이나 少年 敎養 運動의 敎鞭을 잡고 잇섯다. 그러
타고 誤解해서는 안 된다. 나는 英雄의 心理運動을 橫切하는 無智한 同
伴들을 抗爭하려고 하는 나로써는 沈默을 직히고 잇슬썬이엇다.

君은 아직 나이 어린 少年運動者의 同志로써, 少年運動에 발길을 너
헛다고 넉넉 잡고 不過 四, 五年이엇슬 것이다. 그럼에도 不顧하고 過
去의 少年運動과 指導者를 함부로 中傷 乃至 惡評함은 君으로써 지나
치게 果敢한 行動이라고 말하지 아니 할 수 업는 것이다.

- (4), 『조선일보』, 1928. 2. 12

그러타고 傳統的 思想이나 過去의 盲目的 少年運動者를 擁護한다는
意味로 解釋해서는 誤謬이다. 君이 千萬 번 모든 일에 着實히 하고 責
任 履行을 遺憾업시 하였드라도 좀더 沈重한 態度로 붓을 들엇드라면
한다. 그러나 多幸히 理論 展開만큼은 반가운 일이다.

中央機關의 再組織

우리는 少年運動이 그래도 長久한 歷史를 가지고 잇는 이만치, 오늘 날에 잇서서는 朝鮮 少年運動의 最高 本營인 中央機關과 各 細胞團體들의 根本的으로 새로히 編成 組織하는 것이 運動의 根本 問題 中 하나 일 것이다. 崔 君은 細胞 陣營을 새로히 組織 編成하면 其 細胞 團體를 모하 는 中央機關도 스스로 再組織된다고 力說하얏지만, 그것도 어느 程度까지는 主張될 말이다. 그러나 朝鮮 青年運動의 歷史와 過程을 回顧하여 본다든지, 目下 少年運動의 現 過程을 考察하여 본다면, 君의 立論이 不成立될 것을 疑할 것이다. 보라! 組織 原則에 비치어 從來의 分散的이오 非組織的인 少年會를 斷然 理解하고, 少年運動의 指導와 統制를 敏捷히 할 單一群 少年 同盟으로 組織된 곳이 光州, 大邱, 開城, 安州, 全鮮을 通하여 同盟體는 그곳뿐이다. 그래도 道 聯盟이란 全南 聯盟이 겨우 잇슬뿐이다. 이러케도 組織 運動이 遲延케 됨은 中央機關의 根本的 組織이 굳는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다가리가 튼튼한 組織的으로 되어야 其 細胞 機關은 自然 容易히 支配 運用할 수 잇슴은 틀림없는 體驗譚일 것이다. 卽, 뿌리가 든든히 백허야만 枝葉 及 細胞에 잇서서도 活氣를 펴고 모든 養分이 뿌리로 集中될 것은 植物學上으로 보더라도 明若觀火한 事實이다.

그리고 執行委員會 組織에 一任하야 速히 組織體들이 變更하자는 刷新案과 討議가 잇섯슴에도 不拘하고 아즉것 아모 消息이 업스며, 常務委員會를 몇 번이나 召集했지만 大會에서 一任한 其 案件에 잇서서 하나도 解決은 枯捨하고 具體的 理論조차 업섯다 하니, 이래서야 될 말 인가? 實로 少年을 對하기 북그러움을 마지 못하겠다.

그리고 朝鮮少年聯合會는 複雜하고 混沌된 그 가온대에서 몇 同志의 獨斷的 專橫 밋테서 會議를 마쳤기 때문에, 이러한 結果를 보게 되었든 것이다. 잘아서 創立大會 席上에서 地方 代議員의 京城 在籍委員에 對한 不滿을 풀고 내려왔섯기 때문에 지금 中央機關을 相對로 信任

을 못 박을 것은 豫想할 일일 것이다 贅아서 地方 團體에서 常務機關에 問議가 잇섯슴에도 아모 解決의 通知조차 업슴으로 더욱 疑心하길 마지 안헸다.

『初期에 信任을 못 박는 京城 在籍委員은 少年運動의 實踐的 展開를 爲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責任을 지고 總辭職을 하고, 少年 聯合體를 再組織할 義務가 잇슴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崔 君의 此論에 잇서서는 나 亦 同感이다. 나는 京城 常務委員뿐 아니라 中央 執行委員은 全體가 總辭職을 斷行하고, 非幹部派로 하여금 朝鮮少年總同盟을 새로히 再組織하여야 할 것이다.

第一回 定期大會가 三月 二十五日 頃에 開催될 것이니, 地方에서 올 나오는 代議員 여러분은 相當한 主張과 加盟을 期約하고 가튼 步調를 마저 나아가자고 한 以上에는 少年運動의 힘 잇고 悤찬 展開를 하기 爲함에는 實踐을 爲한 果敢한 理論的 鬪爭이 잇기를 마지 안는다.

— (5), 『조선일보』, 1928. 2. 14

筆者는 이제 崔 君의 未備한 것과 又是 提出되지 아니 한 것을 一般 少年運動者 同志들에게 나의 管見을 簡明하나마 公開하여 理論的 展開를 하려 한다.

一. 少年運動의 根本 方針

이것은 問題가 問題인만큼 具體的으로 論하여야 할 것이나, 지금 나의 몸이 不便한지라 粗雜하나마 簡單히 公開하랴고 한다. 그리고 여러 同志들의 具體的 理論 鬪爭으로 理論 確立을 세우지를 아니 한다. 根本 方針에 잇서서는 먼저 少年運動의 指導 精神을 確立해 노아야만 될 것이다. 崔 君은 내게 對하여 말하기를 아즉 少年運動이 組織期에 잇슴으로 벌써 少年運動의 指導 精神 云云은 冗으로써 性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얼마나한 認識 錯誤이며, 뒤스떨어진 말이라! 如何한 運動을 莫論하고 指導 精神을 確立치 못하고 뒤범벅으로 運動을 展開하며 나아갈 수 업는 것이니, 軍士가 어찌한 成算 計劃이 있슨 後에야 動할 것이고, 그러한 方法을 取함에 반드시 xx의 月桂冠이 到來할 것이다. 그리고 싸움에 반드시 目的意識을 確立하고 싸운 그 싸움이 價値있는 싸움일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如上 길을 밟은 後에 統一된 戰術과 正確한 指導 精神과 眞正한 指導者와 또 xxxxxxxx도 結晶 收穫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이것을 確立하고 實踐에 나아가자는 것이다. 少年運動의 指導 精神에 있어서는 筆者가 일즉이 『中外日報』 紙上에 發表한 일이 있스니, 그것을 多少 參照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其 問題에 對하여 同志들의 理論 展開를 企待했스나, 아직껏 업슴을 遺憾으로 思惟한다. 組織 問題에 있어서서는 이미 前述하였스니 再論을 避하고저 아니 한다.

二. 教養 問題

이 問題 亦是 少年運動의 根本 問題 中 하나인 枝葉 問題이다. 그럼으로 少年運動의 指導 精神과 教養 問題는 連鎖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 過去의 少年運動은 氣分的으로 少年會 組織 또는 雜誌 刊行, 다시 밧구어 말하자면 少年保護運動의 振出에 不過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運動은 何等 思想이나 主義를 加味치 안코 純然한 少年의 趣味 增長, 學校 教養의 補充教材를 하여 왔섯든 것이 事實이다. 말하자면 지금의 少年運動은 朝鮮 모든 社會運動과 가티 클래식運動에서 大集團의 運動으로 모토를 轉換하게 되었다. 卽, 自然生長期로부터 目的意識期로 들어 왔다는 것이다.

崔 君은 이 말을 붓들고 또 目的意識이니 方向轉換이니 했스니, 思想 書籍에서 번역하였다고 말할 것인가? 또 忸낼 것인가? 그리고 또 君의 實際 運動을 無視한다고 혼자서 날뛰니, 어떤 것이 實際 運動인 것이나

알고 말하는 條件인가 말이다. 나는 또 現下 朝鮮 少年의 教養 問題를 말하랴닛가 過去의 教養 運動을 말하지 아니 할 수 업기 때문에, 以上의 簡單한 轉換을 말한 것이다.

그럼으로 오늘날 朝鮮 少年運動의 教養 運動은 過去 그것과는 顯著히 달라야 할 것은 重言을 要치 안는다. 或者는 少年運動의 本意가 天真性의 涵養에 있다 하여 現實에 置重함을 反對한다. 그러나 少年運動의 任務가 第二×民으로의 教養에 있고, 現實을 떠나서 살 수 업는 ××의 生活이 不可能한 것을 누구나 否認치 못할 事實이기 때문이다.

보라! 朝鮮 少年의 八, 九割은 無產者이다. 그들은 農村에서 都會의 工場에서 過重한 勞役과 酷毒한 ××알에 울고 부르짖지 아니한가? 그날의 糊口의 難을 免치 못하여 조밥이나마 變變히 어더 먹지 못하는 오늘날의 現實에 있어서 情緒 教養에만 安住할 수 업다는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男負女戴하고 저- 荒蕪地 가튼 쓸쓸하고 遙遠한 人間 社會의 別판인 西北間島와 쓸쓸한 玄海灘을 건느는 이가 하로를 두고도 얼마나한 數字를 計算하게 하는가?

- (6), 『조선일보』, 1928. 2. 15

우리는 무엇보다도 無產者 少年 教養 運動에 積極的으로 徹頭徹尾하게 研究 又是 實際 運動에 步調를 가티 하여 싸워 나가야만 될 것이다. 우리 ××少年은 넘우도 勇氣가 죽었다. 풀이 죽었다. 精神은 混沌狀態에 沒落되었다. 무엇 하나 것잡을 수 업슬만큼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 危機에서 呻吟하는 그네들을 참다운 길을 열어줄 教養 指導에 等閑視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問題 中 가장 重大한 部門을 占領하고 있기 때문이다. 白衣 少年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좀더 活氣있는 열 번 싸워도 너머지지 않는 ××意識을 너혀주어야 하며, 남에게 굴하지 아니 할만한 勇氣를 길러주어야 한다.

三. 年齡 問題

이 問題는 創立大會 席上에서 大綱 討議되다가 執行委員會에 一任한 것이다. 이 年齡 問題도 重大한 問題의 하나이다. 創立大會 席上의 代議員들은 한번 觀察함에 中老人, 青年, 若干의 少年, 이리케 混沌 狀態이었다. 이리케 되고서야 少年運動을 水平線으로 整制할 加望이 茫茫하였다. 思想上의 分野가 相當히 잇슬 것이오, 理論 鬪爭에 있어서 아즉 意識이 서지 못한 理論이라던가 各其 意思가 千層萬層일 것이니, 今年 第一回 定期大會를 期하여 반드시 討議 案件으로 너허서 年齡을 正히 制限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再三 力說하고 십다.

나의 主見은 年齡 制限을 한다 하면 滿二十一歲까지 하여야만 適當한 줄로 思惟한다. 그리고 그후 滿 二十二歲 以上된 이는 새로히 被選된 委員會에서 決議하여 從來고 少年運動에 功勳이 만흔 이로 推薦하여 評議員制를 둔다거나 惑은 顧問으로 薦舉하여 指導를 바덧스면 한다. 그리고 그들은 積極的으로 後援하여야 될 것이다.

創立大會 때 年齡 超過者에 限해서는 發議權이나 決議權 與否니 選舉權 又是 被選舉이니 하고 惑은 不可不可의 論難이 만헛슬 때 몇몇 나만흔 同志들의 反駁이 미더움이나 우수한 것은 其 當時 司會하던 이부터 功利心 乃至 英雄의 心理 運動을 橫切함에 넘우나 말할 수 업는 북그러움을 마지 못하였다.

青年運動도 그러하거니와, 더욱 少年運動에 있어서 아직 時機尙무니 運動이 幼稚하니 하는 口實로 그러켓지만, 지금이 時代가 必然的으로 그러케 要求하는 때야 엇질 것인가! 반드시 年齡을 制限하지 안하면 싹싹하고 기운찬 少年運動은 언제던지 活潑하게 展開되지 못할 것은 否認치 못할 事實이다.

四. 少年 文藝運動

文藝運動도 亦是 重且大한 問題이다. 이것은 教養 指導 問題와 連結

의 性質을 가졌다. 兒童을 教養 指導함에 心靈의 糧食이 되는 讀物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人性的 教養에 잇서 藝術이 絶對的으로 必要한 것
과 가티, 兒童에게는 무엇보다도 讀物을 要求하게 된다. 實아서 兒童
讀物 選擇의 問題가 生起되는 것이다.

兒童 讀物 選擇에 對한 問題는 筆者가 일찍이 『中外日報』 紙上에 發
表한 일이 있기 때문에 略하거니와, 俗惡한 讀物은 非教育的 活動寫眞
과 가티 兒童의 마음을 毒殺시키는 害가 적지 않다. 身體의 營養은 雜
多의 混食이 必要하다. 그래도 身體에 適當한 食物만이 身體를 잘 길으
는 것과 가티, 精神의 要求에 適當한 讀物 그것이 精神을 잘 길이는 것
이다. 故므로 目下 朝鮮 少年에 잇서 現實이 要求하는 ××를 너허 주
어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sentimental 그런 이야기는 지금에 잇서서 避
하고, 좀더 尤모아가 흐르는 것과 又是 科學的 讀物을 要求한다.

그런데 小集團인 색동會, 別答會, 꽃별會 등의 少年 教養 指導 團體
들—한데 集中化하얏스면 한다. 卽, 朝鮮少年文藝聯盟으로 總集團을
일으키어 나아갓스면 한다. 이 點에 잇서서 同志 洪銀星 君과 同感이
다. 그뿐 아니라 政策이라던지 政見이나 同一함에 잇서서 堅實한 同志
임을 말하고 십다.

그런데 모든 教養에 잇서도 偏見을 바리고 一致相應主義로 나아갓스
면 한다. 그리고 同志 高長煥 君의 『世界少年文學集』과 其外 朝鮮 少
년이 要求하는 適當한 讀物들—그리고 外國에서 收入한 것이라도 우리
少年에게 消化가 잘 될 것으로 少年總同盟에서 推舉하며 兒童에게 읽
히게 하는 것이 가장 完全할 것이다. 實아서 朝鮮兒童圖書館의 創立 促
成을 企待하는 바이다.

結論

前者의 論한 以外에도 問題의 問題가 업지 안חת는 것도 알지마는, 筆
者의 생각에 時急 問題이며 緊急하다고 생각나는 것만을 추려서 簡單
하나마 理論을 展開해 노앗습니다. 多幸히 同志 崔靑谷 君의 理論 展

開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崔 君을 相對로 政見이 다름에 贅아 條目을 들어 檢討하면서 나의 主見을 公開해 노앗스니, 다른 同志들의 理論을 듯고 歎息합니다. 何如間 우리 少年運動의 當面 問題에 잇서서 敎養 指導 問題에 對하여 具體的 理論 鬪爭으로—理論 確立을 세운 後에 實際 運動에 나아가 싸워야만 될 것입니다. 稿를 脫함에 具體的으로 못 됨을 筆者도 늦기는 바입니다. 나의 身上이 多事로울 뿐 아니라, 지금 不便한 中에 잇슴으로 그 다음 機會로 미루며 이만하고 筆을 擱습니다.

— (7), 『조선일보』, 1928. 2. 16

認識 錯亂者의 排擊

—曹文煥 君에게 與함

一. 緒論

全無產階級 解放運動의 一翼의 部門 運動인 少年運動 內에 잇서서 運動을 整理하기 爲하여는 먼저 自己 陣營 內에 潛在하여 잇는 不純分子를 無慈悲하게 排擊치 안할 수 업다. 그것은 運動의 進展上 急務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우리 運動線上에 展開된 諸 問題를 正當히 分析 認識 把握 해야 새로운 階段으로 規定치 아니 하면 아니 되게 되었다. 따라서 小市民性的-自然生長期 意識의 把持를 克服하여야 하며, 反動分子를 徹底히 排擊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제 가튼 陣營 內에서 反動的 錯誤를 새로히 비릇하는 同志가 생기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 그것은 日前 『朝鮮日報』를 通하여 「特殊 朝鮮 少年運動의 過去 運動과 今後 問題」이라는 論文을 쓴 曹文煥 君의 行動이 卽 그것이다.

나는 일즉 曹 君에게 企待가 만히는 이만큼 그의 論文을 精讀하얏섯다. 그러나 筆者는 落心치 안할 수 업섯다. 그 論文은 混沌 反覆 그리고 無體系의 小市民性的 認識 錯亂者임을 暴露하얏다. 짚아서 우리 少年 運動家를 찍으나 混沌케 하얏스며, 그리고 朝鮮의 特殊性을 認識하는 듯하면서 小부르조아 乃至 折衷主義者임을 暴露하고 말엇다. 짚아서 그는 主觀的 觀念論者인 同時에, 純全히 客觀的 情勢를 沒覺한 認識 錯誤者임이 틀림업다.

우리는 如此한 反動分子는 果敢한 理論鬪爭에 依하여 清算해야 할 것은 勿論이다. 그런 가튼 陣營 內에도 意識의이던 無意識의이던 數多한 錯誤를 犯하고 잇는 同志를 發見할 수 잇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 錯雜한 誤謬를 冷酷한 科學的 立場에서 批判하

야 그 誤謬를 矯正하여 주지 안하면 안 된다는 意味下에서 理論鬪爭이 가장 必要하다.

그리고 아주 우리 運動 自體의 自體的 理論이 確立되지 못하고, 말하서 運動者으로써도 植民地의 特殊 事情인 朝鮮 少年運動 自體에 基한 確乎한 이데올로기를 認識 把握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運動의 自體를 沒理解하고 運動의 方式과 方法을 全然 沒覺한 主觀的 觀念論만을 網羅한 理論은 餘地없이 克服하여야 한다.

넘우나 말이 나의 쓰려고 생각한 바와 線 밖그로 흐르는 것 같다. 그러나 나의 생각한 主見을 提議하라면, 먼저 以上の 要項을 말해두는 것도 無意味한 일은 안일 것이다.

— (1), 『중외일보』, 1928. 3. 20

理論 清算에 對하여

그러면 이제부터 本論으로 들어가서 그의 無體系의 小市民性的의 認識 錯誤된 點을 細細히 分析 檢討하기로 하자.

曹 君은 이렇게 말하였다.

『過去의 分散의 運動에서 組織 運動으로, 無意識의 運動에서 目的意識의 運動으로의 方向轉換할 過渡的 過程을 過程하고 있는 劃期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 朝鮮少年聯合會의 綱領으로는 一. 本會는 朝鮮 少年運動의 統一의 組織의 充實과 그 實現을 圖함 二. 本會는 朝鮮 少年運動에 對한 研究와 實現을 圖함이라고 하였다. 이와 가티 過去의 分散의 運動을 統一 集中케 하며, 無意識의 運動을 意識的 運動으로 轉換 指導하고, 重且大한 使命과 役割을 지고 나온 것이 卽 朝鮮 少年聯合會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뛰어가서

『그들은 氣分 運動에서 組織 運動으로, 自然生長期에서 目的意識期로 들어 왔다느니 한다. 그러한 理論은 도모지 外的 情勢를 無視한 妄

動的 理論이다. (또 쫓아가서)過去 運動이 무슨 運動이었고, 이제 무슨 運動으로 方向을 轉換하였다는 말인가. 그저 漠然한 말로 方向轉換을 부르짖으며 少年聯合會를 實證的 產物이라고 하니,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다.』

여기에서 君은 似而非的 少年運動의 錯誤된 認識의 正體를 暴露하기에 躊躇치 안했다. 그야말로 要領不得의 잠꼬대 가튼 소리로 看做할 수밖게 었다는 것이다.

曹 君은 現下 朝鮮 少年運動의 方向轉換을 혼자서 是認하였다가 否認하였다가 하면서 自問自答式으로 混沌 錯覺하니, 그야말로 主觀업는 妄動的 理論이다. 그리고 君은 現實에 맞지도 안는 創立大會 새 그 綱領을 只今까지 圓滿히 生覺하는 모양이다. 君은 또 少年聯合會는 方向轉換의 實證的 產物임을 說明하면서도 排擊한다. 이 얼마나한 錯覺的 認識이며 理論 遊戲를 일삼는 분인가! 그리고 또

『新聞紙上으로 每日 보는 바와 가티 現實이 要求치도 안는 組織體의 少年團體가 各處에서 일어나게 됨을 본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目的意識期 云云하며 方向轉換 云云할 수가 있는가?』

目的意識期 方向轉換에 對하여야는 曹 君이 임의 前項에 잇서 明確히 證明하였스니, 더 말할 것이 없다. 보라! 또 君은 現實을 沒覺한 主觀的 觀念論者임이 틀림없다. 一九二八年 新年 劈頭를 비롯하여 君의 錯誤된 認識과 十分 十二分 判異한 現實이 要求하는 組織的 運動인 單一團 少年同盟體로만 七, 八處가 組織이 되었다. 이야말로 少年運動의 劃期的이라고 할 수 있다.

- (2), 『중외일보』, 1928. 3. 21

君은 單純히 이와 가튼 愚見을 吐하야 君의 自體를 君 스스로가 餘地 업시 暴露하고 말었다.

『一般이 더 詳細히 하는 바와 가티, 少年運動者協會와 五月會라는

兩便 團體가 恒常 分離와 軋轢을 受하얏든 것이 事實이다. 五月 一日 어린이날 紀念에 잇서서도 統一되지 못하고 언제나 兩便이 따로따로히 記念式을 舉行되얏든 것이다. 또한 이 紀念뿐만이 아니라 모든 運動에 잇서서도 恒常 對立性을 지고 나왓든 것이 속일 수 업는 事實이다.』

또 건너서

『略…… 過去의 五月會와 少年運動者協會는 派別集團이라고? 그리 하여 新派主義者들이 少年運動者協會 創立 當日에 中間派 同志 全伯, 崔奎善, 曹文煥 理論에 克服하얏다』고 한다.

이런 말은 좀더 깊이 생각하고 내노흘 것이다. 무엇을 가르쳐 過去 運動을 派閥 運動이라고 하는가?

曹 君은 이러듯 過去의 派閥 運動임을 認識하얏다가 또 섭섭하던지 一否認하얏다가 하면서 矛盾 混沌 속에 헤매이니, 도모지 葛皮를 잡을 수 업스며, 無定見한 妄動的 理論이라고 말하고 쉽다. 過去의 派閥 運動을 君 스스로가 雄辯的으로 闡明하고 그처럼 錯誤하는가? 新派 中間派 云云은 同志 洪銀星 君이 性急히 쓴 듯하나, 그러나 어느 程度까지의 否認치 못할 事實이다.

於是乎, 우리는 空然히 되지 못한 粗雜한 文句만 늘어 노코 理論인 척하다가, 自己 自身만 民衆 압해 暴露식힐 것이며, 惑은 理論을 爲한 理論을 吐하기 쉬운 것이다. 그럼으로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慎重히 考察하여 어저한 意見을 確實히 把握한 後에 말하란 말이다.

方向轉換 再論

曹 君은 또 全無產階級 解放運動에 잇서서 特殊性이 잇는 現下 民族 問題의 現段階 問題에 들어가서 이러한 方向轉換論을 主張하얏다.

『朝鮮의 無產階級 運動이 過去의 自然生長的 運動에서 目的意識의 運動으로—그리고 經濟的 鬪爭으로부터 全面的인 政治鬪爭으로 方向을 轉換하여야 이제 全民族的 單一黨의 媒介 形態인 新幹會를 全民族的으로 支持하고 잇는 過程에 있다. 그럼으로 우리 少年運動도…… 以下

略…….』

云云하였다.

君의 錯誤가 百出하는 根源이 여기 있다. 무엇을 보아서 全朝鮮의 無產階級 解放運動이 局部的인 經濟 鬪爭으로부터 全體性的 政治 鬪爭으로 方向을 轉換하였는가 말이다. 其 意義가 那湓에 在한가! 君이야말로 植民地의 特殊 事情과 沒交渉하고 客觀的 情勢를 無視한 또는 現實을 妄覺한 主觀的 觀念論者이다.

君은 아마도 日本 福本 一家와 GH生의 論文에 感染 乃至 中毒된 모양이나, 말이 나왔스니 말이지 우리는 이것을 徹頭徹尾 認識 把握하여 反動的 理論을 徹底히 排擊하여야 할 것이다. 君이 이 말로 資本主義 國家의 理論이라고 正當히 直覺하였스면……그러나 日本의 福本이즘의 左翼 小兒病的 思想을 잘 모르고 盲目的으로 輸入하는 것은 可憐한 일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弱小民族 運動의 特質의 認識—그 歷史的 發達의 特殊性의 認識 把握함이 업시 機械的으로 日本 運動의 理論을 排斥的으로 直譯하여다가 方向轉換이라는 것을 거의 自己 目的과 가티 朝鮮에 適用하려고만 했다.

— (3), 『중외일보』, 1928. 3. 22

그리하여 快痛한 슬로간의 無意味한 反撥, 福本 一派의 難澁 怪常한 獨逸文學 文句의 修辭的 羅列로써 科學的 包裝을 해 가지고 今春 以後 그의 熱狂的으로 理論鬪爭을 高調하면서 一種의 센세이썬을 짓고 있다.

보라! 確實히 純然한 政治的 ××意識에서 鬪爭한 朝鮮 運動者의 이 데올로기를 억지로 組合主義 經濟主義라고 機械的으로, 公式的으로 認定하는 그네들의 머리는 確實히 『업노말』이다.

於是乎, 經濟 鬪爭만 하다가 비로소 처음으로 政治 鬪爭 『압흐로 갓』을 불러서 於是乎, 처음으로 開始된 것이 안이다. 『어둔 밤에 흥두깨도

분수가 있지…….』

우리 少年運動 陣營 內에까지 이러한 不純分子가 諸 段階에 潛在하여 우리의 陣營을 混亂시키고, 짊어서 그 陣營의 發展에 적잔흔 妨害를 줄 것이니, 우리는 組合主義와 經濟 鬪爭에서 政治 鬪爭으로 轉換하자는 格의 追隨의 傾向을 가진 新中間派들이 少年運動 陣營 內에까지 들어와서 巧妙한 手段으로 潛行하며, 헤게모니를 爭取하려는 如此한 反動輩는 果敢한 理論 鬪爭에 依하여 清算할 것은 勿論이다.

그럼으로 元來 少年運動은 少年運動으로서의 特殊性이 있는이만치, 自主의 프롤레타리아階級에 잇서야 할 方向轉換論을—植民地的 特殊環境이 있는 少年運動에까지 直接的 또는 現實은 沒覺한 方向轉換을 適用하려고 함은 純全히 觀念論者이다. 少年運動에 잇서서 方向轉換을 한다면 現實을 把握한 少年運動으로써의 方向轉換을 要求하는 것이다.

쏘이스카우트의 處置

斥候隊와 少年軍은 元來 一九二二年 가을에 於是乎, 朝鮮에도 이것 이 組織되었다. 그의 具體的 精神과 綱領으로는

- 一. 神과 國家 社會에 對한 自己의 義務를 다하는 것.
- 一. 언제던지 他人을 도와주고 自己 鍛鍊의 格準에 盡力할 것을 推進한다. 그리하여 그 大概가 英米式的 그것을 輸入한 것이다.

斥候隊는 全伯, 少年軍은 趙喆鎬 氏가 指導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兩例 團體는 恒常(가튼 陣營임에도 不拘하고) 分離 軋轢을 甚하여 獨立性을 가져온 것은 속일 수 업는 事實이다.

이러한 때문에 우리는 特殊性의 少年運動에 對한 正當한 把握이 업시, 더욱이 그 運動의 歷史的 發達の 特殊性에 對한 慎重한 考慮와 理解도 업시 純全히 客觀的 情勢에서 遊離된 先進國의 處地에서 米國 또는 英國에서 展開하고 發達된 理論을 朝鮮에다가 直接的으로 移植하야다가 非正常的으로 發達된 우리 少年運動을 比較的 正常的으로 發達된 自主國 資本主義 社會에서 實行하고 잇는 쏘이스카우트를 輸入

하여 機械的으로 規定하는 머리는 確實히 압노말이 안이고 무엇인가?

보라! 그네들이 조금이라도 朝鮮의 特殊性과 客觀的 情勢를 考究하여 認識하고 把握하였다면, 欣然 解體하고 時急히 現實이 要求하는 全 朝鮮 少年運動의 最高機關인 統一 組織下로 集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曹 君은 이 쏘이스카우트를 批判함에 넘어나 偏狹的 乃至 中傷을 거듭하였다. 이 쏘이스카우트(斥候隊, 少年軍)는 가튼 主張과 綱領 또는 精神으로써 政策을 樹立하여 展開하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斥候隊에 잇서서는 中傷 乃至 惡評까지 하고는 少年軍에 對하여는 機械的인 曹 君式의 折衷主義 小부르조아의 理論을 加行하였다.

— (4), 『중의일보』, 1928. 3. 23

曹 君은 少年軍에 잇서 禮讚하는 말이

『略…… 그러나 責任者인 全伯 同志가 少年軍을 解體하겠다고 言明까지 하였고, 또한 自己로써 訓練 方式만은 少年聯合會 內에 一 部門을 두고 그 訓練 方式을 實現 支持하겠다고까지 責任질 말을 하였으나, 少年軍에 對하여는 別問題가 업슬 것이다.』

이러케 云云하였다. 果然 그러타. 理論만이 조타. 그러나 實踐과 分離된 理論은 한갓 觀念的 空想的이 되고 말 것이다. 왜? 理論이 아모리 쪼든다 하드래도 實行치 못하면 회계가 업슴으로써, 그럼으로 우리는 언제나 理論과 實踐이 並行하여야 한다.

보라! 全伯은 일즉히 少年軍을 解體하겠다고 하고…… 只今까지 少年軍 陣營 內만 날로 擴張하노라고 地方에 巡廻하며 宣傳 또는 組織하러 다니기에 沒頭한 行動을 보지 못하는가? 그와 가티 朝鮮少年聯合會 敎養部 委員임에도 不拘하고, 下等의 事業 設計는 그만두고라도 敎養問題에 對한 下等의 役割을 못하였다. 또는 그가 訓練 方式을 맞터서 實現 支持하겠다고 責任진 말을 敢行하였스니…… 이 말이 事實이라면 嘲笑하지 안힐 수 업다. 그러면 特殊 朝鮮 少年運動의 敎養 訓練을

다시금 쏘이스카우트式으로 하자는 말인가? 이 말은 盲目的으로 是認한 追隨者의 行動이나, 이 말을 敢行한 XX은 보기조케 理論만으로는 客觀的 情勢를 理解한다고 하면서 小뿌르조아 乃至 折衷主義의 中間派的 妄動者가 우리 少年運動 陣營 內에 暗暗히 潛在하여 運動線을 混亂케 함은 우리 陣營 內에 적지 안흔 混沌과 發展上 莫大한 妨害를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帝國主義 國家式 쏘이스카우트라 하기로 적어도 七十餘 隊의 約 六百餘 名이나 되는 그 運動 自體를 帝王式 專制下에 혼자서 解體 與否 云云은 少年軍에서만 볼 수 있는 現象이다.

우리는 徹頭徹尾 이러한 反動輩나 盲目的으로 現下 朝鮮 少年運動의 特質을 把握하지 못하고 쏘이스카우트式 運動을 于今껏 肯定하고 있는 團體는 積極的으로 排擊하여야 한다. 그럼으로 그런 分子를 清算하여야만 우리의 運動은 힘있게 淸운차게 展開되리라고 믿는다.

結論

우리는 朝鮮 少年運動의 集中的 表現 發展的 團體인 少年運動聯合會를 根幹으로 한 批判 또는 評論이 잇서야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定見이 업는 無體系의—全然 現實을 妄覺하고 客觀的 情勢를 無視한 또는 朝鮮에 잇서 特殊性을 沒覺한 主觀的 觀念論者의 理論은 餘地업시 克服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曹 君이 事實에 잇서서 錯覺的 誤謬를 犯하였다 하면, 科學者의 態度로써 그를 取押할 것이다.—筆者는 曹 君의 그 無體系의 小市民性의—主觀的 觀念論을 餘地업시 駁트리며, 實해서 그의 論文을 檢討하여 한편 觀念에 사로잡힌 同志를 救出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는 義務感을 자아내기 때문에 評筆을 든 것이다. 淸호로 여러 同志의 꾸준한 努力과 健闘를 빕니다.

— (5), 『중외일보』, 1928. 3. 24

理論 鬪爭과 實踐的 行爲

—少年運動의 新展開를 爲하야

序言

朝鮮의 모든 運動이 一九二七年을 經過하는 동안에 일찍히 보지 못 하던 激烈한 理論 鬪爭으로 一貫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否認치 못할 事實이다. 그에 竝아서 全無産階級運動의 一 部門인 少年運動 陣營 內에 잇서서도 客年 十月 基礎로 하야 果敢한 理論 鬪爭이 展開되었었다.

於是乎, 理論 鬪爭은 理論 確立을 위하야 敢行되었고, 理論 確立은 全體性的 運動을 위하야 遂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過去의 理論의 提議가 모다 實踐과 背馳되지 안흔 理論이었으며, 우리의 特殊한 事情에 잇는 朝鮮의 客觀的 情勢를 細密히 考察하고, 여기에 符合되는 眞正한 理論이었는가? 勿論 어느 點에 잇서서는 우리 特殊 事情과 背馳되지 안흔 理論도 잇섯으나, 이 모든 것을 沒覺하고 自己의 主觀的 觀念論만을 網羅한 小市民性的 無體系의 論文도 업지 안허 잇섯다. 그러면 이와 가티 植民地의 特殊 事情과 沒交涉하고, 實踐과 分離한 理論은 한갓 觀念的 空想的이 되고 말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理論이야 아모리 찌든다 하드래도 實踐이 업스면 회계가 업슴으로써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理論과 實踐이 並行 하야야 할 것을 願望한다. 理論이 先行하고 實踐이 追隨한다던지, 實踐이 先行하고 理論이 追隨한다던지 하야서는 안 된다.

元來 無産階級 ××運動은 그 自體의 實踐 過程에서 抽出한 經驗을 全體性에서 集約한 새 意識을 獲得하면 發展할 수 업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에 依하야 指導되지 아니 한 實踐은 잇슬 수 업다. 우리는 언제나 經綸을 卍난 實踐이나, 實踐을 卍난 理論을 認定치 안는다. 理論과 實踐은 二 個의 別立物이나 同一物은 아니다. 이 兩者의 不可分的 關係에서 理論과 實踐의 價値를 判斷하는 것이 우리의 任務다.

理論 업는 實踐은 盲目的 動作에 不過할 것이요, 實踐이 업는 理論은 觀念的으로 되지 안할 수 업는 것이다. 그러타고 突然히 理論을 過重 評價한다든지, 實踐을 過重 評價하는 것은 運動 自體를 沒理解하고 運動의 方法과 方式을 全然 沒覺한 錯誤된 認識이다.

理論의 收拾

於是乎, 나는 지금 理論을 收拾하여 實踐 運動에 效果를 나타내는 努力이 가장 必要한 時期임을 主張하나니, 이에 理論이 運動의 生命인 것만은 原則이지마는, 過去 七八年間의 少年運動은 그 畸形的 進歩와 한 가지 무던이 客年 以後로 그 理論의 展開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理論은 大概가 少年運動의 意義와 價値를 思索하는데 窺 첫고, 惑은 概評的 必要論 乃至 檢討에 不過하였던 것이 어느 程度까지의 事實이다. 그러면 運動의 生命인 理論이 理論만으로써 運動의 實際的 收穫을 볼 수 있는가?하면, 그야말로 卓上空論에 不過하고 마는 것이다.

— (1), 『조선일보』, 1928. 3. 25

그럼으로 現下 朝鮮 少年이 아주 充分한 理論의 展開 乃至 그 綜合을 보지 못하는 지금에 突然히 理論 展開를 排擊 乃至 否認하는 理論은 勿論 成立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하고 理論을 展開시켜서 實踐할 判局을 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로써 慎重히 考慮할 바가 아니라!

이는 朝鮮 少年運動이 벌써 八年의 沿革을 가졌고, 다시금 少年運動으로써 劃期的 大勢가 顯著한 今日에도 實際上 進展이 업슴을 痛嘆치 안할 수 업스며, 또한 理論은 實踐을 根據로 한다면 生命이 잇는 理論일 것이라는 意味에서 理論과 實踐을 逆行식히자고 한 것은 오히려 適切한 理論일 것을 맞는다.

우리는 指導級の 幾 個人이나 第三者的 評論 가튼 것만으로는 滿足

할 수 없다. 적어도 少年 群衆 自體가 體驗과 經綸에서 理論 그것을 判定할 自覺 乃至 意識의 發作을 보아야 할 것이며, 實際의 苦息에서 더욱 理論을 要求하게 되는 見解를 確執하여야 할 것이며, 搾아서 徹底한 理論의 收拾을 삼가 規範하는 이데올로기를 把握하여야 한다.

鬭爭의 檢討

朝鮮의 全無産階級××××이 發生한 以後로는 激烈한 理論 鬭爭이 展開됨을 搾아서 그의 一翼의 部門 運動인 少年運動에 잇서서도 現下 朝鮮의 客觀的 條件이 必然的으로 運動의 展開를 爲하여서는 理論을 要求하게 되었든 것이다.

그래서 客年 十月에 잡아들어 同志 宮井洞人, 果木洞人, 筆者 等の 理論 展開와 다시금 年末에 至하여 洪銀星 同志의 「少年運動의 理論 確立」에 對한 論文은 우리 少年運動線上에 가장 힘잇는 힌트를 주었다. 그리고 同志間의 論戰은 始作되었든 것이다.

一九二八年 新年 劈頭에 洪銀星 君의 「在來의 少年運動과 今後의 少年運動」이며, 筆者의 「丁卯 一年間 朝鮮 少年運動」과 쏘는 「少年運動의 指導 精神」의 論文이 發表되자, 그 뒤를 니어 同志 崔靑谷 君의 「少年運動의 當面 諸 問題」가 上梓되었섯다. 그 論文이 뜻을 막자마자 뒤를 니어 同志 洪 君과 筆者의 論文이 崔 君의 理論을 餘地업시 克服식히든 그 사이에, 다시 宋完淳 同志의 「空想的 理論의 克服」이란 評論이 洪 君에 對한 理論의 排擊이 잇섯다. 그러나 이러타는 效果는 주지 못하얏다.

엇재쁜 가튼 우리 少年運動의 陣營 內에 잇서서 同志間의 果敢한 論戰은 始作되었든 것이다. 於是乎, 特殊 朝鮮 少年運動을 規範하기 爲한 論戰은 일즉히 보지 못하든 理論 鬭爭이었다. 少年運動에 잇서서 主觀的 指導 確立을 爲하여 革新的으로 움직이는 同志들의 活動, 實踐의 行動을 넉넉히 엿볼 수 잇섯다.

이와 가튼 過程을 經過하는 지금에 少年運動 陣營 內에는 나날이 全體性的 運動과 合流되어 나아가는 새로운 進展이 보이엇다. 엇재쁜 其

外 여러 同志들의 發表한 論文 等은 우리가 반드시 過程하여야만 할 過程에 잇서 重大한 役割을 敢行하였다.

다시 말하면, 少年運動으로써 方向轉換을…… 機械的 公式的으로 遂行하지 안키 爲하여 理論鬪爭을 展開하였고, 運動者는 여기에 對하여 意識的으로 努力할 모멘트에 섰다.

- (2), 『조선일보』, 1928. 3. 28

나는 同志들의 諸 論文을 具體的으로 檢討하려고 하였으나, 그에 對한 文獻이 具備치 못하고 쏘는 아즉 이른 感이 업지 안헛스며, 三月二十五日 定期大會에 모든 理論이 여러 同志들 사이에 論議되갓기…… 다음 時間을 利用하여 具體的으로 究明하며 把握한 후에 다시금 拙筆을 들려고 한다.

넘어나 말이 問題에 脫線이 되어 間隔이 멀어진 것 갓다. 그러나 나의 생각한 問題를 發議하라면, 以上の 要領을 말해 두는 것도 無意味한 일은 아닐 것이다.

於是乎, 우리는 썩썩하고 기운찬 少年運動을 힘있게 展開하기 爲함에는 果敢한 理論 鬪爭이 잇서야 할 것이며, 特殊 環境에 處한 少年運動을 究明하여 教養 及 指導 問題에 對한 理論 確立으로써 우리의 特殊性과 現實性을 잘 把握 認識하여 指導的 理論을 確立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는 不斷히 鬪爭을 繼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타고 理論만을 過重 評價하여서는 못 쓴다. 우리의 特殊 事情과 沒交涉하고 實踐과 分離한 理論—또는 少年運動의 體系를 버서난 理論은 排擊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理論 鬪爭을 함이 가장 冷情한 頭腦으로써 現實을 잘 把握 料理한 然後에 붓을 들어야 한다. 하면 鬪爭이란 얼마마한 價値가 잇스며, 行動體系인가를 分析하며 把握할 必要가 잇다는 것이다.

鬪爭은 手段이오, 目的이 아니다. 鬪爭은 歷史의 副產物이오, 先天

的 既存體가 아니다. 그럼으로 鬪爭은 鬪爭 그것이 目的이 아니라, 어느 다른 xx을 定하고 그 xxxxx하기 爲하여 取하는 方法이며 經過다. 그러나 鬪爭 그것을 것치지 아니 하면 그 生存에 絶對的 條件이 되는 (一行略) 그 鬪爭이 目的이 되는 재가 있다.(以下 十餘 行 略)

複雜한 社會일수록 必然的으로 鬪爭이 進展하게 되는 것이다. 쌓아서 그 鬪爭의 戰術도 單純하지 못하고 戰術에 잇서서도 그만큼 複雜한 故로, 한 가지 行動에 對하여 여러 가지의 觀察이 可能하고, 細末의 是非에 끌니어서 大局에는 着目하지 못하는 弊害가 흔히 生기는 것이니, 特히 注意를 가져야 할 것이다.

鬪爭은 歷史上 繼續된 事實이오 避치 못할 運命인 以上, 그 鬪爭의 價値를 否認할 수가 없다. 그러나 鬪爭이면 모조리 價値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社會 進化 또는 運動 發展에 貢獻이 잇지 아니 하면 그 는 한갓 暴行이오, 害毒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現下 모든 運動線上에 鬪爭을 만히 보게 된다. 그러나 그 鬪爭中에 小썩르조아의 無體系의으로 運動線을 混沌케 하는 理論 鬪爭도 種種 發見되나니, 우리는 그 機會마다 此를 指摘하여 究明하고 論評하여 왔고, 또는 現段階에 對한 理論 錯誤, 認識 不足한 同志의 理論을 克服하여 왔다. 지금도 하는 中이라 하면—우리는 理論을 爲한 妄論보 다도, 實踐을 爲한 果敢한 理論 鬪爭이 잇서야 한다.

— (3), 『조선일보』, 1928. 3. 29

發展 過程

우리 少年運動은 從來로 어찌한 集團의 全線의 統一의이 못 되고, 分散의 孤立的 局部的 地方 運動에만 근치었기 때문에 具體的 理論이 確立되지 못하고, 쌓아서 運動者로써도 運動 自體에 對한 確乎한 意識을 把握하지 못하는 同時에, 그의 運動은 派閥的 運動이 되었슴이 否認치 못할 事實이다.

그러나 此等の 派閥의 紛糾는 結局 조흔 成績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在來의 派閥의 意識을 揚棄하고 集團의 總本營인 朝鮮少年聯合會를 創設해야 가지고 組織 團結을 鞏固히 하는 同時에, 一步 나아가 全線의 運動으로 進出하게 되었나니, 이와 가티 局部的 自然生長期에서 全線의 惑은 組織의 一集團의 目的意識期로의 方向轉換을 試하게 되자, 거기에 떨어져 멧멧 少年運動의 同志들의 理論의 提議를 보게 되었든 것이다.

朝鮮의 少年運動은 ×××××××과 함께 반드시 過程하게 만 된 發展 過程을 意識의 過程하여 現段階에까지 進出하게 되었다. 朝鮮 特殊 事情이란 客觀的 情勢는 全體의 部門 運動인 少年運動에까지 多大한 影響을 끼치고 있는 것이 明確한 事實이다.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우리 運動 自體에 相當한 實質에 잇서서 이리 타 할만한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소리칠만한 效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過去의 少年運動은 無意識的 行動인 自然生長期의 運動이니만치 運動 自體의 誤謬와 缺陷이 存在하였슴으로…… 이것이 究明된 目的意識的 行動인 第二期의 運動을 促進하게 되었다.

이와 가티 第一期인 自然生長期의 運動으로부터 第二期인 目的意識期로의 質的 轉換을 敢行하게 되었다. 나는 願컨대, 三月 定期大會는 必然的으로 第二期의 任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同志들의 激烈한 理論 鬪爭이 잇서야만 할 것이다.

以上에 指摘한 發展 過程이 少年運動 陣營 內에 얼마만한 影響을 주었는가? 또한 同志間에는 如何한 方法으로 意識的 行動을 敢行하였는가? 이것을 具體的으로 論議하여 보는 것도 運動의 發展上 無意味한 일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過去의 少年運動을 回顧하여 定期의 大會때에 充分히 討議하며, 一九二八年의 運動을 加一層 組織的으로 效果있게 움직여 나가자는 것이다.

實踐 過程

運動은 運動을 爲한 運動이면 안 된다. 또 理論이나 形式만 차저서는

못 쓴다. 오즉 運動이 運動으로써 對象된 群衆의 向上과 發展에 實效를 收穫하는 그것이라야 바야흐로 生命이 있는 意識있는 運動이 될 것은 啾啾할 必要도 없다.

그럼으로 나는 무슨 運動이든지 理論과 形式은 過程의 機械에 근질 것이나, 언제든지 理論 展開만으로 하려는 運動은 排斥하고 싶다. 또 누구나 勿論하고 그런 運動을 즐기지 안할 것이다.

運動은 進展하고 發展하지 안하면 안 된다. 그럼으로 運動은 進展한다. 成長하는 運動의 進展은 그 自體의 發展을 爲해서 運動의 各 階段을 過程하는 것이다.

段階를 過程하려면 ×××××의 客觀的 條件은 分析하고 究明하여야 할 것이다. 그 實踐을 組織的으로, 統一的으로 한 一段階를 過程함으로써의 必然의 理論이 있게 된다. 勿論 實踐의 理論의 것도 아니다. 理論과 實踐은 相互關係에 있다. 그럼으로 實踐의 體系化를 爲한 理論의 展開업시 實行的 過程의 體系의 展開를 보기 어렵다. 짚아서 理論 업는 實踐은 盲目的 運動에 不過할 것이다. 實踐 업는 理論은 觀念的으로 되지 안할 수 없다. 理論과 實踐의 辨證法的 交互作用에 依하여서만 산 理論과 힘 있는 鬪爭이 展開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 鬪爭 理論만이 能히 大衆運動의 戰鬥的 指南이 되는 것이다.

— (4), 『조선일보』, 1928. 3. 30

이러한 意味에서 現階段의 朝鮮 少年運動은 運動의 發展과 過程을 過程하며 새 階段을 넘는 重要한 모멘트에 섰다. 이 貴重한 모멘트를 如何히 仔細 把握하겠는가? 하면, 同志들의 不屈의 努力에 過去 運動을 清算하는 果敢한 理論 鬪爭이 잇서야 한다. 清算은 改善과 建設의 第一步이라고 말할 수 있다. 清算이 업시는 過去 運動 그대로는 組織도 施設도 轉換도 아모 것도 안 된다. 萬若 된다면 廢家 우에도 建築이 될 수 있다는 말과 가튼 말이다. 그래서 運動의 分散을 積極的으로 檢

討 過程할 수 있는 것이니, 現下 朝鮮 少年運動의 最高 本營인 朝鮮 少年聯合會에 들어와서 潛在된 少年運動 全般을 當然히 드러와서 改善 完實을 圖謀해야 實踐할 것이오,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少年運動의 機關紙

運動과 機關紙, 이것은 참으로 찌날 수 업는 連鎖的 關係가 있는 것이다. 우리 少年運動은 이 運動 自體의 統一的 指導的 鬪爭과 戰術的 實踐으로써 우리의 廣場을 갖지 안흐면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機關紙를 통해서 特殊 朝鮮 無產 少年運動을 하며, 그에 짚아 敎養 指導함에 돌도 업는 指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運動의 歷史的 任務와 現段階의 數와 金力 모든 것이 窮乏하기 때문에 우리의 少年運動이 八年이라는 長久한 沿革을 가지고 잇지만 한 개의 機關紙가 업섰다. 이 點에 잇서서는 一般 同志들도 꺾으나 느끼는 바일 것이다. 役割을 하지 안흐면 아니 될 것이다.

— (5), 『조선일보』, 1928. 4. 3

하기 때문에 少年운동에 잇서서 理論이 等閑視하여 왔스나, 發展의 遲延이 여기에 잇는 것이다. 우리는 定期大會에 討議 條件의 하나로 하고 期於施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意識과 힘만 습한다면 못할 理가 업슬 줄로 안다. 팜플렛트를 못한다면 리플래트라도 月刊으로 發行하여 少年運動의 指導的 任務와 役割을 지고 나아가야만 될 것이다. 그리하여야만 썩썩한 運動을 展開해 나아갈 줄 맞는다.

結論

少年運動의 陣營 內에 잇서서 實踐的 新展開를 意識的으로 敢行하기를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理論이 업는 實踐은 妄動이오, 實踐이 업는 理論은 空想임을 우리는 잘 안다. 偉大한 實踐을 낫기 爲하여야는 그

理論의 根據가 明確하여야 하겠고, 그 理論의 根據가 明確하려면 理論 確立을 爲한 不斷의 理論 鬪爭이 잇서야 할 것이다.

理論이 價値 評價를 하기 爲하야는 그 理論의 規範인 實踐의 檢討를 必要하며, 그 實踐의 檢討를 일치 안키 爲하야는 批評家들의 客觀的 態度를 要하는 것이다.

少年運動 陣營 內에서 理論 確立에 依한 實踐的 行爲가 업시는 運動의 機能을 全혀 發揮할 수 업는 同時에, 全體性 運動을 爲하야 潑刺한 鬪爭을 할 수 업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 下에 우리는 新年 劈頭부터 實踐的 行爲를 敢行하지 안 해서는 안 된다는 理論의 展開가 百出하얏다. 그러면 一九二八年 三月 定期大會를 期하여 나타날 것이며, 알아서 그를 爲한 理論 鬪爭이면 어 대까지던지 激烈한 論戰을 展開식혀 冒主主義的 方法論에 依한 指導 理論 確立에 努力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少年運動에도 特殊性의 朝鮮 少年運動의 認識—그 歷史的 發達의 特殊性의 認識—把握함이 업시 機械的으로 公式的으로 理論을 斷片的으로—移植하여다가 痛快한 슬로간의 無意味한 反響—福本 一流의 難澁怪常한 同志가 暗暗裡에 擡頭되고 있다. 곳 그러한 運動의 核心에 흐르는 이데올로기, 곳 運動의 指導 精神의 運動者의 鬪爭 意識이 公式的으로 運動을 實踐에서 遊離해서 恒常 學問的으로만 解釋하려고 애쓰며 實際 運動의 具體的 發展을 無視하는 그들은 少年 運動뿐만 아니라 어느 運動에 잇서서던지 徹頭徹尾케 排擊하야 할 것이다. 또는 그것이 理論이라면 餘地업시 克服식혀야 한다.

우리는 恒常 現實性을 잘 把握하는 同時에, 朝鮮 特殊 事情을 忘却 하지 말고, 우리 少年運動은 ×××××××新幹會와 青年總同盟과 有機的 連絡으로 現下에 잇서서 少年 大衆이 必然的으로 要求하는 少年 本位의 運動을 展開식혀야만 할 것이다.

— (6), 『조선일보』, 1928. 4. 5

네 가지 부탁

아! 잊지못하는 소년소녀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근 일년 동안이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아이생활』의 탄생한지 세 번째 갖본 기념일이외다 그려. 생일기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오. 해마다 잊을것이로되 우리 수만 독자와 함께 이 기념일을 마지하는 오늘 그보다도 처음 창간하든 그때의 멧십갑절되는 힘으로 새로운 압길을 헛어나아갈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깃뵤을 얼마나 크다면 조흐릿가?

나는 실노 잊지못할 전조선 룡백만 우리 소년소녀에게 셋재돌을 마지하는 오늘날에 잊서 이 아레 네가지를 『선물』로 디립니다.

첫재. 우리는 정의(正義)의 사람이 됩시다. 나희 어린 사람에게는 정의에 대한 의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량심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여러분은 올타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하여 싸와봅시다.

둘재. 소년회에 잘 단기며 수양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배우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업고 쫓는 병신교육을 밧기 쉬우니 소년회에 드셔서 소년소녀로써의 알고 나아갈 길을 차지십시오.

셋재. 글읽기 조와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훌륭하고 조흔 사람이 되려거든 글을 잘 읽어야합니다. 우리가 외국 아이들을 볼 때에는 기차간에서나 댐차에서나 길을 갈때나 어느 때던지 조고마한 틈난 잇스면 그들을 반드시 책을 보게 됩시다. 나는 이와가튼 것을 볼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어린이들도 저와 가티 글을 잘 읽을고! 하고 귀엽게 보군합니다. 여러분은 꼭 실행합시다.

넷재. 어려움을 잘 참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언제든지 희망 가운데 쓴어지지 안는 『굿센마음』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참을성이 부족하여 모든 일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평상시에 방심하지 말고 그려 꾸준히 벳티어 나아갈 『

씩씩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장래에 지고야말 의무를 걸머메고 나가갈만한 사람이 됩시다.

특별히 지금 조선의 어린 일군들에게 가장 필요한 실행조건으로 이 네가지를 부탁드립니다.

朝鮮童謠研究協會 金泰午

— 『아이생활』, 1929. 4

어린이날을 當하야 어린이들에게

—먼저 조선을 알고 꾸준히 힘써 뛰어나는 인물이 되자

오월 달 첫 일요일 되는 五日날은 『어린이』의 날이올시다. 어린이 날! 어린이 날! 얼마나 질겁고 깃븐 날입니까? 사랑하는 소년소녀 여러분! 이 날은 특히 그대들을 위하여 전조선력으로 지키는 명절날이올시다. 경성을 비롯하여 삼천리 근역에 잇는 방방곡곡에는 어린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놀이가 잇스니, 아마 여러분들도 여쭙한 놀이에든지 참가하셔서 유쾌하게 노실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은 五月이외다. 봄이외다. 눈보라치고 손발이 얼어터지든 겨울은 지내가고, 죽엇든 만물이 고개를 들고 웃줄웃줄 썩더나는 조흔 시절입니다. 뒤스동산에는 록음이 우거졌고, 못자리에는 푸른 모가 잘아고, 산기슭 들바테는 이름도 모를 가지각색 꽃이 피어 새로운 봄을 찬양하고 취한 듯합니다. 종달새는 놀애하고 소리개는 춤을 추며 제멋대로 조하합니다. 이러튼 조흔 날에는 여러분은 새 옷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조흔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스니, 얼마나 깃븐 일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히는 것도 모다 봄이어니와, 여러 소년소녀는 지금이 한창 인생의 봄이외다. 그 기세는 마치 五月의 햇볕과 가티 찬란하고, 五月의 새넙과 가티 씩씩하고, 쏘는 五月의 샘물과 가티 맑고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 시절이 얼마나 쏘다운 시절입니까? 아모쏘록 괴운것 쭈면 굳건한 마음으로 씩씩하게 나아가야 하겟습니다. 이 날을 마치하야 특히 여러분께 몇 마디로 부탁할 말씀이 잇습니다.

첫재, 우리가 지금 먹고 넙고 살고 잇는 조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아니고, 조선 사람인 것을 니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조선쌍에서 나서 조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숨박꼭질, 솟곱질, 동무들이 다 조선말을 배웁습니다. 그럼으로 여러분이 외국말을 잘 한다 하더라도,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될 수

업습니다. 팔아서 여러분이 조선이라는 생각을 한재라도 니저서는 안 됩니다.

조선 사람 전테가 행복하게 되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것이요, 조선 사람 전테가 불행하게 되면 여러분도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조선 소년은 먼저 조선을 알고, 조선 사람을 행복스럽게 하는데 가장 큰 기대와 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동아일보』, 1929. 5. 4

둘재, 꾸준히 힘쓰시다. 우리는 희망 가운데 끈어지지 않는 『굿센 마음』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참을성이 부족하여 모든 일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결심하신 그것을 꼭 성공케 할 방책이 잇다하면 얼마나 깃브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꾸준히 힘쓰』에 잇습니다. 꾸준히 힘쓴다는 것은 놀고 쉬는 때에 놀지 못하고 자고 쉬는 때에 자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붓들고 힘쓰라는 말은 아니외다. 여러분이 놀고 쉬는 때 놀고, 자고 쉬는 때 자시오. 그러나 어떤 그 일에 대하여 매일에 책을 한 페지 이상 보기로 하얏스면, 날에 아모리 분주한 일이 잇드라도 꼭 그 한 페지 이상은 보아야 합니다. 어떤 한가한 날은 한 五十 페지 가량이나 보고, 분주한 날에는 한 二十 여 일 동안이나 한 페지도 안 보는 것은 안 됩니다. 꼭 매일 그날에 할 것은 그날에 하고, 다음날에 할 것은 다음날에 하며, 꼭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꾸준히 하여 나아가는 것이라 하겡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꼭 어저한 일에든지 결심한 대로 성공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꾸준히 힘쓰에 잇서서 사사(私事)보다도 공사(公事)를 더 중히 녀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자기 일신보다 여러 사람을 위하는 아름다운 덕과 용기를 기르기에 꾸준히 힘쓰십시오.

셋재, 뛰어나는 인물이 됩시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날』로 명하고,

은 조선 소년소녀들로 함께 썰을 지어가지고 깃사발을 날리며 놀애를 불러서 이 거룩한 날을 기념하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을 인연해서 묵은 썰사국을 모다 떨어버리고 아주 새로운 소년과 소녀가 되어 여러분의 왕성한 원기와 용맹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석만 부리지 안코 놓흔 리상(理想)과 경륜(經綸)이 있는 것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보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길을 잘못 들면 더 자라날 것도 아주 그만 더 못 자라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다 자라지 안혔는데 다 자란 줄 알며, 다 되지도 안혔는데 다 된 줄 아는 것처럼 가엽고 불상하고 앓가운 일은 업습니다. 몸으로나 지식으로나 충실하게 건전하게 자라는 것은 어릴 때 어린이답게 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력사(歷史)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나 둘을 뽑아서 그이를 모범삼아 나아가는 생활을 하면 반듯이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나도 이 다음에 그런 일을 해 보겠다. 그런 어른이 되어 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은 어린이 생활에 방향을 덩해 주는 것이며, 힘과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룰곡(栗谷) 선생과 그리스토티라든지, 에디손이라든지, 와싱턴과 린컨이라든지 다 조흔 본바들만큼 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덩해야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자는 뜻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전 조선 룰백만 소년소녀 여러 일꾼들에게 반듯이 실행 요건으로 이 몇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고 십흔 말은 아즉도 만흐나, 이런 명절에 넘우 만히 하는 것도 지루하겠스니 고만두겠습니다.

—(2), 『동아일보』, 1929. 5. 5

科學知識涵養

소년운동은 해마다 장족의 발전을 하는 것은 실로 깃뿔을 니기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에는 보편덕(普遍的)으로 과학덕(科學的) 지식의 박약합니다. 사회과학(社會科學)은 말할 것도 업거니와 자연과학(自然科學)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러하니 어린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올해에 잇서서는 과학덕 지식을 함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년영화(少年映畵)가 과학계에는 가장 진보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소년영화제작소도 창립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少年映畵製作所 金泰午

— 『조선일보』, 1929. 5. 5

어린이날을 맞으며 學父妹님께!

여러분! 五月 첫 공일 五日은 『어린이』의 날이올시다. 어린이는 새 세상의 희망의 꽃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슬로간」 밋해서 우리는 소년운동(少年運動)을 일으키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사람의 해방운동이 단테력으로 五百여 처에 나리나고, 어린 사람의 생명 량식이 수십 가지 잡지로 뒤니어나와서 어린 사람의 살림살이가 더 커지고, 또 넓어졌습니다. 아! 거룩한 기념의 날! 어린이의 날! 조선소년총련맹(朝鮮少年總聯盟)서 새로히 어린이날에 올 五月 첫 일요일(日曜日)로 작명한 이후 금년이 두번째 깃분 기념일입니다.

이 날을 당하야 삼천리 방방곡곡에는 어린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리가 잇스니, 아드님과 짜님을 가지신 여러 부형모매께서는 될 수 잇는 대로 그네들의 마음을 깃부게 하고, 새옷도 낚히어 어저한 노리에던지 참가하게 하고, 유쾌하게 놀도록 하시기만 바랍니다. 조선의 새싹이 되기 시작하는 날이 이 날이오, 새로운 생활을 어든 날이 이 날입니다. 五月의 새넙(新綠)과 가티 싹싹하게 새 세상을 지어낼 새싹은 웃줄웃줄 썩 더넙니다. 우리는 그네들을 그대로 잘 썩더 나가게 하는 대에 행복이 잇고, 또는 잘 살 것입니다.

일즉이 우리 조선 소년은 남과 가티 자랄 썩 자라지 못하고, 배울 썩 배우지 못한 것은 다른 나라 어린이들과는 특수한 환경에 태어난 짜담 이겠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돈 업고 세력 업는 탓으로 조선 사람들은 맨 밋층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게다가 재래의 우리 어린이들은 한 목 사람의 값이나 잇섯다 할가? 갓 나서는 부모의 재롱감-작란감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른 압헤 무릅 쓸코 양수거지를 하고 서게 되며, 커서는 어른들 일에 편하게 씨우는 기계나 부릴 것이 되었을 뿐이오, 이러라면 이려고 저러라면 저리하야 자랄 썩 자라지 못하고 피일 썩 잘 피지 못하야

다른 나라 소년은 총을 메고 말을 타고 어른의 하는 일을 하게 되어도 조선의 소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보다 일곱 살이나 여덟살 이상 되는 안해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혼(早婚)이라는 무섭고 놀라운 형태(形態)로써 이것을 준수(遵守)치 아니치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써 이러나는 필연덕 불합리(不合理的)와 모순(矛盾)은 자손의 저열(低劣)한 자를 내이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는 가명의 「씩」이오, 사회 「순」이오, 인류의 「희망」이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뜻이오, 동시에 깃뚝이다. 어린이를 위함은 사회의 절대적 책임이다.』

이러한 표어(標語) 및헤 一九二二年 이래 소년운동을 八九年 해 내려 온 것입니다. 하여간 재래의 소년운동은 어린이 애호운동(愛護運動)을 고취하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이는 인간(人間)으로 생겨날 때부터 세 가지 자연덕 요구가 있습니다.

- 一. 잘 나서(出產) 튼튼해야 하겠습니까.
- 一. 잘 배워야 하겠습니까.
- 一. 잘 살어야 하겠습니까.

다 큰(成長) 뒤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제 책임(責任)이라 하겠지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유약(幼弱)한 어린이로 불행한 가명에 태어나서 자식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한평생 불행으로 보낸다면, 그 책임이 어린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부형의 책임이며 사회 전체의 련대 책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를 지도하는데 가장 주의할 것은, 첫째 어머니 되시는 이들은 어린이에게 음식을 주는 때를 모릅니다. 첫먹일 때부터 장성하기까지 만히 먹이기만 하면 조혼 줄 알고 하로 멧 번이라도 때업시 먹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린이 운동을 덕당하게 식혀줄 줄을 모릅니다. 날세가 조금만 치워도 덥디 더운 방구들에다가 가뭇 두고, 몸이 조금만 압흐면 「점」을 친다, 굶을 한다 하다가는 의사에게 보이지도 안코, 무었

인지 알지도 못할 약을 먹여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린이의 몸을 망쳐 놓는 일이 만습니다.

둘째는 그분들은 그 어린이에게 보일 것 아니 보일 것을 모릅니다. 부간에 물고 쫓고 하는 싸움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욕을 배우고, 사람 때리기를 배우고, 낯쁜 싸움을 배웁니다. 이리케 그들의 성격을 파괴시킵니다.

어린이는 몸과 성격이 한 가지와 가타야 물드리기에 달렸고, 물과 가타야 담기에 달렸습니다. 그들은 물감에 의하여 희게도 될 수 있고, 검게도 될 수 있으며, 그릇에 찔아서 둥글게도 될 수 있고, 모나게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물감과 그릇은 누가 되겠습니까? 곳 우리 부모형제자매 된 사람 쏘는 우리 사회의 공중이 될 것입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무토막을 가지고 싸웠다 허무했다 하는 것은 그냥 작란이 아니라, 집을 짓고 심혀하는 타고난 버릇(本能)을 가진 싸닭이요, 남녀를 분간도 못하는 인형 가튼 아가씨들이 장독대 곁에서 작은 읍바하고 비답이처럼 마조 안저서 눈곱만한 그릇에 풀납새를 담아 가지고 『너 먹어라』, 『아! 이 손님 잡수서』 하고 노는 것은 솟급 작란이 아니라, 장래 자라서 살림사리(家庭生活)를 하려는 연극을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양디씩에서 노니는 병아리처럼 혼자 종알거리든 것이 자라서 성악이 되고, 솟거명으로 벽에다가 란초를 치는 것이 자라서 미술(美術)이 되고, 마루 위에서 뛰엄박질하는 것이 무도(舞蹈)가 되고, 달 밝은 밤에 동모들이 은행(銀杏)나무 그늘에 모혀서 숨박꼭질을 하고 싸치잡기를 하는 것이 그냥 작란이 아니라, 커지면 연극이 되는 것이요, 그 그림자를 밝혀낸 것은 별다른 것이 자니라 활동사진(映畵)입니다.

조선의 부모형제자매 제씨여!

이 날을 당하여서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여 우리의 어린이를 잘 지도(指導)합시다. 마지막으로 조선소년총련맹의 표어를 소개하오니, 여러분은 이대로 실행하시기만 바랍니다.

少年 健康 注意 少年 教育 普及
少年 早起 獎勵 少年 早婚 廢止
少年 喫煙 禁止 少年 虐待 防止

- 『중외일보』, 1929. 5. 6

童謠 雜考 斷想

近來 新聞이나 雜誌上에서 童謠 作品을 만히 對하게 됨은 實로 可喜할 現狀이다. 그런데 朝鮮에 童謠가 업지 안흔 바는 아니나, 少年文學 建設의 基礎가 되는 이 童謠를 이져버린 代身에 餓이나 等閑視해야 왔다.

이것을 遺憾으로 생각한 朝鮮에 있어서 朝鮮 研究에 뜻 둔 몇 分들의 努力으로 一九二七年 九月 一日을 期하여 朝鮮童謠研究協會가 創立 된 以後로, 그 氣勢는 자못 熾熱하여 新興 童謠運動은 날을 거듭할수록 씩씩하게 展開되어 간다.

童謠는 童話와 함께 兒童 心靈의 糧食이요, 새 生命의 싹이다. 그리고 童謠는 兒童 精神 生活의 一 要素가 될뿐만이 아니라, 兒童의 藝術 이다. 우리가 人性的 教養에 있어서 藝術이 絕對的으로 必要한 것과 가 티, 兒童에게는 무엇보다도 童謠를 要求한다.

童謠는 『어린이의 놀애다』 놀애는 卽, 情緒를 읊조린 것이다. 各各 那 民族의 情緒를 읊조 는 놀애는 오로지 那 民族만이 가질 수 있는 貴한 寶物 中의 하나이다. 더욱 童謠는 那 民族 中에도 가장 貴하고, 希望 만 흔 어린이들 놀애다. 어린이에게만 非常한 興味를 가지게 하는 것뿐 아 니라, 어른들께도 興味를 가지게 하는 것이니, 只今 어느 童謠를 듯거 나 부르거나 하면, ㅅㅅ아케 이져버렸든 兒童씩 생각이 은근히 가슴 속에 저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永遠히 업서지지 아니 하는 兒童性이 있 고, 가장 崇高한 藝術的 價値가 있고, ㅅㅅ하서 語韻까지 音樂的인 것을 眞正한 興味 童謠로써의 價値가 있는 것이다.

近來부터 이렇게 朝鮮의 어린 마음을 읊조 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다운 寶物(童謠)을 차즈려고 ㅅㅅ는 ㅅㅅ하려고 애쓰는 어린 동무들이 날로 旺盛해 가는 것은 실로 當來할 朝鮮 社會를 爲하여 欣喜하기 마지 아니한다.

近間 朝鮮서 都會에서나 시골에서 어린이들이 손에 손을 서로 마조

잡고, 惑은 街頭에서 惑은 家庭에서 惑은 野外에서 즐겁게 놀애(童謠)를 부르며 뛰노는 양을 보게 된다. 새와 가티 꽃과 가티 앵도 가튼 어린 입술로 그 天真爛漫하게 부르는 소리 그대로가 自然의 소리이며, 그대로가 한울의 소리이다. 비둘기와 토끼와 가티 부드러운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면서 놀애하며 뛰노는 모양은 그야말로 고대로그 自然의 姿態이오, 한울의 그림자이다.

童謠는 참으로 어린이들의 作亂터에 꽃이라 할 수 있스니, 꽃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맑은 작란터에 아름다운 꽃 그 속으로 어린 벼들은 뛰놀게 된다. 그들에게 作亂터를 빼앗고 꽃들을 짓밟혀 버린다면, 얼마나 그네들의 慰勞와 希望을 sn어지게 할 것인가? 왜 그러나 하면 어린이들은 作亂을 썬나서는 아모리한 기쁨과 希望을 주지 못한 싸닭이다. 그러면 童謠는 어린이를 썬나 잇슬 수 업스며, 어린이는 童謠를 한 시라도 이저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왜 조흔 童謠가 行치 못하는가? 이것은 童謠運動하는 사람으로써 머리 들석이는 問題의 하나이다. 그것은 부르기에 조흔 놀애가 아니 된 싸닭인지 모른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現下 朝鮮의 客觀의 情勢에 잘 빚최어 보아 어린이들에게 『健全한 놀애』를 一層 만히 提供하여야 할 것이다. 特히 朝鮮의 色彩와 朝鮮魂을 담은 것으로 供給함이 가장 注意할 點의 하나이다.

- (1), 『동아일보』, 1929. 7. 1

童謠의 起源은 가장 먼 것이다. 그것은 人類에게 言語가 생기자마자 存在하였든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人間이란 本是 놀애하는 本能을 가졌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母胎에서 떨어진 갓난아이의 첫 울음소리 그것을 울음이라 하지만, 그것은 울음이 아니라 一種의 놀애이다. 더 나아가서 어린 아이들을 가만히 注意하여 보면, 말도 잘 견우지 못하는 아이라도 무어라 중얼중얼하고 놀애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어썬든 아모

러 한 思想이나 言語를 가지기 前부터 놀애할 줄 알았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업는 事實일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人類 歷史가 잇는 初始부터 童謠가 어린이의 입에서 불려졌슬 것은 分明한 事實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童謠는 檀君할배 以前부터 잇섯슬 것이오, 檀君할배도 놀애불러섯슬 것도 否認할 수 업는 事實일 것이다. 그러면 童謠는 참으로 年齡을 가지지 안는 地上의 甞(天使?)라고 하고 십다.

우리는 童謠를 研究할 甞에 먼저 『童謠가 무엇이나?』 하는 疑問을 풀어야 할 것이다. 近來 新聞이나 雜誌上에서 童謠 作品을 만히 對하게 되거니와, 어저한 것이 眞正한 童謠라 하는 것은 確實히 알 사람은 적은 줄 안다.

童謠는 兒童의 歌謠라는 뜻이니, 歌나 謠나 조선말노는 놀애라고 부르지만, 억지로 區別하자면 歌는 樂器에 맞초며 부르는 놀애요, 謠는 樂器를 써나서 부르는 놀애이다.(絶對的은 아님) 그런데 童謠를 分類해 보자면, 童謠란 單純히 童의 謠라는 뜻만이 아니고 첫재 어린이들의 놀애요, 둘째 어린이들을 爲해서의 놀애요, 셋재 어린이들이 놀애해 오는 傳來의 놀애 그것이오, 넷재 詩人이 自己의 藝術的 衝動에서 읊은 詩라도 어린이들이 吟味할만한 것이면 亦是 童謠라고 할 수 잇다.

다시 말하면 童謠의 定義는 여기에 잇다고 본다. 童謠란 것은 藝術的 甞새가 豊富한 어린이들 놀애이니, 아름답고 甞긔한 甞 世界(幻想 世界)에 對하여 無限히 憧憬하는 마음이 어린이들 興味에 꼭 드러마져서, 그것이 그냥 한 덩어리가 되고 假裝하지 안흔 無邪氣하고 天真한 그대로여서, 마치 종달새가 맑아게 개인 한울을 볼 甞 놀애부르지 안코는 견델 수 업는 것과 가티 제질로 터져나오는 어린이詩를 童謠라고 한다.

잘하서 永遠히 업서지지 아니 하는 兒童性이 잇고, 가장 高尚한 藝術的 價値가 잇고, 語韻까지 音樂的인 것을 眞正한 童謠라 할 것이다. 그리고 童謠는 어른의 靈까지도 흔들어서 다시금 童心의 世界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잇는 것이라야 바야흐로 生命이 잇는 童謠일 것이다.

唱歌와 童謠의 區別은 어저한가? 童謠가 어린이의 놀애인 以上, 어

린이의 마음을 本位로 한 것이라야 할 것은 勿論이다. 在來 朝鮮에서 幼稚園이나 普通學校에서 兒童들이 불르는 唱歌는 어린이의 마음과 交渉이 업는 大部分이 公利의 目的을 가지고 지은 散文의 놀애이기 때문에 無味乾燥한 놀애뿐이어서 寒心하기 짝이 업다. 唱歌와 童謠는 얼른 보면 어동비동 가튼 것 가트나, 實上은 거리가 서로 먼 것이다.

世上에서 童謠를 니저버리고 돌아보지 아니 한 대신에 읽어야 아모 滋味도 업고 不自然에 짜지거나 事理만 밝히거나 唱歌만을 억지로 小學校 課程에까지 너허서 배우게 한 것은 암만 생각해 보아도 異常한 일이다.

從來의 唱歌라는 것은 率直하게 말하자면 自己 少年時代의 單純한 空想과 곱고 깨끗한 ㅁㅁ성을 돌아보거나 하지 안코, 다만 理智에만 팔려서 마춤내 ㅁㅁ한 手工品 가튼 것을 맨드러 내어서 教訓 乃至 知識을 너허주겟다 目的한 公利의 歌謠이기 때문에, 兒童의 感情生活에는 何等의 交渉이 업섯다 하야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럼으로 童謠 研究에 뜻 든 우리는 그 缺陷을 補充하기에 滿足한 內容이나 形式보다도 藝術的 香氣가 잇는 健全한 新童謠를 創作하야 大衆으로 하야금 놀애부를 수 잇게 하겟다는 것이 우리 新興 童謠運動의 모토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의 空想과 곱고 깨끗한 情緒를 傷하지 안게 할 童謠와 曲譜를 創作해 내지 안흐면 안 될 義務가 잇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우리는 童謠를 研究함에 ㅁㅁ준히 努力하야하 할 것은 여기에 새삼스러히 ㄸㄸ할 必要가 업슬 것이다.

- (2), 『동아일보』, 1929. 7. 2

그런데 童謠란 것은 읽어서 念量하기보담, 自由로운 曲調로 明快하게 놀애하며 질길 것이다. 그러타고 ㅁㅁ코 읽어서 念量한다는 것을 니저서는 아니 된다. 童謠는 읽을 것인 同時에 놀애로 부를 것이라 하겟스니, 그 意味를 正確히 안 뒤가 아니면 ㅁㅁ코 自由로 소리를 내어 놀애하

지 못한다는 것을 니저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어쨌든 童謠는 읽어보기만 보다는 아모런 曲調고 제 맘 나가는 대로 適當하게 놀애볼러서 귀로 듣는 便이 얼마나 월등한지 모르며, 듣기만 하여도 그 意味를 分明히 알 수 있고 턴연스러운 어린이를 마음에서 울어나는 것이 그 속에 가득찬 것이어야 정말 값 있는 童謠라 할 수 있다.

童謠에 잇서서 짜른 것이 조흔가? 긴 것이 조흔가? 하는 問題도 업잔 하 잇으니, 童謠는 놀애로 부를 것이기 때문에 넘우 긴 것이면 그 曲調 全部를 暗記하기에도 多少 困難이 있다. 아모썸록 音調가 조와야 할 것이며, 대번 알기 쉽게 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쓸데업시 기다라 케 늘어 늦는 것보다도, 짜른 便이 훨신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썸 조흔 詩想이 생겼슬 쎄에 억지로 늘이거나 주리기 爲하여 損傷된 힘업고 無價値한 놀애를 맨들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朝鮮 童謠 中 曲調부 처 놀애하기에 適當한 것은 七.五調, 六.五調, 四.四調 等の 三行 二, 三 節이나 四行 二, 三篇이 놀애부르기에 朝鮮 民族의 情緒에 알맞다고 본다. 여기에 벗어나면 暗記하기에 不便할 썸만 아니라, 놀애부르기에 도 부들어운 맛이 덜하다.

童謠는 어떤 사람이 지을 것인가? 여기에 對하여 日本 童謠詩人 西條八十 氏は

『童謠는 詩라고 할 수 있다. 世上에는 이 明白한 事實을 알지 못하고 童謠를 쓴 사람이 만타. 童謠라고 하면은 오즉 調子의 아름다운 文句와 어린이들의 조하할 素材를 늘어 노코 甘味가 만타고 쏘이는 놀애만 써 도 조흔 것으로 생각하는 이가 만타. 그 藝術的 音韻이라는 것은 족음도 생각하지 안는 作者가 만타는 말이다. 그것을 注意할 것이며, 쌀하서 나의 意見으로는 어대까지든지 詩人이 써야 될 것이라는 것을 主張하는 것은 나는 世上에 잇는 職業的 詩人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詩人의 魂이 잇는 사람으로써 붓을 잡어야 한다. 왜 그러나 하면 從來의 唱歌란 名稱을 童謠라고 고칠 必要가 어대 잇슬가? 從來에 教育의 손에서 지어진 어린이의 놀애를 詩人이 代身 마타서 創作하는 것이

라야말로 新興 童謠의 意義를 確立하는 것이다.』

하고, 自己의 童謠觀을 말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童謠도 藝術的 價値가 잇서야 하고, 韻律이 音樂的이어야 한다면 얼른 듯기에 有名한 詩人이 지어야만 훌륭한 童謠를 지으리라고만 생각해서는 잘못된 생각으로 안다.

왜 그러나 하면 眞正한 童謠는 그 놀애를 부를 少年少女들 눈에 빛친 것, 짧아서 그들의 맘에 늦긴 것을 그 兒童 各自가 日常 使用하는 어린이들 말로 지은 것이라야 할 것이니, 萬一에 어린이고 보면 設使 詩人이라 할지라도 얼른 어린이의 맘을 가지게 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詩人가티 날카로운 想像力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훌륭하고 眞正한 童謠를 지으려 하야도 갑작히 좀처럼 잘 지어지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少年少女들이 이 童謠를 짓는다면 어른들보다 매우 容易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3), 『동아일보』, 1929. 7. 3

어떠한 童謠가 조흔 童謠며 後世까지 傳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日本 詩人 三木露風 氏는 말하기를,

『童謠는 亦是 自己 自身을 表現함이다. 自己 自身을 表現하지 안하면 조흔 童謠가 아니 된다. 創作의 態度로써는 童謠를 創作하는 것도 自己 自身을 놀애한 것이라야 바야흐로 生命이 있다. 童謠는 곳 天真스러운 感覺과 想像이란 것을 쉬운 어린이의 말로 表現하는 意味로써, 童謠는 藝術的 냄새가 농흔 詩라야 한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누구든지 童謠를 지을 때 남에게 稱讚을 받고 십흔 마음으로 表現만 잘 修裝한다거나, 말만 솜씨있게 꾸민 것으로, 또 는 眞實치 못한 거죽으로 놀애부른다 하면, 讀者도 이것을 읽을 때 自然히 그 거짓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注意하야 조흔 童謠를 지으려면 自己 自身の 眞實한 맘에서 일어나오는 놀애라야 반

듯이 힘이 있고 남을 움죽이는 것이다.

거짓이 엮는 참된 마음으로 일어나오는 것 가트면 設令 形式과 用語가 多少 不適當하다 하더라도 반듯이 남의 말을 힘있게 感動시키는 힘이 있으며, 眞實이란 그것에는 굿센 힘이 있는 것을 누구나 다 늦기는 바이다.

또 한 마디 할 것은 童謠를 지을 때 自己와 眞個性을 가지고 있는 他人의 批評에 무서워서 自己만 가지고 있는 그 個性을 抹殺시킨다고 하면 貴重한 作品이 되지 못할 것이다. 藝術的 良心으로 지은 藝術品이 얼마나 貴重하며 價値있는 것인가. 惑 一時에는 남에게 稱讚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歲月이 감을 잘하 그 作品은 永연중 漸漸 그 價値가 그 作品을 通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여러 번 말해 온 것과 가티 童謠는 亦是 藝術的 創作이기 때문에 自己라는 사람의 個性이 表現되어야 할 것이다.

쓰트로 한마디 하여 둘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쓴 動機가 생각나는 대로 斷片的으로 童謠의 斷想을 써 논 것이니, 滿足치 못할 것은 말하지 안허도 알 것이다. 압후로 얼마 아니 되어 우리 少年 藝術을 建設하고자 하는 欲望을 가진 『童謠란 무엇이냐?』, 『童謠는 어찌케 짓느냐?』 하고 물으신, 다시 말하면 童謠를 쓰실려는 분과 童謠 研究에 뜻 둔 여러분에게 指針이 될 『童謠 研究』란 冊子が 單行本으로 나올 것이니, 그것을 參照하시면 조흘가 합니다.

一九二九. 六. 一五 雪崗 投

- (4), 『동아일보』, 1929. 7. 4

새해를 마지하며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먼저 굿건한 뜻을 세우라

새해! 새해마지. 이것처럼 어린이의 생활에 기쁨과 원기를 주는 것은 다시 업섯을 것입니다. 새해는 누구에게든지 기쁜 때이지만, 특별히 어린 사람에게는 한 해! 한 해 새 생각을 가지고 열어 나아가는 어린 사람에게는 가장 귀중한 때입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에 가장 만흔 변화를 주는 싸닭입니다.

한울과 쌍이 억조만물의 생명을 실코 한가지로 새롭게 밝아 갈 때, 윈 누리에 새벽종이 울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니다. 기쁨에 날뛰는 어린이들은 종달새처럼 쉼돌며 『이제는 새해여요』 하는 소리며, 닭소리, 종소리도 거룩하게 들리고, 근심도, 슬픔도, 원망도 업시 기쁨에 찬 새로운 광휘만이 윈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럼으로 사람 사람들은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후회의 금음에서 뛰어 나와 이 새해 새 아침 새 빛을 마지하면서 『금년에는!』 하고, 새로운 흥망과 새로운 뜻을 세우며 씩씩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새해가 즐거운 것도 이 싸닭이오, 귀중한 것도 이 싸닭입니다.

사람들은 뜻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뜻이 서지(立志) 못한 사람은 조곰만 어려워도 못 견대고, 조곰만 괴로워도 못 견대어서 고만 변하고, 쏘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려면 이 사람이 옳코, 저 사람이 저려면 저 말이 옳아서 나종에는 아모 것도 알우는 것이 업습니다. 그리고 뜻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산다고 한들, 일종의 송장이나 허수아비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 六百만의 조선의 새 살림을 건설할 씩씩한 어린이들이여!

우리는 이 뜻깊흔 새해를 마지하며 먼저 굿건한 뜻을 세웁시다. 새해! 첫 아침 새 생각 새 맘으로 원대한 뜻을 세웁시다. 전정 이만 리 가튼 소년소녀 제군은 한번 목적을 정하는 대로 일울 수가 잇고, 실력을 준비하

는 대로 성공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다시금 여러분의 장래를 비하야 말하면, 밀가루 한 되에 물 한 사발을 꼭 솟고 반죽을 하여 둥그런 덩어리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이 덩어리를 가지고는 둥글납작한 것을 맨들 수도 있고, 배가 통통한 송편도 맨들고 가늘고 긴 제비도 만들고 쪽쪽 찢어내는 쭈덕제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둥근 덩어리를 가지고는 무엇이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소년의 장래는 무엇이든지 되구 심흔대로 될 수가 있고, 맘 먹은 대로 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세우매 비렬(卑劣)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령-나는 공부하여서 재판소 규지나 하겠다, 감옥 소 간수나 하겠다, 경찰서 고쓰싸이나 하겠다, 서양집 쏘이 노릇이나 하겠다, 영일본집 개조나 하겠다 하면, 이와 가튼 소년이나 소녀는 소용업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모조록 위대하고 고상한 뜻을 세워야 하겠습니니다.

- (상), 『동아일보』, 1930. 1. 3

우리는 장래에 큰 장수도 될 수가 있고, 유명한 박사도 될 수가 있고, 영웅호걸이 될 수 잇스며, 성현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리전정에 희망이 가득찬 소년 제군이여! 깃버하고 놀애하소서. 당신네들은 동양 삼국(三國)을 놀래게 하든 개혁가 김옥균(金玉均) 선생 가튼 영웅도 될 수가 있고, 이조오백년(李朝五百年)에 명성이 자자한 룰곡(栗谷) 선생 가튼 성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여러분 뜻을 헤아릴 수가 잇겠습니까? 오! 사랑하는 소년소녀제군이여! 아모리 여러분의 뜻이 고상(高尚)하다 하드래도, 준비와 노력(努力)이 업스면 안 됩니다. 농부가 봄에 심으지 안흐면 가을에 무슨 소망이 잇스며, 사람이 소년 시절에 배움이 업스면 노년(老年)에 무슨 행복이 잇겠습니까?

우리는 조선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여 헐벗고 썰며 주려 우는 설음 만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 새 아츨 소사오르는 찬란한 해

스발과 가티 씩씩하게 써더 나아가는 소년이 됩시다.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과학(科學)도 연구하고, 농업, 상업, 공업, 문학도 합시다. 그리고 발명도 하고, 발견도 합시다.

- (중), 『동아일보』, 1929. 1. 6

전조선 六百萬 어린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잘 배워 알아서 다- 혼어 저가는 쓸쓸한 이 집을 다시금 훌륭하게 건설하는 역군(役軍)들이 다 됩시다. 특히 부탁하는 것은 뜻이란 한번 세우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뜻을 세우려면 깃히깃히 생각도 하고 어른이나 나보다 더 나쁜 사람에게 들어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번 세운 이상에는 제아무리 목숨과 바구는 한이 잇드래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일이 잇고, 뜻을 세운 보람이 잇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완전히 일우기 위하여 압날에 닥트려 오는 모든 장애를 박차고 씩씩한 걸음으로 의협(義俠)의 용사(勇士)가 되어 꾸준히 싸와 나아가는 투사(鬪士)가 됩시다. 그러면 바야흐로 머지 아니한 장래에 리상(理想)하든 바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리다. 나는 이 새해를 마지하야 특히 사랑하는 六百萬의 흰옷 닙은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보내오니, 이 뜻을 저버리지 말고 말보다 실행이 압서기를 성심껏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만흔 복과 건강이 항상 가티하기를 두 손을 받들어 조선을 향하야 축복하지 마지 안습니다.

-東京에서

- (하), 『동아일보』, 1930. 1. 7

넷돌을 마지하며 새로 드리는 네가지 부탁 -먼저 조선을 압시다

사랑하는 조선의 소년소녀 여러 동무여! 우리 『아이생활』이 탄생한 지 벌써 넷돌을 마지하게 되었습시다. 어린 몸이 그동안 자라노라고 가진 고생과 쓰라림을 만히 맛보았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한결가튼 도움으로 더욱 새힘과 즐거운 희망으로 이만큼 자라고 더욱 충실하며진 가운데 이 깃보고 즐거운 생일잔치를 마지하게 되니 비록 말과 풍속이 다른 이곳세 잇다하드라도 충심으로 울어나오는 깃쁨을 참지 못하겠습시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 어린 『아이생활』을 탄생하여 노코는 참으로 걱정과 근심이 만하습시다마는 이제는 한결 영성긋게, 아름답게, 씩씩하고 굿건하게 자라게 됨은 실로 하느님께 감사함을 마지 안습시다.

이러트시 깃겁고 즐거운 생일잔치에 아름다운 옷과 맛있는 음식은 못 주나마 그대신 여러분의 한평생 아니 조선의 어린이치고는 업지 못한 『선물』을 주고저 하오니 이것을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소화한다면 이 보다 더 깃쁨이 업슬가합니다.

첫재. 조선을 잘 아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소년소녀 여러분! 여러분은 참말 우리 조선을 아십니까! 나는 그것을 더 자세히 못지 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할 수 업는 처지를 당하고 잇는 가난하고 설음만흔 우리 조선에 태어나신 여러분이니까 못지 안어도 여러분 중의 만흔 분은 오막살이 작은 집 속에서 넉넉지 못한 살림을 하면서 이 치운 날에도 주려 울며 헐벗고 썩는 가운데 잇슬 것입니다. 자-여러분은 다가티 똑가튼 살과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은 어른에게나 선생님에게 우리 조선이 어떤 썩이며 옛날의 조선과 지금의 조선을 잘 알아서 아프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에 더욱 힘씁시다. 옛날의 「모세」와 「짚쌈크」보다도 더 훌륭한 사

람이 됩시다.

둘째. 조선말(言語)과 글(文字)을 잘 아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국말이나 중국말이나 러시아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나라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조선말과 조선글을 잘 안 연후에 다른 나라말을 배우는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입니다. 내가 이 동경에 와서 우리 어린이를 조사하는 가운데 일본말은 썩 잘하면서도 조선말은 조금도 모르는 어린이를 만히 대하게 될 때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 부모의 책임도 잇스려니와 더욱이 우리글까지 모른 분이 잇스니 얼마나 한심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겠습니까?

셋째. 조선력사(歷史)를 잘 압시다.

여러분! 옛날의 우리 조선은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였답니다. 리조오백년(李朝五百年)에 대철학자요 정치가요 문장(文章)이 천하에 제일이든 리올곡(李栗谷)선생과 세계에서 처음으로 거북형철갑선(龜形鐵甲船)을 만드신 우리 리순신(李舜臣)어른이며 고려(高麗)시대의 명장(名將)이든 강감찬(姜邯贊)장군은 이상한 술법(術法)까지 잘 하시는 량반이 아닙니까. 그리고 동양삼국을 놀래이신 김옥균(金玉均)선생이며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발명한 인쇄술(印刷術)과 거북선이든지 참말 자랑할만한 훌륭한 나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다흔어져가는 쓸쓸한 이 조선을 알지 못한 그만 그대로 잇다면 그 얼마나 불상한 동무입니까. 우리는 하로박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짱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넷째. 굳건한 뜻을 세웁시다.

나는 항상 여러분을 대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사람이 만일 뜻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 잇다면 그야말로 혼이 엷는 부처와 인형(人形)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나지나 당신네들을 이질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냐구요. 그것은 당신네들이 조흔 사람이 되고 아니 되는 것이 곧 우리 조선이 잘 되고 안 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당신네들만 밋고 있습니다. 그러습니다. 당신네들 조흔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성공하기만 주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욱 큰 뜻을 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남에게 업수 녀김을 받지 않습니다. 공부가 업스면 아무리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남에게 천대를 받는 법입니다.

그리고 유쾌히 놀고 잘 운동하여 몸 튼튼한 가운데 그 세운 뜻을 향하여 씩씩하게 줄기차게 꾸준히 써더 나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나는 이 깃븐 넷들을 마지하며 여러분에게 더 여러말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네 가지 약조를 직혀주십사고 원할 뿐입니다.

一九三〇, 二月- 東京 客窓에서

- 『아이생활』, 1930. 3.

古代 兒童 生活의 研究

兒童 問題는 吾人의 生活 條件을 論議하는 社會 問題의 基調이다. 옥스포드-드大學 史學 教授 윌리엄·스답스氏의 말을 빌리면, 『成人 社會에 對한 觀察은 骸骨의 觀察이지마는, 兒童 社會에 關한 研究는 生存者의 研究이기 때문이다.』 하얏다.

그런데 現 社會를 過去 累千年 前 社會와 比較하면 얼마나 文化的 發達이 되었는가 또는 現在 生活이 過去에 比하여 現在 社會制度에 尼르기까지 얼마나 學生을 밧고 잇는가 하는 問題는 가장 큰 評價를 주지 안 하면 아니 된다. 여기에 비롯오 이 問題에 對한 研究의 必要가 생기는 것이다. 人類 文化의 進歩가 如何히 兒童 社會에 影響을 미치게 하는가 하는 問題에 對하여 史的 過程으로서 觀察을 試驗해 보는 것도 興味잇는 한 方法이며, 決코 無意味한 일은 아니다.

研究의 態度로서 먼저 社會現象을 闡明하며 어떤 認識을 잇기 爲하 야는 그의 因果 及 系列에 關한 問題로써 저 알폰 애숫슬라로 氏와 가튼 分類 方法을 取하는 것도 조흘가 한다. 卽, 『自己의 라이프라리로써 하 라. 學窓에 親하지 안하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事實 그대 로 世相을 아는 것도 近道이다.』

하는 目標 米테서 兒童의 社會 生活에 關한 諸 問題를 史的 過程으로 比較하며 研究하여 文化的 厚生을 闡明하는 것은 實로 意味잇는 方法 이라고 생각한다.

이 問題에 對하여 主要 紀元前 埃及 時代로부터 希臘, 羅馬 時代의 兒童 社會生活에 나타난 그 時代의 文化的 影響과 重要한 諸 問題에 나아가 史的 觀察도 兒童 問題의 基礎的 認識, 性愛 生活, 母性愛의 發 達, 育兒, 棄兒, 子息 殺害, 宗教, 道德, 教育, 勞動 問題, 藝術, 食物, 服 裝, 遊戲, 玩具 또는 中世紀의 十字軍과 兒童 等에 關한 史的 資料를 各 冊에서 參照하여 古代 兒童 生活에 對한 研究와 批評的 態度로써 또는

現 社會 兒童 生活와 比較해 가면서 이 論文을 쓴 것을 미리 말해 두고
쉽다. 그리고 즉 朝鮮에 있어서 兒童 研究에 關한 文獻이 업느니 만큼,
이 問題를 研究하려는 少年 指導者와 教師와 一般 學父妹에게 參考로
提供하기 爲하여 이 글을 草한 것이다.

古代 埃及의 兒童 生活

一. 女子의 地位 及 性愛 生活

古代 埃及 兒童의 社會生活를 觀察하려면 먼저 兒童과 그의 母親과
의 關係를 생각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 그러면 當時 婦人의 社會的 地
位는 어찌하였는가?

十九世紀 末葉 라이프지大學 教授로 잇든 게울그 에바스 氏는 이러
케 말한 일이 잇섯다.

『어쨌 國民의 文化 程度를 알려고 할 것 가트면, 먼저 그 나라에 잇는
婦人의 社會的 地位를 아는 것이 그에 對한 捷勁이다.』 하얏다.

그러면 婦人의 地位로부터 考察하여 본다면, 古代 埃及에서는 다른
國民보다도 婦人의 地位가 높아서 그들은 만흔 勢力을 가지고 잇섯다.
그 뒤 希臘 時代의 婦人이 抑壓을 當하든 反面에, 埃及의 婦人은 外出
을 맘대로 하얏다. 女子 스스로가 市場에 나가서 손수 商品의 賣買를
하기도 하고, 食料品을 購入하기도 하얏다.

— (1), 『동아일보』, 1930. 3. 3

古代 에집트에서는 經濟 生活에 있어서 工業이 發達하였슴으로 生
產的 作業이 크게 되어, 짊아서 婦人도 自由로 밧게 나아가 勞働을 하
게 되엇다. 女子도 學問을 배우는데 男子에게 지지 안코 婦人의 智識도
얼마큼 進歩되어 家庭에 客이 訪問하는 때에는 自由로 그를 마치 하얏
든 것이다.

當時 男女의 性生活이 너무나 規則에 束縛되지 안코, 慣習上으로 보드라도 어느 程度까지는 自由로웠다. 結婚할 때에도 一年間이나 豫備의 同居를 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理念에 숨치 안는다면 서로 離別하기도 하고, 設令 結婚하였다 하더라도 夫는 妻에 對하여 離婚할 수가 있섰다. 性生活이 慣習에 法制에 拘束을 받지 안흔 範圍 內에서는 自由로 윳든 것이다. 에집트 女子는 家庭 內에서 全權을 잡엇섯다고 크리스만 氏는 말하였다. 어섯든 일이 업스면 主婦가 夫의 室에 들어가지 안치 만, 夫가 妻의 室內로 드러가는 일이 잇섯든 것이다. 婦人은 종종 公席 에 갈 수도 있고, 祭禮日에는 夫와 同伴하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가튼 自由는 中流階級과 下流階級の 婦人도 自己의 가고 십허 하는 곳 에 맘대로 出入할 수가 잇섯든 것이다.

그런데 當時에 男子는 만흔 妻를 가질 수 있게되었다. 僧侶階級에는 法制上 本妻만 가지게 許함으로써 僧侶를 除하고는 大概로 多妻를 가 지게 된 것이다. 크리스만 氏의 말을 빌자면 古代 에집트에는 兄과 妹가 結婚할 수 잇는 것을 公認하게 되고, 이것을 돌이켜 宗教上 方面으로부 터도 推獎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에집트人은 一人의 妻만 가지게 하고, 그들은 反面에 妾을 가지게 하였다.

女子를 어저케 엷느냐 하면 戰爭하여 掠奪한 그들이며 쏘는 外國人 으로부터 奴隸로 사온 것인데, 그와 가튼 多妻의 國籍은 大概로 만히는 에집트의 女子였섯다. 그리고 그런 女子 中에도 白人種과 黑人種도 잇 섯스나, 黑人種의 女子는 家庭의 助手를 하고 잇섯다. 卽, 우리 朝鮮 社 會에서 俗稱하는 어멈으로 使用하고 잇는 中에 여기에 손을 부쳐 主人 이 性慾을 滿足하고 잇섯다고 한다. 妾이 된 白人種의 女子는 家庭에서 도 地位가 얼마큼 높혔다. 그 席順을 말하자면, 正妻의 次位가 된다. 그 러고 에집트에 잇서서는 兒童은 妾보다도 家庭 中의 席次 우에 잇섯다 고 한다.

出産할 때에 兒童이 戶籍上 地位를 考察하는데 滋味가 잇는 것이 잇 스나, 小兒가 出産할 때에는 그것이 正妻가 낳든지 妾은 妾이 낳든 간

에,父가 兒童의 戶籍上 地位를 決定하였다. 正妻에게서 난 아이는 그 아버지 된 이가 이것을 摘出子라고 하여 官廳에 届出을 하였다. 그런데 當時의 法制上 公認하는 傭자와 누이 사이에 婚姻 當事者 間에 된 아이는 副妻가 되고, 奴隸에게서 된 아이보다도 先行하여 戶籍法上 摘出子임을 認證하였다고 한다.

兒童의 戶籍上 地位가 古代 埃及에 있어서 이와 가티 嚴格하였으므로, 婦人의 性生活에 있어서 夫婦關係에 對하여 婦人은 一層 重大한 責任을 가지고 있었다. 한 사람의 安海(妻)가 된 以上, 不正 行動을 嚴禁하였다. 萬若 不正 行動을 敢行한 者 있다면, 婦人은 嚴한 刑罰에 處한다. 그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하게도 그 婦人의 코(鼻)를 베어버리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女子의 顔面 中의 中心이 되는 코를 베이게 됨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맘이 쓰라릴 것이다. 第一은 모든 사람을 對할 面目이 업슬 것이다.

그 刑의 本意는 코를 베어서 衆人 압페 眞情한 意味로써의 罪를 謝過하는 것이다. 그런데 婦人뿐만 아니라 男子도 不正 行動이 있다면 處罰하였스니, 그것을 얼마큼 輕하였다. 卽, 그 男子를 衆人 압페 내세우고 방망이로 一千 回 가량이나 두들기는 것이나, 그 刑을 執行하는 사람의 맘에 惑은 輕하게 惑은 強하게 찌리는 것이니, 女子의 코를 베이는 것보다 한결 나았든 것이다. 男子로써 男便이 잇는 婦人과 關係하는 것보다도, 男便이 업는 獨身 女子와 關係하는 때에는 그보다도 一層 慘酷한 刑罰에 處하게 되었든 것이다.

한 사람의 安해가 되면 다른 男子와 自由로 關係하지 못하는 不自由가 있었다 하더라도, 貞操를 지키고 잇기만 하며 埃及의 婦人은 家庭上의 實權을 잡고 幸福의 길을 保證하였든 것이다. 이 點에 있어서 現代의 婦人의 生活과 크게 틀리는 것이다.

- (2), 『동아일보』, 1930. 3. 4

二. 兒童과 父母의 關係

古代 埃及에서는 兒童과 父母의 關係는 어찌 하였을까? 古代 埃及의 婦人은 兒童에게 對하여 眞實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십다. 哺乳兒에게 對하여 母親은 三年이나 아이를 길르는 것이다. 小兒를 가진 母親은 아 침부터 저녁까지 小兒의 幸福만 생각하며 祝福하고 있다.

아메리노 氏에 依하면 三千五百年 前 埃及의 父는 그 小兒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난(生) 어머니에게 너를 준다. 어미는 너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나는 勞働을 하로라도 설 수가 없다. 네가 난 즉 어미는 三年間이나 너에게 젖을 빼앗김으로 너 때문에 手足이 설 새 업시 맞은 것이다. 네가 쫓을 누면 그것 치기에 밥도 잘 먹지 못하였다. 그럼으로 그가 내게 말하였다. 야! 참 밋쁘다. 나는 대관절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그러케 어머니는 너 때문에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가면서 너를 길렀다. 네가 점점 長成하면 學校에 가게 되고, 네 어미가 每日 規則을 斷定하여 너를 爲하여 밥을 가지고 간다.』

하고, 記述한 것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에 依하면 古代 埃及에 있어서 兒童과 父母의 關係가 얼마만큼이 두터웠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古代 埃及人은 兒童을 非常히 愛護하였다. 傲慢 尊大한 大僧正이라도 兒童에게 對해서는 冷淡한 態度를 보이지 안했다. 그리고 埃及人은 兒童을 細心の 注意를 가지고 保護하였다. 例를 들면 아버지라 할지라도 自己의 아들 生命을 左右하는 生殺與奪의 權力은 附與치 안했었다.

三. 兒童의 社會的 地位

그런데 古代 埃及에서는 만일 兒童을 죽인다 하면 어찌케 處置하였든가? 누구든지 兒童을 죽이는 때에는 苛酷한 刑罰을 加한 法律의 制定이 있었다. 兒童을 殺害하는 犯人에 對해서는 生命까지 ฆ이 안했지 마는, 이런 犯罪를 가장 嫌惡하는 性質임을 犯人에게 切實히 悔改할 때

가지 刑罰을 施行하였었다. 假令 父母라고 할지라도 어린이를 죽인다고 할 것 가트면, 죽은 아이의 屍體를 그의 목에 잡아 매여 晝夜 二日間이나 죽은 아이를 안고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執行하는 者가 조금도 노치 못하고 監視하고 잇섯다.

古代 埃及에서는 어린이를 이만큼 尊重하게 녀김을 보아서 惑 妊娠한 女子가 犯罪 때문에 死刑宣告를 바들 때에는 刑의 施行은 아이를 解産하기까지 延期하였다고 한다.

크리스만 氏의 말과 가티, 그 理由는 母親이 大罪를 犯하였다고 하드라도, 아무 것도 몰르고 잇는 腹中에 잇는 小兒의 命까지 빼앗기는 것은 참아 보지 못할 일이며, 그 胎兒가 아버지에게 屬한 것이면 그 아이를 빼앗기는 것은 實로 분한 일이다. 그들 埃及人은 이와 가튼 理由로 胎兒일지라도 兒童의 生命을 保存하는 것이다.

이와 反對로 兒童이 父母를 죽인다고 하면 가장 重大한 犯罪로 宣告하는 刑罰은 犯人을 잡아서 銳利한 갈대로 몸에 피가 나도록 體刑을 하고, 또는 火刑에 處하는 慘酷한 일도 잇섯다. 것처럼 刑을 制定하여 親殺의 犯罪를 防止할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兒童에 對하여 어릴 때부터 年長者를 敬愛하도록 가르쳤다. 孝行이라고 하는 孔子의 道德이 東洋人의 古來로부터 精神的 信條와 가티 생각하지만, 그것은 皮相的 見解로서, 古代 埃及人은 兩親을 敬愛하고 어버이를 保護하도록 하였든 것이다. 父母에게 孝養을 다한다는 것이 古代 埃及에 잇섯든 兒童의 職務이였다. 그리고 埃及의 兒童은 但只 孝養만을 그들에게 道德으로써 가르치지 안했다. 그 點으로 보아서 儒敎가 盛한 朝鮮에서는 『在下者 有口無言』이라는 封建的 舊殼을 아즉도 못 벗고, 모든 點으로 보아서 짓밟히고 虐待 받는 朝鮮의 어린이와는 二千五百年 前의 埃及의 兒童이 自由였으며, 한결 幸福한 때이였다.

그것은 當時 社會 制度로서는 僧侶階級, 軍人階級, 平民階級, 上中下의 階級 區別이 잇섯다 하드라도, 어린이들이 工夫하는 學校에서는 階級的 差別은 업섯다. 卽, 貧寒한 집 아이들이나 貴族이나 僧侶의 아

들을 莫論하고, 다 같은 學校에서 한 자리에 안저 教育을 받게 되었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無產者 階級の 兒童이나 資本家 貴族階級の 兒童을 何等の 差別的 待遇를 하지 안코 한 冊床에 나란이 안저 工夫하였섯다. 갓가운 例로 日本이나 朝鮮 가튼 現下 教育制度和 가티 兒童에 對해서도 貴族과 平民과의 差別을 두고, 甚至於 初等教育에까지 이렇게 不合理的 教育制度를 아즉까지 實施하고 있는 것은 兒童으로써 더욱이 兒時씩부터 階級鬪爭의 觀念을 養成하는데 不過한 것이다. 初等教育을 받는 兒童에까지 貴族的 待遇와 平民 待遇와의 差等を 부치는 것은 國民教育의 本意가 아니다. 더욱이 現下 朝鮮의 教育 方針이란 至今으로부터 二千五百年 前 埃及의 教育制度보다도 몇 層이나 뒤떨어진 感이 있으며, 眞正한 意味의 教育者로서는 어찌 寒心치 안흐랴! 其 基本的原因에 잇서서는 여기에 啾啾할 必要는 업지만, 무엇을 보고 文化政治 云云하는지 우리는 實로 憂慮하지 안할 수 업다는 것이다.

— (3), 『동아일보』, 1930. 3. 5

四. 兒童教育

教育의 制度는 古代에 埃及의 實行한 것이 아니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父母의 貧富와 貴賤의 與否를 가르지 안코 兒童에게 對한 待遇를 別로 다르게 教育하지 안했다. 父母의 社會階級이 어찌 되었든 간에, 學校에 잇는 兒童으로 머리가 明皙한 아이라면 一層 더 啓發시켰다. 그리고 將來 그를 學者로 推薦하고, 또는 政府에 任用도 해야 榮譽 잇는 外國의 使臣도 될 수 잇섯다.

古代 埃及에서는 初等學校가 設立되었으나, 그것이 國家의 所有였는지 惑은 個人 所有였는지 調査해도 不明하다. 그러나 學校가 잇는 마을과 업는 마을에도 兒童에 對한 教育을 爲해야 教師들이 各 마을에 잇섯다. 小學校 施設이 업는 곳에는 教師가 木蔭에든지 街頭에서든지 어느 곳 처마 및 양지씩에서든지 아이를 모아서 가르쳤다. 그럼으로 初等

교육은 어지간이普及이 되었었다. 그러면 古代 에집트 兒童의 初等教育은 如何한 制度 미테서 바덧는가? 크리스만 氏와 롤리 氏와 일손 氏에 依하면, 그것은 寺院의 僧侶로 말미암아 施行하였다고 하였다. 高等教育은 寺院과 分離하여서도 되지 못하였다. 그 理由는 當時 寺院의 僧侶 등이 最高의 學識을 가졌슴이다.

에집트 三州의 首都인 테베스의 멘피스와 헬리오포리스에서는 寺院에서 經營하고 있는 學校는 學問을 배울려는 젊은이에게는 最高의 學府였었다. 兒童이 初等學校를 修業하고 다시금 學術을 研究하라고 하면, 모든 寺院의 學校에 入門하게 되었든 것이다. 當時의 大學은 寺院에 잇섯슬뿐 아니라, 一流의 學者가 教鞭을 잡는 곳은 大寺院의 奧書院이엇기 때문이다.

砂漠으로부터 부러오는 뜨거운 바람과 綠葉이 茂盛한 樹木을 통해서 서늘한 새를 利用하여 自然과 벗을 삼아 天地의 幽玄을 말하고 靈魂의 哲學을 論하였슬 것이다. 그와 가튼 高遠한 理致를 究明하는 最高의 寺院學校를 入學하기 爲해서는 初等教育을 修學하지 안흐면 안 될 規定이엇으나, 兒童이 初等學校에 入學하게 되는 年齡은 五歲부터이다. 그리하여 數年間 初等教育을 바든 후에는 專門學은 個人教師에게 받거나, 그러치 안흐면 寺院學校에 入門하는 慣習이 잇섯다. 專門學은 當時에 잇서서 醫學과 天文學, 教育, 工學, 美術, 音樂, 軍事, 書記에 關한 것들이다.

에집트의 末葉에 니르자, 卽 그리스도 紀元前 七百年 頃에는 數學이 다른 것보다 顯著히 進步 發展된 것은 僧侶가 專心으로 이것을 思索에 沒頭하여 여러 가지 幾何學上의 命題를 傳해 준 것이 잇섯든 것이다. 에집트인의 數學에 對한 功績은 天文 觀測과 測量에 關한 研究였었다. 紀元前 約 六百四十年부터 五百五十年代의 사람이엇든 希臘의 數學者 탈레스와 가튼 이는 에집트에 對한 研究를 싸았다.

탈레스가 紀元前 五百八十五年 五月 十八日의 日蝕을 豫言한 것은 有名한 이야기인데, 그가 希臘 七賢 中 一人의 榮譽를 받게 된 것은 이

豫言에 的中한 것도 한 힘을 어뎠든 것이다. 그러나 이 豫言은 그가 獨創한 結果가 아니고, 에집트의 記錄을 應用한 것이라고 評하고 있다.

- (4), 『동아일보』, 1930. 3. 6

또 紀元前 五百年에 死沒한 피타고라스는 탈레스와 가튼 希臘의 偉대한 政治家였다. 그가 唱導한 四藝學, 卽 靜止量의 幾何學을 說破하고, 第二 運動量의 天文學을 說하고, 第三 絶代數의 算術을 力說하고, 第四 應用數의 音樂을 說破한 分數法은 紀元前 五百年 南 伊太利의 그로돈에서 開催한 講演에 나타났었는데, 거기에는 法制上 公會에는 參席하지 못하였든 女子도 싸와가며 聽講하였다고 하였다. 피타고라스가 이러한 妙法을 說破한 그의 學識도 그 年少時代에 잇서서 에집트 高僧의 教育을 바든 結果라고 말한다. 古代 埃及의 學者 僧侶에 依한 思索과 其他 數學과 測量法은 後世 希臘의 學者 等を 啓發한 것이 만타고 評하고 십다.

埃及에서는 數에 關한 研究가 그만큼 進歩했슬 뿐만 아니라, 教授法도 相當하였섯다. 에집트인이 兒童에게 數學을 가르치는 때에는 兒童으로써 遊戲를 시키여 그것을 理解케 하였다. 그 方法은 惑 몇 개의 菓實이라든지 其他 物件을 兒童에게 分配하여 이렇게 놀면서 對物教授를 하였다. 算術의 問題를 줄 때에도 兒童과 놀이하고 잇스면서 그것을 滋味있게 풀이하였다. 그러나 學校에 있는 規風은 比較的 嚴格하였섯다. 女子教育에 잇서서는 넉넉한 資料를 엮기가 어려워서 그만 略한다.

그러나 古代 埃及에 잇서서 上流階級에 屬한 女子로써 祭祀와 宗教 祝日에는 그 儀式에 參列할 職分이 있는 이는 여기에 必要한 準備로써 教育을 하였다. 初等學校에서 男女 兒童은 表形文字를 가르치고, 木葉 우에 朱紅빛과 白色의 붓을 가지고 쓰게 한 것이다. 그것은 木板과 石板 우에 삭인 것인데, 이것은 兒童 一人에 對하여 一 杖式 난호아 준 즉, 또 한 자식 木板이나 石板에다가 惑 貧民의 兒童은 木葉 우에 寫

字로써 썼었다. 그들은 그와 가튼 方法으로써 에집트의 文字를 普及하였스며, 그리고 習字法을 가르켜 글자를 잘 쓰게 하고, 말을 부쳐 보기도 하였다.

또는 片紙쓰는 法과 其他 算術과 音樂을 배웠다. 에집트의 女子도 教育을 바든 女子는 이와 가튼 基礎的 智識은 다 잊섯든 것이다. 그리고 女子라도 中流及 下層階級에 屬한 者는 自由로 公會堂의 講演會와 其他 集會에도 出席하였다. 피타고라스가 글노돈의 마을에서 四藝學의 講演을 開催하였슬 時, 그 마을의 婦人들이 聽講하기 爲하여 出席하였다 하였스나, 에집트의 女子는 어째튼 한결 自由로웠었다.

- (5), 『동아일보』, 1930. 3. 7

五. 兒童과 宗教

古代 에집트에 잇는 兒童 生活과 宗教와의 關係에 잇서서 생각해 보는 것도 興味잇는 일이다. 웰긴손 氏와 크리스만 氏의 文獻에 依하면, 에집트인은 多神教를 信奉한 民族이었다. 그 數多한 神 가운데 하나인 할복크라테스라고 하는 것이 잊섯스니, 그 像을 본다면 어린 小兒로써 배(腹)가 불숙 나오고 쪼는 손가락을 입에다 물고 잇는 것은 兒童을 表徵한 것이었다.

그만큼 古代의 에집트에서는 宗教와 兒童과는 密接한 關係가 잇섯다. 그리하여 아이를 나면 僧侶로 하여금 선물 神』에 對하여 感謝한 祝辭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이가 病에 걸리면 그 健康 回復을 神께 誓願하였스나, 그때 그의 父母는 感 親近한 者와 僧侶에게 祈禱를 시키였스며, 그래서 祈禱者에게 小兒를 神의 弟子가 되게 해 달라는 付託이었다.

이러케 懇請을 하여 아이 머리의 一部分이나 感은 全部의 毛髮을 깎 거서 그 血을 저울(秤)한 扁 皿에 달어 놓는다. 그리하여 한 皿에는 貨幣를 언저서 다음에 貨幣의 數가 만허짐에 잘하서 이 皿의 편이 毛髮이 담

어 있는 것보담 무거워서 내려가는 때에는 그 貨幣 全部를 祈禱者에게 禮物로 주는 風習이 잇섯다. 이와 가티 古代 에집트에서는 神에 對한 信念이 兒時부터 깊히 印象됨으로 當時의 世人은 兒童에 對하여 神秘的 期待를 가지고 보아 왔섯다.

그리고 에집트인은 兒童의 片言片語에 對하여 注意를 해야 듯고 決코 等閑視하지 안햏으며, 未來에 되는 일에 關한 豫言을 생각게 하고, 兒童이 寺院과 其他的 神社의 地境에서 놀고 잇슬 때에는 兒童의 無心한 談笑라도 어떤 徵兆를 表現하지 안는가? 하고 兒童을 神秘的 눈으로써 보앗다. 그러한 關係上 古代 에집트에서는 兒童을 尊重하얏섯다.

六. 兒童의 服裝 及 食物

이제는 兒童의 衣服에 對한 것을 論하고저 한다. 크리스만 氏가 말하기를, 에집트인은 猶太와 希臘의 國民과 가티 纈衣를 입지 안햏다. 아주 걸지 못한 때에는 목에다가 쇼-르을 걸고 아이 보는 이와 惑은 母親에게 끌리어 그 압흐로나 惑은 여프로 타박타박 걸어갓섯다. 그리고 조고마한 보(布)를 몸에 두르거나 裸體로 잇다 하드라도 그런 일에 留意하지 안코, 목에는 아름다운 만흔 구슬(珠)을 거른 習慣이 잇섯다.

그리고 그 구슬의 한 가운데의 厲除의 護符 呪文을 부치얏다. 크리스만 氏는 이것을 正義와 眞理의 象徴이라고 말하얏다. 이것은 어린이에게 怪變을 當하지 안기 爲하여 쏘는 病에 걸리지 안게 그리고 賢德으로써 훌륭한 人格者가 되도록 眞正으로 한우님의 도우심을 懇願하는 慣習이 잇섯다.

그런데 三年前 古代 에집트의 慣習으로써 今日 東西洋 民族 中에 잇서서 女兒의 목에 裝飾하는 목도리 구슬을 보는데, 이것은 單只 衣匠의 美觀을 꾸미는데 不過하고, 여기에 何等의 精神的 意義가 업게 보인다. 만일 오늘날 女兒의 목거리에 古代 에집트인이 하얏든 그 어린애에게 對하여 希望하는 精神的 要求와 가티 아이들이 災害를 만나지 안도록 그리고 『正義의 人이 되어라. 賢哲이 되어라.』하는 意味深長한 것이라

할 것이라 하면, 兒童教育의 本旨을 그들에게 暗示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點에 있어서 現代人은 女兒에 對한 燦爛한 구슬의 목도리를 준다 하더라도, 古代 에집트人과 가티 精神的 意義를 가지고 하얏스면 한다.

- (6), 『동아일보』, 1930. 3. 8

單純히 外形美만을 爲하여 裁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돌이켜 재미 없다. 그럼으로 우리는 古代 에집트人과 가티 兒童에게 큰 尙待를 가지고 그네들을 마저야 한다.

그리고 父母의 社會生活에 對한 程度에 捰하서 兒童의 服裝도 差異가 생긴다 父母가 富者라든지 또는 上流階級에 屬한다면 그들 兒童의 服裝도 實用 以外의 裝飾을 해야 單純하지 안흐나, 貧民階級의 兒童의 服裝은 單純하얏섯다. 월긴손 氏의 말을 빌리자면, 當時의 食飼 料金이 라든지 被服料라든지가 實로 말할 수 업시 少額의 經費에 不過하얏섯다.

生活費가 極히 적고 또는 兒童을 길르는 食飼의 分量도 적게 들엇다. 그새 兒童의 食飼는 무엇이엇는가 하면, 紙草의 髓를 불 가운데 구운 것과 沼澤 가운데나 잇는 惑은 雜草와 根과 莖을 生으로나 굶어서 주기도 하고, 써서 주기도 하얏다.

에집트人의 食物이라고 하면, 牛肉과 蒼鶉(맷초리)가 이름난 것인데, 이것은 에집트 各 州에서 먹는 것이다. 牛肉도 牝牛만 먹고, 牝牛는 神의 祭物로 바쳤다. 그리고 食料로써는 嚴禁하얏다. 其他 짐승의 食料로는 어린 山羊과 野山羊, 羚羊 等이엇스며, 鳥類는 蒼鶉, 鶇, 鶇, 其他 野生의 鳥는 大概로 먹엇섯다. 野菜는 玉葱, 扁豆, 其他 豆類, 물외, 其他 雜草 가튼 것도 食料로 하얏든 것이다. 兒童에 對한 食物은 먼저 말한 것과 가티 大概로는 野菜類, 根莖類 等を 需用한 것 갓다.

七. 兒童의 玩具 及 遊戲

에집트에 있어서 마즈막으로 娛樂에 對하여 말하고져 한다. 古代 에

집트에서는 兒童의 遊戲와 玩具가 比較的 發達되었다. 積極의 運動으로는 戶外運動이 盛하였고, 兒童은 年長者의 指導를 받으며 놀았었다. 그리고 身體의 健康을 增進하는 데는 運動이 가장 必要하다는 見地에서 遊戲 運動을 獎勵하였다. 몸만 움직일 뿐 아니라, 놀애를 부르며 樂器를 가지고 合奏도 하였다. 또는 거기에 마초아 舞蹈하는 일도 盛行하였었다.

또 兒童은 父母나 惑은 아는 이와 가티 바다와 냇가로 고기잡이도 다니고, 새와 짐승 사냥도 갔었다. 그리고 젊은 男女는 활쏘기를 즐겨 하였다. 에집트인이 第一 興味를 가진 것은 糞作亂이다. 그러고 놀이가 위 興味를 가지게 하였는가 하면, 妙齡의 男女가 한 場所에 모이고, 또는 나무토막과 돌로 만든 빛이 燦爛한 陶瓷器의 人形은 어린이들에게 다시 업는 작란감(玩具)이었다.

古代 에집트인의 常用하는 色彩는 靑黃赤白綠褐色 等이다. 이 七色을 쓰는 고로 色彩를 나타내는데 그들은 不自由를 늦기지 안혔다. 그리고 人形과 其他의 작란감도 이런 물감을 보기 조케 아름답게 彩色하였다. 아모리 답잔흔 人形이나 玩具라 할지라도, 四肢는 업스나 胴體에 頭部가부터 잇서서 어린 머리에도 人間이란 것을 알게 되고, 또 참말 人間을 實寫한 것이면 胴體와 頭部와 그리고 腕手脚足이 부터서 四肢가 動하게끔 되었다. 또 玩具 中에는 齶形으로 된 것도 잇서서 얼굴이 變하기도 하고, 입을 열었다 다뎠다 해야 어린이의 興味를 쫓게 한 것도 잇었다.

그리고 실을 잡아 단기면 人形의 手足이 動하는 것과 其他 車를 탄 비둘기와 오리와 도야지의 玩具 그리고 적은 배(小舟)를 만든 것이라든지 가 今日的 玩具에도 遜色일 업슬만큼 여러 가지 種類의 精巧한 것이 만혔다. 이런 작란감으로써 二千五百年 前-三千年 前 兒童들이 寂寞을 慰勞하며 知能을 啓發하든 時代는 얼마나 幸福한 때이었든가!?

- (7), 『동아일보』, 1930. 3. 9

希臘의 兒童生活

一. 希臘의 彫刻과 兒童

藝術品으로써 兒童을 最初로 보여준 이는 希臘人이다. 列擧하면 플라키스테레스의 作 헬메스의 群像과 가티 실레나스의 幼兒와 가튼 또는 플라키스테레스와 스크와스와 어느 편이 眞正한 作家였든가? 그야말로 니오베의 群像 그것이다. 플라키스테레스의 師 게피솃트데스도 幼兒의 塑像을 制作하였다. 이것은 紀元前 二百七十年 頃의 作으로 平和를 表徵한 女神 일데네의가 富를 나타낸 乳兒를 안은 像인데, 이것은 文헌博物館에 藏置해 두었다. 女神이 저물어 가는 봄날 저녁의 꿈을 꾸는 것과 가튼 모양을 하고 있다. 그 像中에 나타나는 愛情은 母親이 自己의 兒녀를 對한 것과 가튼 感應을 주었든 것이다.

플라키스테레스는 紀元前 三百 八十年 頃에 誕生하였는데, 그 作을 남겨둔 것은 唯一의 헬메스의 群像뿐이었다. 그것은 一八七七年 올림피아의 헬라에서 發見한 것인데, 헬메스神이 제우스神으로부터 委託을 바든 幼兒인 디오니샛스를 안고 있는 像이었다. 올림피아博物館에 있다고 한다. 強壯한 筋肉이 發達된 肉體의 所有者가 幼兒를 안고 있는 양이 어쨌든 女性的 愛婉이 있다. 幼兒가 그 左腕에 안기어 조그마한 어린 손을 껴치고 있는 것은 愛를 要求하는 內的 生活을 表現한 것이다. 플라키스테레스는 少女가 구슬을 부친 彫刻이라도 조흔 것이 만다. 希臘 塑像中 兒童을 通하여 볼 새에, 實노 잊지 못할 것은 니오베의 群像이다. 이 作家가 明確하지는 안지만, 如何間 有名한 作品이다.

女神 니오베가 自己의 兒子 딸이 아폴로와 알테미스로 말미암아 化살(矢)에 마자 죽은 것을 안타가웁게 여겨 歎息하는 情狀이다.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 對한 愛를 深刻하게 表現한 作으로서, 우리 딸이 눈앞에 죽는 것을 어미로써 어찌케 볼 것인가? 保護할 만한 能力은 업는지라, 어머니를 붓드는 少女를 부들켜 안고 歎息하는 소리가 表現되어 만

흔 힌트를 주었다. 이 作品은 푸로렌스의 우피지美術館에 藏置해 두었다고 한다. 이것은 플라키시테레스의 作品이 아니고, 스코파스의 作이라고 하는 說도 있다. 그러면 紀元前 二百六十年 以前의 것일 것이다. 스코파스는 할리칼나트사스의 모-솔라스 靈廟의 彫刻에 從事한 할리칼나트스 마을의 王城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가 죽은 후 그 王妃의 알테미시아가 亡夫를 紀念하려고 靈廟를 지은 것이다. 이 遺物이 一八五七年에 發掘되어 古塑像과 浮彫가 英國博物館에 保藏되었다고 한다. 푸로렌스博物館에 藏置해둔 니오베의 群像을 模倣한 作이다.

그런데 此等의 作品을 通하여 보면, 우리는 希臘人이 兒童을 愛의 對象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希臘人은 어린애를 어찌케 取扱하였는가?

— (8), 『동아일보』, 1930. 3. 10

그러므로 이 十日의 儀式이야말로 兒童 生活에 있어서 그 一生의 運命을 決定하는 重大한 意義를 가졌다. 그 아이가 長男이라면 그 아이의 命名은 아버지나 祖父의 이름을 採用하게 되었다. 산아이에 對해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採用한다든지, 또 祖父나 父의 이름을 省略한 것을 呼稱하게 되었다. 그 他親類友人의 이름을 採用기도 하고, 또는 아버지의 經驗 事項과 그 外神의 이름을 採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明命式은 祝宴이 始作되자 施行한다. 葡萄의 美酒, 珍菓, 甘味, 肉類 등이 卓上에 羅列해 있고, 한우님께는 祭物을 들인다. 그 동안에 命名式이 쓰들 맺게 된다. 그날은 産兒를 祝福하기 爲하여 知友들의 선물이 만히 들어온다. 玩具는 衣服類가 普通이나, 그 中에도 特히 注意를 쓰는 것이 있스니, 그것은 護符와 護符袋로 그것을 小兒의 머리 위에 올려둔다. 이것은 小兒로 하여금 무슨 災患나 不平을 當하지 안케 하는 意義로써 한다. 이와 가티 兒童의 幸福을 爲하여 古代의 에집트人이나 希臘人도 그만큼 祝福의 儀式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二. 小兒의 養育

그러면 이와 가튼 보배로운 어린 아이를 기를려면 어찌케 할 것인가? 乳兒는 勿論 어머니의 손을 빌려서 기르는 것은 아덴과 스파타가 가뒀다. 滿一歲까지는 어머니가 기르거나, 乳母로 하여금 一年間 惑은 一年半 동안만 쓰게 하고, 그 후에는 아이 보는 이를 定하여 기르는 것이 當時 希臘의 한 風習이었다.

스팔타에서 아이 보는 이를 選定할 때에는 페라이에세의 女子였는데, 스파타 以外の 다른 州에서는 스파타 女子를 썼다고 한다. 그것은 스파타 女子는 身體가 强健함으로 兒童이 그 影響을 바다 아이를 튼튼하게 訓練하려고 한 것이 그 原因이라고 할 수 있다.

三. 養子 緣組 及 相續

古代 希臘에서도 딸만 잇고 아들이 업스면 養子를 어들 수 잇섯다. 만일 養子를 어드랴고 하면 養父가 이 男兒에게 자기 딸로 시집을 보낸 養子된 사람은 아들로서의 權利를 享有하게 되었다. 딸하서 家督을 相續하고, 그 財産을 處分할 權利를 獲得할 수 잇섯다. 養子는 이와 가티 權利를 獲得함과 同時에, 義務로써 重大하게 생각하는 것은 祖先의 墓地를 維持하고 尊敬함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養子를 마진 후에 實子가 난다고 하면, 이재에는 財産을 누구에게 讞호어주느냐 하면 둘이 等分하여 가지도록 한 것이었다.

이 財産 所有는 父의 死後에 일어날 問題이지만, 實子나 養子가 업는 者가 財産을 남기고 죽는 때에는 이 財産이 누구의 所有가 되겠는가 하는 財産 處分 問題가 일어난다. 이재의 遺産은 緣故의 가장 親近한 사람에게 넘어나, 그런 後繼者도 업다고 하면 나라의 公有로 되는 法則이다.

四. 子의 義務 及 道德

여기에 잇서서 만일 財産이 업는 아버지가 死亡하여 아들이 잇을 때는 어찌하였든가. 이재 遺子는 國家를 힘납어 經濟財를 分配해서 保護

를 바뒀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無產階級의 아들이 父母의 死亡으로 因
하여 困窮할 때에는 그 救濟 方法으로 國家의 손에 依賴케 하였다 하는
것은 救濟 文化의 程度에 있어서 現代의 어느 나라보다도 二千餘年 前
의 古代 希臘이 훨씬 進步하였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다.

兒童 問題는 이 點으로 보아서도 古代 希臘의 便이 이미 解決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오즉 다른 方面에 있어서 殺兒, 棄兒의 慣習을 是認한 것
이 兒童 問題로서는 當時 希臘人이 矛盾되게 取扱하였든 만큼은 實로
遺憾으로 생각하는 同時에 排擊하지 않을 수 없다.

또 父의 權利로써 아들에게 對하여 廢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에 父
는 政府에 起訴하여 裁判權의 決定을 맞지 안하면 아니 된다. 訴訟이
일어난 때에는 政府로부터 判事가 任命되어 이 事件을 裁判하게 된 것
이다. 그러나 이 財産의 處分에 關하여 父가 不當한 態度를 取할 때, 萬
一 老衰하였거나 精神 異狀이 생겨서 아들에게 對하여 父로써의 財
産 處分을 適法的으로 施行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아들로부터 此 所有
에 關한 訴訟을 提起할 수 있게 되었다.

— (9), 『동아일보』, 1930. 3. 11

이런 性質의 訴訟이 政治 當局者의 손에 提出되면 政府員은 아들에
게 適當한 處置를 取하였다. 이때에 父가 死亡하지 안코 老廢 또는 精
神의 異狀이 생긴 대로 生存했다고 하면, 父의 財産이 아들의 손에 移
管되고, 財産에 對하여 아들이 所有權을 獲得할 뿐 아니라, 그 處分까
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아들로써의 父의 財産에 關한 모든 權利
를 獲得하는 同時에, 또 아들로써 義務와 責任을 지게 된 것이다. 그것
은 아버지를 扶養하는 義務이다. 勞動 能力이 없는 아버지를 供養하는
것은 東洋 思想에는 아들이 父에 對한 孝行의 德이라고 推稱하고 있지
마는, 古代 希臘에서는 當然히 아들로써의 義務로 생각하고 別로 道德
的 觀念이란 것으로 생각하지 안했다.

東洋 道德은 오히려 不自然한 個條가 만다. 中國, 日本, 朝鮮의 兒童이 矛盾할 것 가티 생각하지마는, 比較하여 研究해 본다면 古代 希臘의 兒童이 돌이켜 柔順하얏섯다. 그네들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머리를 숙이고 한편으로 조심성 있게 街頭를 걸어간다. 길을 가면 아모 말업시 조용히 가고, 찌들며 가는 것은 慣習上으로도 禁하얏다고 한다.

各自의 家庭에서는 이러한 禮法과 父母와 年長者를 敬畏하라는 것을 가르쳤다. 街頭에 나선다 하더라도 年長者에게 妨害되지 안케 恭遜한 態度로 가지 안흐면 안 되었다. 公會席에서든지 家庭內에서든지 年長者를 爲해서는 自己가 안젓든 椅子를 讓渡하는 이런 美德이 있는 것은 古代 希臘에서는 兒童으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父母를 敬畏하는 扶養의 精神을 힘써 가르친 結果라고 볼 수 있다.

父母도 또한 子女에게 充分한 教育을 시키고, 가장 愛護하얏다고 한다. 짚아서 만일 父母가 子女게 對한 養育과 教育의 義務를 等閑히 하는 때에는 아들이 成長해서도 扶養의 義務를 지니 안는다 하더라도 當時의 社會에서는 當然한 일이라고 認容해주었다.

五. 殺兒 問題

古代 希臘에 있어서 注意할 點은 乳兒의 生存 問題이다. 이 問題는 教育에 있어서 論하갓거니와, 그것은 乳兒가 나면 곳 生存의 問題가 決定하게 되었다. 乳兒의 生存을 肯定하고 否定하는 것은 兒童에게 있어서 生存의 根本 問題가 되는 것이다. 出産 當時에 곳 葡萄酒를 물에 타서 產湯을 만들어 乳兒에게 使用하얏느니, 이것은 스팔타에서 하는 것인데 이 產湯을 使用할 때에 官吏가 그 家庭에 와서 이 아기를 살릴가? 죽일가? 하는 根本 問題를 決定하는 것이다.

乳兒의 生存을 肯定할 때에는 그 아이가 튼튼하고는 不具兒가 되지 안허야 한다는 것을 必須條件으로 하얏다. 美貌만 흉하더라도 죽였다고 한다. 죽인다 할지라도 곳 죽인 것이 아니라, 大概로는 原野에 내버려서 짐승에게 먹히게 하는 것이다. 달밝은 밤에 옥어진 풀밭 속에서 그

淒涼한 울음소리가 그윽히 흘러나온다. 이 애담은 소리에는 한울의 별님과 달님까지도 설은 눈물을 지웠을 것이다. 지나가는 野人도 이러듯 구슬픈 소리에는 참말 同情의 淚를 흘리지 안힐 수 업섯스리니, 이것은 人情의 自然이다.

當時의 奴隸는 希臘 本土에 잇는 原始의 人種의 子孫이다. 希臘人에게 壓迫을 當하여 使用人이 된 者, 戰爭에서 捕虜가 된 者를 苛酷한 使役을 시켰든 것이다. 그들은 그런 불상한 棄兒를 주어다가 養育하얏스니, 그것쯤은 許可를 하얏다. 그리하여 패라이族도 이런 棄兒를 기를 수 잇섯다.

스팔타人是 그들에게 한 市民으로서 生活을 하게 하얏스나, 參政權을 附與하지 안혔다. 原野에 내버린 아이는 이런 奴隸로 말미암아 救한 바 되었스나, 乳兒의 生命을 支配하는 것은 父母가 아니고 스파타 政府에서 이를 行하게 되었섯다. 다시 말하면 棄兒와 殺兒는 國家의 손으로써 施行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강한 國民을 造成하기 爲하야 國家의 要求로 된 政策으로서 스파타 市民의 殘酷한 性質은 아니었다.

이 點에 잇서서 아덴에는 文化의 發達은 스파타보다도 進步했다고 할지라도, 아덴의 便이 스파타보다도 殺兒에 잇서서는 더 慘酷하얏다고 한다. 그 理由는 스파타에서는 殺兒를 國家에서 施行하게 되었지만, 아덴에서는 國家의 政策으로써 強制로 하지 안코 市民 스스로가 이것을 施行하얏든 싸담이다.

- (10), 『동아일보』, 1930. 3. 12

스팔타에서는 出産兒에 對하야 國家 官吏가 와서 生殺을 決定하얏스나, 아덴에서는 國家의 官吏에게 依託하지 안코 그 아버지가 認定하고 生死를 決定하얏다. 스파타에서는 出生兒를 죽이다 하더라도 身體 虛弱으로 認證하는 者 쏘는 不具에 限하얏스나, 아덴에서는 아버지가 이를 決定하는 權限이 잇섯다.

그런데 이 殺兒 決定의 標準은 반듯이 出産兒의 身體的 條件뿐만이 아니라, 그 家庭에 있어서 아들을 必要로 하지 않는 境遇에는 殺兒를 아버지의 손으로 斷行하였던 것이다. 文化가 더 進歩했다는 아덴에서는 武強을 主張하는 스파타보다 殺兒에 對한 慘酷한 일이 더 만헛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만 돌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줄 안다. 아덴 市民은 美術을 愛護하고 詩를 짓는 民族이었으므로, 그러케까지는 殘酷하지 안헛다. 兒童教育에 있어서 돌이켜 스파타의 便이 慘酷하였다. 아덴에서는 出産兒의 아버지가 殺兒를 하게 된 것은 신체적 條件 以外에 家計의 貧困 及 그 他父의 一身上 事情에 依한 害에만 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出産兒에 있어서 스파타에서는 官員이 이를 決定하였섯다.

六. 兒童의 玩具 及 遊戲

古代 希臘의 兒童은 무엇을 가지고 놀았는가? 그들도 亦是 玩具로써 놀이하얏다. 當時 玩具의 發達한 點으로 보아서 實로 놀낸 만한 것이 만타. 먼저 幼兒의 玩具를 볼 때에 그것은 金屬製와 木製의 豆, 鼓가 가튼 것이었다. 그보다 더 큰 少年이 가지고 노는 것은 곱다라케 彩色한 粘土製의 人形과 원숭이와 특기와 거북, 其他 鳥類와 짐승 등을 表徵한 玩具였섯다.

또 손과 발이 움직이는 人形도 잇섯다. 少女가 가지고 노는 物件은 人形과 그의 집과 살림살이 하는 솟꼭작난의 物件 등속을 모아 가지고 조고마한 테이블 위에서 솟꼭살림을 한다. 산아이는 竹馬, 썰놀이, 건너뛰기, 모래돌 모아 산싸키, 굴 맨들기, 이런 놀이를 하얏다.

더 成長해지면 이웃 아이들과 한곳에 모이여 썰작난, 숨박꼭질, 집으로 銳角 가튼 것을 맨들어 모래 속에 파무더 두고 쪽바로 쫓쳐 내는 작난, 그 他野原에 竹馬 날리기, 새끼넘기, 少年들은 이와 가티 活潑하게 遊戲하며 놀았다. 그리고 또 패랑잡이 돌리기, 씨름하기, 水泳, 개울 넘어뛰기, 적은 새나 벌레를 잡아서 긴 실을 달어 잡아매고 빨아가 집기, 惑은 수건으로 눈 가리고 봉사(소경) 잡기, 이러한 滋味잇는 遊戲가 그

새에 盛行하였든 것을 볼 새에, 實로 놀랄만한 것이 만다.

古代 希臘人の 兒童教育

一. 家庭教育

古代 希臘의 初期에 있어서서는 兒童에 對한 學校 가튼 것이 업서서 學校教育이라는 것을 볼 수 업섯다. 그러면 어대서 教育을 바덧느냐 하면, 그곳은 家庭이다. 當時의 教育 方針이란 訓練 그것이었는데, 그들은 家庭에서 訓練을 바덧든 것이다. 家庭 以外에서도 맞기는 하얏스나, 그것은 社會的 意味에 잇서 公衆教育을 바덧스나, 그것은 社會的 意味에 잇서 公衆教育을 바든 것이오, 特히 論할 資料를 가지지 안혔다.

그런데 그 教育 方法에 잇서서 注意할 點은 教科書를 本位로 한 教育이 아니오, 兒童의 行爲에 關한 是非의 判斷을 주어서 敎訓을 하얏다. 機會가 있는대로 그들의 父母는 꾸짖기도 하고, 稱讚하기도 하여 敎訓을 하얏스나, 卽 이것이 當時의 教育 方針이었다.

一定한 冊에 基因하여 教育시킨다고 하는 것은 兒童을 죽이는 規範에 쓰치는 것이 됨으로, 산 兒童의 實生活에 對한 效果가 薄弱해진다. 古代의 希臘人은 兒童에 對하여 國定教科書를 빌려서 가르친다는 그런 죽은 教育을 施行하지 안랬다. 거기에 希臘의 산 文化가 燦爛하게 솟이 핀 것이다. 그러면 當時 希臘人이 兒童에게 무엇이라고 教育을 시키었는가?

그것은 『賢人이 되어라. 卑怯한 者가 되지 말라. 戰爭에 나아가서는 勇士가 되어라.』하고, 힘있게 가르쳤다.

- (11), 『동아일보』, 1930. 3. 14

특히 希臘을 代表한 스파타에서는 兒童을 教育하는 標語 中 『너의 國家를 사랑해라. 戰爭에 나가서는 義의 勇士가 되어라.』하는 것에 크

게 用意하고 訓練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標語에 依한 教育은 兒童의 乳兒때부터 實施하였다. 아니 乳兒의 時代뿐만이 아니라, 兒童의 出産前부터 妊婦에 向해서도 이 原則에 基準하여 教育을 하였다. 婦人의 受胎한지 數個月을 經過하여 兒童을 出産할 것 가트면 強壯한 아이를 나케시리 미리부터 祈願하는 것이다.

『너의 國家를 사랑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 戰爭에 나가서 익이지 안하면 아니 된다.』

어쨌든 이와 가티 먼저 妊婦에게 튼튼한 아이를 나라고 力說한다. 萬若 弱한 아이나 惑은 不具兒를 낫는 境遇에는 形便에 依하여 어머니가 아모리 자식을 사랑하드래도 國外로 放逐하거나 深山 荒野나 海潮에 내버리었다.

二. 스파타의 教育 方法

스팔타에서는 한 아이를 낫는다는 것은 一 個人 家庭 內의 私事로 되지 안코, 그것은 妊婦가 아이를 나면 官廳에 届出하게 되었었다. 그러면 官員이 그 집에 와서 곳 出産한 아이의 體格과 體質을 檢査하는 것이다. 그 官吏는 그 아이가 튼튼하게 生育하겠다고 認定하는 때, 卽 不具兒가 아니라고 認定하는 때에는 이 아이를 어머니의 손에 依托하여 哺育하게시리 命令하였었다. 이와 反對로 出生한 아이가 體質이 薄弱해서 滿足하게 養育할 수 업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國外로 내버리라고 嚴命하였다.

이 官吏는 스파타 議會의 委員이다. 이 官員으로 말미암아 乳兒가 어머니의 손에 哺育하게 됨을 許可하는 때에는 小兒는 七歲가 되기까지 그 家庭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養育을 바들 수 있게 되었었다. 그리하여 七歲가 되는 때에는 스파타의 國有가 되었었다.

兒童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야는 兒童을 國有로 하지 안하면 保護의 참 目的을 達할 수 업다고 하는 窮究的 理想을 가지고 잇었다. 이것은 社會 政策의 見地로써 그러케 생각하였다. 兒童을 國有로 한 후 처음으로

로 兒童 保護 事業이 澈底해지고, 또 이것에 依하여 困難한 戀愛 問題도 解決을 어들 수 잇섯다.

兒童이 7歲가 되면 國家의 管理에 屬함으로, 一 私人의 家庭에 잇서서 設令 自己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自由로 處分할 수 업게 되엇섯다.

- (12), 『동아일보』, 1930. 3. 15

兒童의 年齡이 7歲에 達하면 國家의 保護를 엇고, 國家의 役員에게 教育을 施行하얏다. 이 官員의 職名은 페도노마스라고 불렀다. 卽, 兒童 保護員이란 意味이다.

이 官員은 當時에 잇서서 兒童 保護係를 使用하여 스파타에 잇는 모든 兒童과 青年을 管理하는 行政權을 議會로부터 附與하얏다. 兒童 教育 行政을 잡은 大任을 지엿슴으로, 또 兒童에 對한 司法權을 行使하게 되엇다. 萬若 兒童으로써 命令을 違反하는 재에는 刑罰을 可하는 일이 잇섯다.

그 教育은 道德的 訓戒와 身體의 鍛鍊을 期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 것이엇다. 그 費用에 잇서서는 모다 國庫의 負擔으로 되어 잇섯다. 스파타에서는 이와 가티 兒童을 國有로 되어 잇슴으로, 그 管理 方法에 잇서서 年齡別을 하기 以外에는 劃一的으로 取扱하얏섯다. 年齡別에 對한 分類는 七歲 乃至 十二歲, 十三歲 乃至 十五歲, 十六歲 乃至 十八歲, 이러케 三種의 區別으로써 取扱하얏섯다. 그리고 이러고 이런 兒童들을 市營 宿泊所에 收容해서 王子를 除한 外에는 貴族의 子弟라도 平民과 가티 取扱하얏다. 어썻든 兒童에 對한 差別的 待遇를 하지 안혔다. 이 點에 잇서서 스파타의 兒童은 한결 幸福의 生活을 하얏든 것이다.

古代 스파타 時代를 過程한 現代에 잇서서는 社會的, 階級的 差別로서 兒童에게까지도 貴賤의 差別的 待遇를 받고 잇스니, 갓가운 例로 日本이나 朝鮮에 잇서서도 貴族의 子弟는 平民의 子弟와 區別하여 國家의 教育을 밧게 한다. 義務 教育을 施行한데도 平民의 兒童과 貴族의 兒童과를 區別하여 差別的 待遇를 하니, 이러한 教育制度는 兒童의 時

代로부터 階級鬭爭을 鼓吹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兒童에 對하야 참다운 教育을 시키려면 古代의 스파타와 가티 兒童에게 上下階級の 差別이 업시 똑가튼 待遇로써 教育을 시키지 안하면 아니 된다.

貴族의 兒童이라고 特別히 훌륭한 校舍에 厚意로써 教育시키고, 平民의 兒童이라고 허수룩한 校舍도 조흐니싸, 또는 植民地의 兒童이니싸 十年 一日과 가티 千篇一律的으로 國定教科書로써 教育을 시켜라 하는 教育制度를 吟味하야 본다면, 實로 二千五百年 以前의 古代 希臘의 몇 層이나 뒤스떨어졌스니, 爲政 當局者는 猛省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

古代 스파타의 兒童은 階級的 差別이 업시 同一하게 取扱하였다는 것은 上述한 바와 같거니와, 다만 兒童을 管理하는 方便으로써 兒童 中年長한 그리고 몸이 튼튼한 者를 選擇하야 그들의 組長이 되게 하였다.

兒童이 처음 國家의 管理로 되어 市營 宿泊所에 入舍할 때에는 그 團員이 되었다는 表徵으로써 머리를 짧으게 깎는 風習이 잇섯다. 이것은 如何한 괴로운 訓練이 있다 하드래도 굳게 참겠다는 一種의 慣習의 誓約이 었다. 寒暑를 참기 爲하야 뜨거운 여름에는 구두를 신지 안코 뽕뽕이 내려 쏘인 太陽의 光線이 直射하는 炎天에도 맨발벗고 가기도 하고, 嚴冬雪寒에도 חות만 입고 지내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집방석 위에서 자기도 하였다.

그럼으로 教育 方面도 體育에 集中하였섯다. 말하자면 오늘날 하고 잇는 體操와 競技도 熱心하였스니, 徒步 競爭, 高跳, 廣跳, 投球 가튼 것은 주로 幼年部 兒童에게 施行하고, 조금 새음찬 18歲까지의 少年에게는 씨름과 投盤 爭鬭, 投棒 등을 하게 하였다.

其他 여러 가지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熾熱한 訓練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十八歲 되면은 머리를 기를 수가 잇섯고, 또는 수영도 기를 수 잇섯스니, 그것은 青年이 된다는 表示였섯다. 이제가 되면은 武器 使用法과 軍略을 教授하였다. 如何한 境遇를 莫論하고 스파타의 兒童과 青年은 忍耐와 勇氣, 이 두 가지를 가장 힘있게 가르쳤다. 어저한 教育과 運動을 가르치는데도 이 精神만을 實行하였섯다.

- (13), 『동아일보』, 1930. 3. 16

그리고 이러한 精神과 競技의 能率을 새재로 試驗도 하였다. 또는 年中行事로 鞭打會라는 것을 開催하였으니, 이것은 말테미스올자神의 祭壇 아페 저 數千 群衆의 包圍 알에 施行한다. 그리하여 몇 兒童을 뽑아서 祭壇 아페 나란히 세우고 몽치로 막 후려갈기는 것이었으니, 이것을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은 장꾼 모이듯 모여든다. 그 가운데에는 그 兒童의 父母도 와서 쭈드리는 것을 보면서

『아퍼도 아프다고 하지 마라. 아모리 괴로워도 울지마라. 조금만 더 참어라. 참는 것이 勇士다.』

이러케 말하였다.

數萬 群衆에 에워싸혀서 알테미스神 아페서 매맞는 兒童이야말로 자그네의 舞臺라고 맘속에서 용솟음치기는 하나, 實로 마져보면 그야말로 참기 어려웠다. 입을 악 물고 잇스려면, 살점이 떨어지며 피가 줄줄 흘러나렸다. 이새에 그걸 참지 못하고 소리를 내어 울 것 가트면, 勇氣 업는 놈이라 하여 모든 사람은 同情하기는커녕 卑怯한 者라고 비웃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지독스런 風習이 잇서서 이 일을 斷行하다가 그만 소리도 내지 못하고 고대로 慘酷하게 죽는 兒童도 업잔하 만히 잇섯다. 古代 스파타에서는 兒童을 勇士로 養成하기 爲해서는 이러듯한 殘酷한 教育方法을 施行하였다.

十八歲 以上の 青年은 스탈파 沿岸의 小島에서 軍隊 訓練을 바뎠다. 이것은 우에 말한 바와 가튼 年中行事의 하나이다. 이것은 두 便으로 난호아 서로 相對하여 싸우는 것이니, 武器를 가지지 안코 주먹으로 막우 질리며 찌리고 발로 차기도 하여 敵을 打破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負傷者를 만히 내게 된다.

- (14), 『동아일보』, 1930. 3. 17

古代 希臘 스파르타에서는 二十歲부터는 完全한 青年으로 取扱하였다. 青年期라는 것은 二十歲부터 三十歲까지로 그를 規定하였으니, 二十歲 乃至 三十歲는 青年으로서의 教育을 實施하였다. 그들은 自己네들이 지은 조고마한 집에서 살면서 軍事教育을 바뒀다.

이와 가티 스파르타에서는 兒童과 青年을 教育하기에 體育 方面에 專力을 하였다. 그럼으로 짧아서 智育 方面은 閑却하였든 것이 否認치 못할 史實이다. 智育的 教育이라고는 讀法과 書法에 不過하였었다. 以上の 道德的 教育은 如何한 方法으로서 施行하였느냐 하면, 兒童이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行動에 잇서서 父母와 또는 祖父母 이웃사람들에게 善惡의 批評을 받게 되었었다. 萬若 그들이 善良한 일이 아니라고 批判하는 때에는 그 行實에 잇서서 兒童은 叱責을 받고, 다시는 그런 惡한 일을 하지 안도록 警戒를 바뒀다.

스파르타의 兒童은 그와 가티 道德的 觀念을 너허주었다. 그리고 그 네들은 自己 마음대로 하지 안했다. 國家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조흐나, 自己 一 個人의 利益을 圖謀하는 行動은 禁하였었다.

『自己를 사랑해서는 못 쓴다, 自己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國家를 사랑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 愛國者가 되어라.』

이것을 가장 賢明한 길이라고 가르쳤다.

그럼으로 먼저 女子로서 몸을 튼튼히 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 튼튼한 女子라야 健剛한 男兒를 낳는다. 튼튼한 男兒를 나허야 國家에 貢獻이 잇슬 것이다. 그리하여 스파르타의 少女는 官員에게 男兒와 가티 體育에 對한 訓練을 바뒀다. 體操, 徒步競爭, 高跳, 씨름도 하고 投棒과 投盤 等도 男兒와 가티 하였다. 그리고 女子教育으로서의 舞踊과 音樂 等を 가르쳤다. 그리고 祭禮日에는 男子와 가티 舞踊과 音樂 等은 許諾하나, 그 以外에는 男子와 交際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한 사람의 安해가 되어 그의 남편이 戰爭에 나아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決코 우다거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는 나라를 위하여 죽었음으로, 그때에는 돌이켜 神에게 感謝하다고 가르쳤다. 어머니 된 이는 아들이

戰場에서 죽을지라도, 設令 설어운 情이 있다 하드라도, 사람 아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絶代 禁物이다.

『너희 아들은 나라를 爲하여 죽었다. 참말 愛國者다. 그 죽음이야말로 榮譽스러운 일이다. 그럼으로 自己의 아들일지라도 國家을 爲하여 죽을 때에는 그 榮譽를 神에게 感謝하라.』

이러케 스파르타의 少年少女는 教育을 바뎠든 것이다.

二. 아테네의 教育 方法

以上은 스파르타에 잇서서의 兒童教育을 말하얏거니와, 그러면 아테네에서는 兒童에게 對하여 어저한 教育을 하얏는가?

한말로 말하자면, 스파르타는 武斷政治임에 反하여 아테네에서는 文化政治를 施行하얏든 것이다. 아테네에서는 特히 個人의 人格을 尊重하얏다. 스파르타는 兒童에게 對하여 『人間은 國家의 生存을 爲한 手段에 不過하다. 國家를 爲해서는 모든 것을 犧牲하여야 한다.』 하는 教育方法이엿다.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이와 反面에 人間을 國家의 奴隸로 하지 안코 『個人의 生存을 爲하여 國家를 存立시킬 必要가 있다. 人間은 國家 生存을 爲한 手段이 아니고, 個人 生存을 確立하기 爲하여 國家 存在의 意義가 있다.』고 主張하얏다.

그럼으로 먼저 個人이 卓越한 人格의 所有者가 되어야 한다. 兒童에게 對해서는 네 自身이 어진 사람이 되면 國家를 繁榮하게 할 것이다. 워 그러나 하면 國家라는 것은 것은 個人의 集合體이기 때문이다. 卽, 個人은 國家의 成分이다. 個人이 偉大한 人格을 가지면 國家도 發達하게 된다고 하얏다. 그리고 個人이 國家을 爲해 일하는 것도 強制로 하지 안헸다. 個人 스스로가 智識을 研究하고 雄辯家가 되면 훌륭한 市民이다. 이러한 市民이라면 『아테네』는 發達할 것이라고 教育을 시키엿다.

아테네에서는 그와 가튼 教育方法을 施行하얏다.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아이가 나면 父親은 그것을 보고 生存할 만한 條件이 具備하다고 하면 母親의 손에 乳兒를 기르게 하얏다. 그런즉 母親은 이 乳兒를 마터

서 結婚期까지 自己의 손으로 養育하게 되었다.

아테네의 小兒 教育年齡은 七歲까지다. 七歲에 이르면 男兒나 女兒나 學校教育을 바뎠다.

- (15), 『동아일보』, 1930. 3. 18

아테네에서는 이와 가티 兒童을 幼時로부터 家庭 內에서 充分히 養育을 받게 하였다. 普通 家庭에서는 兒童은 一日 中에 定時 食事 以外에 兒童이 조화하는 飲食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玩具와 人形을 주어서 兒童으로 하여금 滋味있는 生活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特히 留意할 點은 兒童에게 가령 子守歌를 들려주어도 文學的 趣味를 주게 하고, 넋날부터 내려오는 童話와 童謠, 傳說과 歷史譚가튼 것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劇과 聲樂에 關한 것도 助長하였다.

『어진 사람이 되어라. 市民으로써 雄辯家가 되어라. 政治家가 되어라.』

古代 아테네인은 이리케 幼年時代부터 教育하였다. 兒童이 七歲가 되어 學校에 通學하게 되면 아테네의 風習으로써 兒童은 男僕에게 引導함을 바더서 學校로 가게 된다. 그리고 學校에서 돌아올 때에도 男僕이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男僕은 다만 심부름꾼이 아니라 兒童을 保護해주며, 쏘는 여러 가지를 가르치기도 한다. 그럼으로 그를 敎僕(Pedagogue)이라고 呼稱하였다. 兒童의 一切의 言行까지라도 一히 是非의 敎訓을 하였었다.

어느 家庭을 莫論하고 兒童이 賢明한다든지 魯鈍한다든지가 實로 이 敎僕의 善良 與否에 잇었다. 그러나 이 敎僕은 實際에 잇서서 그다지 尊敬을 받지 못하였다. 그것은 奴隸로서는 一層 높은 일이었으나, 나히 늙어서 勞動을 갖게 되지 못한다거나, 그러치 안흐면 무슨 故障이 든지 생긴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테네에서는 왜 이와 가튼 教育制度가 發達하였는가 하면, 小學校가 普遍的으로 發達되지 못한 까닭이다. 一般의 兒童이 小學校 敎師에

依支하여 圓滿한 智識과 道德을 배우지 못하게 됨으로, 이 缺陷을 補充하기 爲하여 教僕을 各 家庭에 두었든 것이다. 그리고 小學校 教師도 教僕과 가튼 役割을 한 적도 있다. 다만 教僕은 奴隸요, 小學校 教師는 奴隸가 아니라는 것만 다를 것 밧게 업다. 그리고 特別한 智識이 업슬지라도 就職하지 못한 當時의 知識階級은 最近에는 初等教育의 教師가 되었다. 小學校는 이러한 教師이기 때문에 教師의 집 近處에 設立해 잇섯다. 惑 教師가 街頭나 野原에 가서 거긔서 兒童을 모아 가지고 小學校 教育을 施行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當時의 初等教育을 시키는 小學校의 建物과 教室도 相當히 設備하였섯다. 教室의 內部에는 兒童 걸상이 陳列해 잇고 教師의 安樂 椅子도 잇섯스니, 二千五百年 前에 이러케 設備가 整頓되어 잇섯다.

그러나 兒童의 教育을 左右하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잇는 것이었다. 兒童의 入學을 시키고 안 시키는 것도 아버지의 맘에 잇는 것이다. 그뿐 만 아니라 兒童이 배우는 課程에 잇서서도 父親이 이를 決定하였다. 이와 가티 아테네에서는 父親이 教育上 權限을 附與한 것은 兒童을 教育시키는 責任과 쓰는 兒童이 成人된 後 父親에게 對한 扶養의 義務와 密接한 關係가 잇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테네의 法規에 萬若 父親이 그 아들에게 對하여 學校教育을 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아버지에게 對한 아들들의 扶養 義務를 免除하는 規定이 잇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父親에게 잇서서는 重大한 일이다. 늙은 後에 아들이 父親을 扶養하지 안는 境遇에는 父親은 그 아들에게 對하여 學校教育을 시키었다 하면 아들들 걸어 訴訟을 提起할 수 잇스나, 만일 그러케 하지 못하였다면 아들에게 扶養을 要求할 權利가 업게 된다.

그런데 古代 아테네에서는 兒童教育에 對하여 國家가 強制하지 안 헛는가? 그러치도 안다. 아테네에서는 初等學校에 잇서서는 公立이 업섯스나, 監督權은 政府의 손에 잇섯다. 아테네의 法制에는 兒童에 對한 教育을 強制로 시킨 것은 體操와 音樂이었다. 이것은 法定 學科目이 었스나, 父親은 아들에게 이런 法定 學科 以外에 만흔 課程을 學校에 가

서 배우게 하고, 또는 可及的 오래스동안 學校教育을 시키는 때에는 父親은 當時의 市民으로써 堂堂하였다, 아들이 成人이 된 後이라도 意氣가 衝天하였다.

- (16), 『동아일보』, 1930. 3. 20

아테네에서는 兒童을 伶俐하게 教育시키는 것이 當時 人心을 支配하였으므로, 大概로 兒童은 法定 學科目인 體操와 音樂 以外에 讀書과 習字, 算術의 三科目을 修得하였었다. 이러한 學科는 古代 아테네의 普通教育이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單只 이러한 學課에만 滿足을 하지 안했다. 體育에 잇서서도 크게 獎勵하였었다. 스파르타와 가티 猛烈하지는 안했으나, 그래도 徒步競走, 高跳, 圓盤投, 棒投, 毽놀이, 씨름, 其他 兒童의 年齡과 그 體力에 適當한 여러 가지 力技를 시키었다. 오죽 다른 點은 스파르타와 가티 體育을 教育의 根本 方針으로 하지 안했으므로, 兒童의 生命을 허슬리 안다거나 慘酷한 일까지는 업었다.

아테네의 教育 方針은 『智育과 藝術的 向上』이었다. 體育이란 것은 어진 市民이 되는데 잇서서 그러케 必要로 알지 안했으며, 오죽 身體의 機能을 贈進시키는 點에 잇서서 必要로 아는 것이었다.

먼저도 말했거니와, 스파르타에서는 兒童을 강한 軍人과 가티 教育을 하고 증승과 가티 兵士 取扱을 하는 反面으로, 아테네에서는 兒童을 個人으로서 藝術的 人物과 市民으로서 雄辯家가 되게 하고, 人間으로서 賢人이 되라고 가르쳤다. 卽, 個人으로서 훌륭한 人格을 完成하면 國家도 發達된다고 教育하여 왔었다.

아테네에서는 初等學校의 過程은 七歲부터 十五歲까지다. 그리하여 十五歲가 되면 初等學校를 마치었는데, 普通 私立이었다. 아테네의 教僕 制度에 對하여는 上述한 바와 같거니와, 이 教僕도 兒童에 對한 養護와 家庭教師를 兼任한 것으로서 兒童이 十五歲가 되어 初等教育을

마치게 되면 이 教僕制度로부터 脫出하게 된다. 卽, 教僕이란 것은 十五歲까지의 兒童에 限한 부림꾼이기 때문이다.

兒童이 十五歲가 되어서 初等教育을 修了해 버리면 父親의 權限에 依하여 다시금 高等教育을 시키고 안 시키는 運命이 決定된다. 그러나 普通 上級學校에 보내는 家庭이 많았었다. 아테네에서 初等學校는 私立이었으나, 高等學校는 公立, 卽 政府의 經營으로 되어 있었다. 初等學校의 經營者는 個人이었으나, 監督權은 政府에 있었다. 當時의 學者들은 特히 熱心으로 兒童에게 初等教育을 獎勵하였다. 그리하여 高等學校는 專門學을 가르치는 것임으로 여러 學者들을 모아둘 必要가 있어서 政府가 直接 經營하였다. 十五歲 以上の 兒童은 青年으로 取扱하였었는데, 그의 父親의 命令으로 高等學校에 入學이 許可가 되면은 自己의 修得할 專門學의 選定을 自己의 조화하는 學科로 決定하는 自由만큼은 주었다.

假令 宇宙의 哲理를 究明하여 自己의 說을 天下에 公表하고 大學者가 되려는 意志를 가진 사람은 數學을 選定하고, 萬若 市民으로서 議會에서 이름을 날려 政治的 手腕을 내리는 사람은 雄辯學을 選擇하게 되었다.

- (17), 『동아일보』, 1930. 3. 21

十五歲 以上이면 學問을 배울지라도 그와 가튼 自由를 주었다. 그러나 父親의 監督은 지날 수 없었다. 父親의 指揮下에 集會 가튼대 가게 하고, 또는 社會教育을 받게 되었다. 父親이 社交上 여러 가지 禮儀와 政治의 組織 狀態, 行政에 關한 實際的 智識과 其他 時事 問題를 討議하고, 또는 市民으로서 맞당히 해야만 할 責任을 가르치었다. 또 한 가지 아테네의 教育制度에 있어서 感心할 만한 것은 純理의 研究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그 方面에 澈底히 研究케 한 것이다.

羅馬 時代의 兒童生活

一. 棄兒

兒童과 父母의 關係를 관찰하는데 로마 時代에 있어서도 棄兒의 風習이 잇섯다. 이것은 로마 初期의 都市時代 共和政體時代 及 帝國時代에 볼 수 잇섯든 것이다. 그러면 어저한 兒童이 그와 가튼 慘酷한 일을 當하느냐 하면, 出生 初期에 잇서서 兒童이 病弱하다고 認證하는 때나, 不具兒童이 될 새 또는 그 家庭이 貧困한 狀態에 빠진 境遇에 그리고 私生兒를 나흔 새, 이러한 慘酷한 일을 볼 수가 잇섯다. 그런데 棄兒를 하는 대는 반듯이 그 家長이 된 父親이 이를 斷行하얏다. 로마 時代에 잇서서는 家庭에 乳兒 出生하면 當時의 慣習으로 그 아이를 아버지의 무릅에 안치얏다. 그러면 父親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 이 아이는 自身의 것임으로 養育을 하지 안하면 안 된다는 責任을 切實히 늦기게 하얏다. 이것은 그의 乳兒에 對하여 扶養 義務가 잇는 아버지로써 宣言한 것인데, 兒童의 出生 當時 아버지가 이 宣言을 하면 그 兒童은 生存에 잇서서 保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兒童이 出生할 때에 만일 그 父親 되는 이가 이 宣言을 하지 안하면 周圍에 잇는 者는 곳 乳兒를 가지고 가서 惑은 街頭에 惑은 原野에 내어버리얏다. 내버린 아이를 주어 길은 사람은 만히는 自己의 것으로 아는 이가 적고, 혼이는 奴隸로 파는 것이얏다. 그를 주어오는 이도 亦是 奴隸가 만흔 原因이다.

로마 時代에 잇서서, 特히 初期에 잇서서는 兒童에 對한 아버지의 權力이 偉大하얏섯다. 아버지는 子息을 賣買할 수도 있고, 廢嫡할 수도 있고, 따님을 爲하여 사위를 選定하는 것도 다 아버지의 맘에 잇섯든 것이얏다.

그리하여 兒童에 對해서도 自己가 조하하는 이에 依하여 시집을 보내며 장가를 들게 하는 專斷的 廢風이 잇섯다. 그뿐만 아니라 父親의 意思에 子息이 反對한다고 하면 어저 境遇에는 자그 아들을 죽이기사

지도 하였스니, 卽 아버지는 자기 자식의 生命 與 奪權을 左右하였스니, 實로 놀라운 일이었다.

二. 乳兒의 出生

로마 時代에는 父子間에 親權이 이와 가티 絶對的이었다. 그러면 父母가 女息에 對한 態度는 冷酷하였든가? 그러치도 안타. 父母는 子息에 對하여 溺愛의 情이 넘치었다. 아이를 나면 문 아페다가 아름다운 꽃과 파란 입새로 裝飾하여 祝福하였다.

아이가 出生한 後에 男兒이면 九日 되는 날, 女兒이면 八日 되는 날에 류스트라티스(Lustratis)라고 稱하는 儀式이 잇섯스니, 그 式은 어찌케 하느냐 하면 먼저 月桂樹나 올리쑤(椰子樹)의 나뭇가지를 병 가운데 잇는 물에 너헛다가 그 물로써 乳兒의 몸을 씻었다고 한다. 그 瞬間에는 향긋러운 내음새가 진동한다. 그리고 그 아이의 幸福을 祝福하기 爲하여 家畜을 잡어서 神에게 바치고 神明의 加護를 祈願하였다. 아이의 命名도 이 날 行하였다. 이름을 짓는대도 세 가지가 잇스니, 個人 固有의 이름, 家庭을 代表하는 이름, 族을 代表하는 이름이다. 列舉하면, Marcus Tullius Cicero라고 하는 姓名에 잇서서 Marcus는 個人名이요, Tullius는 家庭名이며, Cicero는 族을 代表하는 이름이었다.

女兒가 長成하여 結婚하면 男便의 姓을 잘흐게 되엇섯다. 命名式을 할 때에는 그 家庭에 保存해 잇는 系譜에 家庭의 一員으로서 記錄하여 두엇섯다.

— (18), 『동아일보』, 1930. 3. 23

古代 로마 時代에서는 이 記錄을 公然 登錄함에는 마-카스 아우렐리우스(Macus Aurelius)의 時代로부터엿섯다. 當時의 布告에 依하면, 그 登錄은 出生 後 三十日 以內에 届出하지 안하면 안 될 法規엿섯다. 登錄하는 때에는 農業神을 祭하는 神殿 事務所의 記錄係에 出願하여

아이의 이름을 登錄하였다고 한다.

三. 養子 及 相續

養子를 낳는 境遇에는 어찌 하였든가. 家庭에 아들이 업을 때에는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養子를 너를 수가 잇섯다. 아들이 업을 때에 家長은 自己보다 十八歲 以下의 아이를 養子로 너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養子 낳는 때에 法定 條件 中의 하나이다. 其他 家庭의 名譽와 宗教에 있어서 養子를 얻는 家庭과 주는 家庭의 雙方에 對하여 그 結緣에 犧牲的 損害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結緣에 對해서 詐欺的 行爲가 있어서 안 된다는 이 三 條件을 重視하였다.

養子の 種類에 있어서도 兒童을 養子로 맞는 것과 丁年者를 마저서 結緣하는 일 그리고 當事者의 死後 生前의 意思, 그러치 안흐면 遺言을 尊重하여 法規에 依해서 結婚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 結緣의 方法은 養子の 實家와 養家의 父親이 相互間 條件에 依하여 官廳의 官吏 아페서 保證人을 入會케 하고 協議決定한 後 登錄한 後에 養子로 맞는다. 養家에 들어가면 그 家庭의 社會的 階級の 待遇를 받고, 그 族名을 支持하는 相續人이 되는 것이다.

그래도 禁止事項으로는 그 養家에 ㅈ님이 잇을 때에는 그 ㅈ님과 結婚하는 것을 禁止하였다. 이것은 ㅈ은 養子에 對하여 누이가 되는 法制上의 拘束을 받기 ㅈ문이다. 丁年者의 養子가 되는 境遇에는 市民의 權力家에서 만히 하는 일인데, 아들 업는 사람이 養子를 너를 때에는 市民의 集團的 承諾을 어든 後에 施行하는데, 이런 結緣은 權勢上 野心을 滿足하기 爲하여 盛히 濫用했든 것이다.

相續의 關係를 觀察할 ㅈ에 市民은 財産을 贈與할 수 있게 되어서 그 意思表示하는데 두 가지 境遇가 있다. 첫재는 市民生活을 하고 잇는 者가 公用 ㅈ문에 召集함을 바들 ㅈ에 赴任하기 前에 財産을 贈與할 수 있게 되엇든 것이다. 둘째는 戰爭이 일어나는 ㅈ 軍隊의 一員으로써 召集을 바들 ㅈ에도 自己의 財産을 贈與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意思를

表示하는 方法으로서 書面으로 認定하는 일이 普通이었다. 이 方法 以外에는 公然席上에서 口頭로써 發表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官吏의 面前에서 말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

이때에 官吏는 口頭로써 말하였다는 것을 記錄해 둔다. 그리고 만일 當事者가 意思表示가 업시 死亡하는 境遇에는 財産은 그의 아들에게 屬하게 되었다. 財産을 享有할만한 아이가 업슬 때에는 가장 가까운 親族에게 屬하는 것이다. 萬若 그것도 업다면 市民의 公有로 한다.

4. 兒童教育

家庭教育

羅馬 時代의 兒童教育을 觀察하는데 그 方法으로는 學校教育和 家庭教育이다. 이렇게 난을 수가 있스나, 學校教育은 羅馬 初期에 잇서서는 보기 어려웠다. 兒童에 對한 教育은 大概 父親에게 잇섯스나, 幼少한 兒童은 直接 그 母親의 손에 길리웠다. 羅馬 初期, 卽 帝政 以前의 羅馬에 잇서서는 兒童에 對한 教育和 訓練에 對하여 母親들은 一般으로 苦心하고 努力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

假令 카우스 兄弟의 母 콜내리아 가튼 이는 그 代表的 母性이었다. 그러나 兒童도 長成함을 잘라서 그 待遇가 고쳐진다. 中流 以上の 家庭에서는 父親이 客과 맞갓사랑에서 接見하여 談話를 하는 때에는 그 兒童도 이 室內에 들어가서 자리를 가티 하는 것을 許諾하였다. 이런 자리에서 聽講하는 것은 兒童에 잇서서의 社會的 教育이었다. 父親과 客과의 談話를 들고 法制上 智識과 慣習을 理解하도록 教養시켰든 것이다.

- (19), 『동아일보』, 1930. 3. 25

兒童이 教養을 맞는 機會는 이와 같이 應接室뿐만 아니라 宴會와 其他 集會에서도 그 자리에 가서 父親과 客間에 交換하는 談話를 傾聽하

얕든 것이다. 古代 羅馬에 있어서 兒童은 學校 制度가 發達되지 못한 初期에는 이와 가티 臨時로 그곳에서 教育을 바닷스며, 其他 古代 希臘의 年長者의 어진 行爲를 規範잡아 가르쳤었다.

古代 羅馬의 兒童教育은 理論보다도 實際에 있어서 教育運動을 하였다. 當時 羅馬人의 採用한 教育은 兒童을 國家에 有功한 人物이 되도록 기르며 가르치었다. 卽, 國家에 有用한 人物이 되도록 個人으로 힘있게 가르쳤다. 이 點에 있어서 로마인은 아테네에 依據하지 안코 스파르타를 模倣하였다.

그러나 制度上으로 보면, 羅馬의 教育과는 그 方策에 있어서는 根本的으로 差異가 있었다. 스파르타 教育은 그 施行 方法에 있어서 國家 스스로가 이것을 斷行하였지만, 羅馬에서는 國家가 直接 教育을 하는 것보다도 個人의 家庭에 맞기었던 것이다.

各 家庭에서는 아테네에 依倣하지 안코 스파르타의 교육을 採用하는데 不倣하였다. 그러므로 羅馬 教育은 顯著히 發達되지는 못하였다. 羅馬가 그 教育을 國家의 손으로 施行하게 됨은 帝政時에 들어간 때부터 인데, 거기까지는 國家는 教育 施設이라고 하는 것은 念頭에 두지 안코 私立學校에 對해서는 勿論 援助하지 안했다. 帝國 以前의 羅馬에 있어서 兒童에 對한 教育은 家庭에 있어서 行한 것보다 만났든 것이다.

그러면 家庭에서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하면, 讀書하는 法과 習字法, 其他 簡單한 算術이었으나, 大概로는 父親에게서 日常生活에 必要한 것을 배웠다. 넛날 이야기(童話, 傳說), 그 外에 唱歌(童謠)와 그리고 身體에 關한 訓練은 日常의 遊戲에 依하여 指圖하였다.

羅馬의 兒童도 『勇敢한 軍人이 되어라』 하는 訓育을 바닷슴으로, 遊戲와 其他 運動에 對하여 年長者가 適當하게 指導하였다. 羅馬市의 強大은 羅馬 軍人의 戰勝의 結果이었슴으로, 卽 羅馬 市民으로써 羅馬를 사랑한다는 精神을 涵養하였든 것임으로, 兒童에게 施行한 教育은 強制 殘忍한 國民性을 지었든 것이다. 그와 가튼 教育은 家庭에서, 學校에서 施行하였었다.

小學校 教育

古代 羅馬에서는 兒童의 學齡期는 七歲부터였다. 卽, 兒童이 七歲가 되면 小學校에 入學하얏섯는데, 여기서 約 五年間 修業하얏섯다. 十二歲로부터 三, 四年間은 文法學校에서 배우고, 그 後에는 高等學校에서 배우게 되었다.

羅馬에서는 小學校는 Ludus라고 하얏다. 中等學校는 Literatus=grammaticus라고 稱하고, 高等學校는 Schola라고 불렀섯다.

羅馬의 學校制度의 發達을 考察할 때에, 紀元前 二世紀 頃부터 讀書을 가르치는 學校가 設立되었섯다. 羅馬에서 比較學校를 施設한 것은 스푸류스 카빌루스(Spurius Cavilus)로써, 『플루-탁크英雄傳』에 依하면, 그들은 授業料를 徵收하고 生徒에게 學藝를 教授하얏든 것이다. 이러한 學校의 設立은 紀元前 二百六十年에 볼 수 잇섯든 것이다.

小學校에서는 어떠한 學科를 가르치는가 하면, 讀書, 習字 及 初步의 算術을 가르쳤다. 讀書는 教科書가 缺乏하얏슴으로, 各各 兒童이 가지고 와서 배우게 되었섯며, 먼저 教師가 쓴 것을 보여 이것을 口頭로 音讀하게 하고, 또 그것을 兒童에게 反覆 音讀라며 쓰게 하얏다.

이러한 教育 方法도 紀元前 埃及에서는 征服地로부터 多數의 奴隸를 本國에 吸收해서 이것을 使役했섯는데, 此等の 奴隸로 하여금 讀本의 複寫에 종사하게 해서 이새부터 教科書用 讀本이 豊富하게 되어서 지게 各 兒童의 손에 ,讀本을 가지게 되었섯다.

이 時代에는 埃及의 以東 讀本 中에서도, 羅典의 詩文 中에서 또는 羅馬 民族의 文獻 中에서 翻譯한 것이 만히 編入되었섯다. 讀本의 教授 方法에 잇서서도 前述한 바와 가티 文字說 綴方 그리고 文章이었는데, 特히 發音을 重要視하얏다. 이와 가티 讀本의 題目에 關聯한 그 語와 文章을 應用라야 作文을 가르쳤다. 그리고 또 習字도 가르쳤스니, 그 다음 方法은 教師가 漆板 우에 써서 그것을 兒童으로 하여금 크게 쓰도록 하얏다.

- (20), 『동아일보』, 1930. 3. 26

또 다른 方法은 教師가 兒童의 손을 붓잡고 習字를 하게 하였스니, 넷날의 羅馬에서나 朝鮮의 書堂에서도 이런 點에 잇서서도 다 가타든 것이다. 算術을 가르칠 때에는 假令 작은 돌을 던지고 몇친가 헤여보란다든지 또 여러 가지 物件을 그리고 計算하라 한다든지 하는 가장 兒童生活을 根據로 한 教授 方法을 採用하였다. 小學校에서 兒童을 取扱할 때에 多數한 兒童을 一室에 惑은 한 場所에 모아서 教授하기도 하고, 그 以上の 學校教育은 集團教授法을 採用하지 안하였다.

로마에서는 小學校의 設備가 不完全하여야 그 施設이 極히 少數였었다. 로마 時代에 學校는 發達되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卽, 兒童에게 對한 初等教育을 爲한 造營物부터가 업섯든 것이다. 그럼으로 그 當時 小學校 教育이란 街頭에서 惑 큰 家屋의 처마 미테서 惑은 집 양지썩에서, 山에서 이리케 教授하였다.

그러나 學校 設備에 잇서서 小學校는 이와 가티 不完全하였스나 中學校, 卽 文法學校에 잇서서는 特定の 建物로써 그 入口는 行路에 잇섯다. 그리고 教師는 教室 內에 잇서 一壇 눅흔 곳에 안저서 教鞭을 잡엇섯다. 팔하서 小學 教育은 그 內容에 잇서서든지 設備에 잇서서든지 不完全하였슴으로, 教師의 待遇까지도 조치 못하였다.

古代 希臘 時代에는 小學校 兒童이 通學할 때에 家庭에서 아이 보아 주는 教僕을 採用하였다는 것은 미리 말하였거니와, 로마에서는 이것을 커스투스(Custus)라고 불러서 希臘 時代와 가티 小學校 教員은 教僕과 가튼 待遇를 하였섯다. 그리고 採用에 잇서서 스리스時代보다도 各 家庭에서 大概로 採用했섯지마는 그래도 만히는 奴隸로부터 採用하였슴으로, 그 中에도 老衰者와 젊은이라고 身體에 故障이 잇는 者가 이에 應한 이가 만헛든 關係上 그리 厚待를 받지 못함은 그러한 理由인 것이다. 나는 이 點에 잇서서 國民教育의 基礎가 되는 小學校 教育을 로마에서 等閑視하였다는 것보다도, 그를 指導하는 이를 輕蔑하게 생각하는 그 根本 精神을 打破하지 안는 것이 實로 遺憾으로 思惟한다.

中等學校 教育

古代 로마의 中等學校 教育은 어찌하였든가. 그것은 卽 文法學校인데, 여기 入學하는 兒童의 年齡은 十二歲부터이다. 로마에 있는 文法學校는 두 種類로 난호았는데, 卽 그리스 文學을 採用한 것과 라틴語이 두 가지였다. 前者는 希臘人을 쓰고 用語도 希臘語로써 希臘 文學과 文化를 研究하였다. 後者는 라틴系로써 希臘 文學과 其他 希臘에 關聯한 文獻을 라틴語로 翻譯한 것을 採用하였스니, 前者의 理論의 研究에 沒頭한 傾向이 있음에 反하여, 後者는 實際의 教養에 置重하였든 것이다.

此等の 學敎에서도 그리스와 라틴의 文學과 文法을 研究할 뿐 아니라, 其他 地理, 歷史, 星學, 幾何學, 音樂, 繪畫, 舞蹈 등을 敎授하였다. 專門學校로서는 修辭學校가 잇섯스니, 이것은 로마에서는 男兒가 十六歲에 達하면 한 사람으로서의 待遇를 받는데, 軍隊에 들어갈려면 그 軍營 入門하고, 官吏 生活을 하려면 곳 그 準備敎育을 바덧스니, 修辭學校는 當時 官吏 養成所에 잇섯든 것이다. 修辭學校에서는 主로 修辭學, 雄辯學, 法律學, 哲學, 文學, 其他 學科를 敎授하였섯는데, 當時의 靑年이 學校를 마치고 官途에 나아갓섯다. 修業年限은 二年 惑은 三年 이엇섯는데, 이런 學校 以外에는 羅馬에서는 最高 學府가 업섯든 것이다.

— (21), 『동아일보』, 1930. 3. 28

이런 學校에서 修業한 者로써 그 以上の 研究를 하랴고 하면 國外에 가서 最高 學府에 入聞하였다. 例를 들면 紀元 八十年 後에는 그와 가튼 研究心을 가진 兒童과 靑年은 아테네와 그 外에 當時의 哲學과 修辭學의 學校가 잇는 都市에 가서 最高의 學問을 研究하게 하였다.

羅馬도 共和政時代의 末葉에 들어서서 各 都市에서는 제각기 特色 잇는 學校가 設立되어서 專門學의 中心으로써 發達하였섯다. 例를 들면 로데스, 아폴로야, 미텔렘, 알렉산드리아, 달샷스, 펠람스, 此等の 都市

는 當時에 있어서 學問의 中心地였었다. 羅馬帝國 時代에 있어서는 스킬라, 에페섯스와 가튼 또는 시세로時代에는 말세유 가튼 곳은 大學의 所在地로서서 有名하였다.

兒童의 玩具 及 遊戲

羅馬 時代의 兒童은 어찌케 놀았느냐고 하면, 그들은 現代의 兒童과 가티 人形, 玩具의 家屋과 木馬 또는 카드, 胡桃 等を 가지고 놀았다. 男兒는 작은 돌작란도 하고, 竹馬를 타기도 하고, 개굴(溝)을 건너뛰기 놀이도 하고, 팽이 돌리기, 도랑테 돌리기, 쌀놀이 等を 하였다. 女兒는 人形과 玩具의 집과 여러 가지 彩色으로 맨든 구슬과 작은 돌, 胡桃 等を 가지고 놀았으며, 또는 곱고 아름다운 童謠를 부르며 놀기도 하였다.

賢母와 兒童

羅馬府의 勢力이 強大한 것은 戰勝의 結果라고 하겠지만, 그 勢力의 衰廢는 戰敗의 結果가 아니고 經濟的 原因이 重要한 地位를 占領하였던 것이다. 한니발의 戰爭이 十數年 繼續하였으나, 이 戰爭 後 羅馬人은 한니발을 應援해준 伊太利 屬領土에 苛酷한 刑罰을 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罰은 羅馬 領土 內에 있는 農業에 從事하는 農民에게 生産을 하지 못하게 하고 多數 失業者를 續出케 하였으므로, 此等은 生活의 길을 찾기 爲하여 羅馬 都城으로 시름업시 모아든 것이다.

- (22), 『동아일보』, 1930. 3. 29

羅馬의 貴族은 土地를 만히 所有한 資本家이었다. 그들은 그 所有地의 面積을 함부로 擴大하고 盛히 土地를 購入하였으나, 農業 勞動에 習熟한 小作人을 使用하지 안코 戰爭하여 捕虜가 된 外國의 奴隸를 使役하여 耕作에 從事케 하였다. 그러나 生産 收益이 漸減할뿐만 아니라, 더욱이 小農은 壓迫을 바더서 充分한 生産 能率을 내지 못함으로, 잘하

서 困窮할뿐만 아니라 農業 方面에 잇서서 多數의 失業者를 惹起케 하였다. 大地主였든 貴族의 土地 面積은 增加하지만, 小作人이 減少해짐으로 農業 收益이 年年히 激減하야서 羅馬의 富는 衰微할 뿐이엇섯다.

羅馬 當時의 識者는 이 點에 잇서서 크게 憂慮하얏다. 여기에 現下 우리 朝鮮의 生活에 잇서서 果然 朝鮮의 將來를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農村問題와 兒童問題를 解決하지 안흐면 아니 된다. 朝鮮의 全人口의 八割 五分이 農民階級인만큼, 小作人으로 되어 잇으나, 農業 收益의 分配 問題를 中心으로 하야 地主나 小作人의 將來가 나날히 저물어가는 이새에 우리의 根本 問題를 解決할 一方法으로서는 農村 問題를 들지 안할 수 업다.

例를 들면, 紀元前 一百三十三年에 다이베투스, 쎄푸로누스, 구라큐스라고 하는 貴族이 잇섯다. 그들은 羅馬人이 享樂에 浸潤되어 羅馬의 弊害가 만흔을 痛嘆하고, 무엇보다도 農村 問題에 잇서서 改良政策을 樹立함이 急先務임을 깨달얏다. 그가 西班牙로부터 羅馬에 돌아와서 트리분(保民官)에 選舉되었을 때에 곧 農村處分法案을 提議하얏다.

羅馬는 廣大한 土地를 國有로 한 것이나, 公有地를 貴族에게만 自由로 使用케 하얏다. 그리고 貴族은 地稅를 納入치 안코 奴隸를 使役하야 그 收益을 私有로 하얏다. 그리하야 小農民은 豐沃한 土地를 使用할 수 업게 되어 恒常 荒廢한 土地에만 使用을 許可케 하고 地稅도 高率로 매어 이 때문에 生計를 세울 수 업게 되엇다.

— (23), 『동아일보』, 1930. 3. 30

그런데 아이베투스, 구라큐스는 貴族이 使用하고 잇는 土地를 빼앗어 그것을 小農地에 分割해 가지고 貧民으로 하여금 無價로 使用케 하랴고 하얏스나, 貴族은 元來 이에 反對하얏다. 그들은 먼저 十人의 保民官으로부터 一人을 擇하야 구라큐스의 法案에 對한 反對 演說을 하게 하얏다. 當時 羅馬의 立法府에서는 十人의 保民官이 다 同意를 하지

안하면 法案을 通過치 못하게 하는 議法院이 잇섯다. 그래도 구라큐스는 貴族 等の 反對에 屈伏하지 안헸다. 卽 市民을 說服시켜서 이 法案에 異議를 提唱케 해야 十人의 保民官을 罷免시켜서 畢竟에는 이 法案을 通過하얏든 것이다.

구라큐스는 이로 因하여 貴族에게 憎惡를 받게 되어 마침내 트리분(保民官)의 再選期를 際하여 被殺을 當하얏다. 이것은 紀元前 一百三十三年에 잇슨 일이나, 이로부터 十年을 지내서, 卽 一百二十三年에 구라큐스의 弟 가이유스 구라큐스가 兄의 遺志를 繼承하여 農村處分法을 實施하라고 하얏다. 이 法案의 施行은 當時 社會에 잇서서 實로 大改造의 任務를 씩고 나온 것임으로, 그의 母親은 이것의 實行을 勸하얏다.

구라큐스의 母親은 羅馬의 賢婦人으로 名聲 노픈 콜라리아란 이다. 兄 다이베류스 구라큐스와 弟 가이유스 구라큐스는 아주 어릴 旣이엇다.

— (24), 『동아일보』, 1930. 3. 31

어느 날 貴族의 한 婦人이 紅玉과 綠玉으로써 몸을 裝飾하고 콜레리아의 집에 왔섯다.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寶石을 보이며 콜레리아 婦人에게 向하여

『당신도 무슨 寶物을 가지고 잇습니까?』

하고 물엇다.

『콜레리아』 夫人은 兒童들이 學校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잇는 寶物 中에 가장 貴重하고 아름다운 寶物은 이것입니다.(自己의 兒童을 指示하며)』

하얏다. 그처럼 콜레리아는 兒童을 크게 待遇하며 무엇보다도 사랑 하얏든 것이다.

長子は 農村處分法案을 提出하기 때문에 죽게 되엇으나, 그의 죽음

은 羅馬를 『참으로 사랑』하는 改造 道程에 잇서서 그의 몸을 犧牲하게 하얏스니, 實로 보기 드문 美談이다.

그러나 羅馬 全體의 婦人이 다 그와 가튼 賢母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와 가튼 赤誠 잇는 아들은 업섯든 것이다. 모든 羅馬人은 刻苦 勤勉하는 百姓은 업고 歡樂의 굴영과 酒色에 빠진 沒落 過程에 잇는 百姓들이 었다.

當時 로마가 征服한 諸國을 屬領한 後 行政上 主郡으로 分割하얏다. 그리고 每年 세내드의 銓衡한 知事를 派遣하야 地方行政을 하게 하얏다. 로마의 法制의 依하면 一年 郡守의 職을 勤務한 後에 翌年에는 地方長官으로 赴任하야 知事가 되엇든 것이다. 郡守職에 任하기 前에는 다른 要職에 나아가 官職을 가지지 안흐면 아니 되게 하얏다. 要職으로 말하면 共和政體 時代에는 市民의 公選에 依한 것이지만 官途에 出世 하랴고 하는 者는 市民의 歡心을 사기에 가진 努力을 다하얏든 것이다. 그 方法은 人民의 娛樂의 施設과 그 外에 巨額의 金錢을 던지엿다. 그럼으로 地方長官에 赴任할 時에는 로마의 官吏는 흔히 負債를 걸머지게 되엿다. 그래도 그들은 負債를 消却할 方法으로써 地方長官이 되면 苛酷한 租稅를 바치게 하고, 이것을 公金庫에서 私腹을 채우는 일이 만 하타. 여기에 萬一 彈劾을 바들 時에는 審判官에게 贈物을 보내는 일이 잇섯다.

— (25), 『동아일보』, 1930. 4. 1

넷날의 로마뿐만이 아니라, 現代에 잇서서도 이러한 醜態를 엿볼 수 잇다.

이와 가티 로마 當時에는 黨利에 置重하고 私腹을 取하기 때문에 國家의 百年之計는 참말 憂慮하지 안힐 수 업섯다. 그 政策에 잇서서도 案前의 利害關係에만 沒頭하고, 참으로 國家와 社會를 爲하야 改造하려는 政策을 樹立하야 主張한다거나, 이를 實行하는 志士가 업섯다.

이처럼 腐敗分子 中에 頭角을 돌현히 뽑내인 이는 저 賢母 콜레리아에게 敎育을 바든 구라큐스兄弟이엇스나, 다이베류스 구라큐스는 그 政策 때문에 被殺을 當하고, 카이유스 구라큐스가 兄의 遺志를 澈底히 實行하려고 하는 때에 母親 콜레리아는 次男이 亡兄의 覆轍을 밟으려고 함에 놀래어 그 政策 實行 運動에 對한 反對 意思로써 勸勉하얏다.

그러나 次男 카이유스는 亡兄이 政策보다 一步 나아가 그 根本的 改造 方針 樹立에 努力하얏스니, 卽 로마의 政體를 一變하지 안흐면 아니 된다고 하얏다. 當時 카이유스는 保民官으로 選定되어 다음과 가튼 政策을 實行하얏다.

一. 穀物에 對하여 最低價格을 決定하기로 施行할 것

一. 나이드 以上 州郡의 知事의 任用令을 布告하고, 知事에 對하여 地方 經濟 振興에 關한 行政權을 擴張할 것

一. 法定의 陪審官은 從來와 가티 元老로부터 選定치 말 것

이와 가티 하야 카이유스는 平民에게 人望을 얻게 되어 또 富豪까지 라도 카이유스를 後援하야 從來 傲慢한 貴族에게 對抗하게 되었다. 카이유스는 나이드 平民의 助力을 어더 農地處分法을 制定하얏섯다. 이 實로 大事業이 아니고 무엇이나. 로마 領土 안에 植民地의 貧困한 人民을 移住하게 하야 그 生活의 保障을 하리라 하얏다.

紀元前 二十一年에 로마市에서는 또 그 法案에 對한 反對運動이 猛烈히 일어나 카이유스는 意外에 貴族黨에게 被殺을 當하얏다. 賢母 콜레리아가 말한 寶物의 兒童은 改造 政策 때문에 나라를 爲하야 貴族制度를 打破하고 無產者를 救援하기 爲하야 一生을 마치엇스니, 이 어찌 장한 일이 아니라.

로마에서는 貴族과 平民과의 階級鬪爭의 紛擾가 끈질 날이 업섯다. 카이유스의 死後에는 貴族階級은 私腹을 채우며 自己네의 利益을 圖謀하기 爲하야 平民을 壓迫하고 農地處分法을 無視하얏다. 下層階級에서는 奴隸의 人口數가 增加하야 그 勢力이 強하게 되어서 支配하기 어렵게 되엇든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叛旗를 휘날리며 紀元前 一百四

年乃至九十九년에 로마인과 對抗하게 되었다. 下層階級이 이와 가티 로마의 貴族階級에 反抗하게 되고, 上流階級인 貴族들은 나날이 墮落 하얏섯다.

- (26), 『동아일보』, 1930. 4. 3

中世紀의 兒童 生活에 잇서서 冒險的 影響을 준 것은 十字軍이니, 古代 兒童 生活에 對한 究明은 이로써 窸을 막을가 한다. 그런데 十字軍 이란 어저한 것인가를 簡單히 說明하고저 한다.

먼저 이것을 獨逸, 英國, 佛蘭西의 三 方面으로부터 歷史 觀察로 極히 簡單히 陳述하고저 한다. 獨逸 르크켄家 르크族의 사리部로부터 일어나서 獨逸의 霸權을 쥔 그 時代를 사리朝라고 하얏다. 사리朝 時代의 가장 勢力 잇는 王은 사리朝 第二王 하인리히 三世엇섯다. 그는 르크켄 公領의 外에 바이에른領, 슈와벤領을 支配하야 그 勢力이 強大해 짐으로, 羅馬 法王을 三人까지 廢止하얏든 것이다.

그는 自己의 支配下에 잇는 獨逸의 一 僧正을 法王으로 하얏다. 그리 하야 그가 死後 六歲 幼主 하인리히가 一千五十六年에 卽位하야 四世로 稱하든 새, 羅馬 法王의 英傑이라고 하든 그레고리 七世가 法燈을 繼續하는 時代엇슴으로, 勢力의 中心은 皇帝를 지나서 法王의 손에 움기게 되었다. 後年 하인리히 四世가 皇后와 皇子와 從子 一人을 데리고 伊太利에 赴하야 그레고리 法王의 脚下에 躡하야 破門을 赦한 것임으로, 이런 일이 잇슨 後 二十年이 되지 못하야 十字軍이 일어났섯다.

羅馬 法王이 歐洲 諸國의 帝王들을 屈服할 權威를 携諾하기에 이르러 法王은 歐洲의 政治의 中心이 되어 잇섯다. 또 當時의 人民은 不可思議의 일을 信仰하고, 運命說을 主張하고 그리고 未來의 憧憬하는 末世를 말하며, 그리스도 後의 一千年을 지낸 때에는 天國의 最後의 裁判이 오고, 現世는 滅亡할 것이라는 것을 信仰하얏다.

마침 紀元 一千年이 갖가워서 歐洲 諸國에 惡病이 流行되고 또는 饑

饑이 莫甚하여 世人은 神에 對한 恐怖를 느기었다. 人心이 이러케 動搖됨을 利用하여 羅馬 法王을 比喩하여 當時 宗教界의 人才들은 그리스도 教徒를 煽動시켜 教敵인 모하멧트 教徒의 國을 征伐할 遠征軍을 일으켰다.

一千九十年에는 各國의 教徒가 雲集하여 十字架를 徽章으로 한 軍隊를 組織해서 멀리 東方으로 向하게 되었다. 이 遠征의 目的은 土耳其의 領土에 들어간 그리스도(基督)의 靈地 에루살렘을 回復시키려고 한 것이었으나, 第一軍은 功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解散하였고, 이것을 先頭로 하여 僧侶, 武士, 公侯 等이 漸次 여기에 加擔하였다. 前後 一百七十餘 年間 東征 六十七回에 미치었다. …(中略)…

그런데 十字軍이 當時의 兒童 生活에 크나큰 感化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兒童으로부터 十字軍을 組織한 點이다. 兒童 十字軍의 成立은 軍隊의 編成 以外에 잇서든 諸國의 兒童에게 軍隊 教練을 鼓吹하였다. 이 兒童 十字軍은 먼저 佛蘭西와 獨逸에서 일어난 것인데, 1212 年에 組織이 되었다.

前述한 十字軍의 目的은 팔레스틴을 사라센인의 손으로부터 奪取해서 에루살렘을 中心으로 하여 그리스도國을 樹立하려고 한 것이었다. 十二世紀의 末로부터 十三世紀의 初期까지에 그 國은 瓦解되었다. 그럼으로 兒童 十字軍이 일어난 當時는 팔레스틴은 돌로 사라센으로 돌아갔었다. 그리하여 十字軍의 目的은 達하지 못하였다. 兒童의 精神에 까지 이것을 遺憾으로 생각하였고, 當時의 僧侶는 이러한 兒童의 心理에 들어가서 少年者로 그리스도教軍을 再興시켰다. 兒童 十字軍은 여러 階級의 兒童을 網羅하였으므로 公僕의 貴公子와 農夫의 長男도 있고, 騎士의 子弟와 冶匠의 아들도 잇었다. 그리고 商人, 牧羊者, 鑛製造人 等, 各層 階級의 兒童으로써 組織되어 잇는 것이다.

그들은 當時 僧侶의 煽動에 依하여 宗教熱으로써 된 것이었으나, 그것은 家庭教育의 方法으로써 넘우도 兒童의 自由를 拘束하였으므로 이러한 家庭의 束縛으로부터 탈출함에는 가장 公明正大한 神에게 힘을

빌었다. 그리하여 이 兒童 十字軍은 兒童의 空想的 行動을 助長하는데 不過하였다. 이 行軍은 兒童 生活에 對하여 好 影響을 주었다는 것보다도, 그 自身에 잇서서 眞正한 意義를 갖지 못하였다. 그 中에서 佛蘭西 兒童 十字軍과 獨逸 兒童 十字軍은 實로 悲慘한 活悲劇을 演出하였다. 이 軍隊에는 男兒뿐만 아니라 妙齡의 少女들도 多數 參加하였다. 十二歲 以下 少年少女가 宗教軍의 깃발을 날리고 莊嚴히 遠征간 것임으로, 그들은 그 行動에 잇서서 宗教的 意義가 包含된 自由를 切實히 要求하였고, 父母도 이를 強硬히 拘束하지 못하고 躊躇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軍隊에 加入하게 되었다. 이것은 軍隊라고 稱하는 것보다, 少年少女의 長距離 旅行團이라고 하고 쉽다.

이 外에 佛蘭西 兒童 十字軍과 獨逸 兒童 十字軍에 잇서서 特筆할 만한 史實이 만흐나 紙面의 關係도 될뿐 아니라, 너무 張皇해질 것임으로 그만 省略하고, 古代 兒童 生活에 對한 究明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機會 있는대로 近代 兒童 生活에 對한 것을 紹介하라고 한다. 脫稿를 하고보니 여러 가지로 不滿한 點이 만타. 그러나 이 抄譯이 少年 指導者와 一般 教師와 父兄母妹에게 조고마한 촛불이 된다면 이로써 滿足할가 한다.

— (27), 『동아일보』, 1930. 4. 5

統一을 바람 -少年運動者에게-

나는 벌써 조선을 떠나 이곳에 온 지가 일년이나 되었습니다. 짊어서 조선의 정세를 잘몰고 잇스나 늘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는 조선 모든 운동이 그러치마는 더욱이 소년운동에 잇서서 너무 다각적(多角的) 분산(分散)이 되어잇는 듯하니 이것을 통일할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일함에는 모름직이 이론(理論) 확립(確立)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년총련맹(少年總聯盟)으로서도 이론의 확립은 물론이어나와 행동강령(行動綱領)가튼 것을 세워서 절대적(絕對的) 통일을 할 필요가 잇다고 생각합니다.

(東京에서)

- 『조선일보』, 1930. 5. 4

조선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여러분! 오월 첫 일요일은 우리 「어린이날」이 올시다. 어린이날! 어린 이날! 얼마나 즐겁고 기쁜날입니까? 사랑하는 소년소녀 여러분! 이날은 특히 그대들을 위하여 전조선적으로 직히는 명절날이올시다.

경성을 비롯하여 삼천리 근역(權域)에 잇는 방방곡곡에 어린이를 위 하여 여러 가지 놀이가 있으니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한 놀이에든 참가 하셔서 유쾌하게 노실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다른 처지와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입지 못하여 얼굴이 햇 속하고 풀이 죽은 소년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낙심하 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월의 따뜻한 철을 따라 파릇파릇 돋는 새싹과 도 같이 오월의 맑은 샘물과 아름답게 피는 꽃과 같이 장래성 많은 여 러 분이니 어찌 낙심하리까?

어린이날! 우리는 이날을 맞이할 때에마다 실로 여러분께 대한 기대 와 축망이 한없이 크고 넓습니다. 우리 모든 형편과 사정이 마음대로 노 래도 못 부르고 뛰지도 못한 여러분이니만치 이날을 핑계 삼아서도 유 쾌하게 마음껏 뛰고 노래하십시오.

그렇다고 미친 사람 날뛰듯 아무 뜻 없이 꺽충꺽충 뛰면 무슨 소용이 잇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한없이 뻗어날 씩씩한 정신과 굳건한 마음으로 용감스럽게 외의 용사와도 같이 조 선 을 짊어지고 윈 세계를 휘돌릴만할 투사가 되어 참말 우리가 바라는 참 다운 사회를 건설하십시오.

어린이날! 여러분은 반듯이 곱들고 『깃부고나 오늘날 어린이날은』하 고 노래부르며 활발스럽게 기운차게 행렬하고 여러 가지 기념식이 거 행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뛰는 피와 의분이 넘쳐흐를 줄 믿습니다. 이렇 게 의미 깊고 즐겁고 기쁜 날에 너무 길게 말하는 것도 오히려 실례돌가

하여 이 아래 간단한 몇 마디 부탁으로 끝을 맺으려합니다.

첫재. 우리가 먹고 입고 자라는 이 땅을 잘 알기로 하자.

둘재.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되자.

셋재. 불상한 동무를 도와주자.

넷재. 모든 일에 끈기있게 꾸준성있게 하기로 하자.

다섯재. 조선을 꾸미고 세계에 뛰어나는 인물이 되자.

一九三〇, 四月 一日 東京에서 「어린이날」을 압두고

— 『아이생활』, 1930. 6

藝術敎育의 理論과 實際

머리말

兒童은 遊戲, 民衆은 勞動. 이 相互的 關係는 가장 意味深長하다. 兒童에 있어서 遊戲는 爲 必要하며, 民衆에 있어서 勞動은 爲 업서서는 아니 되는가? 皮相的으로 觀察하면 遊戲는 兒童을 즐겁게 하며, 그 身體를 强壯하게 함으로 貴重하고, 勞動은 民衆에게 衣食을 供給함으로 업서서는 아니 된다.

勞動은 일이요, 遊戲가 아님은 勿論이다. 그러나 遊戲가 藝術的임과 가티 勞動도 遊戲的으로 遂行하고, 藝術的으로 淨化하지 안함은 아니다. 페스탈롯치와 나톨프는 勞動의 遊戲, 肉體勞動을 가장 힘있게 主唱하였다.

『眞實로 그들(어린이)은 不斷히 遊戲的 生活을 願望한다. 마치 水中의 魚와 가티 가볍고 自由스럽게…… 空中에 뜬 종달새와도 가티 즐겁게 뛰논다. 그들은 苦痛을 苦痛으로 생각지 않는다.』

이 페스탈롯치의 말은 勞動의 遊戲性…… 藝術化를 暗示함으로써 世上에 알려진지 오래였다.

라스킨 모리스 등의 藝術敎育觀은 機械的 作業을 藝術的 作業으로 하게 하여서 그 生産을 만케 할 뿐만 아니라, 勞動者의 氣品을 向上시켜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고 ○○主義者 소렐의 思想은

— (1), 『조선일보』, 1930. 9. 23

一. 藝術이란 무엇인가

美를 創造하는 것 惑은 美의 創造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藝術이다. 그

러면 美란 무엇인가를 묻지 안으면 藝術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어려울 것이다. 말하자면 美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藝術을 아는 데에 가장 先決을 要하는 問題일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美를 感할 때 美的 敎養이 적은 사람이 보는 觀點과 美的 敎養이 많은 사람의 觀點이 크게 差異가 있는 것이다. 前者의 美的 判斷은 實利的 또는 實質的으로 짜이기 쉽고, 後者의 美的 判斷은 實感的이면서도 보다 假象的이며, 짧아서 아름다움을 늦겨 깨달은 快感도 以上과 가티 서로 틀릴 것이다.

美的 敎養의 적은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建物을 본다고 하면 그들이 그 建物로부터 바른 美感은 이 기둥(柱)은 大理石이라던지, 花崗石이라던 하는 實質的 方面으로 關係하고 그것을 自己의 物件으로 했스면 조کت다는 瞬間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美的 敎養이 많은 사람은 大理石이라던지 花崗石에는 全然 無關心이오, 단지 建物 그것으로부터 바른 全體로써의 印象의 美를 發見하는 것이다. 한갓 뛰어난 美感은 自己만 그러케 생각하고 他人은 그러케 생각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어느 音樂家의 演奏를 듣고 있다고 하자. 假令 싸이올린의 활(弓)이 움직이는 것의 強弱, 技術, 曲에 對한 氣分, 그 氣分의 理解, 그윽히 흘러나오는 리듬에 『아—조타. 아름답다.』고 늦기는 때는 實로 견딜 수 업는 맘이 생긴다.

그러나 이 맘이란 自己 自身뿐만이 아니라 一般的으로 누구가 듯던지 맘이 조코 아름답지 안으면 아니 된다. 말하자면 누구던지 다 가튼 맘성이 되지 안으면 아니 된다. 美가 美로 늦기는 것은 實로 이새이다. 여기에 잇서서 美는 客觀的이오 個人的이 안임을 알 수 있다. 美的 敎養이 많은 사람이란 이 客觀的 美感을 確實히 잇는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이다.

그러나 美感은 客觀的에만 쓴치지 안코 그것이 主觀的인데 잇서서 自由의 快感이 생긴다. 여러 가지 複雜한 感情이 主觀的으로 統一해지기 때문에 自由의 快感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自由의 快感이 이러나지 않는 美感은 極히 初步的임으로 單一 感情에 갓가운 것이다. 그리하여 美的 教養이 적은 사람의 美感이 淺薄한 理由는 그것이 單一 感情의 集中이어서 主觀的으로 잘 統一되지 않는 데에 結局이 되고 만다.

- (2), 『조선일보』, 1930. 9. 24

美感의 芽生은 生活感情, 遊戲衝動, 戀愛感情, 社會的 感情 等等的 中에서도 求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發生的 心理的 說明이나, 누구든지 否定할 수 업는 事實이라고 생각한다.

香氣로운 내음새를 맛든지, 맛있는 것을 맛보든지, 그 感覺 中에 엇전지 快美를 爲하게 된다. 또는 社會的 感情이라고 말할만한 例를 들면 同情의 感情 中에도 美感의 要素는 맛볼 수 있다. 이러듯 簡單한 것이 次第로 發達하여 가면 거기에 美感이 客觀的 要素를 多分 包含한 것이 티 教養해지는 것이다.

寫眞이 藝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만 잇는 그대로여서 嚴密한 意味에서 美를 表現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싸담이다. 勿論 寫眞에도 寫眞師의 直觀이라던지, 景致의 光景이라던지, 포-즈의 取하는 方法이라던지가 寫眞師의 求할려고 하는 調和라고 하는 것에 多少 藝術的 무엇이 잇기는 하나, 그것만으로서는 아즉 참다운 意味에 잇서서의 美를 나타낼 수 업는 싸담이다.

寫眞과 가티 自然을 한 것 함을 드러서 寫生한다는 것으로써는 美를 表現한 것은 못 된다. 거기에는 個性도 업고, 理想도 업다. 또 산(生)것과 가티 생각이 되는 婦人相을 볼 새, 그것이 우리에게 美的 直觀을 니르키지는 못한다. 日本의 岸田徵生 氏의 말을 빌려다가,

『要件대 寫實은 길(道)이오, 目的이 아니다. 目的은 寫實 以上の 것에 잇다. 말하자면 審美에 잇는 것이다. 寫實의 道는 美術에 잇서서 概要한 大道는 될지언정, 또 結局 그것은 要件대 가장 깊은 길임으로 根

本的으로 그 길(道)을 經過한 後라야 맛볼 수 잇는 것이다.』

넘어나 實際에 갓가웁게 되면 實際 그것에 限한 寤김뿐이지, 決코 美의 情熱을 袞닷지 못하고 實로 心心하기 씩이 없다. 個人形 亦是 그러하다.

나톨푸는 美 乃至 美感은 同的 構成으로써 全然 個人的 것이 아니고 主觀的인 것도 아니오, 客觀的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그럼으로 나톨푸의 美의 說明은 美의 極致에 對한 說明으로써 美의 發端에 對한 說明은 적다 또 美 乃至 美感을 넘어 理想的으로 치우치는 禁忌가 적지안다. 그러나 엇젯든 그의 說明은 大體로 正當한 것이라고 承認하지 안할 수 업다.

다시금 나톨푸의 말을 빌자면,

『美의 世界는 새로운 客觀的 世界가 아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客觀的 世界라고 할지라도 但只 自然의 세계여서 是 안 된다. 그러한 客觀과 自然을 楚越한 새로운 客觀的 世界가 아니어서는 아니 된다.

自然 그것만을 박힌 寫眞으로 말한다면 嚴密한 意味에 잇서서 藝術이 아니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왜? 그러나 하면 寫眞은 但只 自然 그대로를 直寫한데 不過한 싸담이다. 美의 世界는 어디까지든지 假象의 世界가 될 것이다. 實感的 要素를 加하지 안흔 世界를 要한다.

또 美의 世界는 自然 그것을 對象으로 한 眞理의 世界와는 다르다. 곳 理論的 目的을 가지지 안흔이다. 實志로부터 나오는 道德의 世界도 아니다. 그리고 實踐的 目的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럼으로 美의 世界는 自由의 世界가 아니어서는 아니 된다. 워 그러나 하면 이것은 一般 法則으로써 創造함을 받기 때문이다. 實感的 잇는 그대로의 經驗의 法則이 아니고, 이런 것을 材料로 한-또한 이런 것을 楚越하지 안흐면 아니 될 高尚한 美의 法則으로부터 나오는 싸담이다.

그리고 眞理의 世界는 自然 그것을 對象으로 하여 悟性的 認識에 依하여 擴大되는 것이다. 道德의 世界는 慾望에 對立한 意味에 잇서서 實踐的 認識에 依하여 實現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美의 世界는 感情的

世界이다.

이 美의 感情이 直觀的 美的 判斷, 美的 認識이라고 할 但只 快不快의 感情이라고만 볼 수 없다. 快不快는 美的 感情의 材料이고, 快不快가 對立하여 快라고 하는 것에 依하여 不快라고 하는 것이 征服해버린다. 美的 法則의 結果로서 表現되는 것이 美의 感情이라고 보는 것이 올타.

그럼으로 美的 感情이란 것은 儼타시(Phantasie)라고 稱하여 但只 快不快의 感情으로부터 區別해 있다. 어떤 儼타시, 卽 어느 美의 感情은 다만 快不快의 感情이 아닌 同時에, 또는 局限된 生活 感情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個人的 感情이 아니다. 그것은 表現的의 客觀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새로운 客觀으로부터 如何한 境遇에 몇 사람이 되었든 간에 妥當한 超個人的 感情으로부터 成立된 것이어야 한다. 故로 心理的 法則으로부터 이 美의 感情이 나타난다는 것보다도 倫理的 美的 法則에 依하여 그것이 構成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테오폴 립푸스의 感情移入說은 美가 어찌케 하여 發生되는 것인가? 이것을 明白히 하려고 하는 說이었으나, 나톨푸의 立場으로부터 考察하면 但只 心理 說明에 지나지 않는다는 批判은 不可解다. 그뿐만 아니라 무슨 아름다운 客觀이 外界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들의 그것과 此等한 美的 感情이 移入할 때에 相互 共鳴해서 비로소 美感이 생긴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外界로부터 美的 影響이라고 하는 것에 치우치기 때문에 美的 態度가 目的이요, 創造的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키운다.

- (3), 『조선일보』, 1930. 9. 25

藝術家나 鑑賞家일지라도 가튼 性質의 價值的 精神을 模倣하지 안으면 美를 發見할 수 없다. 오직 藝術家와 普通人의 틀린 點은 創造的 精神을 燃燒하는 程度의 差異뿐이다.

要件대 自然美를 發見한다던지 人工美를 發見한다는 것은 임이 말

한 바와 가티 實利的 實感的 個人的인 要素로부터 脫出하여 어떤 假象의 客觀的인 것에 美의 感情, 卽 儼타시를 發見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 發見은 受動的으로 될 수 업고 他動的 또는 內的으로 構成되는 것이다.

二. 教育이란 무엇인가?

美及 藝術의 意義는 大體로 以上에 잇서서 明白하여졌다. 여기에 잇서서는 教育이란 무엇을 意味함인가를 究明하기로 하자. 自然科學 文化科學이라고 하는 經驗科學 外에 先驗科學이 있다. 이것은 意識의 統一性이라고 하는 것을 根據로 한 『업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規範 또는 法理를 세운 것으로서, 哲學 倫理學의 法則은 이 意識의 統一性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文化科學은 이 超經驗的 法則에 빚치어 世界의 意識의 內容으로써 表示되는 自己의 對象을 價值的으로 批判하고, 自然科學은 外界의 自然의 性質으로써 意識이 나타나는 自己의 對象 間에 沒價值的 法則을 세워서 假說을 말하여 普通的인 理論을 追求한다.

나틀푸는 이 意識의 統一性은 結局 意志의 統一性이라고 考察하고, 또 教育은 意志의 陶冶를 가지고 그의 中心 任務라고 해서 教育의 理想은 意識의 最後의 統一性을 意味하였다. 그리고 衝動 意志 理性實志, 이 세 가지야말로 거기에 達하는 段階로 設定하였다. 勿 衝動은 盲目的 意志요, 오로지 不統一 爛漫한 現象이다.

이 衝動을 意識의 統一性에 依하여 一定의 準則下에 取捨選擇하면서 統御하여 가면 第二의 意志가 確立하여진다. 繼續하여 第二의 意志가 理性實志에 依하여 統御하게 된다면 結局 行事한 그의 矩를 躐하지 못한다. 칸트는 『너의 意志에 依한 너 行爲의 準則이 普通的 法則이 됨과 가티 行動하라』는 말과 가튼 意義가 되고 만다. 칸트의 너의 意志는 나틀푸의 第二의 意志에 相當하고, 普通的 法則이란 最後의 理想 意志

를 意味한 것이다. 그럼으로 지금 말한 意識의 統一性, 意志의 統一性은 얼마던지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制限이 잇지는 안타. 다만 그 以上 統一을 求하며 超經驗的으로 超時間的으로 無限히 繼續하는 것이다.

나톨푸는 以上과 가튼 主意說로부터 教育을 說하고 理想을 定하였으나, 知的及 美的 教育을 決코 無理하지는 안혔다. 오로지 意志의 教育 그것이 教育의 中心이라고 考究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純粹 概念 文化의 理想主義』에 對向한 批評은 나톨푸도 또 달게 바들 것이다.

오이켄을 祖先으로 하여 一步 나아가 켓셀과는 나톨푸가 代表하고 잇는 新칸트學派의 形式的 理想主義의 教育說은 歷史的 內容及 心理的 內容을 看過하고, 諍아서 生氣 잇는 現實의 代身 構成한 陰影을 求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오이켄에 依하면, 우리들의 精神에는 自然界와 精神界의 兩者가 잇서서 하나는 必然에 기우리고, 또 하나는 自由에 기울려서 兩者는 不斷히 싸움을 繼續한다. 그리하여 그 鬪爭生活을 精神生活이라고 해서 여기에 現實이 잇고 活動이 잇는 것이다.

精神生活은 統一的 獨立的으로 이 싸움을 無限히 繫屬하여 徐徐히 自然界를 征服해 간다. 또 精神生活은 一方에 잇서서는 理性的 生活이나, 他方에 잇서서는 歷史的 心理的 生活이다. 文化는 實로 此 理性的, 歷史的, 心理的 生活의 所産이다. 왜 그러나 하면 거기에 人格의 自由가 實現되고, 그로 말미암아 永遠의 價値가 잇는 宗教, 道德, 藝術, 科學 등이 産出되는 것이다.

켓셀과는 여기에 一步 나아가 精神生活을 理性 意志가 超經驗的으로 規範을 보이면서 經驗界를 統御한다고 본다는 것보다도, 理性 意志는 經驗界를 綜合하여 보지 안흐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精神生活은 觀念的으로만 보아서도 안 되고, 經驗的으로 보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으로 精神生活은 一般 觀念의 命令한 것과 經驗的 自然的 自我的 命令한 것이 서로 抗爭하여 合致된 것이라고 볼 수밖게 업다. 要컨대 그것은 必然의 傾向과 自由의 要求의 抗爭이다.

大概 一般 觀念의 命令은 萬人 共通한 것이나, 말하자면 概念은 一般의 이면서도 各 個人에게는 각각 歷史的 心理的인 天地가 存在해 있다는 것을 注意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 故로 教育의 目的도 오즉 觀念으로만 規定한다던지 或은 經驗的으로만 規定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여기에 잇서서 教育의 目的은 觀念界와 經驗界와의 生活의 繼續中에 잇서 조금 더 參된 人格을 實現하며, 文化 價値의 生活하는데 잇다고 看做할 수 있다.

헬쎄린은 教育의 一般의 目的에 對하여 다음과 가티 말하였다.

『우리의 心中에는 本能的 法則이란 것과 他律性이란 것과 自律性이란 것이 서로 對立하여 싸우고 있다. 이 三者中 自律性의 生活을 보내고 나면 거기에 참말 滿足과 幸福이 나타난다. 그러나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을 確信한 사람이야말로 참 滿足 참 幸福을 맛볼 수 잇는 것이다.

— (4), 『조선일보』, 1930. 9. 26

『사람은 自己의 自律 中에 他人의 自律 權利를 承認할 뿐만 아니라, 歷史的으로 發達해 온 社會生活로부터 養分을 吸取한 것이 아니어서는 사람의 本質은 內容이 업는 것을 배운 것이다. 社會生活을 自己 가운데 活潑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사람의 努力해야 할 일이다.』 여기에 잇서서 教育은 兒童學上으로서 그 方向으로 나아가게 하는 陶冶가 아니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遂行하기 爲해서는 먼저 兒童에게 가장 넓은 意味에 잇서서 의 道德的 欲求를 滿足시켜야 한다. 그리고 兒童의 實踐的 遂行은 道德的, 知識的, 藝術的, 精神의 一切의 遂行이 아니어서는 아니 된다. 또 以上の 것은 先驗的 規定에 依하여 活動하는데 自己의 使命을 늦기는 것과 가티 兒童學生을 指導해야 할 것이다.

教育이란 무엇인가? 하는 問題에 잇사서 우리는 大體로 究明하였다. 그런데 藝術教育은 教育의 藝術的 方面을 取扱한 것임은 啾啾할 必要

가 없다. 아모리 적은 아히라도

『아모조록 조흔 일을 해보겟다! 참된 일을 해보겟다! 아름다운 일을 해보겟다!』

하는 自然的 要求는 疑心업는 事實이다. 도흔 일을 해보겟다 하는 要求의 連續的 發展은 教育의 道德的 方面과 큰 關係를 갖고, 참된 일을 해보겟다 하는 要求 그것은 教育의 智識的 方面에 關係를 갖고, 아름다운 일을 해보겟다 하는 要求는 教育의 藝術的 方面과 큰 關係를 가져서 그의 第三者가 藝術教育의 問題를 니르키게 된다. 말하자면 先驗的 規定에 依하여 藝術的 遂行을 하게 하는 대에는 어서케 하면 호졸가 하는 問題에 歸着하고 만다.

三. 藝術教育의 理論

一. 科學과 藝術教育

科學은 實로 原因結果의 關係를 敘述 說明한 것이나, 藝術은 原因結果의 關係를 떠나서 美的 『안타시』를 表現하기에 努力하는 것이다. 용소슴치는 怒濤의 大洋을 바라볼 때에 科學者는 大洋의 물로써 結晶된 소곰(鹽)을 보이고 電流로써 分解하여 瓦斯를 보이고 물결의 運動을 計算한 公式을 보이기도 한다. 거기에는 바다의 表現과 海水의 表現은 업다. 출렁출렁하며 太陽光線에 反射되어 躍動하는 紺碧의 勇姿도 夕陽에 粉紅빛 노을에 빚치이는 白帆恣態도 아니다. 모든 것은 全然 그 自身の 모양 그대로 써져버린다.

一旦 科學者의 態度를 버리고 注意해본다면 그 雄壯하고 氣勢 조흔 나뭇기는 물결이 岩角에 부딪치며 怒號하는 양이 集中할 때 엇지하여 거기에 最高의 表現을 提供할 機會를 주지 아니할가 또 發見하지 아니할가? 바위에 부드친 물거품이 次次 써져가는 양을 바라볼 때 潮風의 心地에 조흔 『리뜸』을 드를 때에 畫家는 그 海波의 不可思議를 畫幅에

옴기고, 音樂家は 바람에 솔가지(松枝)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醉하여 그윽한 밤에 作曲을 하는 것이다. 即, 藝術家는 一瞬間의 經驗中에 深刻하게 確實히 自己를 살게하고 事物 그 自身の 잇는 그대로의 姿態를 잘 把握하기에 힘쓰는 것이다.

科學은 因果關係를 求하는 것임으로써 全宇宙를 包括하는 知識體系로써 永遠無限히 進歩하고 잇는 것이다. 科學者는 恒常 이 知識體系의 建設에 努力하고 잇다. 그것은 科學에 잇서서는 한 번 取扱하여 解決된 問題는 藝術에 잇서서와 가튼 題材가 늘 새로운 取扱을 할 수 업게 된다. 『피타고라스』의 定理는 몇 해라도 피타고라스의 定理로써 不變한 다마든 나의 繪畫는 라파엘 以後 몇 번이나 다른 畫家에 依하여 그려진 것일 것이다.

戀愛의 달콤한 맛과 아름다운 맛과 쓴맛은 몇 번이나 여러사람의 詩人으로 말미암아 反覆되어 되푸리 하고 되푸리 하였다. 實로 藝術은 永久히 새로운 活動이오, 努力이오, 創造이다. 어찌한 藝術의 作品이라 할시라도 그 自身으로 完成한 藝術로서 다른 如何한 藝術의 作品에 對해서는 客觀적으로 關係해 잇지는 아니한다. 胸像을 보고 腕과 脛이 업슴을 보고 웃는다든지, 戲曲을 읽고 最後의 幕 다음에 무엇이 니러날가? 기웃거리는 愚鈍한 사람과는 問題가 아니된다.

문스타－썰히는 以上論述한 科學과 藝術과의 相違의 特徵을 보이면서 말했다.

『科學者가 解剖한 것을 藝術家는 解釋한다. 科學者가 諸要素를 探求한 것을 藝術家는 意味를부친다. 科學者가 法則의 方向으로 움직인 것을 藝術家는 거기에 價値를 붓친다. 科學者가 說明한 것을 藝術家는 鑑賞한다. 그리고 兩者는 언제나 우리에게 客觀世界에 對한 理解를 주

고 眞理를 提供한다』고 하였다. 이러케본다면

『人生은 結局에 잇서서는 眞, 善, 美 三者를 目的으로한 活動과 受樂 그것이다』

그래서 科學과 藝術은 다가티우리들의 客觀世界에 對한 理解를 주고 眞理를 提供함으로써 兩者는 反對의 位置에 서서 反對의 作用을 하면서 人生의 活動과 受樂에 集中한 點에 잇서서는 歸一하고만다. 被教育者도 어느 程度까지 科學者도 되고 同時에 藝術家가 되지 안하면 아니된다. 藝術教育의 價値는 第一로 여기에서 보지 안하면 아니된다.

二, 藝術의 社會的 效果와 藝術教育

藝術은 人間의 만흔 活動 가운데 比較的 僅少한 材料를 使用하여 比較的 高尚한 價値를 만들어내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藝術의 天才가 自己의 作物에 對해서 世人보다 優越할 才에는 다른 如何한 方面의 天才보다 一層 高價일 것이다. 이것은 藝術獨特의 資格으로써 當然性을 가지었다.

『藝術家는 自然의 支配者인 同時에 그의 奴隸다』라고 한 쇠테의 말은 藝術作品의 尊貴함을 잘 說明하였다.

— (5), 『조선일보』, 1930. 9. 27

自然 그대로 模倣한 것이 아니고 自然을 自己의 內心에 한 번 흡신 바다드려서 그 다음 個性의 自由發動을 根抵로 한 自己本來의 力에 依하여 再現함으로써 內的 必然性이 되어서의 發表요 卽한 表現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거기에는 內部的 自己忠實의 精神이 있고 努力이 있지 안
하면 아니된다. 이러트시 藝術의 作品은 努力의 結晶이오. 짚아서 客觀
的으로는 人格의 具象化한 것이다. 그러나 藝術의 作品의 價値를 알기
爲해서 藝術이 무엇인가를 理解식하고 그 價値를 認職케 한다. 그리하
야 그 製作品을 鑑賞할만한 國民이 되지 안하면 아니된다.

獨逸에 잇서서 藝術이 熾烈함과 同時에 科學의 進歩發展이 隆盛한
理由는 實로 獨逸人이 國民의 思想及 感情에 맞치지 안코 藝術의 社會
的 效果를 認識하고 다른 國民보다도 一層만히 藝術을 日常生活의 實
際的 活動에 利用하는 點이다.

알푸레드·리트알크는 經濟上의 發展은 크게 國民의 藝術心의 優劣
에 잇다고 생각하고 將來의 產業發展은 次代國民에게 注意 깊은 藝術
教育을 施行할 決心의 有無와 實行與否로 決定되리라고 說破하였다.
그리고 美術工藝品이 進歩되지 못한 것은 國民間에 美術家의 天才가
缺乏한 것이 아니라, 一般國民의 藝術의 陶冶의 水平線이 나진(低) 싸
답이라고 미덧다.

콘라드·란케는 『獨逸은 有爲한 藝術家가 잇스나 貧困의 理由로 創作
에 從事하지 못한 者가 不少하다. 偉大한 作品도 國內에서 認定치 못하고
드디어 外國에 흘러나가서 認證케 되고 賞讚을 받고 그런 후에 國人
은 意外의 驚異와 그 價値를 알게 되었다』는 意味로써 말한 일이 잇다.
이 兩者의 意見은 藝術의 社會的 效果, 經濟的 效果의 偉大함을 確認
하고 藝術教育의 施行의 必要를 力說하였다.

(三) 教育과 藝術教育

或者是 藝術至上主義를 提唱하고 藝術 卽, 教育이라고 看破하고 或
者는 藝術을 道德에 從屬할 것이라고 認識하고 藝術을 恒常 敎訓的으

로 鮮釋하려고 한다.

前者에 있어서 생각해보면 教育의 材料가 文化財임은 明白한 事實이나 文化財는 一 知識的, 藝術的, 倫理的이다. 單只 藝術的 材料뿐만은 아니다. 그러면 兒童學生으로써 美的 鑑賞及 表現에 局限된 것은 眞正한 教育이 아니다. 教育은 藝術的으로든지, 知識的으로든지, 論理的으로든지 個性을 發揮하여 훌륭한 人格이 되는 것과 가티 自己決定을 하지 안하면 아니된다.

藝術的에만 自己決定을 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면 더 바랄 것도 없다. 이리케 생각하면 卽, 藝術이 아님을 判明하게 된다. 다만 教育의 目的, 아울러 手段의 一面이 藝術的이오 이 一面이 藝術教育을 意味하게 되고 그 다른 知識的 方面이나 倫理的 方面도 亦是 必要하다는 것은 더 啾啾할 必要조차 없다.

그리고 藝術을 道德의 從僕과 가티 보는 것도 正當치 못한 見解나 藝術은 美的 爛타시-를 表現한 것임으로 이 藝術的 活動의 際에는 自己目的으로써 製作을 爲한 製作이 됨으로 다른 如何한 目的이 없게 된다. 卽, 藝術에는 藝術固有의 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藝術은 藝術固有의 目的에 떨어져 自然히 道德에 關係되는 것은 否定할 수 없다. 임의 말한 바와 가티 藝術은 自己에게 忠實한 精神과 努力에 依하여 自己의 속으로 바다드린 自然을 內的 必然性으로 發表되는 것임으로 藝術은 客觀化한 藝術家의 人格임은 더 말할 必要가 없다. 여기에 있어서 道德的 價値는 藝術에 潛在的으로 存在한 것이 라고 생각한다.

나를푸는 美的 構成의 性質을 論하여 『美的 對象은 『있는것』 이것의

嚴格한 要求下에 서지 못한다. 道德的 批判의 吟味를 맞지 안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實로 道德的 基準下에선(立)것을 自己에게 禁한다.

(잇슬것) 이 法則에 따를지라도 固有의 道德的 目的과 달리한 一 目的 即, 美的 構成下의 要求에 依하여 이것을 棄却하는 自由를 保留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故로 藝術이 萬若 確然히 道德을 目的으로 했다면 藝術은 道德의 手段에 不過할 것이오. 嚴密한 意味에 잇서서 藝術의 本質을 喪失하게 된다. 即, 藝術은 道德의 從僕이 아니다. 實하서 教育에는 藝術教育의 方面도 잇고, 道德教育의 方面도 잇지 안흐면 니 된다.

道德과 藝術의 關係가 密接하다는 것을 認證하는 藝術教育 主張者의 思想을 여기에 分析한다면 一 푸라토-는 美와 善은 神秘的 統一이라고 提唱하고 샤푸셀리는 美는 善의 特徵이오. 藝術家는 道德家의 特徵이라고 說破하고 라스킨·모리스도 여기에 近似히 論述하고 壯年以後의 실라-는 創作이라든가 鑑賞의 問題보다

— (6), 『조선일보』, 1930. 9. 28

오히려 道德的, 理性的 態度的 훌륭한 것 即, 完全한 人間性이란 것을 目的으로써 論하고 人間의 道德的 價値는 嚴格한 道德的 行爲의 量에 依하여 定하지 안코 努力과 熱意가 天性自然히 나와서 잘 道德과 合致되는 點에 잇다고하고 헬말트는 美的 精神이라고 한 것을 自己의 倫理學에 引入하여 教育의 最高의 創造로 한 世界의 美的 表現과 가튼 것을 云云하였다. 最後에 나뚝푸는 『藝術은 遊戲와 同時에 그래도 眞面目의 遊戲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 遊戲는 兒童의 生命이오. 兒童은 遊戲에 依하여 創造의 能力을 發揮해가고 藝術家는 큰 아히로써 眞面目

의 遊戲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眞面目의 遊戲에 依하여 自然과 理性을 調和식한다』고 해서 누구보다도 넓고 깊은 見地에서 藝術과 道德의 關係를 論하였다.

이와 가티 여러가지로 볼 수 있으나 教育에는 知識의 方面도 있고 道德的 方面도 있고 藝術方面도 잇서야만 한다. 教育의 - 『普遍性及 價値世界의 全體性은 周到한 藝術教育을 要求한다』고 하는 쾃셀라-의 말을 곱히 생각하면 自然 그것을 對象으로 한 理驗的 認識과 道德을 對象으로만 倫理的 認識과는 美的 認識의 力에 依하여 結合統一 하여서 언제든지 人間性的의 完成에 不可缺할 것임을 承認하게 된다.

四 · 藝術教育의 實際

【一】形式的 藝術教育

쾃셀라-는 形式的, 美的 教育이 넘우나 忽諸에 附하고 特히 手工에 依한 教育이 가장 輕視해진 것을 遺憾으로 생각하였다. 眼과 耳의 關係하는 限의 美的 教育이 아니고 이 手工에 依한 美的 教育도 가장 緊要하다.

모든 感覺中에 觸覺의 完成이라고 한 것은 吾人의 身體精神의 完成을 爲한 重大한 基礎가 되어서 이 觸覺의 完成에는 手工이 가장 重要한 基礎가 되는 것이다. 페스탈롯치는 身體의 熟練中 手의 動作이 敏活하다는 것을 가장 必要로 한 것은 큰 理由가있다. 이것을 一層 明確히 하기 爲하여 民族發達의 踪跡을 살펴보자.

太古人은 風과 嵐에 具備하기 때문에 手足의 活動을 앗기지 안혔다. 그런 避難所를 曼들기 爲해서는 크게 手足의 活動을 獎勵하지 안흐면 아니 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처음 目的을 達하게 된다. 此岸으로부터

彼岸에 건너간다고 하는 太古人の 欲求是 그 手足을 움직이게 하고 저스게 하였다. 그것은 畢竟에 渡場의 小舟가 되고 大洋에 쓴 巨船이 되었다. 藝術도 또 그런 것으로부터 생기게 된다. 『智識은 하기 爲하여 알려진 것이요. 藝術은 알기 爲하여 난 것이다』 手足을 움직인다는 것은, 智識을 낫(生)는대도 藝術을 낫는대도 가장 必要하다.

(二) 描寫의 藝術教育

描寫의 藝術教育은 眼의 關係되는 藝術教育으로써 眼은 裝飾美에 對하든 지, 自然美에 對하든 지 그것들의 잇는 그대로를 忠實이 보게 되지 안하면 아니 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의 鑑賞을 確實히 할 것이다. 鑑賞은 理解로부터 비롯하여 理解는 觀察로부터 비롯하고 觀察은 눈으로부터 始作된다. 繪畫를 그린다 하더라도 色彩의 如何한 것을 알지 안하면 훌륭한 作品이 못된다. 色彩의 如何는 眼의 健全한 熟練의 重大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以上은 主로 形式的 藝術教育의 中心이 되는 手工과 描寫의 藝術教育의 中心이 되는 繪畫에 對하여 陳述하였으나, 말하자면 兒童의 內心으로부터 용소슴치는 藝術心, 創作力을 十分 움직여서 이것을 새로운 勢力으로 兒童을 指導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 그래도 適當한 教師와 指導者를 要求한다. 實技에 長한 藝術家요 同時에 優秀한 教育家의 充實한 指導가 잇지 안하면 아니 된다.

(三) 文藝와 藝術教育

文藝와 藝術教育과의 關係도 또 注意할 問題다. 國語教授에 잇서서 國民文學의 精華를 兒童에게 理解시키고, 純眞한 心情을 陶冶하기 爲하여 教科書에 잇서서도 새로운 形式을 取하여 文學的 要素를 만히 添加하여야 한다. 英, 米, 獨, 佛 各國에서도 이 點에 非常한 用意을 가지고 그 實行에 努力하고 있다. 元來 文學이란 것은 言語를 媒介로 한 思

想의 表現임으로 筆者인 사람의 生活이 眞實되고 意味深長하면 하니 만큼 힘이 強하고 훌륭한 作品을 生産한다. 그리고 그 훌륭한 作品이 藝術品으로써 表現되는 것이다.

『세-다-』는 文學을 난호아 調和잇는 統一과 內在的 感化力과의 二要素에 分하여 잇스나, 이 兩者가 筆者와 讀者와의 思想과 思想과의 橋渡를 하고 잇다고 보는 것이 宜當하다. 그러면 文藝의 妙味는 形言할 수 업는 무엇이 存在해 잇서 鑑賞翫味에 依하여 잇는다. 如何히 細密하게 嚙碎한다 하더라도 理論으로써는 解釋하기 어려운 點이 만다. 그럼으로 藝教授上에 잇서서는 兒童의 情操를 움직이게 하고 鑑賞에 注意하여 生産的, 個性的 活動의 餘地와 文藝鑑賞의 評價의 機會를 만히 주지 안하면 아니된다. 그리고 兒童內心の 思想感情을 十分 藝術的으로 發表하지 안하면 안 된다.

『햇켄켄히』는 發表의 重要한 것을 말하는 方法 『話方』을 說하였다. 말하는 方法은 吾人의 思想感情을 十分 잇는 그대로 가장 汲게 쏘는 가장 強하게 나타냄으로 이 方面을 適當히 指導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고 하였다. 以上の 外에 兒童의 課外讀物의 改善 아울러 選擇 - 俗惡한 讀物及 『필림』의 排斥에 對한 問題가 잇스나 여기서는 畧하기로 한다.

- (7), 『조선일보』, 1930. 9. 30

(四) 其他의 藝術教育

教科 以外에 音樂이라든지 體操라든가 舞蹈도 잇스나, 亦是 藝術教育의 見地로부터 利用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 音樂은 耳에 關係되는 藝術이나 쏘 그것이 律動的으로 肉身을 움직이는 點으로 생각하면 體操, 舞蹈, 遊戲 等에 關係하는 것이 汲다. 卽, 身體의 運動을 美的으로한 點에 잇서서 貴重한 것이다.

(五) 兒童劇과 藝術教育

以上 藝術教育의 實際의 方面으로써 手工과 文藝와 音樂에 對하여 述하였다. 그런데 音樂과 手工과 圖畫와 綴字法舞踊을 合한 所謂 綜合 藝術의 兒童劇에 對하여 말해보고저 한다. 兒童劇은 學校內 或은 家庭에 잇서서 하는 것인데 兒童의 年齡(劇을 하는 兒童이든지 劇을 보는 兒童이든지) 幼稚園 時代의 兒童으로부터 小學校 六年生까지 制限을 해두자.

썸틀딕크의 遊戲에 關한 說明을 引用하면 『일은 사람이 自己의 注意를 어느 作業에 모아서 그의 움직이는 그 以外의 어느 目的 때문에 하는 一切의 움직이는 總稱인데, 이 움직임은 抑壓이라든지 緊張이라든지 集中禁制라고 하는 心的 作用이 包含해 있다. 그러나 遊戲는 그것과는 反對로 自由요, 自然的이오, 自發的으로 움직이는 것을 指稱한 것인데 움직이는 것 때문에 浪費하는 일이다』

實로 遊戲는 自由요, 自然이오, 自發的이오, 自己發展的이오, 自己報酬的이다.

假令 兒童의 生活을 생각해보자! 아가씨들은 어머니도 되고 貴婦人도 되고 어엿분 색씨가 되기도 한다. 어린 도련님들은 亦是 손곰작란과 그와 가튼 흥내를 내기도 한다. 말하자면 병정노름, 의사노름, 動物흥내, 숨박꼭질 모든 노는 짓거리가 거짓 업는 眞實 그것이다. 이것은 兒童生活에 잇서서 가장 업지 못할 學問인 것이다. 우리들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한 훌륭한 劇을 演出하고 잇는 것이다.

카-서는 『劇의 本能은 모든 사람의 內存한 普遍的 本能이다』고 말했으나 兒童에 잇서서 더욱 그러타, 그것에 依하여 他人의 感情과 經驗을 스스로 體驗하는 것이다. 거기에 여러가지 『노름』이 되어진다.

단지 얼핏 듣는다든지, 본다든지,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읽는다든지 한 것만큼은 滿足하지 못한다. 스스로가 어든 그것을 멧 출동안 行爲로 나타내야 한다. 그래야만 實感이 굿고 全身的, 內部的의 것이 表現되어 또 兒童自身에 生活과 感受해진다. 이 欲求를 舞臺上에 滿足을 식히면 얼마나 깃겨운인가, 學校면 友人 혹은 先生이 가티하고 家庭이면 友人 또는 父母, 兄弟, 姊妹와 親戚의 아희들과 어른이 다 가티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演劇이 되겠는가……

五, 遊戲와 藝術教育

(一) 遊戲와 藝術의 關係

詩人 실러-는 遊戲衝動과 藝術衝動을 거의 同一하다고 생각하고 遊戲는 藝術의 一種이오, 藝術은 遊戲의 發達한 것이라고 보고 『遊戲하고 잇는 그째야말로 眞實한 人間이라』고 遊戲의 價値를 重大視하였다.

실러- 外에 스펜서-슬-스도 亦是 藝術은 遊戲가 發達된 것이라고 力說하였다. 나틀푸는 『藝術은 遊戲, 다 그래도 참다운 遊戲를 말함이다. 그것은 意識된, 欲求된 虛僞일 것이다. 疑心 업시 一種의 眞實 그것이다』라고 말하였다.

(二) 遊戲의 價値

大體 遊戲의 價値는 얼마나한 것인가 하는 反問이 잇스리라. 人間生活의 價値가 非常히 多種多樣인 것과 가티 그 價도 또한 雜多하다 生理的으로나, 心理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道德的으로나, 宗教的으로나 實로 여러가지로 貢獻하고 잇서서 그의 分量과 程度는 그 尺度를 到底히 測量키 不能하다. 오늘날과 가티 참말 重過한 일이 만허 各人의 煩惱가 甚하니 만큼 世間에 잇서서 吾人은 그것 때문에 慰藉, 休養, 更新 이런 것을 強要한다. 그리하여 이 欲求를 가장 힘있게 擴充해 주는 것은

遊戲요 짚아서 藝術이다. 遊戲의 價値는 이 썩만이 아니라 感官의 活動이 銳敏해지고 知覺力과 想像力과 判斷力이 練磨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前述의 生理的, 心理的 貢獻中에 包含되어 잇는 것이다.

劇은 遊戲 가운데 잇서거도 藝術的으로 非常히 進歩된 것임으로 藝術教育上 特히 注意하지 안하면 아니 될 것의 하나이다. 兒童은 劇을 演出함으로 劇의 作意에 包含되 敎訓으로부터 多少의 利益을 얻는 것이다. 그것보다도 더 큰 人間生活의 價値를 알 것이다. 卽, 여러가지 人物로 扮裝하여 成人의 行爲를 模擬하고 또 그 人物의 맘에 同化하려고 하는 努力을 하는 사이에 어느덧 알지 못한 사이에 한 사람으로써의 일과 本能, 責任, 過失을 直覺하는 것이다. 그리고 複雜한 世態의 辛酸한 生活上 人間生活의 機械에 接觸하게 된다. 學校에 잇서서도 遊戲는 上述한 것과 가티 利益을 주고 그썩만 아니라 學校作業의 機械化, 單調化하는 傾向을 救濟하여 極히 愉快無邪氣한 中에 일의 目的을 達하게 된다.

- (8), 『조선일보』, 1930. 10. 1

(三) 遊戲의 尊重

紀元前 五世紀頃 希臘의 『패리크리스』의 全盛時代에 잇서서 四十年間은 遊戲의 가장 熾烈한 時代로써 그 時代에 實로 만흔 偉人이 낫었다. 그리고 千古不朽의 大作이 續出되었든 것이다. 그 이후 以後所謂 希臘思潮의 源泉이 되었든 것은 西洋史를 보는 이로는 누구나 否認치 못할 事實이다. 政治家로써는 『패리크리스·테미스토크리스』 彫刻家是 希臘彫刻의 元祖라고 부르는 男性美를 貴히 역인 『페데아스』 女性美를 貴히 역인 『폴라크시텔레스』 等이다. 特히 『페데아스』는 『웨希臘人은 神靈에게 사람의 몸을 밧치었든가?』하고 무를 새에

『天地間에 사람의 몸처럼 整齊의 美를 가초운 것은 업다』고싸지 말

한 사람이었다. 建築家로는 팔테온의 建築을 完成한 밀톤, 科學者로는 헬로드토스, 튜실리피데스, 劇作家로는 悲劇의 소프글데스, 에올리피네스, 喜劇의 아리스도페네스 등이 輩出되었다. 遊戱와 藝術과의 關係는 以上에 잇서서 알여지리라고 밋는다.

(四) 遊戱와 自由教育

教育은 教育의 主觀的 活動性和 客觀的 活動性和을 協同한 것이라고 한 解釋으로부터 判斷하여 『몬땃소리』가 教師란 言語를 시려하고 만히는 指導者라는 名稱을 使用한 것은 재미스러운 일이다. 指導者는 兒童에게 刺戟을 준 것으로써 그의 刺戟을 바더서 反應한 兒童의 心的 活動을 썩기지 안코 自由로히 旺盛하게 하는 意味에 不過한 것이다.

이것은 卽, 教授보다도 學習 自由學習의 必要를 認識한 것임으로써 教師로부터 刺戟을 바든 兒童이 自己의 自發性, 創造性을 움직인 것이 아니어서는 教授는 아모것도 안 되고, 教育의 效果도 全□所用이 업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兒童의 刺戟을 준다는 指導者는 먼저 自由스런 遊戱로부터 出發하여 自發性, 創造性을 旺盛하게 하지 안흐면 아니된다.

듀위는 (1) 好奇心, (2) 暗示性, (3) 秩序性的의 세 가지를 思惟作用의 基礎的 要素로 重要視하나 特히 好奇心과 暗示性은 創造性活動의 出發點인 것을 明言하였다. 쏘-로이스도 創造性에 對하여 有利한 意見を 發表했스나 엘렌, 케이와 가튼 教育方法으로써 創造性的의 重要함을 極力主張하였다.

그러면 어찌케 하면 創造性을 伸張할 수 잇게는가? 먼저 말한 것과 가티 兒童의 自由스런 遊戱를 提供하여야 한다는 것을 再三力說하고 십다. 作業을 獎勵함과 個性을 尊貴케 하는대도 同時에 必要하게 된다. 몬땃소리가 幼稚園運動을 니르키게 된 것도 以上の 條件을 實行하기

爲한 目的에 不過하다. 最近 傾向에 잇서서 自由와 遊戲와 作業을 尊重하는 主義, 個人性을 尊重하는 主義 等이 教育의 方法으로써 一般이 要求하는 것은 當然 以上の 當然이다.

결론(結論)

아즉도 未備한 點이 만흐나 념우 支離함으노 다음 機會로 미루고 꽃을 매즈려 한다. 一아름다운 三千里 權域에 태어나서 넋날에는 남부스럽지 안흔 文明과 藝術의 뜻이 피엇건만 오늘날에 와서는 일본말 한 마디라도 더 가르치기에 눈이 벌겍코 純眞스럽기가 天使와 가튼 어린이들을 兵丁다르듯 쏘는 『그만』의 教育을 식히는 朝鮮의 教育界를 도라볼 때에 엇지 뜻잇는 者로써 寒心할 바 아니라!

그럼으로 우리는 現下 朝鮮의 客觀의 情勢와 特殊事情을 把握認識하고 自由를 얻을 수 잇는 範圍 안에서 童謠, 童話, 自由畫音樂, 兒童劇, 映畫 等一等 藝術教育을 니르켜서 至今 우리네가 밧고잇는 病身教育으로부터 藝術教育, 自由教育으로 改善치 안흐면 아니 될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兒童은 藝術的 本能이 잇스니 그들의 日常生活이 이미 戲曲의이라 自由로운 舞臺에서 自由롭게 演劇을 하면서 뛰노는 것이 얼마나 尊貴한 것이며 兒童生活을 美化케한 것인가? 말도 잘 견우지 못하는 도령님들이 나무토막을 가지고 싸헛다 허무럿다 하는 것이라든지 人形가튼 아가씨들이 장독대 곁해서 『소곰작란』을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작란이 아니라 將來에 자라서 家庭生活을 하려는 演劇을 하고 잇는 것이다.

그뿐이랴! 어리엿슬 적에 陽地바든 곳에 안저 하늘을 쳐다보며 병아리처럼 혼자서 종알거리는 것이 音樂이 되고 숫거명으로 壁에다가 란

초를 치든 것이 커서는 美術이 되고 마루에서 뛰엄박질하고 꺾금직기 하든 것이 자라서 舞蹈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달밤은 가을밤에 銀香나무 미테서 『까치잡기』, 『숨박꼬질』하는 것이 커지면 演劇이 되고 그림자를 박힌 것이 寫眞 『映畫』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兒童生活에 있어서 크게 有益한 兒童劇이나 少年映畫가 우리들의 손으로 무게잇는 作品을 製作해내지 못함은 實로 크나큰 遺憾이다. 前述한 바와가티 우리의 處地와 環境이 이처럼 切迫한 이만큼 藝術教育, 自由教育의 必要를 늦겨진다. 넷날 希臘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教育制度를 잘-取捨選擇하여 우리의 現實이 要求하는 바 藝術教育을 實施하여야 될 것이다.

이것은 決코 한 때의 流行으로나, 맘이 들썩 藝術家들의 작란이나, 消日써리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참다운 指導者(教育家)의 손으로 愼하게 研究하지 안하면 아니 될 重大한 問題인 同時에 時急히 이 運動에 着手하여야만 될 것이다. 附言……이 論文은 日本의 小林澄兄, 大多和顯兩氏의 『藝術教育論』과 또 小林氏著 『最近 教育思潮批判』에서 參照 또는 抄譯한 것도 잇슴을 말해둔다. (完)

— (9), 『조선일보』, 1930. 10. 2

세계 어린이의 동무 안더-센 선생

나는 룰곡(栗谷) 선생, 이순신, 김옥균, 그리스도, 안더센, 페스탈룻치, 톨스토이, 갈리발디, 링컨, 루소, 산티. 이 분들은 다-나의 숭배하며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른들을 다 소개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는 다른 신문이나 잡지에 기재한 일도 있으니 그 중에 나의 가장 존경하는 한 분을 다시금 골라서 쓰자면, 내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안더-센』 선생입니다.

세계 어린이 동무 안더-센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지 금년이 오십오년새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八月(팔월) 四日(사일), 이 날은 어린 사람의 장래하는 것을 모르고 그를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히 찬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열렬하게 어린 사람의 세계를 고조(高調)한 안더-센 선생이 떠난 기념의 날임으로, 온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해마다 해마다 성대하게 기념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정말에서, 영국에서, 불란서에서, 독일에서, 스칸디나비아에서, 이태리에서, 세계에 어린 사람이 사는 모든 나라에서는 이 날을 뜻있게 기념합니다.

펼대로 펴보지 못하고 잘아나는 우리 배달의 어린 령들은 온 세상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참으로 알아주는 그를 생각하고 추억(追憶)함도 의미 있는 일이 될가 하여 그의 전기(傳記)를 이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한스 크리스찬 안더-센은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 꽃피고 새우는 고흔 봄철인 四月(사월)三日(삼일)에 북쪽 구라파(歐羅巴) 덴마크(丁株) 뉘덴이란 조고마한 섬 가온대 있는 오덴스라는 마을에서 나섰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구두쟁이(靴工)라는 말과 그런게 얹이라 대장쟁이(鍛冶業)라는 말과 두 가지가 있으나, 아마 빈곤한 구두쟁이란 말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한때 거지까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더-센은 물론 학교에도 못 다니고 배꼽아 우는 가난한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18세에 니르도록 일자무식한(一字無識

漢)이라는 별명까지 드러 왔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거지노릇까지 하여 온 불상한 처지였으나, 그 반면에는 독서(讀書)와 소설(小說)을 좋아 하는 아버지를 갖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와 『아라비안 나이이트』 같은 이야기가 쾌활한 자그 아버지의 입으로붙어 흘러나올 때에, 그는 부지중에 문학(文學)에 맘이 몹시 끌리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구두 곳치는 직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늘 책임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벌써 위대(偉大)한 문학자가 되기를 맘으로 결심하였든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아니 되어 희곡(戲曲) 창작(創作)을 시작하여 점차로 동화(童話)와 시(詩)를 많이 써서 세상에 남겨 놓아 샛별 같은 눈을 반짝이는 온 세계 소년소녀에게 보내는 무수한 선물로 동화를 많이 지었습니다.

안더-센이 아동문학에 힘쓰게 된 동기는 아버지의 교훈하신 영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고 장래의 행복을 꿈꾸는 안더-센은 나이 겨우 14세 되든 해에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만 영원의 나라로 슬어 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어린 안델센의 슬픔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안델센은 모든 일에 힘쓰면 된다는 씩씩하고 굳센 의지를 품고 모든 것을 참고 견대어 그 후 어떤 재봉사(裁縫師)에게 가서 재봉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래에 큰 일물이 될 언더-센은 마침내 그가 18세 되든 해에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덴마크의 서울 코펜하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연극의 배우를 지망하였으나, 아모 극장에서도 채용해주지를 았었습니다. 그리는 동안에 얼마 안 갖인 로비까지 없어지고, 객지에서 방황하는 불상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나 그는 어리었을 때붙어 음성이 좋았음으로, 모든 모험을 무릅쓰고 자그의 성악(聲樂)을 연주하겠다고 음악학교를 찾아가서 후원을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 어떤 훌륭한 음악가의 도움으로 어떤 연주장에서 노래를 해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 다.

그렇나 불행일는지 다행일런지 그의 목소리는 얼마 았이 가서 거츠러 젓슴으로, 그는 하는 수 없이 겨우 몇 날이 못 되어 슬픔에 았은 가슴을

부등켜 않고 고향인 오덴스로 돌아오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안더-센은 실로 빈궁한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각본(脚本)을 써서 각 극장에 보내어 상연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래 그의 열심에 감동된 한 선배의 주선으로 나라의 국비 류학생이 되어 바다스다겔-스의 다덴이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가(藝術家)인 안더-센은 시인(詩人)으로, 희곡가(戲曲家)로, 동화가(童話家) 혹은 소설가(小說家)로의 이상(理想)을 갖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다 맞인 후에 영국, 독일, 불란서, 이태리, 동양 한 편까지 유람을 하여 그 여러 나라의 경치와 인물과 풍속을 연구하였습니다.

그가 유명한 이야기책(童話集) 첫 권을 세상에 내어 놓기는 31세 때 이였습니다. 그의 소설로 유명한 것은 「즉흥시인(卽興詩人)」, 「연명초(延命草)」, 「그림 없는 화첩(畫帖)」 등의 수십 편이요, 동화로는 「인어(人魚)」, 「못 생긴 오리색기」, 「눈녀왕(雪의 女王)」, 「야원(野原)의 백조(白鳥)」 같은 것입니다. 안더-센 작품(作品)이 모든 사람에게 찬양을 받는 것은 그의 사상이 건전하고 또는 종교적 진실미(眞實味)가 있음이요, 그 천진의 시찰(視察)을 재료(材料)로 하여 거죽업이 순연한 아동의 공상을 그대로 것침없이 활동해 가는 것을 청신한 필지(筆致)로 된 까닭입니다.

그는 六十(육십)二(이)세가 되었을 때에 크게 성공(成功)한 몸이 되어 다시금 정 많고 뜬깊은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고향 사람들은 그의 돌아옴을 밋출 듯이 기뻐 날뛰며 동화의 천사가 온다, 동화의 아버지가 온다고 그 마을은 맞이 경축일(慶祝日)과 같이 학교에서는 공부까지 쉬이고 변화하게 장식하여 그의 오는 길에는 아름다운 꽃까지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 세계 어린이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다가 一(일)八(팔)七(칠)五(오)년 八月(팔월)四(사)일『고-펜하겐』에서 七十(칠십)一(일)세를 일기로 북구(北歐)의 거성(巨星), 아동(兒童)의 은인(恩人)은 그만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0. 11.)

- 『아이생활』, 1931. 1.

少年文藝運動의 當面에 任務

원문없음

— (1), 『조선일보』, 1931. 1. 29

一. 頭言

朝鮮에 있어서 少年文學運動이 發芽되기는 漠然하나마 그래도 六堂 崔南善 氏의 主幹으로 發行된 『少年』과 『아이들보이』일 것이다. 그 內容을 말하자면 歐米의 名作 童話의 翻譯 紹介와 地理 또는 歷史談 各 讀物이 記載되어 있었다. 그 뒤를 이어 六堂과 春園 外 數氏의 發起로 『붉은 저고리』와 『青春』이 出世케 된 것이다.

於是乎, 이것이 朝鮮 新文學 運動의 黎明期요, 少年文學運動의 發芽 期라고 볼 수 있다. 其後 一九二一年에 큰샘 韓錫源 氏 主幹으로 少年 雜誌 『새동무』가 좀더 새로운 面目을 띠고 나온 것이니, 童話, 訓話, 歷史 談, 寓話 等を 取扱하여 情緒 教養에 置重하며, 普通學校 補充 教材 를 하여 왔던 것이다. 뒤스미처 方定煥 氏 主幹의 『어린이』와 申明均 氏 主幹인 『新少年』 그리고 鄭仁果, 韓錫源, 金泰午 외 數氏의 發起로 『아이생활』이 出世케 되어 같은 形態로써 오늘날의 現象까지 일은 것이다.

筆者는 일찍이 少年運動과 그의 文藝運動에 있어서 種種 理論的 展開를 해왔거니와, 少年運動과 少年文學運動은 不可分의 關係로 連結 性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 少年運動 그 自體를 떠나서 少年文學運動 이 成立되지 못한 것이요, 少年文學運動을 떠나서 그 運動의 目的을 完全히 遂行할 수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少年運動은 指導者로써 實際的 運動이라 하겠고, 少年文學運動은 指導者로써 間接 指導 運動이라 規定할 수 있다. 그럼으로 朝鮮 少年運動이 一九二〇年을 筆頭로

發生한 以後, 해를 거듭하여 進展됨을 짧아서 少年文學運動도 달을 거듭하여 發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恒常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 運動의 꾸준한 發展을 爲하여 理論과 實踐이 竝行하여야 할 것을 懇望한다. 理論이 先行하고 實踐이 遲緩하다던지, 實踐이 先行하고 理論이 遲緩하다던지 하여서는 안 된다.

元來 우리 全體 運動의 一翼의 部門 運動인 少年運動(少年文藝運動) 陣營 內에 있어서 그 自體의 實踐 過程에서 抽出한 經驗을 全體性에서 集約한 새 意識을 獲得하지 아니 하면 運動의 進展을 企圖할 수 없을 것이다. 짧아서 우리는 언제나 理論을 떠난 實踐이나, 實踐을 떠난 理論-即, 理論만을 爲한 理論은 認定치 않는다. 그리고 理論이 없는 實踐은 盲目的 運動에 不過할 것이오, 實踐이 없는 理論은 그야말로 卓上空論에 不過할 것이다.

그렇다고 全然히 理論을 過重 評價한다던지, 實踐을 過重 評價하고 理論의 方法과 方式을 全然 沒覺한 錯誤된 認識이다. 그럼으로 少年運動-少年文學運動이 兩者의 不可分의 關係에서 竝行식혀 理論과 實踐을 批判하여 씩씩한 理論을 展開식힐 우리 少年 指導者의 當面 任務 일 것이다.

筆者는 一九三一年(辛未) 새해를 맞이하며 理論들과 새로운 理論의 展開를 觀望하며 그에 對한 評筆을 들려고 했으나, 少年運動 아울러 少年文學運動에 關한 아모런 論文이 發表되지 않음은 經驗子의 에-코트로 된 原因인지는 모르나, 엇재튼 우리 運動의 發展上을 보아서 적지 아니한 運動으로 생각하는 同時에, 짧아서 運動의 沈滯를 말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이 一九三〇年-過去 一年을 回顧해 본다 하더라도 少年運動과 그의 文學運動에 있어서 論文다운 論文을 하나도 보지 못했으며, 짧아서 運動은 말할 수 없는 沈滯 글자 고대로였다.

- (2), 『조선일보』, 1931. 1. 30

二. 童謠運動

넷날부터 朝鮮에 童謠가 없는 배는 아니나, 少年文學 建設의 基礎가 되는 이 童謠들이 저바린 대신에 從來에 있어서 찍으나 等閑視해 왔다는 것은 否認치 못할 事實일사 한다.

朝鮮에도 漠然하나마 新 童謠運動이 發生되기는 지금으로부터 十年의 일이다. 그 當時에는 若干의 外國 童謠를 翻譯 紹介하며 惑은 朝鮮 傳來 童謠와 같은 四四調를 模倣한 몇 篇의 作品이 新聞과 雜誌를 通하여 發表되자, 少年 愛護 運動이 高調됨에 따아서 童謠도 旺盛하게 되었든 것이다.

그렇다가 童謠運動을 더욱 徹底히 하기 爲하야 童謠 研究에 뜯 둔 몇 분들의 努力으로 一九二七年 九月 一日을 期約하고 『朝鮮童謠研究協會』가 創立된 以後로, 그 宣傳 普及에 盡力한 結果, 그 氣勢는 자못 熾熱하야 新興 童謠 運動은 날을 거듭할수록 進展되고 있다. 該會의 綱領은

- 一. 우리는 朝鮮 少年運動의 文化戰線의 一 部門에 立함
- 一. 우리는 童謠의 研究와 實現을 期하고, 그 普及을 勵함

이었다. 創立 以後도 現今까지의 幹部는 高長煥, 辛在恒, 鄭芝鎔, 劉道順, 尹克榮, 韓晶東, 金泰午였다. 첫 事業으로 『朝鮮童謠選集』 一九二八年版을 發刊하였다. 그 意圖인즉 每年 發刊의 計劃이었으나, 經費 問題로 中斷되어 있다. 要컨대, 『朝鮮童謠選集』을 繼續하기를 懇望하는 바이며, 機關紙 發行의 促進을 비는 바이다.

近刊 平南 平原에서 몇 사람의 發起로 『朝鮮童謠選集』을 發行하겠다고 原稿를 請하며, 그 收集에 努力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贊意를 表할 수 없다. 왜? 그것은 童謠運動에 뜯 둔 新進作家들은 斷乎히 한데 集中하여 運動을 統一的 組織的으로 해 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運動의 씩씩한 展開를 爲하여는 孤立-小黨 分立, 이것은 必然的으로 要求치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朝鮮童謠選集』이라면 朝鮮을 代表한 이만큼-童謠運動의 最高 本營인 同 協會의 通過 없이는 안 될 것이다. 故로 該會를 積極的으로 支持하는 同時에, 全 力量을 한데 集

中되기를 企待하는 바이다.

近來 新聞이나 雜誌上에서 朝鮮의 어린 마음을 읊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다운 寶物(童謠)을 찾으려고 또는 만들려고 애쓰는 어린 동무들이 날로 旺盛해 가는 것은 實로 當來할 朝鮮 社會를 爲하여 欣喜하기를 마지 아니 한다. 朝鮮에 있어서 第二期 新進作家를 들자면, 尹石重, 申孤松, 尹福鎮, 李明植, 劉宗元, 徐德出, 馬春曙, 李貞求, 宋完淳 外 數氏를 들 수 있고, 最近에 와서 第三期로는 南宮浪, 睦一信, 趙在衡, 趙宗玄, 全鳳濟, 金大昌, 宋昌一, 李久月, 南應孫 外 數氏를 들 수 있으니, 以上 例記한 분들은 꾸준히 繼續함을 致賀하는 바이다.

客年 一年間에 가장 活氣를 띤 것은 이 童謠作이다. 참말 例年에 없던 多量生産이었다. 그러나 그 作品 가운데에는 값있는 藝術品도 없잖아 있었으나, 그 質로 보아서 遜色이 많음을 遺憾으로 생각한다. 願컨대, 作品 하나를 내어 놓더라도 좀 묵에있는 것으로 發表하기를 再三 付託하고 바라는 바이다. 童謠 運動의 當面한 問題에 있어서 첫째로 唱歌를 排擊하는 同時에, 健全한 童謠를 樹立할 것이다. 在來 朝鮮에서 幼稚園이나 普通學校에서 불르는 唱歌는 어린이의 맘과 交涉 없는 대부분이 公利的 目的을 갖이고 지은 노래이기 때문에, 無味乾燥하여 寒心하기 짝이 없다. 唱歌는 얼는 보면 어둥비둥 같은 것 같으나, 實相은 距離가 서로 먼 것이다. 世上에서 童謠를 니저버리고 돌아보지 아니한 代身에, 읽어야 아모 滋味도 없고 不自然에 빠지거나 事理만 밝히거나 한 唱歌만을 小學校 過程에까지 넣어서 배우게 한 것은 安만 해도 肯定할 수 없는 同時 排擊하여야 한다.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從來의 唱歌라는 것은 自己 少年時代의 空想과 곱고 깨끗한 맘성을 돌아보지 않고, 다만 理智 그것에만 팔려서 마춤내 平凡한 手工品을 만들어 教訓 乃至 智識을 넣어주겠다는 公利的 歌謠이기 때문에, 兒童의 感情 生活과는 下等의 交涉이 없었던 것은 속일 수 없는 事實이 아닌가!

그럼으로 우리는 이 唱歌를 없이 하는 대신에, 童謠를 小學校(普通學校) 過程에 넣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缺陷을 補充하기에 滿足한 內

容이나 形式보다도, 藝術的 香氣가 있는 健全한 新 童謠를 創作하여 少年 大衆으로 하여금 노래부를 수 있게, 즐길 수(舞踊) 있게 하겠다는 것이 新興 童謠運動의 모토라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童謠 作曲集을 목에있는 것으로 抽出해서 持續 發行하여 그 宣傳 普及에 힘써야 될 일이다. 童謠는 音樂과 分離치 못할 親密性을 가지고 있다. 童謠가 音樂化하여 童謠曲이 된다. 그리고 舞踊化하여 童謠 遊戯가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詩歌, 더욱이 童謠는 言語의 調子가 音樂的으로 優秀하여야 할 것은 勿論이다. 그래서 童謠를 制作할 때는 속살(內容)인 意識 傾向을 要請하는 同時에, 用語와 리듬에 一層 考慮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 그것은 글字 하나에도 長短 高低가 있고, 音響이 있고, 音色이 있음으로써이다. 童謠作家는 이 點에 留意하여야 할 것을 다시금 말해 둔다.

그런데 近年 童謠 作曲集이 나타나게 된 것은 깃버할 現狀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取扱에 等閑視해서는 안 된다. 어떤 曲調는 在來 어른들이 불러야 할 어려운 唱歌 같은 曲에다가 억지로 童謠를 끌어넣어 曲을 붙인 것이 많이 流行되는 모양이니, 우리는 그것을 清算 乃至 克服하여야 된다. 童謠 作家는 童謠의 詩想을 自己의 心琴에 울려 樂想을 表現한 것이라야 될 것이니, 우리는 充實한 童謠 作曲家의 輩出을 激勵하는 同時에, 童謠作家로써의 童謠 作曲家를 要求하는 바이다.

그리고 『童謠研究協會』에서는(惑은 推論으로든지) 童謠 作曲集을 發刊하여 이 運動을 키워 나아가는 것이 當面 任務의 하나일 것이다. 여기 한 마디 附言하는 바는 各 出版業者들은 넘우 營利에만 沒頭하지 말고, 좀더 넓은 意味에 있어서 現實의 少年大衆이 切實히 要求하는 『童謠作曲集』을 자조 出版하기를 再三 忠告하는 것이다. 그리고 各 新聞과 雜誌 機關에서도 넘어 여기에 着眼하여 種種 發表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안는다.

- (3), 『조선일보』, 1931. 1. 31

三. 童話運動

古代로부터 朝鮮에도 神話傳說로 내려온 童話가 없는 바도 아니다. 놀부와 흥부이야기 호랑이 이야기 소곰장사이야기 도적놈 이야기 仙女 이야기 孝子이야기 계모학대이야기 富作방망이 이야기 귀신독감이 이야기- 넷날이야기로 보아서는 外國의 傳說이나 童話보다 優越한 것도 많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兒童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반듯이 有益이 있느냐고 質問한다면 그야말로 큰 問題이다. 우리는 그 選擇에 一層 注意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朝鮮에 新童話運動의 發生도 亦是 童謠와 함께 亦是 十年前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同志 韓錫原氏가 『눈꽃』이란 童話集을 맨 처음으로 出刊하고 그 다음으로 同志 方定煥氏가 『사랑의 선물』을 出版하여 많은 歡迎을 받았든 것이다. 뒤밧어 李定鎬 同志의 『世界一周 童話集』과 筆者의 『世界名作童話集』이 出世되어 童話運動을 一層 새롭게 하였든 것이다.

그리고 丁洪教 方定煥 李元珪 金泰午 外 數氏들이 京城을 中心으로 全鮮 各地方을 巡廻하며 童話의 普及과 그 宣傳에 盡力하였었다. 現 朝鮮의 童話 作家로는 延星欽 方定煥 金泰午 丁洪教 洪銀星 高長煥 廉根守 李定鎬 外 數氏를 들 수 있고 …… 少年小說로는 宋影 尹基鼎 崔秉和 嚴興燮 延星欽 李命植 外 數氏요 그리고 美談을 홀로 쓰는 李定鎬氏 - 少年探偵小說을 홀로 쓰는 李元珪氏를 列舉할 수 있다.

童話運動을 도來 十餘年間 해내려온 가온대 이와같이 長足の 發展을 보게 된 것은 世界를 통해서 보드라도 없으리라고 본다. 設使 出版物으로써는 外國에 比워할 수 없다하드라고 그 宣傳에 있어서는 各 新聞으로 各 少年雜誌로 - 胎半을 占領하고 地方巡廻의 口演으로 - 『라디오』 放送으로 - 懸賞童話大會로 - 그리하여 지금에 와서는 童話와 童謠가 少年文藝運動에 있어서 가장 큰 權威를 占領하고 있다. 그야 勿論 原則上으로 보아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童話運動의 當面任務는 어떻게 遂行할 것인가?

(가)迷信의童話を排擊할 것

朝鮮에도 鬼神 독감이 이야기가 있는 것과 같이 西洋에서도 神話나 仙談이니 하야가지고 鬼神이야기를 많이 取扱하였다. 말하자면 『아라비안나이트』같은 것이 그 好例이다. 朝鮮도 于今까지 農村으로 들어가면 舍廊房에서 洞內 어른들이나 안방에서는 洞內婦女들이 모이어 鬼神이야기를 盛히 하며 밤을 새우는 일이 많다. 그럼으로 곁에 앉아서 듣고 있는 어린이들은 으스스한 곶에 들어가면 고만 恐怖心을 늦기게 하는 것이니 그것은 迷信的 觀念을 넣어주는 外에 아모것도 없다. 그뿐이라!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鬼神이 된다는 것과 또는 귀신이 몸에 묻어 단이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귀신이 사람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아서 華竟에는 밤에 외출까지 못하게 되도록 그들은 無氣力하고 壓縮되어 勇氣를 抹殺시키는 害가 적지 않다. 우리는 徹頭徹尾 이러한 이야기는 排擊 乃至 壞滅하여야만 될 것이다. 그럼으로 『아라비안나이트』가 그 中에는 訓話도 있고 合理的 것도 있으나 迷信的 觀念을 넣어주는 害가 적지 않으므로 그리 歡迎할 것은 못된다.

(나)虛偽的 童話を揚棄할 것

眞正한 知識과는 背馳되는 虛無孟浪한 이야기 卽 호랑이 담배 먹고 말하든 때라느니 또는 소와 개가 말을 하고 나무가 나무로 더불어 말하고 交際한다느니 別別怪異한 데 까지 들어간다 말하자면 『이솝 寓話』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 寓話集 가운데 教訓을 주고 어느 程度까지는 錯誤된 觀念을 넣어주지 않는 것도 있다 하겠으나 그때와 지금은 時代가 0하고 知識의 程度가 天壤의 判에 있게 進歩된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생각할 餘地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가 寓話を 할 때에는 먼저 이 寓話가 虛偽를 包有하지 않았는가 兒童의 科學的 知識과 宗教的 信仰에 背馳되지 않을 것인가? 여러 가지 方面으로 생각하여 그 選擇 取捨에 等閑하여서는 안된다.

- (4), 『조선일보』, 1931. 2. 1

四. 少年 雜誌 短評

少年文藝運動의 直接 反映인 少年 雜誌를 評하지 안코는 少年文藝 運動의 當面 任務를 論議할 수 업슬 것이다. 그러나 筆者 自身이 昨年 一年을 通하여 거의 身病으로 잇섯든 關係上 各 誌를 一一히 通讀하지 못했으므로 分析하여 檢討까지는 못한다 하드라도, 在來로 印象된 것 을 斷片的으로 小評을 쓰고저 한다.

『어린이』(方定煥 氏 主幹) 朝鮮과 가튼 植民地의 特殊 事情으로 모 든 條件의 環境이 몹시 不利한 오늘날 現實에 잇서서 雜誌 經營難이란 體驗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眞境을 알 수 업슬 것이다. 더욱이 少年 雜誌에 잇서서랴! 그러나 『어린이』는 모진 狂風 부는 險難한 외로운 길 八年 동안이나 꾸준히 걸어온 것은 壯하다고 볼 수 잇는 同時에, 編輯 同人의 꾸준한 奮鬪를 致賀하지 마지 안는다. 『어린이』는 實로 少年 運動과 그의 文藝運動에 잇서서 歷史의 한 『페-지』를 占領할 것이다.

編輯에 잇서서는 老鍊된 感은 잇스나, 좀더 變化가 업다. 千篇一律式 글자 그대로이다. 말하자면 少年의 趣味 增長, 學校 教養의 補充教材 며 情緒 涵養이다. 全然 否認하는 바는 아니나, 朝鮮의 情勢가 時時刻 刻으로 變한다. 階級과 階級の 戰線은 나날이 急迫하여 온다. 이때에 다만 情緒運動에만 安住할 수는 업는 것이다. 좀더 新方向으로 社會 意識을 高調하며 社會的 進出을 要求하고 잇다. 그러타고 政治 또는 思想 雜誌로 되어 달라는 것으로 알어서는 큰 誤解이다. 그리고 今後부터는 社內에 잇는 이들로만 原稿를 채우지 말고 各 方面의 專門家들에게 請 託하여 목에잇는 作品을 실기를 바란다. 歷史譚으로는 그 長點은 잇스 나, 科學的 讀物이 不足한 點이 업지 안다.

가튼 體裁를 가지고도 清新한 맛과 活字의 誤植이 드문 點에서 長點 이 잇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誇張이 나오는 것이 큰 흠이다. 例를 들면, 우리 『어린이』는 朝鮮의 第一이니 讀者가 몇十萬이 된다느니 또는 編輯人을 그려 노코 알아 마치는 懸賞問題 가튼 것이 그 例이다. 그러나

少年 雜誌 中 『어린이』는 勸獎할 만한 雜誌임을 말해 준다. 압날의 꾸준한 發展을 빌고 同志 方定煥, 李定鎬 氏의 健康과 아울러 健鬪를 빈다.

『아이生活』(鄭仁果, 朱孝燮 氏 主幹) 年前에 누구 評맛다나 『어린이』는 天道教 內음새가 나고 『아이生活』은 基督教 內음새가 나는 雜誌다. 機關이 그러한 宗教的 集團인 만큼 어느 程度까지는 不可○의 事實인 것이다. 그러나 牧師 아들이 반드시 賢者가 되는 것이 아니고, 長老 아들이 반드시 道學者가 된다고 斷言할 수 업는 것이다. 그들 가온대는 누구보다도 더 만흔 墮落者와 浮浪漢이 만히 생기는 그 原因이 那邊에 在한가? 그것은 넘어 中毒의 結果라고 본다. 아모리 조흔 眞味の 食事일 이지라도 그것을 여러 번 重複한다면 그 맛을 일을 뿐만 안이라 오히려 忌避하게 될 것이다. 그러타고 우리는 少年을 指導함에 잇서서 道德的 宗教的 敎訓을 無視할 수 업는 것이다.

그러나 適當 時期에 잘 料理하여 그것이 滯病이 생기지 안코 잘 消化 되도록 하기에 努力할 것을 이저서는 안 된다. 同志 朱 氏가 編輯을 마튼 後로는 그러한 傾向이 多少 업서지는 것 갖다. 創刊 以後 今日에 이르기 까지 六年이란 長久한 歲月을 꾸준히 걸러옴은 實로 編輯同人들의 끈 苦잇는 努力의 結果라고 본다. 客年 正月 以後 體裁가 菊版으로 改訂된 後로는 表紙와 印刷 鼎新함에 잇서서 또는 紙質 조키로는 다른 雜誌 따를 수 업슬 것이다. 그리고 少年 雜誌로서 한글運動을 運行해 가기로 는 이 『아이生活』이 그 先鋒이다. 그러나 그 속살(內容)은 아즉 圓滿치 못하고 貧弱하다는 點이 아십다. 原稿의 精選을 바라는 바이다. 每號마다 特別한 記事를 取扱하여 自然科學을 만히 실리는 點에서 特長이다.

가끔 가다가 雜誌 廣告라는 目次에 몇 사람의 이름만을 大活字로 하여 이름 廣告를 하는 傾向이 잇스니 注意할 點이다. 이대로 꾸준히 나아가면 少年 雜誌의 獨舞臺가 될 것이다. 朱, 鄭, 許 氏의 健康 乃至 健鬪를 빈다.

- (5), 『조선일보』, 1931. 2. 3

『新少年』(申明均氏主幹) 먼저 七年間이란 오랜 歲月을 두고 生命이 維持해 온 것을 깃버하는 바이다. 申氏는 한글에 造詣가 기쁘니만큼 朝鮮 歷史를 普及시키는 한편으로 世宗大王 이야기라든지 地理, 歷史가튼 것을 만히 取扱하는 點으로 보아 長點이 있다. 그렇나 아즉까지 한글 本位로 實行치 못함이 遺憾이다.

近年에 와서 푸로 作家들이 주로 少年小說을 써서 新方面으로 雜誌의 政策을 轉換하는 모양이다. 그렇나 너머 偏重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印刷의 鮮明치 못함과 誤字의 만흔 點이 欠이다.

『新少年』은 少年文藝運動上으로 보아서 잊지 못할 에피소-트가 만타. 종종 少年 文壇을 내어놓는 것이 그것이다. 申氏 外 同人들의 健康과 健鬪를 빈다. 『별나라』(安俊植氏主幹)와 『新少年』은 그 距離가 한 四大門쯤 되는 모양이다. 그것은 두 雜誌의 同人들의 대부분 가튼 人物들을 網羅하여 가튼 傾向으로 나아가는 까닭이다. 誤字가 만흔 點에서 科學的 讀物이 적은 點에서 不滿을 늦긴다. 특히 『별나라』는 安氏 單獨으로 犧牲的 奉仕를 하게 됨은 實로 感謝할 바이며, 健康과 함께 健鬪를 빈다.

『少年世界』(李完珪主幹) 이 雜誌는 어떠한 混合型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特長을 말하기가 極히 어렵다. 말하자면 探偵小說이 그 特長이라고 할는지? 이 雜誌도 『어린이』 以上으로 誇張이 만타. 卽, 讀者가 幾百名이니 來月號는 이리케 이리케 宏壯하다는 것 等이 그것이다. 특히 少年 雜誌에 있어서 이러한 宣傳『씨-라』式 廣告는 絶對 禁物이다. 兒童에게 虎威의 概念을 너허줄가 하는 念慮이다. 갓금 가다가 어린 讀者가 反問하는 때가 만흐니 그때는 무엇이라고 對答할는지?

讀者 大衆을 獲得하려는 點에서 號마다 새로운 記事를 取扱하고, 科學的 讀物을 包有하는 點에서 取할 點이 있다. 經營 問題로 苦痛을 맞는 이 同志에게 同情을 안힐 수 업스며, 떨어져 奉仕의 努力에 感歎하는 바이다. 압흐로도 씩씩한 健鬪와 生命이 길어지기를 빈다.

『白頭山』(廉根守氏主幹) 少年 科學雜誌로는 이것 하나뿐이다. 抽

獎할 點이 만타. 內容도 그리 圓滿하다고 볼 수 업다. 아직 出世가 된 지가 돌도 못 지냈스니 압흐로 두고 보자…… 무엇보다도 生命이 길기를 祝願한다. 其外 雜誌로 中斷된 것은 略한다.

五. 當面 任務와 今後 展望

朝鮮 少年文藝運動으로써 그 當面 任務의 根本 課題로는 무엇보다도 少年 教養 問題에 있는 것이다. 즉 教養은 現實 朝鮮이 如何한 特殊 環境에 있는 것을 알었어야 할 것이니, 우리는 그 任務를 實行하기 爲하여는 堅實하고 努力的인 少年會를 組織하여 진정한 意味에 잇서서 의 指導 精神을 갖이고 그들에게 教育식히지 안흐면 아니 된다. 그릇타고 表面으로만 무슨 運動 무슨 團體 하고 看板을 내세우며 全體運動에 分離와 軋轢을 圖謨하는 그러한 反動團體는 餘地업시 排擊하여야 하며, 깨끗이 清算식혀야 한다. 中國의 國民運動과 既知運動이 처음부터 看板을 내걸고 싸웠다는 것보다도 모르는 사이에 꾸준히 그들은 少年에게 意識을 길러든 것이다.

우리는 只今 集會 禁止나 少年會 解體가 무섭다는 것보다도 少年 大衆을 일는 것과 그들의게 常識的 教養을 주지 못하는 것이니, 於是乎 우리는 少年運動의 正義 및해서 少年 大衆을 엷더한 方法과 方式으로 獲得하여 그들을 教養 指導할가 함이 時急 問題이니, 卽 하나는 情緒 高揚을 基礎로 한 少年 教養과 또 하나는 社會意識을 基礎로 한 少年 教養이 될 것이다.

— (6), 『조선일보』, 1931. 2. 4

우리는 이것을 各各 二元論의으로 볼 것이 아니라, 一元論의으로 보니 社會意識이 先이오 情緒 涵養은 政策的 乃至 技術上의 것으로서 副次作用이 되어야 할 것이다. 故므로 아직까지 在來의 少年運動 아을

너 文藝運動과 갖치 少年의 趣味 增長, 情緒 涵養 等—말하자면 雜誌에 글 짓는 것 等等에 感染이 되어 自然 少年 指導인 체하며 少年運動의 先驅者인 체하는 것을 나는 만히 보게 된다. 이러한 體面 保存의 道樂的 運動—現實을 沒覺하며 無視한 運動者는 運動의 新展開를 爲하여는 우리 運動線上에 展開된 問題를 正堂히 分析 認識 把握하여야 새로운 階段으로 規定하지 안하면 아니 되게 되였다.

달아서 小市民的 自然生長期的 意識의 把持者를 克服하여야 한다. 換言하면 가튼 陣營 內에서 그러한 現階段의 客觀的 情勢를 無視하고 意識의이던 無意識의이던 數多한 誤謬를 犯하고 있는 同志를 發見하는 대로 그 錯誤된 認識을 嚴然한 科學의 立場에서 批判하여야 主觀的 觀念을 바로 잡힌 그들을 救出하지 안하면 아니 된다.

過去의 少年運動과 그의 文藝運動은 氣分의으로 少年會 組織—雜誌 發行, 다시 말하자면 少年雜誌—少年保護運動의 進出에 不過하였든 것이다. 그리하여 運動은 何等 思想이나 主義를 加味치 안코 純然한 少年의 趣味 增長, 學校教育의 補充教材를 해왔든 것이 속일 수 업는 事實이다. 要件대, 朝鮮 少年文藝運動(教養運動)은 過去 그것과는 分明히 달러야 할 것은 重言을 要치 안는다. 或者是 少年文藝運動의 本意가 天真性의 涵養에 잇다 하여 現實에 置重함을 反對한다. 그러나 少年文藝運動의 任務가 第二國民으로의 教養 訓練에 잇스며, 現實을 떠나서 살 수 업는 까닭에 ××의 生活이 可能할 것은 否認치 못할 事實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一九三一年을 契機로 하여 非組織的 自然生長期的 運動을 追求해 바릴 것은 勿論이오, 組織的—目的意識의 運動을 隨行하여야 될 것이다.

(가) 藝術教育

兒童은 그 生活 全體가 藝術的(遊戲的)이다. 그들(어린이)은 不斷히 遊戲的 生活를 繼續한다. 맞이 水中의 고기와도 갖치 가볍고 自然스럽게 空中에 뜬 종달새와도 갖치 즐겁게 뛰는다. 人類의 教育者 페스탈롯

치도 兒童生活一卽 遊藝生活이라고 提唱하고, 말아서 勞動의 遊藝와 藝術化를 暗示했다. 社會主義者 소-맬은 藝術化 宗教化를 說破하였다.

遊藝가 兒童에게 필요하고 勞動이 民衆에게 업서서는 않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遊藝와 勞動이 生産的 物質的으로 利得한다는 데만 끝이지 안코 더 나아가서 藝術的 陶冶로서 尊貴하며, 그들이 人間으로서 向上 하는 데 업지 아니치 못하리라는 데 歸結되고 만다.

- (7), 『조선일보』, 1931. 2. 6

그럼으로 우리는 現下 朝鮮의 客觀的 情勢와 植民地의 特殊 事情을 把握 認識하고 自由를 얻을 수 있는 範圍 안에서 童謠, 童話, 自由畫, 音樂, 兒童劇, 映畫 等一을 例年보다 倍前의 勇氣를 振作하여 지금 우리네가 받고 있는 教育으로붙어 自由教育一藝術教育을 喚起식혀야 된다. 더욱 그 中에 兒童劇과 少年 映畫의 使命이 크다고 본다. 少年映畫 製作所의 그에 對한 任務가 重且大한 同時, 새로운 陣容을 整齊하여 新局面 打開策 如何? 藝術教育의 具體的 理論은 客年 九月中旬 本紙에 九回로 連載된 筆者의 拙論一「藝術教育의 理論과 實際」를 參照하기 바란다.

(나) 한글 運動

우리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不禁한다. 왜? 조선 글처럼 잘 되기로는 世界 各國을 通하여 보아도 比肩할 수 없다고 어떤 外國人도 說破하였건만…… 所謂 半萬年이란 歷史를 자랑하면서 自國語 하나를 完全히 普及식히지 못하고 이제야 새삼스럽게 떠든다는 것은 時代에 落伍된 所致이며, 寒心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過去의 잘잘 못은 過去로 埋葬해 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運動을 展開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多幸이 文化 建設의 基礎가 되는 이 한글運動이 於是乎, 四五年 前

붙어 具體的으로 싹이 트기 始作하여 지금은 그 勢가 治熱한 가운데 있으니, 實로 將來 朝鮮 社會를 爲하여 기뻐할 것이다.

먼저는 少年 雜誌 執筆者和 教育 當爲者(教師)들 또는 著作者는 研究하여(專門的으로는 할 수 없드래도) 今年붙어는 어느 少年 雜誌나 單行本으로 나온 冊子라 하더라도, 一齊히 한글 本位로 쓰게 하는 것이 少年文藝運動의 當面 任務 中の 하나일 것이다. 全鮮 六百萬 少年少女 中 八〇퍼센트나 되는 農村少年 勞動少年을 爲하여 農村 夜學, 勞動 夜學을 니르켜 積極的 進出을 要하는 바이다. 特히 이 點에 있어서 數年前붙어 實際 運動에 着手하여 이미 많은 功績을 보혀준 朝鮮基督教 青年會聯合會의 農村部와 『朝鮮日報』 文字普及班에게 滿腔의 祝杯를 올리는 바이다.

(다) 機關 組織과 評論

於是乎, 나는 우리 少年文藝運動을 組織的으로 그 目的을 遂行하기 爲하여 少年文藝家들의 힘있는 集團을 要求하는 바이니, 卽 少年文藝家協會의 促進을 企待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當面한 諸 問題를 研究 批判하여 文藝運動을 統制해 갈 수 있는 最高機關을 切實히 부르짖는다. 그리고 機關紙를 發行하도록 하여 우리 앞에 展開된 모든 問題를 解決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健實한 同志 方定煥 兄에게 質疑하는 바는 少年運動의 새로운 運營 方針 樹立策 如何? 理論의 展開를 懇望한다. 그 동안 六, 七年을 두고 少年運動과 그의 文藝運動에 있어서 아모런 具體的 理論을 展開한 적이 없음으로, 그의 運動을 疑訝하지 않을 수 없다. 씩씩한 同志 洪銀星 兄은 少年文藝運動에 있어서 그의 理論과 政策이 筆者와 같은 步調로 나아 아거니와, 다른 同志들의 理論의 展開를 企待하는 바이다.

丁洪教, 高長煥, 崔靑谷 其外 同志들이어!

新局面 打開策 如何? 그리하여 우리는 少年總聯盟을 基準으로 하여

그 改善 完實을 圖謀키 爲하여는 우리 運動을 運轉갈 새로운 政策의 樹立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 둔다.

六. 結論

우리 少年文藝運動-(少年運動)은 初期에는 封建主義에 對한 抗爭이었으나, 지금은 封建主義에 對한 抗爭이 아니라, ××主義에 對한 抗爭이다. 말하자면, 少年 擁護-愛護가 少年 趣味 增長, 少年 氣概를 길은다는 것보다도, 이제는 少年의 뻘어 나아갈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朝鮮 少年의 보는 觀點을 朝鮮人이라는데 出發하여야 할 것이니, 맞지 衡平運動이나 女性運動이 解放運動으로부터 一步 進展한 運動이 되어야 할 것은 現朝鮮의 客觀의 情勢를 조곰이라도 안다는 사람으로는 누구나 否定할 수 없는 肯定의 事實일 것이다.

- (8), 『조선일보』, 1931. 2. 8

그러기 때문에 當面한 少年文藝運動의 任務는 朝鮮 父老階級の 封建 陣營의 勢力에서 脫却하자는 運動은 벌써 넷날의 일이고, 現段階에 와서는 아모런 價値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今後의 少年文藝運動은 이러한 定義 밑에서 出發하며 展開식혀야 될 것이다.

朝鮮基督敎會에서는 客年末을 期約하고 南北 監聯合의 大同團結을 보게 되는 그 反面에, 新幹會 解消問題-靑總의 分裂-少總의 中央 不信任-이렇게 分離와 軋轢의 渦中에서 呻吟하고 있으니, 어찌 뜻있는 者로써 朝鮮을 爲하여 憂慮할 바 아니라! 今年 新年 劈頭로 朝鮮 民族의 單一 協同 組織인 新幹會 問題는 實로 재미롭지 못한 不祥事를 續出하고 있으니, 어찌 써 寒心할 바 아니라!

아! 痛哉라. 우리는 派閥의 이데올로기를 新年부터 根本的으로 송도리째 없애버려야 한다. 못된 地方 觀念-嫌疑心-宗派心-이 모든 못

된 根性을 뿌리째 뽑아서 庚午年의 駿馬에 가득히 다 실려서 멀리 太平洋 한복판에다가 埋葬식혀버리자.

辛未年…… 더욱이 우리 少年運動者로써는 가장 意味深長하게 맞아야 할 羊의 해이다. 우리는 羊과 같이 溫純하며 純潔하고, 땀아서 그들의 集團生活을 模倣하자! 群羊은 牧者의 피리소리 한 마디면 그의 指揮를 받는 것이다. 朝鮮에도 어찌 印度의 깐디 같은 이러한 偉人이 없으리요마는, 各自 英雄이요 各自 指揮者이기 때문에 오늘의 朝鮮 少年運動이 이리케 沈滯한 것이 아닌가 한다. 特히 우리 少年運動에 있어서는 그러한 人物은 絶對 禁物이다.

우리 少年 指導者는 健實하고 쓸모있는 피리를 準備해야 六百萬의 汗臭 聒은 羊의 大衆을—길 잃고 彷徨하는 그네들을—참다운 길로 引導해주는 것이 우리 運動者의 使命이요 當面 任務일 것이다. 그러함에 新年을 맞는 보람이 있을 것이다.

— (완), 『조선일보』, 1931. 2. 10

童謠運動의 當面 任務

1. 머리말

소년문학(少年文學) 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동요(童謠)와 동화(童話)일 것이니, 이제 나는 여기에 있어서 동요 운동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단군 한배 재부터) 조선에도 동요가 업지 안은 배는 안이나, 재래(在來)로 소년문학을 꾸밈에 기초가 되는 이 보물(寶物)인 동요를 니저바린 대신에, 펍으나 등한해 온 것은 속일 수 업는 사실이외다.

그리다가 조선에도 막연하나마 신흥 동요운동이 싹트기 비롯한지가 지금으로부터 십년 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외국 동요를 번역하며 조선 전래(傳來) 동요의 사사조(四四調)를 본쳐서 신문이나 잡지에 간간히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자 조선에 소년운동이 기운찬 소리로 부르짖고 나타날 때, 소년 문학운동-다시 말하면 이 동요운동도 더 새로운 발전(發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후 1927년 9월에 조선에 잇서서, 특히 동요 연구에 만흔 뜻을 가진 몇 분들의 앞선으로-「조선동요연구협회」가 창립된 이후로 그 선전(宣傳)과 보급(普及)에 힘쓴 결과, 그 보람이 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근대에 와서 신문이나 잡지로 조선의 어린 맘을 읊을 수 잇는 예술품(藝術品)인 이 보물(寶物)을 차즈려고 쏘는 맨들려고 애쓰는 어린 동무들이 날로 왕성하여 가는 것은 실로 압흐로 오는 우리 조선을 위하여 기뻐하지 마지 안습니다.

말이 선 박그로 나간 것 갓습니다마는, 동요운동의 당면 임무를 말하야니싸 우에스말을 하는 덧도 쏘업는 배는 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과 갓치 한 줄에 쏘인 그저 막연하게 동요를 쓸 것이 안이라, 이제 부터는 여러분이 동요를 쓰실 때에 먼저 지금의 조선이 어찌한 특수 환

경에 처하여야 있다는 것을 깨닫고 쓰셔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면(紙面) 관계도 됨으로 나는 여기에 극히 간단한 세 가지 당면 임무를 말하고자 합니다.

1. 창가(唱歌)를 배격(排擊)할 것

재래(在來) 조선에서 유치원이나 보통학교에서 배우는 창가는 어린이의 맘과는 조금도 부칠성이 업는 대개는 공리적(公利的) 목적을 갖고 지은 노래이기 때문에, 자그 소년 시대의 공상(空想)과 곱고 깨끗한 맘성을 돌아보지 않고 다만 리지(理智) 그것에만 팔려서 마춤내 평범한 수공품(手工品)을 만들어 교훈과 지시를 넣어 주겠다는 공리적 가요(歌謠)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감정생활(感情生活)에 하등의 교섭(交涉)이 없었던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세상에 불러야 아모 재미도 없고 부자연(不自然)에 빠지거나 사리(事理)만 밝히거나 한 창가만 유치원이나 소학교 과정(科程)에까지 넣어서 유금껏 배우게 한 것은 암만 생각해 보아도 찬성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어린이 생활에 아모 짝에도 쓸모없는 이 창가를 배격하는 동시에, 어린이 생활에 한시라도 없지 못한 예술적 향기가 있는 새로운 동요를 유치원이나 보통학교 과정에 넣어 교수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 역시 동요운동의 당면 임무의 하나임을 제창(提唱)합니다.

2. 씩씩하고 예술적(藝術的)인 동요를 수립(樹立)할 것

우리의 모든 환경과 립장(立場)이 막다른 골목에 니르렀다고 낙심만 해서는 절대금물(絶對禁物)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동요 작품의 거이 전부가 『썬티멘탈』적인 동요 그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처를 비참한 이만치 그런 동요가 필연적 소산(所産)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는 너머나 값싼 눈물만 흘이면서 신세타령! 팔자타령!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니, 좀더 힘있는 건전한 노래(健全한 童謠) 또는 『유모어』적 노

래를 요구합니다. 말하자면 동요작가들은 조선의 어린이로 하여곰 씩씩하게 뻗어 나아가고 힘을 길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그 흠점을 보충하기에 만족한 속살(內容)이나 꾸밈(形式)도 등한이 볼 수 없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예술적(藝術的) 향기(香氣)가 있는 건전(健全)하고 유모어적 새로운 동요를 창작(創作)하여 어린이로 하여금 노래로 부를 수 있게 춤(舞踊)을 출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신흥(新興) 동요운동의 당면임무(當面 任務)일 것입니다.

3. 동요작곡집 발행을 촉진(促進)할 것

동요는 음악과 서로 떼러지지 못할 친밀성(親密性)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요가 음악화(音樂化)해야 동요유희(童謠 遊戲)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동요는 말(言語)의 조자(調子)가 음악적으로 우수(優秀)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요, 동요를 지을 때는 속살인 생각(思想)과 감정(感情)을 중요하게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어(用語)아 리듬에 일층 주의하여야 할 것이니, 글자 하나에도 길이(長), 넓이(廣), 높이(高)가 있고, 강약(強弱)이 있으며, 음색(音色)이 있음으로써외다. 그럼으로 동요작가들은 이 점에 특히 류의(留意)할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동요작곡집이 종종 나타나게 됨은 실로 기뻐할 바입니다. 그렇나 유감스러운 것은 어떤 것은 대부분이 재래에 어른들이 붙든 어려운 창가와 같은 곡보에다가 억지로 동요를 끌어넣어 곡을 맨든 것이 있으니, 우리는 그 선택취급에 등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조선동요연구협회의 『소임』이 크다고 봅니다.

동요작곡가(童謠作曲家)는 동요의 시상(詩想)을 자기의 심금(心琴)에 울려 악상(樂想)으로 나타난(表現) 것이어야 할 것이니, 우리는 충실한 동요작곡가의 배출(輩出)을 바라서 마지 않는 동시에, 동요작곡가로

서씨의 동요작곡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참다운 동요곡을 만들(製作) 수 있기 때문이외다.

『조선동요연구협회』에서는 작곡집을 추천하여 지금 소년 대중이 절실히 요구하는 동요작곡집(童謠作曲集)을 발간(發刊)하여야 될 것이며, 짧아서 그 선전(宣傳)에 게을리 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각 출판업자(出版業者)들은 넘어 다 영리(榮利)에만 몰두(沒頭)하지 말고, 좀더 넓은 의미(意味)이 있어서의 이런 작곡집을 출판하기를 기대(企待)하는 바입니다. 또는 소년잡지사(少年雜誌社)와 신문사(新聞社)에서는 보급(普及)에 힘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2. 맺는말

나는 우에 있어서 간단하나마 조선동요운동의 당면 임무를 단편적(斷片的)으로 말했습니다. 소년문예운동(少年文藝運動)으로 보아서 작년 일년을 통하여 가장 활기(活氣)를 띤 것은 동요작품일 것입니다. 참말 전에 없던 다량생산(多量生産)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質)로 보아서 무게있는 작품이 적은 점에서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품 한 개를 내어놓더라도 신중히 생각하여 무게있는 것을 발표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 마디 말할 것은 근래에 여러분들 가운데 동요작품을 많이 보내며 작곡(作曲)을 해서 내달나고, 심하여서는 날스자까지 정하고 작고 독촉을 하는 분네들이 많으니, 실로 답답한 일입니다. 작곡이란 것은 그렇게 쉬운 것으로 알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보내시되 가장 자신있는 작품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신흥 동요운동이 날을 거듭하여 발전하게 됨은 실노 기뻐할 현상입니다. 우리는 1931년(辛未年)붙어는 좀더 운동을 통일적(統一的)으로 조직적(組織的)으로 전개(展開)해 가기를 비는 바입니다. 말하

자면 동요작가들은 지금 백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조선 동요운동의 총본영(總本營)이라고 말할 수 있는 朝鮮童謠研究協會의 기스발 아래로 한데 힘을 뭉쳐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당면한 동요운동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아가기를 성심껏 비는 바입니다.

一九三一. 正. 二六 脫稿

— 『아이생활』, 1931. 4.

농촌에 있는 어린 동생에게

동생아! 내 사랑하는 동생아!

지금은 녀름이다. 녀름 중에서 가장 따거운 녀름이다. 이 서울 장안은 어찌 더운지 오늘도 백륙도 칠도가 오르락 나르락 하는구나. 한낮에는 개왓장이 튀어나고 소가 가다가 격구러지고 종로를 건너노라니 땀은 둘째로 기가 탁탁 맥힌다.

동생아! 태양과 싸호는 동생아!

이러듯 찌는 듯한 더위에 농촌에서 날마다 광이와 호미를 쥐고 비지 땀을 흘려가며 고된 일을 하고 있는 너를 생각할 때에 아니! 그보다도 졸업기를 앞으로 두고 한갓 두 달치 월사금 때문에 중도에 퇴학을 당하지 않았느냐. 공부해야 할 어린 네가 그와 같이 피스땀을 흘려가며 일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네의 시상을 생각할 때에 나의 마음은 몹시도 쓰리고 앞을 뿐이다.

그래도 그와같이 고된 일을 하여 일한 보람이 있다면 그도 한 락이 되려니와 그 반면에는 지주에게 들을 소리 못들을 소리 들어가면서 애써 농사라고 짓어 놓으면 십선 공을 드린 것이 그만 『나무아미 타불』이 되어 버리니 그처럼 원통한 일이 어디 또 있겠느냐 생각하면 들었던 붓대를 내어던지고 한없이 울고만 싶은 것이다. 동생아! 이것이 누구의 죄이냐 네가 만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월사금을 얹주어 학교에서 나오게 했다고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크고 큰 잘못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맘을 위로해 드리며 씩씩하게 일을 하여야 한다.

동생아! 동리에 너보다 물으는 어린 동무가 수없이 많지 않으나 낮에는 부끄럽히 일을 하고 밤에는 문자보급반(文字普及班)을 맨들어 『한글』을 아르켜주며 숫자(算術)을 가르쳐 주어라 이 얼마나 재미있고 유

꽤한 일이겠느냐 그리고 여기에만 끝일 것이 아니라 그들로 독서회(讀書會)같은 것을 조직하여 조선에서 출판하는 소년잡지를 사서 서로 돌려가며 읽어주고 상식을 넓히어라. 그리고 맘을 합하고 힘을 모도아 한 큰 덩이를 만들어라. 그리고 항상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동생아! 끝으로 한 가지 부탁할 말이 있다.

세상에 핏땀을 흘려가면서 일하고도 배루지는 사람이 잇고 일 않고도 배불리는 사람이 잇으니 이것이 웬일이냐? 너는 이것을 깊이 캐어보기에 힘쓰라 나는 거듭말 하노리 너는 부즈런히 일을 하고 유쾌한 마음으로써 하라. 서양 속담에도 노동은 신성(勞動神聖)하다고 하였다.

동생아! 세상에는 일 않고 먹으라는 법칙은 없다. 그들은 엄라 안가서 굶주리고 배급을 날이 오리라. 그 반면에 꾸준히 일 하는 사람의 배부르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을 굳게 믿고 태양(太陽)과 싸호라!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며 힘쓰라. 그리하면 동생아! 씹씹하라. 다시 말하노니 씹씹하라.

一九三一, 八, 十二

- 『아이생활』, 1931. 9

가난한 설음 -어린 동생 哲洙에게

사랑하는 哲洙야!

가을이다. 유리 가티 맑은 하늘은 끝없이 높아가고, 시원한 바람이 제법 산들산들하다. 그러나 가을은 적막하고 구슬은 철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지 않느냐? 동생아! 이 가을이 얼마나 너를 괴롭게 하느냐. 안답답게 구느냐. 너는 금년에 근근히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도 갈 수 없었던 불행한 신세로, 더욱이 직업을 구할 수도 없이 이렇저렇 헤매인지가 발서 일곱 달이나 되는가 보다.

사랑하는 哲洙야!

(이하 10행 삭제)

내가 너를 떠나며 이 서울바닥으로 온지도 발서 오랜 일이었만, 나 역시 여지껏 취직처(就職處)를 얻지 못하고 울분한 가슴을 쥐여 짜며 가두에서 헤매고, 또 헤매일 뿐이다. 오늘도 울분한 가슴을 안고 동으로 서으로 허덕허덕 풀스기없이 돌아단기다가 또 허탕을 잡고 말았다. 나의 머리는 몹시 번거러웁다. 이러한 모든 조건이 너에게 편지까지 등한하게 맨든 것이다.

사랑하는 哲洙야!

너를 서울로 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만큼은 간절하다. 아주 어린 너로써 발서 이 세파(世波)에 부대스기어 불합리한 이 사회제도를 느끼게 될 때 어찌 맘인들 없겠느냐마는, 경성에 오면 적어도 한 달에 이십 사오전은 잇어야 도리 터이니,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업는데 어떻게 매달에 수십 원의 큰 돈을 변통할 도리가 잇겠니? 생각할수록 괴맥히는 일이다.

사랑하는 哲洙야!

그러하나 공부는 한다해도 또한 딱한 일이 있다. 공부하고 나서는 직업을 구하는 일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며, 직업을 갖지 못하면 그만 고등 부랑자가 되고 만다. 룸펜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냐! 그뿐인가? 우리와 같은 룸펜이 된 조선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지 몰은다. 이것이 모다 우리의 가난이 낳아 놓은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나.

사랑하는 哲洙야!

그러하나 걱정하지는 말아라. 너 같은 어린 룸펜일수락에 더욱 굳센 맘을 갖어야 한다. 못된 아이들과 엉뚱뚱 세월을 보내지 말고, 우리 조선 소년으로서의 만당히 저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이하 5행 삭제)

사랑하는 哲洙야!

공부 못한다고 낙심이라던가 한탄은 말아라. 지금은 독서(讀書)의 「씨-즌」가을이다. 많이 읽고 많이 써라. 나는 달마다 너의 불만한 책만 큼은 붓쳐줄 터이니, 그리고 너는 항상 맘과 몸이 튼튼해지기를 공부하여라. 날마다 태양(太陽)을 배호라. 반드시 씩씩하여질 것이다. 아침에 돌아 올오는 광채나는 해가 우리에게 얼마나한 교훈을 주드냐. 동생아! 사람이란 오래 사는 것만이 반드시 기하고 좋은 것은 아니다. 칠십이나 팔십이나 백년을 살다기로니, 또는 아모리 대학을 졸업했다손 치드래도, 우리 사회에 하득의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면 그는 우리 사회의 지인이요, 그야말로 산송장에 불과하다. 나는 말하노니, 누구나 다 한 번 죽을 것이니, 다만 죽고 사는 것이 시일(時日) 관계뿐이다. 그러므로 살바에는 하로를 살지라도 (이하 2행 삭제) 넘어 길어진 것 같으다. 그러하나 이 글을 읽고 또 읽어라. 반드시 얻는 것이 잇을 것이다.

- 『아이생활』, 1931. 10

어린 누이동생에게

사랑하는 내 누이동생아!

태양을 등지고 기계와 싸우는 동생아! 벼재도 못쏘이고 우중충한 공장안에서 날이 맛도록 모든 정력을 알뜰이 희생하다가 전등불이 눈쓰기 시작할 때 췌마디마다 바스리지든 애림을 안시고 무거운 몸둥이를 이슬며 두부가티 나른한 손에 헛속한 얼굴로 시름업시 허덕지덕 집으로 돌아오는 내 누이동생아! 너는 그동안 얼마나 울었으며 얼마나 쓰리고 압혔드냐?

사랑하는 내 누이동생아!

그동안 어머님과 아버님도 안령하시고 네 옴바도 잘잇느냐? 네 의편지를 진즉 밧고도 이제야 붓을 드니 나역 부쓰럽다. 그러나 그 반면에 숨어잇는 나의 괴로움을 너는 모를 것이다. 설녕거리는 나의 마음이 모처럼 붓을 들고 쓰랴하니 도모지 두서를 잡을 수가 업구나!

사랑하는 내 누이동생아!

나는 일전에 신문을 보노라니 너의 다니는 제사공장(製絲工場)에서 동맹파업을 하였드구나! 나는 이것을 보고 놀내였다. 참으로 놀내였다. 이것은 종종잇는 사실이니 그리놀나올 것은 업 스나 네가 주모자가 되었다는 그것이다.

그러하나 각 사회단체의 알선으로 그 요구조건의 반쯤은 해결되었다는 말을 듯고 저윅히 안심은 되었다마는 네가 지금은 어찌케하고 잇는지가 궁금하며 알고저하는 바이다.

사랑하는 내 누이동생아!

다른나라 아이들 가트면 한창 공부해야할 나이로써 그와가튼 고생을 격그면서 동맹파업까지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잇는가? 팔장을 끼고 더 깊히 생각해 보아라. 나는 이 말을 쓰기 전에 두 눈에서 눈물이 쭉쭉 떨어지더니 그만 조희를 적시는구나! 그러하나 우리는 울고만 잇슬재

가 아니다. 너무 설으면 울음도 안나오는 법이다. 여긔서 한가지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게으른 탓으로 한갓 이러한 고초를 당하고 잇스니 우리는 늘 명심하고 지혜롭게 씩씩하게 일을 하여야된다는 것을 이저서는 아니된다.

사랑하는 내 누이동생아!

네가 만일 일만하면 무엇합니까?하고 반문할는지도 모른다. 과연 우리의 모든 주위와 환경이 그러할법하다마는 그러치만 우리는 이럴사록 용기를 내어 분투노력하지 않으면 영영 멸망할 터이니 너는 죽을려느냐? 살려느냐? 이 두 가지에 하나가 잇슬뿐이다. 누구난 죽기를 즐길 사람이 잇겟느냐? 살려면 잘 살기 위하여 갑잇게 살기 위하여 꾸준히 일을 하여야된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내 누이동생아!

「그리스도」는 말하기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니콜라 이-레닌」은 말하기를 『노동하여라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를 마라』하는 말이 잇지 안으냐? 너는 밤으로 고단한 몸이지만 독서를 만히 하여라 세상에 독서가티 무서운 것은 업느니라. 세상에 위인이란 짜로 업스니 어리였슬 때 고생 만히하고 독서 만히하고 꾸준히 일한 사람이 만다. 너는 내게 말하기를 『나는 이 다음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안엇느냐? 사랑하는 내 누이동생아! 다시 말하노니 꾸준히 배우고 씩씩하게 일하여라

동생아! 그러면 그동안 부대 잘 잇거라.

- 『어린이』 제9권 9호, 1931. 10.

東京잇는 兄님에게

형님!

서리시바람은 기어들기 시작하는데 싸뜻한 고향을 찌나서 산설고 물
선 이역풍토(異域風土)에서 가진 고생을 다 격긱시며 이 현실과 싸우시
는 형님! 그동안 얼마나 괴막힌 생활을 계속하셨습니까? 엇지 모든 것
이 생소한 다른 나라에서 그와가튼 쓰라닌 맛을 보면서 잇기를 즐길이
누가 잇겟습니까마는 우리 집안 형편이 그러케 맨들어 노흐니 만부득
이한 사정이 아납미짜 형님! 누구를 원망할가

형님!

오래간만에 못처럼 보내주신 형님의 편지를 진즉 읽고도 곳 답서 하
지 못함은 그동안 추수(秋收)가 무언가 하노라고 좀뵈버서 그리되엿
싸오니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르신바... 어머니와 아버님
은 그동안 베풀어드리시기에 써가쓴다 하시더니 이제는 괴력이 여전하
시오며 어린 누이동생도 충실하오니 조금도 염녀마시고 뜻하신 공부나
잘 하시기만 빌뿐이외다. 형님 금년도 각 곳이 다 풍년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농사도 무던히 되엿습시다마는 쏘 벼값이 내렸스니 무엇합
니까 벼 한근에 삼전을 하니 도조뵈치고 세금물고 나면 텅비인 주먹뵈
게 업슬 것 가태요 재수업는 놨은 잡바저도 코가 깨진다더니 농사가 잘
디어도 걱정 안되어도 걱정 우리 농사꾼은 참말이지 큰일났습시다.

형님!

생각하니 형님을 작별한지가 정히 오늘이 삼년이 되는 날입니다. 쓸
압에 과꽃과 백일홍은 서릿바람에 가엽시 시들어젧습니다. 그러하나
우리가 늘 심거노코 조와하던 국화(菊花)는 서리가 와도 오로지 홀로 쏘
쏘하게 향기를 내여피고 잇습니다. 이 국화가 우리에게 얼마나한 교훈
을 쫓쳐주고 잇습니까? 형님! 이즐내야 이즐수 업는 삼년전의 오늘! 살
냐고 애를 쓰다가 못하야 할 수업시 북으로 동으로 흘러가는 유리군(遊

離群)과 가뜰서 마디마다 사뭇친 설음과 울분한 가슴을 안고 정든 고향을 떠나실때 나는 모름지기 이 국화 한 송이를 곱게 썩겨서 형에게 쏘아드린 것이 저윽히도 추억(追憶)됩니다. 그때 형님이 겨우 노비(旅費)만 가지고 가셔서 모른 역경(逆境)과 싸와가시면서라도 통학까지 하시게 됨은 실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쌀쌀한 바람이 떨어진 문풍지를 바르르 썰며 고추보다 더 매웁게 기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집은 한결 안옥한 폭입니다 저 강변에 태양도 볼 수 업는 움집(茅室)들 바늘방석가튼 랭돌방에서 오는 겨울을 어찌케 지낼런지요?

그런데 형님! 지금도 신문배달을 하십니까? 그전에 구즈야(0000) ... 註(眉屋-古物 조회 걸네등속)를 하시다가 우유(牛乳)배달을 거쳐서 신문배달을 하신다니 참말 고향(苦學)하기 어려운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장하십니다. 압마을 명수(命洙)는 대판(大阪)으로 갔다가 죽도록 일만하고 공부는 커녕 밥버리도 잘못한다하며 뒷마을 순희네집과 박서방네집도 구주지방(九州地方) 어느 공장(工場)으로 돈버리간다고 큰수나 생긴 듯이 야단이더니 소식을 드르니깐 썩썩한 고생만 당하고 잇는가 뵈뵈다.

형님!

날이 점점 치워가고 눈이오라 하니 형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그 머리를 수건으로 질끈동이고 썩썩한 종소리내며 신문배달을 하시는 썩썩한 양이 눈에 서리웁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래명년에는 동양상업학교를 마치신다지요 반갑습니다. 만이 배우시고 썩썩한 힘 길너서 다흔어져 가는 우리농촌을 바로 잡으시오 형님! 삼년전의 우리농촌과 삼년후의 오늘의 농촌이 몇갑절이나 달려졌습니다. 삼년전의 우리 어린이와 오늘의 어린이가 펍 달려진 것입니다. 형님 나의 몸이 썩기고 부서지는 한이 잇드라도 끈기 있게 일을 하여 늙으신 부모님을 뵈시고 나의 장래를 개척하려 하옵니다.

형님은 집안일을 조금도 생각지 마시고 속히 성공하셔서 도라오시기만 축복할 따름이외다. 저는 금년에도 우리 농촌의 농한기(農閑期)를 리용하여 다시금 우리집에다 야학(夜學)을 맨들어노코 한 일주일동안을 가르쳤는데 벌써 제손으로 글씨를 쓸줄아는 사람이 三十여명이나 됩니다.

형님! 넘어 길어젖습니다. 그러하나 저로써는 정성을 드려 쓴 것이오니 저를 본 듯이 읽어주시웁고 틈잇는대로 자조 소식 알려주시기를 바라오며 머나먼 곳에 계신 형님의 몸이 더욱 건강하시웁기만 업대어 비나이다.

一九三一 형님을 작별한 세달날에
남쪽농촌 한모퉁이에서
아우 영철은 올님

— 『어린이』 제9권 10호, 1931. 11.

경성 동무에게

박 군!

사랑으로 주신 동무의 글월은 반갑게 읽었네. 그리고 나는 모름지기 군의 장래를 축복하기에 마지않았었네. 그것은 아직 어린 군으로써 고××등보통학교 피쳐(투수)로 활약하면서 만인의 총애를 받는다 하니 말 일세. 더욱이 중등학교 야구전에 동무의 학교에서 우승까지 하였는지? 펍 영광스러운 일일세. 군의 군센 팔뚝! 힘차게 던지는 그 볼이 이 지구인들 뚫지 못하겠는가? 그 씩씩한 용자(勇姿)가 내 눈앞에 어리우며 가슴의 피는 한없이 용솟음치고 두 주먹이 불끈 쥐여지며 무슨 큰 소리가 나올 듯 나올 듯하이.

박 군!

해는 이미 저물어가네. 특히 우리 조선 소년으로써 의미 깊게 맞고 보 내야 할 양 해(辛未年)도 아무런 새로운 광명도 주지 못하고 슬그머니 안타깝게 저물어가네 그려! 오늘도 눈보라는 여전히 날리네. 이 쓸쓸한 들판에서 헤매이는 양떼들을 볼 때 어찌 그네들의 가련한 정상이 한낱 한시인들 잊어질 리 있겠는가? 군은 참말 행복아일세. 따뜻한 부모의 품속에서 아직 의식(衣食)의 걱정도 없이 단지 희망에 가득 찬 앞날을 바라보고 수백 명 학생들과 훈훈한 스토브(난로)에 좋은 교실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공부하고 있는 군이야말로 행운아일세.

박 군!

그러하나 동무의 그와 같이 편하게 공부하는 그것만을 만족으로 알아서는 잘못 생각일세. 그 등 뒤에서 말할 수 없는 피와 땀의 결정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네. 군의 동창생 가운데에도 많이는 시골 농촌에서 고된 일을 하여 가며 논과 밭을 팔아가면서 설리설리 보내는 그 돈으로 공부하는 동무들이 물론 많을 것일세.

그렇다고 공부 안할 수도 없는 형편이 아닌가? 이래도 없어지고 저래

도 없어질 바엔 공부하고야 볼일인가 하네. 차라리 이편이 나중에 무슨 소득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박 군!

군은 항상 나더러 뵈하느냐고? 참 딱한 일일세. 웬만하면 알고도 오하려 남음이 있을 터인데. 군은 아직 이 세상맛을 보지 못한 까닭인가 하네. 그 변화스러운 조선의 수도 서울에서 자라나는 군으로써는 이 쓰라린 농촌의 정상을 알리 있겠는가.

동무여! 그렇다고 농촌에서 꿩이와 호미 쥐고 흙을 밥으로 알고 싸워가는 내 머리와 가슴을 그렇게도 몰라주는가? 군이 구태여 나의 직업을 묻는다 하면 나는 조선에서 땅 파는 한 농부로서의 직임을 맞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네.

박 군!

군과 작별한지도 벌써 사 년이 지났네 그려! 군이 이곳 보통학교 5학년에서 서울로 이사가는 통에 그곳으로 전학한 후 지금은 고등과 3학년으로 운동선수까지 되었음은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 반면에 나는 간신 간신히 이 보통학교를 마치고 부모님의 농사하는 일을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그때만 해도 옛날이었네. 나도 그때쯤은 행복한 때이었네. 그러나 오늘의 이 현실은 우리 농촌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렸네. 재작년까지도 우리 집도 먹고 살만한 논을 가지고 있었네마는, 아다시피 작년에 남도에는 큰 풍년이 들어서 농가에서는 대풍이라고 처음에는 기뻐하였네 마는, 놀라지 마소. 벼 한근에 3전도 못쳤으니 씨값, 비료값, 세금을 주고 나니까 도리어 빚만 걸머지고 말았으니 그 실은 풍년이 원수였네.

박 군!

금년도 풍년이었네. 그러나 또 쌀값이 헐해졌으니 큰일일세. 작년까지도 논마지거나 있고 집도 있어 살았으나 금년에는 그를 팔지 않고는 당장에 먹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 야단일세. 나는 날만 들면 지게 지고 양지쪽으로 가서 낙엽을 굶어 가지고 올 작정일세. 늙은 부모님의 추위

떠는 꼴을 차마 보지 못하겠네. 더욱 어린 누이동생이 안타까워 죽겠네.

동무여! 그런데 도회지의 소년들은 지게 지고 팽이와 호미 쥔 농촌소년들을 가소롭게 아는 편이 많은 듯 싶으네……. 그러나 제 아무리 도회지의 부잣집 아들과 딸이라 하기로서니 우리 조선사람 되어서는 농촌을 배반하고는 살수 없는 것이 아닌가? 흙으로부터 나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이 흙을 푸대접할 수가 있겠는가?

너무 늦었네. 어머님께서도 아버님께서도 기력이 안강하시고 동생들도 잘 크는가? 내가 안부하드라고 저저히 말씀드리쇼.

동무여! 군은 불을 가지고 이 지구를 뚫는다고 하면 나는 팽이와 쇠스랑으로써 뚫고져 하네. 내내 군의 장래와 건강을 빌고 이만 줄이네.

신미년은 저물어 가는데

농촌에서 눈 오는 날

기철이는 올림

— 『어린이』, 1931. 12.

北滿잇는 동무에게

일남아!

오늘은 새해새날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쁘게 마저야할 새해! 질겁게 마저야할 새날이건만 어쩐지 내가슴 한편 구석에는 쓸쓸한 늦김을 금치못하겠다. 이 새해를 당하야 눈보라 치는 벌판에서 만리고국을 그리워하는 너의 심정을 헤아리니 너를 사모하는 나의마음 못으로 표하기 바이엿다. 북국만리에 너를 보내고 내홀로 맛은 이설날이 아몰지조타 기로니 질거울리잇겠느냐.

일남아!

가난한 우리들의 설날이엇건만 너와함께맛던 작년의 설날은 그리도 질거웁더니 일남아! 기억하느냐! 그래도 우리집에 썩국을 쓰려노코 너와나와 서로주고바드며 우리서가면서 먹지안엇드냐 또 주머니속에서 밤, 대초, 쪽감을 쓰내어먹으며 뛰여다니든 작년의 설날을 저윽히 생각하니 네가 몹시 그립구나! 나는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쓰려주신 썩국을 먹으며 숯갈을 든채 정신을 노코안져다가 그만 아버지에게 꾸중을드러 단다.

일남아!

만주(滿洲)의 풍운이 사나운 이 때에 설인들 변변히 마저하얏겠느냐 네가 말치 낭너도 천가지 만가지 쓰라린 너의 마음을 짐작하고도 오히려 남음이잇다 신문을 보느라니 시베리아와 만주에 잇는 동포들이 말 할 수업는 고생을 격그며 쫓업시 헤매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곤경을 당하는 사람이 만타고하니 더욱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다.

그뿐인가! 네의 소식이 두달이나 쓰어지고보니 너의 소식을 듯기원한다. 아모고생을 당한일은 업느냐? 나는 북쪽나라를 향하야 무사하기를 비는바이다. 그리고 우리동포와 특히 어린이들의 새해 만복을 빌자름이다.

일남아!

조선의 설날은 해마다 글러져간다. 유독히 우리농촌의 설날은 쓸쓸하여간다. 작년보다도 펍군색하게 설날을 맞는것과같다. 어찌 하여서 이리케 구차하게 설날을 맞게 되었는가? 실로 답답한 일이다. 그중에는 화화롭게 맞는 사람도 잊지마는 설날이라고 썩국한그릇을 변변히 쓰리지 못하는 가난한 잡인들이 더만타. 일남아! 사람은 다가튼 사람이건만 왜왜 이리케 사람사는데 층대가 잊게되었느냐! 암만해도 언짢은생각이 솟아난다. 나는 이러한 동요(童謠)를 하나 지어보았다.

다시금 기쁜설날 돌아 왔다고
남의 집 아이들은 호사하고서
가로쥐고 새로뛰며 질겨하누나
(三行略)

잘되지는 안엇다 그러나 나를 본 듯이 노래해라고! 하필 우리가 이런 노래를 질길리 잊겠느냐마는 오늘의 형편이 이리케 만드는구나 일남아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노래를 요다음에는 다시 부르지 안키워하야 다가치 힘을쓰고 굿게게 나아가자.

일남아! 지금은 「웃노리」도 한철이다마는 네가업서서 몹시섭섭하다. 모다가 그립고나 그러하나 일남아 우리는 압날을 준비하기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저버리자 두팔것고 입을 악물고라도 기운차게 나아가자! 이 눈보라 휘날리는 치운 겨울을 정복하고 짜뜻한 고은봄을 마지하기 위하여 약속하자! 그러면 일남아! 산설고물선 북국나라에서 어머님 아버지님 모시고 잘 잊거라

一九三二년 새해새날 아우 二千萬올림

— 『어린이』, 1932. 1.

農村의 봄 서울유학간동무에게

정군!

세월이란 흐르는 물과 같다더니 과연 빠른 것이어서 군을 서울로 작별한지도 벌써 한달이 되어가네. 군이 크나큰 희망을 품고 험수 없는 사정으로 이정든 고향을 떠나든 그때는 아즉도 만산에 눈이 하얗게 덮이엿든 것이언만 한달이 되는 지금에는 어느 듯 쌀쌀한 겨울은 가버리고 만물은 새생명예 쌓여 웃줄 웃줄 뻗어나는 싱싱한 봄철이 다시금 찾아왔네 그려!

◇

정군!

일전 군의 글월에 ××고등보통학교에 입학되엿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겟네 실로 내가 입학된거나 다름이 없이 기뻐하엿다는 말일세. 동무들에게도 일일이 군의소식을 알리엿네. 그리고 우리들을 친동생과같이 사랑하시며 기도하여주는 최선생님께게 그말슴을 엮주니까 빙그레 웃으시더니 그만 눈에는 이슬같은 눈물이 맺치시며 상급학교에 못가게 되는 우리들의 신상을 매우 염녀하시여 말슴하시기를……『흠을파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되라. 그리하여 아름다운꽃이 피게하고 건실한 열매를 맺치게 하는 씩씩한 농군이되여라』이러케 타일러 주시든 것이 내 가슴에는 큰 못이 박히어 한때라도 그 귀중한 말슴이 머리에 살아지지 않고 움직이고 잇는 것일세.

◇

정군!

군도 아다싶이 우리의 가난한 살림이 겨우 보통학교라도 맞치게 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뼈얇은 고생과 피스땀을 짜내어 간신 간신히 졸업이라고 하게 되는 우리로써 어찌 상급학교인들 바라겟는가?

일시는 다른 동무들이 서울을 가네 어딴들 가네 하고 자랑삼어 말할 때에는 부러운 생각도 없지않은 바는 아니나 지금은 아조 단념하였네. 그대신 아버님의 농사일을 도으며 내손으로 무엇이든지 개척하여 보려고 굳은 결심을 하였네. 선생님 말씀과 같이 이 거출은 별판을 갈아서 거룩한 새담을 쌓기 위하여는 꿩이와 소스랑을 둘러매었다는 말일세. 그리하여 흙을 파고 씨를 뿌려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을 때까지 끈기있게 싸워가는 농군이 되려고 맹서하였섯네.

◇

정군!

나는 오늘 낮에 밭에 나아가서 무, 배채씨를 뿌리며 그래도 학교에서 배운대로 식은 개량식으로 갈엸다네. 이놈을 잘 각구면 좀 팔고도 우리 집안 반찬은 넉넉하겠지!

정군! 일을 마치고 숨을 돌리려고 언덕에 앉아서 땀에 젖린 옷자락에다가 땀을 닦으며 쉬이고 잇노라니까 높다란 하늘에 종달이 한쌍이 비비배배 시루루 종종 오르나리며 듯기 좋게 노래하고 잇네. 그리고 앞내 싸에는 동리 아이들이 떼를 지어 버들피리를 맨드러가지고 곡조도 장단도 없이 그저 날라리리 소리나는 대로 불어가며 해지는 줄도 몰고 돌아단기네.

여기저기 드문드문 심겨잇는 살구나무 복사나무 앵두나무 능금나무에는 가지마다 꽃봉오리가 봉올봉올 맺어서 방실방실 웃을라말라하고 앞산에는 아즈랑이 이불을 깔고 제철인 듯 진달내꽃이 한창피어서 붉은산을 일우고 앞내스뚝 언덕에는 씀바귀 바요렛, 꽃이 봄바람에 춤을 추고 잇는 것이 아닌가.

정군!

봄바람은 사가없고 봄비는 공평하여 자네가 잇는 서울에도 물론 봄은 찾아왔슬줄 믿네. 그러나 아즈랑이 너울거리고 버들피리 어울리지며 나물개는 처녀들의 봄맞지노래가 자저지는 이 고향산천만 비하겠는가. 나는 오늘 종달새 노래를 드러가며 밭을 갈고 잇는 것이 얼마나 유쾌하

엿는지 몰으겠네.

정군! 자네의 할 일은 오직 열심히 과학에 착실할 것이고 나는 흙을 파는 것이 유일한 일과일세. 그러타고 농촌에서 흙을 파고 잇는 농부라고 업수넉이지는 말게. 나도 신문 잡지는 언제나 떠나지 않으며 상식을 넓히기 위하여 일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길은 다르다고 하드래도 장래에 우리들이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로 아닌가? 군이 물어주신 영팔이는 나와 같이 일하는 농군이 되었고 뒤스 집 명순이는 몇을 전에 읍내 제사공장에 드러갔다네. 정군! 더 쓰지 않으려네. 부대 객지에서 몸 튼튼한 가운데 공부나 잘하게.

一九三二년 사월초승에
시골아는 동모로부터

— 『어린이』, 1932. 4.

現代 童謠 研究

머리말

옛날부터 조선에 동요가 없지 않은 배는 아니나, 소년문학 건설의 기초가 되는 이 동요를 잊어버린 대신에 종래에 있어서 등한하게 취급해 온 것은 부인치 못할 사실이다. 조선에도 막연하나마 새로운 동요운동이 발생되기는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에는 약간의 외국 동요를 번역 소개하고 혹은 조선 전래 동요의 사사조(四四調)를 모방한 몇 편의 작품이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발표되자, 소년운동과 그의 문예운동이 새로운 발전을 함에 따라서 동요운동도 해를 거듭할수록 왕성하게 되었든 것이다.

그리다가 동요운동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하여 동요 연구에 뜻 둔 몇 분들의 노력으로 조선동요연구협회가 1927년 9월에 이르러 창립된 이후로 그 선전과 보급에 진력한 결과, 그 기세는 자못 맹렬하여 신흥 동요운동은 달을 거듭할수록 진전되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의 소년문예운동은 과거의 사오 년간의 운동은 실로 놀라울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근래 신문이나 잡지상에서 조선의 어린 마음을 읊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보물(童謠)을 찾으려고 또는 맨들려고 애쓰는 어린 동무들이 나날히 왕성해 가는 것은 실로 앞으로 오는 조선 사회를 위하여 기뻐할 현상이다.

그런데 이 연구문을 쓰게 되는 동기는 필자에게 『동요는 무엇이나?』, 『동요는 어떻게 짓느냐?』 하는 진실한 질문을 보낸 소년예술(少年藝術)을 건설하고자 하는 동요 초보자의 열렬한 탐구(探究)에 대하여 조곰이라도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그윽한 마음에서 선배 제씨의 문헌을 참조하여 이 글을 초하게 된 것이다.

1. 동요의 가치(價値)

동요는 동화와 함께 아동 심령의 량식이요, 새 생명의 싹이다. 그리고 동요는 아동 정신생활의 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예술이다. 우리가 사람을 교양(敎養)함에 있어서 예술이 필요한 것과 같이 아동에게는 무엇보다도 동요를 요구하고 있다.

동요는 『어린이의 노래다』. 노래는 즉 정서(情緒)를 읊은 노래는 오로지 그 민족만 가질 수 있는 귀한 보물 중의 하나이다. 더욱 동요는 그 민족 중에도 가장 귀엽고 희망 많은 어린이들의 노래다. 어린이에게만 비상한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어른들께도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니, 지금 어느 동요를 뜻거나 부르거나 하면 까마케 잊어버렸든 어릴 적 생각이 은근히 가슴에 떠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동성이 있고, 가장 숭고한 예술적 가치가 있고, 따라서 어운(語韻)까지 음악적인 것을 진정한 의미의 동요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요는 읽어만 보아도 상당히 흥미가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나 본시 동요는 읽을 것이 아니라 곡조 붙쳐서 노래부를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모리 훌륭한 동요가 잇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헌(文獻)에 나타나지 않었다거나 또는 노래부르지 않음으로 후세까지 전하기는커녕 그대로 살아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요는 노래하며 유희(遊戱)하므로써 동요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며, 생명이 있는 것이다.

도회에서나 시골에서 어린이들이 손에 손을 마조잡고 혹은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혹은 들판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뛰노는 양을 보게 된다. 그러나 어찌하여 그들의 입에서는 좋은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가? 이것이 동요운동하는 사람으로써의 머리를 썩이는 문제이다. 그보다도 어찌하여 조선의 어린이는 좋은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그 대신 농촌에서 피땀을 흘리며 공장에서 일하지 아니 하면 아니 되게 되었는가? 우

리는 무엇보다도 그네들에게 씩씩한 노래 건전한 노래를 많이 제공(提供)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참된 것 새로운 것을 일층 많이 공급(供給)함이 주의할 점이다.

동요는 참으로 어린이들의 작란터에 꽃이라 할 수 있으니, 꽃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맑은 작란터에 아름다운 꽃 그 속으로 어린 벗들은 뛰놀게 된다. 그들에게서 작란터를 빼앗고 꽃들을 짓밟아버린다면 얼마나 그네들의 위로와 희망을 끊어지게 할 것인가? 왜 그러나 하면 어린이들은 작란을 떠나서는 아모러한 기쁨과 희망을 주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면 동요는 어린이를 떠나서 잇을 수 없을 것이며, 어린이는 동요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게 되었다.

2. 동요의 기원(起源)

동요의 기원은 가장 먼 것이다. 그것은 인류에게 언어(言語)가 생기자마자 존재하였을 것이다. 왜 그러하 하면 사람이란 본래 노래하는 본능(本能)을 가졌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은 가만히 주의하여 보면 말도 잘 견우지 못하는 아이라도 무어라 중얼중얼하고 노래부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양지짝 장독대 밑에서 솟굽노리하면서도 병아리처럼 종알대는 것도 역시 노래인 것이니, 어쨌든 아모러한 언어나 사상을 가지기 전부터 오직 노래할 줄 알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인류 력사가 비롯하던 그때부터 어린이의 입에서 불러졌을 것은 엄연한 사실일 것이다.

어린이들이 달밤에 작반하여 놀 때, 누가 노래하라고 시키지 아니 했것만 후른 하늘에 높이 뜬 달님을 바라볼 때 자연한 감격에서 일어나 제 절로 입에서부터 터져 나오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리태백이 노든 달아』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어리었을 때에 동무들이 모히면 이런 노래를 부르며 재미있게 작란하였다.

(소리 매기는 노래)

새야새야

파랑새야

농누남에

앉지마라

농누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받는 노래)

짹짹짹짹

짹짹짹짹

짹짹짹짹

짹짹짹짹

짹짹짹짹

짹짹짹짹

짹짹짹짹

짹짹짹짹

이것은 조선적으로 유행하는 고요(古謠)다. 그리고 또 전라도 유행의 노래가 있으니,

새야새야

녹두고부

강밥딱딱

우리눈에

우후야!

웃넉새야

전주새야

굽어주께

앉지마라

우후야!

어리었을 때 이런 노래를 여러 동무들이 삼삼오오 작반하야 부르고단 이면 얼마나 유쾌하고 재미있었는지 참말 그때가 부럽다.

답풀답풀

해다진데

울어머니

젓먹으러

다방머리

어데가노

산소등에

나는간다

이것은 얼마나 슬픈 노래인가? 어머니 잃은 어린 아이의 애꿎는 노래다.

우에 몇 가지 전래의 동요는 펍 오래 전부터 우리 조선에서 잇엇든 것이다. 그러타고 몇 십년 전부터도 아닐 것이니, 이외에 많은 동요가 조선 민족의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발생하였다고 본다. 그러면 동요는 연령을 가지지 아니 한 지상의 천사가 아닌가?

3. 동요의 의의(意義)

우리가 동요를 연구할 때에 먼저 『동요는 무엇이냐?』 하는 의문을 풀어야 한다. 근래 신문이나 잡지상에서 동요 작품을 많이 대하게 되거니와, 어떠한 것이 진정한 동요라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사람은 적은 줄 안다. 동요는 아동의 가요(歌謠)란 뜻이다. 그 중에는 어린이를 위해서 의 노래도 잇을 것이오, 농향(農鄕)에서 전래(傳來)하는 노래도 잇고, 어떤 시인(詩人)이 자기의 예술적 충동에서 읊은 시라도 아동이 음미(吟味) 할만한 것이면 역시 동요라고 할 수 잇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요란 것은 예술적 냄새가 풍부한 어린이들 노래이니, 마치 종달새가 맑아게 개인 푸른 하늘을 볼 때 노래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이 제절로 터져나와서 부르는 어린이들 시(詩)를 동요라고 한다. 가장 숭고한 예술적 가치가 잇을 것은 물론이오, 어운(語韻)까지 음악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동요 유희로 할 수 잇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금 어른의 령까지도 흠드러 동심(童心)의 세계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잇는 것이 바야흐로 생명이 잇는 동요라고 할 수 잇다. 그러나 형식과 기교(技巧)에 잇어서 절대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진정한 뜻은 말로만 알 수 없는 것이니, 가령 예를 들자면

종달새

맑게개인	봄하늘에
비비배배	노래하는
엷븐엷븐	종달새야

나직나직	나려와서
내손안에	안껴다우.
평화스런	봄하늘에
두날개로	춤추며
곱게곱게	노래하는
사랑스런	종달새야
내가슴에	안껴다우.

종소리(주요한 作)

새해의종소리가	울지않으면
눈속에잠든뭇새	누가깨울까
아침해가벌거케	떠올때까지
잠못깨고누었으면	부끄럽겠네.

새해의종소리는	왜아니우나
설어서아니우나	깨트러졌나
지난설에울고울어	목이쉬었나
종치기죽은뒤로	아니운다네.

새해의종소리를	울게하라면
어린동무다와서	손을잡어라
붉은하늘향하야	소리칠때면
이××의가슴마다	울려가리라.

이 두 가지의 동요를 비공개 보자. 「종달새」는 열 살 남직한 어린이가 씌슨 듯이 맑게 개인 봄하늘에 종달새의 아름다운 노래를 드를 때에 무슨 말을 거러보고 싶은 생각이 나고, 종달새를 무한히 안달(憧憬)하는

마음에 가슴에 안어보고 싶도록 사랑스러운 심정(心情)이 나타나 있다.

「종소리」는 이것이 무슨 동요로써의 가치가 있느냐고 묻기 쉽다. 그러나 이 동요는 신흥 동요로써의 깨끗하고 건전한 동요로 예습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조선의 현실을 묘사(描寫)한 것으로 어린이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지도성(指導性)이 있다. 그 중에도 2절의 마즈막 줄과 3절이 더욱 좋다.

4. 동요와 창가의 구별(區別)

동요가 어린이의 노래인 이상 어린이의 마음을 본위(本位)로 한 것이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재래로 유치원이나 보통학교에서 부르는 창가는 어린이의 마음과 교섭이 없는 대부분이 외국의 노래를 번역한 것이나, 그러치 않으면 대부분이 교훈과 공리적(公利的) 목적을 가지고 지은 노래이기 때문에 무미건조한 노래뿐이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창가와 동요는 얼른 보면 어등비등 같은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거리가 서로 먼 것이다. 세상에서 동요를 잊어버리고 돌아보지 아니 한 대신에, 읽어야 아모 자미도 없고 부자연에 빠지거나, 사리(事理)만 밝히거나, 뜻도 잘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거나 한 창가만은 억지로 배우게 한 것은 암만 생각해 보아도 찬성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훈과 지식을 넣어주겠다 목적한 공리적가요(公利的歌謠)인 창가(唱歌)를 배격하는 동시에, 그 결함을 보충하기에 만족한 내용이나 형식보다도 예술적 향기(香氣)가 높은 건전(健全)한 동요를 창작하여 유치원과 소학교와 소년 대중으로 하여곰 노래 부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신흥 동요운동의 모토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공장(工場), 농촌(農村), 어촌(漁村)에서 노동하고 있는 소년 대중에게 빛나는 앞길을 열어주는 굳센 지도성(指導性)을 가진 힘찬 노래를 요구한다.

가령 여기에 창가와 동요의 레를 들면,

唱歌 「師의 恩」

1. 철없고어린 동서불변 우리들
힘써 가라친
우리우리선생님 잊을소냐 그은혜
아침이나 저녁이나
2. 지식 넓히고 재능도덕담이는
누구힘인지
동반들아아느냐 옳다 우리선생님
구전심수이아닌가
3. 이몸낳기는 부모님의은혜요
사람되기는
선생님의은혜라 잊을소냐선생님
부모님과 일반이라
4. 높고또높은 선생님의큰은혜
어찌잇으며
어느때나갚을까 우리몸을세우고
우리일흙 날리어서.

童謠 농촌의 봄

동무들은 때를지어 바구니들고
나물캐러 논뚝밭뚝 타고다니네
보리밭에 종달이새 노래부르니
달래캐든 우리누나 쳐다보겠지.

바구니에 꽃한아름 꺾어서들고
버들피리 불며불며 돌아오니까

어머님은 애기업고 바라보시고
바둑이는 꼬리치며 마중오겟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창가(「師의 恩」)는 소위 창가란 것 중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요에 비하면 마춤내 상점의 간판화(看板畫)나 평범한 수공품(手工品)에 지나지 못한다. 첫째, 일련(一聯)에 잇는 말과 이련에 잇는 말이 서로 달려진 것에도 불구하고, 같은 곡조로 노래 불으기 때문에 자연 억지가 생기고 그 내용에도 적당치 아니 한 곡조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의 봄」인 동요에 있어서는 창가와 비교해 본다면, 비로소 도용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농촌의 정경(情景)을 그린 것이니, 어린이들의 맘성이 분명히 이 동요 가온대 들어가서 먼저 말한 창가와는 단판으로 시적정서(詩的情緒)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히 노래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

— (1), 『아이생활』, 1932. 7.

(낙장)

— (2), 『아이생활』, 1932. 8.

그러면 시와 동요는 어떠한가? 그 근본 정신이라 하면 펍으나 어려운 것같이 들리지만, 결국 시나 동요를 짓는 때의 마음은 꼭 한가지다. 다만 그 가온대 실린 내용이 시와 동요를 따라 다를 뿐이다. 그리고 또 동요는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잇는 일종 아동어(兒童語)라 할 것을 써서 그 아동들의 맘성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 좋으나, 시는 대체를 보통 일반적인 말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동요로 불을 내용은 아이들 눈을 것처럼 본 아동의 세계에 한한 것이니, 그러므로 꿈나라에

대한 애쓰러운 동경(憧憬)을 어린이들 말 중에서 제법 예술적인 말을 골라서 기교(技巧)를 억지로 꿈이지 말고 수수하게 노래하는 것이 동요의 근본 정신인 것이다.

그런데 시(詩)에 있어서는 어이없는 사랑의 추억(追憶)이라든지, 다정한 사람의 죽음을 한탄하는 것이라든지, 조악 많은 인간사회를 저주하고 쓸쓸한 광야(曠野)에서 헤매이는 광경이라든지, 현실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원갖 애닦음과 기쁨을 노래한 것이 시가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동요는 글자를 따라 읽어서 맛본다기보다, 노래 불러서 질기는데에 동요의 사명(使命)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 마디 하야 둘 것은 동요를 쓸 때에 작자가 실감(實感)을 얻고 구상(構想)하야 노래로 불러보아도 노래가 되면 붓을 들어야 참된 동요가 되는 것이다. 동요뿐만이 아니라 시에 있어서도 억지로 꿈여 놓은 시는 언제든지 시가 될 수 없으며, 그와 반면에 작자의 마음에 진격한 감응이 이러나서 읊은 시를 창작한다면 그야말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참된 시일 것이다.

먼저도 말했거니와, 시를 분류해 말하자면 서정시(抒情詩), 서사시(敘事詩), 극시(劇詩) 등이 있다.

첫째, 서정시란 것은 독일 시인(詩人) 하이네의 소곡(小曲)과 불란서의 뵘르레 시 같은 것은 모다 이 시의 적당한례(例)로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아름다운 것을 노래한 시가 곧 이것이니, 다른 시형(詩形)에 비하야 짧은 것이 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서사시라는 것은 이태리 시인 단테의 『신곡(神曲)』과 같이 인물과 사건을 어느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 묘사(描寫)한 이야기시라 할 것이다.

셋째, 극시란 것은 독일 극시작가(劇詩作家) 피테가 지은 『파우스트』라 하는 희곡(戲曲)은 운문(韻文)으로 쓴 극시라 할 것이다. 이 외에 교훈시(敎訓詩), 풍자시(諷刺詩)가 있스나 그리 많지 못하고 현대에 와서는 산문시(散文詩)가 성하게 된 후로는 극시는 태반을 그 지위를 뺏긴

모양이고, 서정시와 자유시(自由詩)가 유행되고 그 지위를 확보(確保)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에는 시가(詩歌)가 없었는가? 아니다. 시는 인생 감정의 발로(發露)인즉, 조선 민족의 력사가 잇는 이상에 시는 분명히 없지 않을 것이다. 꾸밈(形式)의 같고 다름과 속살(內容)의 잘 되고 못됨은 여기에 말할 것이 아니고, 어째든 우리고 시가(詩歌)가 잇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종류를 말하자면 동요(童謠), 민요(民謠), 시조(時調), 신시(新詩) 등으로, 동요를 빼어 놓고는 모다 어른들이 읊는 노래이니, 여기에 시조와 민요의 몇 가지 그 실례를 들어보고저 한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올오고 또올오면 못올올리없건마는
사람이 제아니 올오고 뫼만 높다 하더라.(栗谷)

이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락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 때 독야 청청 하리라.(成三問)

이몸이 죽어죽어 일백번 곧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잇고없고
(이하 낙장)

- (3), 『아이생활』, 1932. 9.

7. 동요 짓는 법(童謠 作法)

◇참고 서적

김태영 씨, 『동요작법』

정열모 씨, 『동요 작법』
西條八十, 『동요의 뜻과 짓는 법』
野口雨情, 『동요론』
北原白秋, 『동요론』

가. 예술감(藝術感)

동요를 지을려고 하면 먼저 작자(作者)로서의 순진한 가운데 울어나오는 예술감(藝術感)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예술감인가? 가령 아름다운 꽃을 보고 미감(美感)이 생기는 것이라든지, 맑아게 개인 하늘에서 노래하는 종달새를 보고 흥에 겨워 같이 노래하고 싶은 맘이라든지, 산골작이에서 꼬리치며 흘러가는 맑은 샘물을 볼 때 그 물에 들어가 물작란하고 싶은 것, 물결치는 넓은 바다를 볼 때나 달 밝은 밤에 달을 보고 무슨 말을 걸어보고 싶은 맘이 생기는 것, 그 모든 자연만상(自然萬象)을 볼 때, 그것을 본 후에는 나도 몰르게 아름다운 느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노래짓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것이니, 그것이 곧 예술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었을 적에 지낸 일에서 지금도 분명히 생각나는 것을 거죽과 꾸밈이 없이 깨끗한 맘과 맑은 맘으로 노래한다고 하면, 그것이 예술감이 될 수 있다. 그러케 지은 노래면 사람에게 많은 느낌을 줄 것이며, 독자로 하여금 작자가 느낀 바와 같은 자미스러움과 안타까움을 그 노래 속에서 느끼게 될 것이며, 따라서 좋은 작품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느낌(感興)이 생기고 사랑스러운 맘(愛着)이 생기고 노래 쓸 맘이 생기는 것이 예술감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애기들의 생활을 유심히 본다면, 그들은 무의식한 가운데 앞뜰에서 비락이 머리 맞대듯이 웅알 종알 얹어 무어라 종열대며 나무토막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라든지, 버들피리를 만들어 종달새 노래에 맞추어 불며 뛰는 양이라든지, 뽕국이 꾀꼬리 노래를 입내내는 거라든지,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스가에서 갈뉘뻐를 만들어 띄우

고 노래 불르는 것이며, 모래성을 쌓아 모래로 집을 맨드는 그것이 모도다 예술적 충동이 아니랄 수 없다. 그들의 모든 짓거리가 장내에 건축사(建築師), 음악가(音樂家), 조선가(造船家), 예술가(藝術家)가 될려는 장본일 것이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실로 예술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눈에 빛된 것, 그들의 일상 행용하는 말로 수수하게 노래한다면 그것은 동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서든지 보는 대서 예술감이 생긴다는 것은 앞에 대강 말하얏거니와, 예술감이란 제절로 이러나야만 되지 역지로 이르킬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눈에 빛된 것, 맘에 느낀 것, 그 가온대서 뜻하지 않은 충동이 이러나 내 맘의 정서(情緒)를 잡아 흔들어 한 개의 노래의 생명과 뿌리인 예술감을 갖게 되어야 한다. 시인은 이것을 시상(詩想)이라고 한다. 시상을 크게 난호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첫재 인상(印象)의 시상(詩想). 이것은 본데서든지 들은데서 얻은 것인데, 즉 밖에서 온 외래충동(外來衝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상의 시상이라고 겹고 밖에서 즉접 예술감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다. 예술감이 될만한 것이 밖에서 내 정서의식(情緒意識)의 충동을 주면, 내 맘의 정서는 한 개의 생명인 시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금을 칠 때나 피아노를 칠 때 우리 손이 소리가 되지 않고 손가락이 줄을 치면 그 줄에서 소리가 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래 잇는 노래가 어떤 시상인가 알아보라.

강남각씨 저제비
언제나왔소
지지지구 제지구
부지위지지
오, 반갑소 오늘이
삼월삼질날
흥부같이 착하니
좋은박씨를

강남각씨 저제비
날주러왔소.

둘재, 상상(想像)의 시상(詩想). 밖에서는 아모 충동을 줄만한 것이 없다 하드라도, 내 맘에 또한 정서의 줄을 잡아 흔들어 시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모 대상(對象)이 없어도 제절로 이러나는 노래의 생명인 예술감이다. 우리는 노래가 될만한 시상이 내 맘에서던지 들은데서던지 이러나거든 꼭 붓들고 놓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한번 놓치면 붓잡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와 동요를 지을 때 몸과 맘을 깨끗이 하여 예술감이 찾을 때까지 굷치지 말고 잘 붓잡도록 힘써야 한다. 이 아래 잇는 노래가 무슨 시상(詩想)인가 보아라.

그립고도 정다운 나의고향은
멀리멀리 보두새 끝이없는데
저하늘과 산아랜 고향이거니
아물아물 구름만 흘러갑니다.

그립고도 정다운 나의고향은
바다천리 산천리 아마득한데
복사꽃과 살구꽃 다피것거니
홀로계신 엄마가 더욱그리워.

- (4), 『아이생활』, 1932. 10.

새해 새날에 어린 동무들에게

새해가 되었습시다. 묵은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케 까불던 원숭이해는 그만 자취를 감초고, 맑은 정신과 깨다름을 주는 닭해(癸酉)는 찾아 왔습시다. 그리하나 사랑하는 조선의 어린 동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케 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까? 가난한 조선에 태어나신 여러분이니 못지 않아도 여러분 중의 대다수는 설날을 앞두고 이러한 노래를 불렀을 분이 잇었을 듯도 합니다.

옆집에는 쿵당쿵당 설은 안오나
어찌하여 우리집엔 설은 안오나
아버지는 산넘어로 나무가시고
어머님은 바느질 품파리갓네
복단이는 새옷입고 뛰어단일때
나는나는 무엇입고 새배할까나

이것은 「첫달 그믐날」 불행에 우는 어린이가 설날을 생각하고 노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랬습시다. 그러나 다같이 즐거워할 새해, 기뻐해야 할 설날이건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고은 의복에 맛있는 음식으로 설날을 재미있게 맞이하는 그 반면에, 가난, 설음, 한숨, 눈물로 설을 맞는 이가 잇다면, 그 얼마나 불상한 동무이겠습니까?

맛있는 떡국에 윙윙불윙윙한 색동저고리에 새해 새 마음을 가지고 토끼와 같이 깡충깡충 뛰어단이면서 세배 단일 여러분이 어찌 이러한 노래(童謠)를 질기리 누구 잇으리까?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노래만 부르고 잇는 소년소녀가 되고만 말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다시는 부르지 않기 위하여 이 새새 새 아침 붙어는 새 마음을 먹고 새 목적을 세워서 큰마음 큰 뜻을 가지고 지금 붙어 준비하여 씩씩하게 노력하는 소년이 되어야 하겠습시다.

정말입니다. 큰 사람 큰 인물이 되고 못 되는 것은 큰마음 큰 뜻을 먹고 안 먹는 대에 달렸고, 큰 목적 큰 리상(理想)을 세우고 안 세우는 데 달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큰 마음 큰 뜻을 아니 먹을 수가 없으며, 큰 목적 큰 리상을 아니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큰 목적 큰 리상을 세운 그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붓잡에 실행하는 것이 더 귀중한 것입니다.

어떠한 곤란과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일할 때까지 꾸준히 버리어 나아가는 씩씩한 힘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면 기여히 끝을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모저록 여러분은 더 굳센 사람이 되어 남에게 머리를 숙이지 말고 이를 악물고라도 뜻을 꺾이지 말고 큰 고생 중에서도 씩씩하게 자라서 다같이 큰 인물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조선 사회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가 모디어 된 것이니, 여러분이 힘있고 씩씩한 사람이 된다면 조선 사회도 힘있고 건전(健全)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한 하라아버지 중에는 아래스목에 앉아서 장담이나 할 줄 알었지, 용기있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씩씩한 힘을 요구합니다. 눈 오는 겨울날 온돌방 아래스목에서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어린이들 대할 때 함말 딱해 보입니다. 암전한 소년보다도 가슴이 불끈 솟고 기운찬 소년을 오늘의 조선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치운 겨울을 정복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썰매도 타고 어름 지치고 눈사람 맨들고 다름박질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씩씩하여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뛰어다니는 그런 피에 끓는 소년소녀가 되기를 성심껏 바랍니다.

- 『아이생활』, 1933. 1.

健實한 文學 樹立

新年에 少年文學界에 對한 새로운 提案? 나는 斷片的이나마 이 아래 다섯 가지 希望 條件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一. 農村 少年 敎養이 急務

朝鮮에는 八十五퍼센트의 農民이 있습니다. 딸아서 朝鮮 少年의 多數가 農村 少年임이 틀림없습니다. 勿論 가가거겨도 모르는 그들을 敎養 指導할만한 農村 少年을 相對로 한 少年 雜誌의 出現을 企待하는 바입니다.

二. 眞實한 作品을 要求

近年 少年少女의 作品을 보면 두 가지 潮流가 흘러 있습니다. 하나는 고옹게 애답게 지을려고 애타는 作品과 또 하나는 힘차게 역세게 지을려고 애쓰는 作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마디 말할 것은 공연히 쏘깃게 멋잇게 슴흐고 애답게 지을려고 그를 쓰는 헛우슴 헛눈물의 作品도 要求치 안커니와 또는 펴피 헛주목의 作品도 要求치 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朝鮮 少年의 現實에 빗최어 그들의 압길에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고, 새로운 局面을 打開할 眞實한 作品을 要求합니다. 언제나 切迫한 우리 少年의 生活意識에서 일어나오는 感情으로써 쓴 글-『속임 업는 노래! 참다운 글!』이것을 製作하여야 되겠습니다.

三. 새로운 藝術敎育을 樹立

兒童은 그 生活 全體가 藝術的(遊戲的)입니다. 그들은 不斷히 遊戲의 生活을 繼續하고 있습니다. 패스탈룻치는 兒童 生活-即, 遊戲 生活이라고 提唱하고 딸아서 勞動의 遊戲化, 藝術化를 暗示하엿습니다 우리는 童謠, 童話, 自由畫, 音樂, 映畫 等等을 新年부터는 例年보다 倍

前的 勇氣를 振作하고, 지금 우리네가 밧고 잇는 教育으로부터 참다운 藝術教育—自由 教育을 喚起시켜야 되겡스며, 그들의 압길을 열어주는 힘잇는 藝術을 提供함이 少年文藝運動을 하는 사람으로써의 크나 큰 使命이라고 봅니다.

四. 機關 組織과 評論

於是乎, 나는 少年 藝術運動을 組織的으로 그 目的을 遂行하기 爲하야는 少年文藝家들의 集團을 要求하는 바이니, 卽 少年文藝家協會의 促進이 그것이외다. 그리고 當面한 諸 問題를 研究 批判하야 文藝運動을 統制해 갈 수 잇는 最高機關이 잇서야 하겡습니다.(名實 共히 有名 無實의 少年聯盟에만 맞겨돌 수 업스니싸요) 그래서 機關紙를 發行하도록 하고, 우리 압해 展開된 모든 問題를 하나둘씩 解決하기에 努力하야 되겡습니다.

五. 健實한 少年文學을 樹立

압해 提案된 몇 가지 條項은 結局 少年文藝運動의 新 展開를 要望한 것이오, 一言으로써 말하자면 健實한 少年文學의 建設을 期待하는 바 입니다.

— 『조선일보』, 1933. 1 2

당신이 가신그뒤로 남편에게보내는第一信

【前畧】××氏 당신이 그곳으로 가신 그 뒤로--
처음으로 주신 한 장의 글발은 오늘에야 겨우 밧자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羊을치든
그 牧場은 어찌되었느냐고요 ××氏 당신이 그곳으로 가신 그 뒤로--
거치렀든 이 牧場은 더욱 쓸쓸하여졌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白楊나무 아래서 집행이를 잡고
당신이 날마다 사랑스럽게
결으든 羊을 보노라니
羊들은 당신을 찾노라 헤매이고 잇소이다
매-매- 당신이 극진히 사랑하든 그 羊이 더욱 설게 울고 잇소이다
하지만 당신은 아모 反響도 없구려 그림자도 없구려!

××氏 지금은 아까시아
욱어진 숲속에 매암이 소리는 자저지고
가을의 夕陽노을이 붉으레하게 물드리고 잇소이다
어서 도라와야할 한마리의 어린 羊은
아직도 도라오지 안습니다
목에 방울이 떠러졌나봐요

어둑산한 이험한 골작이로 들판으로
나는 그 어린 羊을 차즈려 헤매입니다
바람이불고 猛獸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羊을 기필코 찾고야 말겝소이다

—羊의 生命을 구원하기

위하야는『곰』이라도 찌져버린『비드』도 잊거늘

××氏 넘려마소이다 안심하소이다

저도 인제는 粉紅 실마리같은 사랑만 꿈꾸며

방구석에 안저잇는 못난게집은 아니랍니다

우리들의 참사랑 우리들의 참삶을 위하야는

生命을 밝구는 한이 잇드라도 이 牧場은 구지구지 직히갯소이다

××氏! 저는

당신이 나오실 때까지 이 牧場을 직히갯나이다

저를 안해라기 보다도 同志로써의 뜻을 밝으소서

그리면 다시뵈을 때까지 부대부대 안녕하소서

오오 사랑하는 나의남편

우리들의『리드』여!

詩集『東方의 光明』에서

—『조선일보』, 1933. 2. 22

朝鮮에 燈臺가 되라

이 달 삼월이 『아이생활』 창간 된지 7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그 축하를 하나 써달라는 주간 선생의 부탁을 받고 다시금 펜을 잡고 보니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아이생활』과 나는 떠러질나야 떠러질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어왔든 것이외다 그것은 처음 창간될 때부터 관계를 갖었든 나로써 오늘날까지의 걸어온 자취를 도리켜 생각해 보건대, 그 동안 높고 험한 산을 넘기네 얼마나 숨차으며 거치른 바다를 건느기에 얼마나 애타는지 독자 되신 여러분도 짐작이 있을 법도 합니다마는, 조선과 같이 특수한 지대에 있는 우리들로써 이만큼 일곱 해 동안이나 쉬지 않고 꾸준히 걸어온 것은 직접 책임자이신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은 물론이오, 애독자 여러분의 불 같은 정성과 애호해 주신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과연 장합니다. 기쁩니다. 『아이생활』을 처음 내어놓을 때와 지금에 비교하면 무엇보다도 이만큼이나 조선 소년 잡지계에 패권을 잡다싶이 된 오늘의 『아이생활』을 볼 때에, 어찌 장하지 않으며 기쁘지 않으리까?

『아이생활』의 공적(功績)은 실로 컷다고 봅니다. 눈물, 한숨, 어둠에서 헤매이는 우리 육백만 소년소녀에게 희망과 빛을 열어주기에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더욱이 독자로서 소년 문인(文人)들도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원컨대, 과거의 걸어온 자취를 거울삼아 무엇보다도 조선 소년의 현실에 빛외어 이 한숨과 암흑 가운데 헤매이는 그네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등대(燈臺)의 직분을 맡기지 말어주기를 축원하는 동시에, 우리 육백만 어린이들은 한맘 한뜻으로 이 성대한 돌잔치에 참석하여 씩씩하고 우렁찬 노래로써 같이 손을 잡고 축하하여지이다.(一九三三.

二. 二〇, 東京에서)

— 『아이생활』, 1933. 3.

머리말

나는 일찍부터 조선의 農鄕을 노래하기에 힘썼다. 특히 어린이 世界에 이어서 많이 노래하였다. 그것은 가난하고 설음 많은 우리 農鄕의 어린이들을 어떠한 方法으로써 앞길을 열어줄까 함이 그 先決 課題가 됨으로서이다.

여기에 있어서 흙(土)을 基調로 한 새로운 글! 藝術的 香氣가 豊富한 노래, 健全한 노래, 굳센 指導性을 가진 흙의 文藝를 要求한다. 勿論 鄕土 童謠, 田園詩는 그 일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흙냄새 나는 노래들을 적은 정성으로나마 여러 해를 두고 모도아서 우리 조선의 少年少女에게 『선물』로 받히는 것이니, 이 속에 담은 思想, 感情, 言語가 우리 民衆의 맘과 같이 울이는 것이 된다면, 이 어찌 多幸이 아니랴!

癸酉年 달소리 우렁찬 새해 첫 새벽에
東方의 새날은 바야흐로 동트려할 때
(光州에서) 作者(작자) 아림

— 『雪崗童謠集』, 한성도서, 1933. 5. 18

동요 짓는 법(童謠 作法)

1. 동요는 무엇이나(童謠의 意義)

우리가 동요를 연구할 때에 먼저 『동요는 무엇이나?』하는 의문을 풀어야 한다. 근래 신문이나 잡지상에서 동요 작품을 많이 대하게 되거니와, 어떠한 것이 진정한 동요라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사람은 적은 줄 안다.

동요는 아동의 가요(歌謠)란 뜻이니, 그 중에는 어린이를 위해서 노래도 있을 것이요, 농향(農鄉)에서 전래(傳來)하는 노래도 있고, 어떤 시인(詩人)이 자기의 예술적 충동에서 읊은 시라도 아동이 음미(吟味)할만한 것이면 역시 동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요란 것은 예술적 냄새가 풍부한 어린이들 노래이니, 마치 종달새가 맑아케 개인 푸른 하늘을 볼 때 노래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이, 제절로 터져나와서 부르는 어린이들 시(詩)를 동요라고 한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아동성이 있고, 가장 숭고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이요, 어운(語韻)까지 음악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동요 유희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어른의 령까지도 흔드려 동심(童心)의 세계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야흐로 생명이 있는 동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과 기교(技巧)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진정한 뜻은 말로만 할 수 없는 것이니, 가령 례를 들자면

종달새(雪崗 作)

맑게개인 봄하늘에
비비배배 노래하는
엷븐엷븐 종달새야
나직나직 내려와서
내손안에 안겨다우

평화스런 봄하늘에
두날개로 춤을추며
곱게곱게 노래하는
사랑스런 종달새야
내가슴에 안겨다우

이 두 가지 동요를 비교해 보면, 「종달새」는 열 살 남직한 어린이가 씌스 듯이 맑게 개인 봄 하늘에 종달새의 아름다운 노래를 드를 때에 무슨 말을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나고, 종달새를 무한히 안달(憧憬)하는 마음에 가슴에 안어보고 싶도록 사랑스러운 심정(心情)이 나타나 있다.(童謠 「종소리」 略)

「종소리」는 이것이 무슨 동요로써의 가치가 있느냐고 웃기 쉽다. 그렇나 이 동요는 신흥 동요로써의 깨끗하고 건전한 동요라고 본다. 이것은 조선의 현실을 묘사한 것으로, 어린이의 앞길을 열어주는 힘 있는 지도성(指導性)이 있다. 그 중에도 二절의 마즈막 절과 三절이 더욱 좋다.

2. 동요의 기원(起源)

동요는 참으로 어린이들의 작란터에 꽃이라 할 수 있으니, 꽃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맑은 작란터에 아름다운 꽃 그 속으로 어린 벗들은 뛰놀게 된다. 그들에게서 작란터를 빼앗고 꽃들을 짓밟혀버린다면 얼마나 그네들의 위로와 희망을 끊어지게 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은 작란을 떠나서는 아모려한 기쁨과 희망을 주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면 동요는 어린이를 떠나서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어린이는 동요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동요가 언제붙어 생기었는가? 동요의 기원은 가장 먼 것이다. 그것은 인류에게 말(言語)이 생기자마자 존재하였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란 본시 노래하는 본능(本能)을 가졌기 때

문이다.

어린 아이들을 가만히 주의하여 보면, 말도 잘 견우지 못하는 아이라도 무어라 중얼중얼하고 노래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양지짜 장독대 밑에서 솟굽노리하면서도 병아리처럼 종알대는 것도 역시 일종의 노래인 것이다. 옛재튼 아모려한 언어나 사상을 가지기 전부터 오직 노래할 줄 알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인류 력사가 비롯하던 그때부터 동요가 어린이의 입에서 불러졌을 것은 엄연한 사실일 것이다.

어린이들이 달밤에 작란하여 놀 때, 누가 노래하라고 시키지 아니 했건만 푸른 하늘에 높이 뜬 밝은 달님을 바라볼 때, 자연한 감격에서 울어나 제절로 입에서부터 터져 나오며

달아달아 밝은달아 리태백이 노든달아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어리었을 때에, 동무들이 뭉이면 이런 노래를 부르며 자미있게 작란하였다.

(소리 매기는 노래)	(받는 노래)
새 야 새 야	짹 짹 짹 짹
파 랑 새 야	짹 짹 짹 짹
녹 두 남 에	짹 짹 짹 짹
앞 지 마 라	짹 짹 짹 짹
녹 두 꽃 이	짹 짹 짹 짹
떠 러 지 면	짹 짹 짹 짹
청 포 장 수	짹 짹 짹 짹
울 고 간 다	짹 짹 짹 짹

이것은 조선적으로 유행하는 고요(古謠)다. 그리고 전라도 류행의 노래가 있으니,

새야새야 웃넥새야
녹두고부 전주새야
강밥 딱딱 굶어주께
우리눈에 앉지마라
우후야! 우후야!

비야비야 오지마라
우리언니 시집갈 때
가마속에 물이들면
다홍치마 얼룩진다

가자가자 감나무
오자오자 옷나무
김치깍지 꽃나무
맨드람이 봉선화
안진뱅이 진달래
노승나무 세웠네

아가아가 우지마라
네가울어 날이새니
냇이울어 날이새지
고은낮에 어룽진다
아가아가 우지마라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대추야 떨어저라
아이야 아이야 좃어라
영감 영감 잡수슈!

어리었을 때 이런 노래를 여러 동무들이 삼삼오오 작반하야 부르고
단이면, 얼마나 유쾌하고 재미있었는지 참말 그때가 부럽다.

답풀답풀 다방머리
해다진데 어데가노
울어머니 산소등에
젓먹으러 나는간다

이것은 얼마나 슬픈 노래인가. 어머니 잃은 어린 아이의 애꿎는 노래다.
우에 멧 가지 전래의 동요는 펍 오래 전부터 우리 조선에 잇엇든 것이
다. 그러타고 멧 십년 전부터도 아닐 것이니, 이 외에 많은 동요가 조선
민족의 언어가 생기면서부터 발생하였다고 본다. 그러면 동요는 년령
을 가지지 아니 한 지상의 천사가 안닌가?

3. 童謠와 詩의 區別

신흥 동요는 종래의 창가(唱歌)보다는 작자 자신이 진정한 감동이 가
득찬 고로, 창가 그것보담은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잇으며, 따라서 시
(詩)에 많이 갓가운 까닭이다. 그렇다고 동요는 시라고 단언할 수는 없
다. 왜 그러냐 하면 순전한 시에 비교하면 동요에는 한 가지 남은 조건
을 발견할 수 잇는 것이니, 곧 『쉽게 어린이의 살가운 말로 나타내이자』
는 조건이다.

시(詩)는 무엇인가? 시를 분명히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아모쪼록 알기 쉽게 말해 보기로 한다.

모든 예술은 그 근본을 탐구(探求)하여 본다면, 모다 시의 범위에 든
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예술품 중에도 가장 오래된(古典의)
것이니, 그것이 후세에 와서 산문(散文), 운문(韻文)으로 대별(大別)되
고, 다시 서정시(抒情詩), 서사시(敘事詩), 극시(劇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또는 풍자시(諷刺詩), 교훈시(敎訓詩)도 약간 유행된다. 현대에 와서 조선에도 신시(新詩), 자유시(自由詩)가 왕성하고 있는 것은 역시 서양시를 모방한 것이다.

이제 일본의 동요시인 서조팔십(西條八十) 씨의 말을 빌리자면,

『시는 먼저 예술의 목적으로서 서술(敍述)한 인생관조(人生觀照)를 작자가 그 표현에 가장 적당한 음악적 옛말로써 나타내는 것이다. 곧 인생에 향해서 작자의 솔직한 감동을 언어의 음악으로써 될 수 있는 때까지 완전히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의 사명일 것이다. 시에는 이에 하등의 목적도 없고, 부속 조건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동요는 이밖에 조건이 있는 것이니, 『이것은 어린이에게 부르게 한 것이다. 즉 어린이들께 노래 부르게 한 것이니, 쉬운 어린이의 말로써 표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부의식(副意識)을 머리 가운데 두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작자는 결국 동요에 대해서는 평상시의 작시(作詩)의 경우보다 자유대로 그 감동을 피력(披瀝)하지 못함에 있어서, 동요는 시가 아니다. 이것은 종래의 창가에 비교하면 시에 갖가운 것이다. 하자면 시와 전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동요라고 부르는 작품 중에도 그대로 훌륭한 시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그 노래 짓는 작자의 태도 여하에 있는 것이니, 곧 같은 동요라도 작자의 태도 여하에 의하여 시라고 인정할 동요도 있고, 시가 아닌 동요도 있다.

그러면 시와 동요와는 어떠한가?

동요는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일종 아동어(兒童語)라고 할 것을 써서 그 아동들의 맘성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 좋으나, 시는 대체는 보통 일반적인 말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동요로 부를 내용은 아이들 눈을 거쳐서 본 아동의 세계에 한한 것이니, 그러므로 꿈나라에 대한 애스러운 동경을 어린이들말 중에서 제법 예술적인 말을 골라서 기교(技巧)를 억지로 꿈이지 말고 수수하게 제작(製作)해 내어야 된다.

또 시(詩)에 있어서는 어이없는 사랑의 추억(追憶)이라든지, 다정한 사람의 죽음을 한탄하는 것이라든지, 죄악 많은 인간 사회를 저주하고 쓸쓸한 광야(曠野)에서 헤매이는 광경이라든지, 허위(虛僞) 불의(不義)와 싸우는 정의(正義)의 부르짖음이라든지, 현실 사이에 있어서 원갓 애달음과 기쁨을 노래한 것이 곧 시의 『리듬』 되어 흘러나온다. 그와 반대로 동요에 있어서는 어른으로서도 어리엇을 적 생각을 애스러운 맘에 어린이들 눈에 뚜렷이 빛은 것을 맑고 깨끗한 마음 그대로 노래하면 동요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한 마디하야 둘 것은 동요를 쓸 때에 작자가 실감(實感)을 얻고 구상(構想)하야 노래로 불러보아서 노래가 되면 붓을 들어야 참된 동요가 된다. 동요뿐이 아니라 시에 있어서는 역지로 꾸며 놓은 시는 언제든지 시가 될 수 없으며, 그와 반면에 작자의 맘에 진격한 감응이 이러나서 옹은 시를 창작한다면 예술적 가치가 있는 참된 시일 것이다.

그리면 조선에는 시가(詩歌)가 없었는가? 아니다. 시는 인생 감정의 발로(發露)인즉, 조선 민족의 력사가 있는 이상에 시는 분명히 없지 않을 것이다. 그 종류를 말하자면 동요(童謠), 민요(民謠), 시조(時調), 신시(新詩) 등으로 동요를 빼어 놓고는 모다 어른들이 옹은 노래이니, 여기에 시조와 민요의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고저 한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뫌이로다
 올오고 또올오면 뫌올을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아니올오고 뫌만높다 하더라(栗谷)

이몸이 죽어가서 무엇이될고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락락장송 되엇다가
 백설이 만건곤할때 독야청청 하리라(成三問)

이몸이 죽어죽어 일백번 곧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낮이라도 잊고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줄이 잇으랴(鄭夢周)

이와 같이 시조(時調)는 조선 문학의 정화(精華)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일종 미묘한 맛이 잇는 것이다. 근년에 와서 이 시조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재래의 시조형(時調型)에다가 새로운 사상을 가미(加味)하여 좀더 자유로운 표현과 내용에 새로운 시험을 하는 분이 많이 나오게 되었으니, 우리는 여기에 실로 많은 기대를 가진다.

거전너 갈미봉에
비가 묻어서 내려온다
우장을 허리에 두루고
눈에 김매러 갈가나(「육자백이」, 一節)

강태공이 날을 골라
주역에서 시를 골라
좋은날 좋은시를 택하여
앞방천에 묻여드니
물채좋은 이방천에
파종은 얼매런다
낙종은 삼천석일네라
예헤야 앵헤야 예헤야 호미로다.

해는벌서 석양인지
여들도 강산에 그늘이진다.
인삼녹용을 먹었는지
씨원 씨원이 잘두맨다.

기름동에나 먹었는지
미끈 미끈이 잘두 맨다.
번개같이 노는호미
관훈장의 청룡도라
세발가진 재장귀요
네발가진 당나귀요
영큼성큼 맥장귀요
네귀번듯 명석귀요
외발가진 돌조귀요
이귀저귀 처진귀는
오약조약 조여붙어
얼는길이 매고가자
에헤야 앵헤야 헤에야 호미로다.

앞논에는 찰베로 씹으고
뒷논에는 메베를 씹어
기다린다 기다린다
七八月을 기다린다.

七八月을 기다리면
찰베는비어 찰떡을 하고
메베는 비어 메떡을 하고
상사말에 안장하야
안쪽에는 찰떡을 싫고
한쪽에는 메떡을 싫고
센계잡아 웃짐치고
그립든 본가 집을
왈랑 달랑 찾어가니

근들 아니 기뻐소나

에헤야 앵헤야 헤에야 호미로다.

이 우에 잇는 「육자백이」는 전라도에서 많이 부르는 민요(民謠)요, 「농부가」는 평안도에서 많이 부르는 민요이다. 아모 꾸밈도 없고 아모 기교(技巧)도 섞임이 없이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말로 때로는 방언(方言)같이 써서 즉접 우리의 감정적 파동을 가장 선명(鮮明)하게 표현하였으니, 그는 소박한 산촌의 처녀나 전야(田野)의 농부가 향토(鄕土)에 빛외인 사실을 솔직하게 그들의 가슴에 넘쳐 흘르는 느낌의 물결 소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노래이니, 이밖에 많은 속요(俗謠)가 다 그러한 것일 것이니, 이것은 그 민족의 가장 귀한 보배이다.

이제부터는 동요 짓는 법에 대하여 항목(項目)을 따라서 체계(體系)있게 말하고자 한다.

(가) 예술감(藝術感)

동요를 지을려고 하면, 먼저 작자(作者)로서의 순진한 가운데 울어나오는 예술감(藝術感)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예술감인가? 가령 아름다운 꽃을 보고 미감(美感)이 생기는 것이라든지, 맑아케 개인 하늘에서 노래하는 종달새를 보고 흥에 겨워 같이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산골작사에서 꼬리치며 흘러가는 맑은 샘물을 볼 때 그 물에 들어가 물작란하고 싶은 것, 물결치는 넓은 바다를 볼 때나, 달 밝은 밤에 달을 보고 무슨 말을 걸어보고 싶은 맘이 생기는 것, 그 모든 자연만상(自然萬象)을 볼 때 그것을 본 후에는 나도 몰르게 아름다운 느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노래 짓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것이니, 그것이 곧 『예술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엇을 적에 지낸 일에서 지금도 분명히 생각나는 것을 거죽과 꾸밈이 없이 깨끗한 맘과 맑은 맘으로 노래한다고 하면, 그것이 예술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지은 노래면 사람에게 많은 느낌을

줄 것이며, 독자로 하여금 작자가 느낀 바와 같은 자미스러움과 안타까움을 그 노래 속에서 느끼게 될 것이며, 따라서 좋은 작품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느낌(感興)이 생기고, 사랑스러 한 맘(愛着)이 생기고, 노래 쓸 맘이 생기는 것이 예술감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아기들의 생활을 유심히 본다면, 그들은 무의식(無意識) 한가운데 양지쪽에서 비닭이 머리 말대듯이 웅알종알 앓아 무어라 중얼대며 나무토막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라든지, 버들피리를 만들어 종달새 노래에 맞추어 불며 뛰는 양이라든지, 뽕곡이, 꼬꼬리 노래를 입내내는 것이라든지, 맑은 별이 흐르는 시내수가에서 갈뉘배를 만들어 띄우고 노래 불으는 것이며, 모래성을 쌓아 모래로 집을 만드는 그것이 모두 다 예술적 충동이 아니랄 수 없다.

그들의 모든 짓거리가 장내에 건축사(建築師), 음악가(音樂家), 조선가(造船家), 예술가(藝術家)가 될려는 장본이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실로 예술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눈에 빛된 것, 그들의 일상 형용하는 말로 수수하게 노래한다고 하면 그것은 동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대서든지 보는대서 예술감이 생긴다는 것은 앞에 대강 말하였거니와, 예술감이란 제절로 이러나야 되지, 억지로 이르킬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눈에 빛된 것, 맘에 느낀 것, 그 가온대서 뜻하지 않은 충동이 이러나 내 맘의 정서(情緒)를 잡아 흔들어 한 개의 노래의 생명과 뿌리인 예술감을 갖게 되어야 한다. 시인은 이것을 시상(詩想)이라고 한다. 시상을 크게 난호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첫째=인상(印象)의 시상(詩想). 이것은 본데서든지 들은데서 얻은 것인데, 즉 밖에서 온 외래충동(外來衝動)이라 할 것이다. 그러하나 인상의 시상이라고 결코 밖에서 즉접 예술감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다. 예술감이 될만한 것이 밖에서 내 정서의식(情緒意識)의 충동을 주면 내 맘의 정서는 한 개의 생명인 시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금을 칠 때나 피아노를 칠 때, 우리의 손이 소리가 되지 않고 손가락이 줄을

치면 그 줄에서 소리가 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잇는 노래가 어떤 시상인가 알아보라.

강남각씨 저제비
언제나왔소
지지구 제지구
부지위지지
오, 반갑소 오늘이
삼월삼질날
흥부같이 착하니
좋은박씨를
강남각씨 저제비
날주러왔소

둘째=상상(想像)의 시상(詩想). 밖에서는 아모 충동을 줄만한 것이 없다 하드래도, 내 맘에 또한 정서의 줄을 잡아 흔들어 시상을 이르는 것이다. 아모 대상(對象)이 없어도 제절로 이러나는 노래의 생명인 예술감이다. 우리는 노래가 될만한 시상이 내 맘에서든지 이러나거든 꼭 붓들고 놓지 말어야 한다. 그것을 한 번 놓치면 붓잡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굷치지 말고 잘 붓잡도록 힘써야 한다. 이 아래 잇는 동요가 무슨 시상인가 보라!

그립고도 정다운 나의 고향은
멀리멀리 보두새 끝이없고나
저하늘과 산아랜 고향이거니
아물아물 구름만 흘러갑니다.

그립고도 정다운 나의 고향은

바다천리 산천리 아득하고나
눈을감고 곰곰이 생각할수록
홀로계신 엄마가 더욱그리워.

(나) 구상(構想)

구상(構想)이란 어떠한 것인가? 시상이 우리 맘속에 있을 때 그것을 죽이지 않고 잘 내놓을 계획을 하여야 할 것이니, 그 계획이 곧 구상이 되는 것이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계획이 없으면 성공이 없는 것과 같이, 집을 건축하는 자가 먼저 그의 설계(設計)와 도안(圖案)을 그려 가지고 집을 준비하는 법이다. 만일 이런 도형(圖形)과 예산이 없이 집을 짓는다 하면, 그야말로 공중루각(空中樓閣)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시상이 떠올랐다고 함부로 그적거리기만 하면 아모 효과가 없는 것이니, 조희 우에 쓰기 전에 먼저 연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재삼 생각하여 다시 자기 자신의 맘에 떠올르는 극히 자유로운 곡조로 노래 하여 귀에 들리는 음악적 쾌감을 생각하고 비상히 좋은 노래 같거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자신이 생기거든 그때 붓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구상을 잘못하면 앞에 쓸 것을 뒤에 쓰고, 뒤에 쓸 것을 앞에 써서 아조 흥한 것을 맨들어 놓기 쉬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구상을 사람에게 비하면 의복(衣服)과 같다고 말하얏거니와, 시상의 옷과 같은 구상이 조직적(組織的)으로 잘 되어서 뒤송송함이 없이 질서 잇게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여기에 한 가지 례를 들면,

물결소리 달소리(小曲)

소리소리 무슨소리
달밝은밤 물결소리
바다스가 바위옆에

깨어지는 물결소리
여보시나 들어보시
물소리가 달소리가
어이야! 이한밤에

소리소리 무슨소리
달밝은밤 물결소리
바다사가 바위우에
깨어지는 달빛소리
여보시나 들어보시
은소리가 금소리가
어이야! 이한밤에(詩集『東方의 光明』에서)

이와 같이 저 혼자 출렁거리는 물결소리가 이 시인의 정서(情緒)의 줄을 울려 시상을 이르킨 것이다. 그러면 이 노래에 있어서 생명은 무엇인가? 곧 『소리』일 것이니, 물결소리도 될 게고, 달소리도 될 것이다. 이 소리를 싸고 도는 구상을 여기서는 배경(背景), 곡절(曲折), 파동(波動) 이렇게 난홀 수 있게 되었다.

첫째, 배경(背景)은 달 밝은 밤 물결치는 바다사가 바위 언드리가 될 것이오.

둘째, 곡절(曲折)은 물결의 행동이니, 바다사물에 금빛달을 싫고 바위 밑에 부딪쳐 철석이며 깨어지는 물결이 될 것이오.

셋째, 파동(波動)은 무엇이든지 움직이는 곡에 파동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니, 이 물결의 파동 가운데도 무음(無音)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곧 물결이 달을 싫고 바위에 깨어지는 달소리인 것이니, 그것이 이 시인에게서 물결소리로도 들리고, 달소리로도 들리고, 은소리 금소리로도 들린 것이다.

그렇다. 달 밝은 밤에 바다사를 나서면 누구나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여보시나 들어보시 금소리가 은소리가 어이야! 이한밤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의 하소연인가. 이 물결의 파동이 곧 시(詩)의 『리듬』이 되어 흐르고 잇는 것이다.

그렇나 주의할 것은 어떠한 동요나 시든지, 반드시 이러한 조건을 가 초란 말은 아님을 말해준다. 다른 노래에 있어서는 또다른 구상이 잇을 것이니, 알아두기 쉬운 레를 들자니까 이 노래를 소개한 것이다.

(다) 표현(表現)

동요는 아주 어린 아기들의 타고난 감정의 표현이 아니면 아니 된다. 따라서 둘 수 있는대로 기교(技巧)를 더하지 않는다. 곧 꾸밈(形式)만을 곱게 하기 위하여 빈약한 내용(內容)을 쓸어 덮어버리려 하는 것은 전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조팔십(西條八十) 씨는 말하기를,

『동요라고 하면은 오직 조자(調子)의 아름다운 문꾸와 어린 아들의 좋아할 제재(題材)를 늘허놓고 감미(甘味)가 많다고 보이는 노래만 써도 좋다고 한다. 그리고 예술적 음운(音韻)이란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작자가 많다. 그것을 주의할 것이며, 나의 의견으로는 어대까지든 지 시인이 써야 될 것이라는 것은 혼이 잇는 직업적 시인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시인의 혼이 잇는 사람으로써 붓을 잡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 종래의 창가란 명칭을 동요라고 부르는 것을 고칠 필요가 어디 잇는가?

종래의 교육의 손에서 지어진 어린이 노래를 시인이 대신 말어서 창작하는 것이야말로 신흥 동요의 의의(意義)를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 시가(詩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기교(技巧)가 필요하다. 물론 내용이 빈약한 것은 바탕이 나쁜 이상 갑작히 잘 될 리치가 없

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시가에 있어서 기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가령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모리 구상은 잘 하였다 하더라도, 붓을 든 솜씨가 훌륭치 못하면 맘으로는 꺾을 그리려 했는데 그것이 조희 우에는 닭으로 표현이 되었다 하면, 그야말로 두루뭉숭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기교는 시(詩)를 살리는 한 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 동요는 뿐있게, 멋있게 사탕발름같이 솜씨만 널랴고 해서 동요에 잇서서는 시와 닮어 큰 실패를 하고 말 것이니 삼가 주의할 점이다.

(라) 모방(模倣)과 창작(創作)

누구나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노래를 읽어본 일이 없이 동요를 지을라고 하면, 암만 하여도 훌륭한 노래를 지을 수 없으므로, 자기보다 먼저 진 사람들의 것을 모방하는 것도 연습상 필요한 일이다. 혹 읽어본 일이 있다 하더라도 노래 짓는 초기에는 남의 송내, 곧 모방(模倣)이라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나 언제까지든지 모방만 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예술(藝術)에서 제일 존중히 여기는 개성(個性), 곧 자기가 가지고 잇는 어느 특수성(特殊性)을 자기 작품 중에 명백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노래로서의 생명이 죽을 것인, 아모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일본 시인 삼목노풍(三木露風) 씨의 말을 빌리자면,

『동요에는 역시 자기 자신을 표현함이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좋은 동요가 아니 된다. 동요를 창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요는 곧 천진스러운 감각(感覺)과 상상(想像)이란 것을 쉬운 어린이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모방에만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밭어갈 길을 찾을까 함이다. 먼저 어느 동요든지 그 뜻을 잘 알고, 그 속에 포함(包含)된 속살의 맛도 충분히 맛보고 깨달은 뒤에 연구와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많이 읽고 념량(念量)하여 그 좋은 점을 맘에 새겨두었다가 자기가

독특히 느낀 것을 그 감심하였든 동요를 모방 삼아 지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일이 처음부터 단거름에 잘할 수 없는 것임으로, 다른 것을 모방하고 그것을 본떠야 하겠지만, 쉬지 않고 용기를 내어 꾸준히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동요에 대한 의견이 터지게 된다. 그 후에는 자기가 아니고는 아모도 모를 생각이 가슴에 뭉쿨뭉쿨 떠올라온다. 그때 그것을 내치지 말고 깨끗한 어린 맘으로 동요를 지어내면, 그것은 남을 모방한 자취는 없어지고 자기 독특한 음조(音調)와 언어(言語)가 밝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방이란 차의(借衣)를 벗어버리고 훌륭한 동요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동요를 지을 때 자기와 딴 개성(個性)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평에 무서워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을 죽어버린다면 귀중한 작품이 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의 진실한 맘에서 울어나오는 예술적(藝術的) 량심(良心)으로 지은 예술품이 얼마나 귀중하며 값이 있는건가. 여기에 한 마디하여 둘 것은 좋은 작품을 내어 놓으려고 하면 다독다작(多讀多作)하라는 부탁이다.

(마) 음운(音韻)과 격조(格調)

음운이란 어떠한 것인가? 동요는 본시 운문(韻文)이기 때문에, 음조(音調)가 자유스러운 곡조를 붓쳐서 부르기 쉬운 동요가 음조 나쁜 것보다 월등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동요는 읽는다기보다도 노래 부를 것이다. 중국(中國)의 한시(漢詩)를 보면, 글자마다 소리의 높고 낮은 것이 있다. 높고 낮은 글자를 잘 조화(調和)하여 짓는데, 그것은 일정한 법이 있어서 높고 낮은 글자를 잘 골라야 한다. 나는 아모 나라의 노래든지 그런 어려운 형식(音調)을 만들어 그 형식 안에다가 노래를 잡아 놓는다는 것은 나의 찬성치 않는 바이다. 옛재튼 읽기에 아름답고 서투른 맛이 없도록 노래 짓는 이가 쓰면 고만이다.

그런데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음운이 아모 거리낌이 없이 노래 쓸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래답게만 쓰면 고만이다. 그 말은 음운이

있어도 일정한 형식에 얽매지 아니 하고 자유로 노래를 쓰면 음운이 맞
어진다.

격조(格調)란 어떠한 것인가? 어떤 글이든지 말이 놓여 구(句)가 되
고, 구가 놓여 절(絶)이 되고, 절이 놓여 장(章)이 된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니, 노래에 있어서는 구(句)가 행(行)을 이룬다.

그러면 한 줄(一行) 안에 말의 구(句)가 둘이든지, 셋이든지, 많으면
넷이든지, 적으면 하나든지, 이렇게 놓여 한 줄을 이루고, 또 한 줄 두 줄
몇 줄이든지 놓여 한 절(絶)을 이룬다. 노래 짓는 이들은 한 절을 련(聯)
이라고도 한다. 또 여러 절을 놓여 한 장(章) 혹은 한 편(篇)을 이루게 되
나니, 혹은 한 절 노래로 한 장과 한 편(篇)을 이룰 수도 있다. 구절(句
節)마다 글자수를 정하고 읊프기에 알맞도록 씻음으로, 이것을 운문
(韻文)이라고 한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남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이것은 사사조(四四調) 사행(四行)이 놓여 한 편을 이룬 노래이니, 옛적
에 우리 노래는 거반 사사조(四四調)로 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볼 때에
사사조(四四調)가 우리 민족의 정서에 알맞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하나 지금 우리의 노래는 여러 가지 형식을 빌어 사사조(四四調)
도 있고, 육오조(六五調), 칠오조(七五調), 팔오조(八五調)로도 많이 쓰
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노래 쓰는 이들이 자기 자신의 독특한 정서
를 표현하는 대의 수단이다. 예전 사사조(四四調)의 형식만을 취할 것
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맑고 깨끗이 이러나는 정서를 표현하는 대는
어떤 형식을 써서 짓드라도 관계없다. 동요를 지을 때는 먼저 미묘하고
알심스러운 어린이의 말을 잘 골라서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음

악적 쾌감을 주고, 좋은 동요 갖거든 좋은 옷을 입혀 내어 놓을 것이다.

요컨대 동요는 아이들 눈에 빛인 것, 아이들 세계를 노래한 것이니, 그러자면 아이들께 살가운 그들 말을 본위(本位)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향토말(鄉土語) 가운데서 가장 예술적(藝術的) 냄새가 풍부(豐富)한 말을 잘 골라야 한다. 이와 같이 말에 주의하여 자기 자신의 감정(感情)으로 말의 맛을 잘 알아서 마음먹은 대로 써진 동요는 반드시 남을 움직이는 이상한 힘이 있는 것이다.

4. 동요(童謠) 단상(斷想)

동요는 『어린이의 노래』다. 노래는, 즉 정서(情緒)를 읊은 노래는 오로지 그 민족이 가질 수 있는 귀한 보물 중의 하나이다. 그 민족 중에도 가장 귀엽고 희망 많은 어린이들의 노래다. 어린이에게만 비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께도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니, 지금 어느 동요를 듣거나 부르거나 하면 까마케 잊어버렸든 어릴 적 생각이 가슴에 떠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아동성이 있고, 가장 숭고한 예술적 가치가 있고, 따라서 어운(語韻)까지 음악적인 것을 진정한 동요라 하겠다.

그런데 동요는 읽어만 보아도 상당히 흥미가 있을 것은 물론이나, 본시 동요는 읽을 것이 아니라 곡조 붙쳐서 노래 부를 것이다.

조선에 신흥 동요 운동이 발생되기는 지금으로부터 십이년 전의 일이다. 그때에는 소년 잡지 『새 동무』를 통하여 약간의 동요가 발표되었고, 따라서 진주(晉州), 광주(光州), 안변(安邊) 등지에서 소년운동이 힘있게 일어나자, 그의 소년문예운동이 움트기 시작하였으니, 각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약간의 번역 동요가 발표되었고, 조선 전래동요의 사사조(四四調)를 모방한 동요가 종종 나타나게 되었다.

그 후 소년운동이 우렁차게 부르짖고 전 조선적으로 우후죽순(雨後竹筍)같이 이러나자, 그의 문예운동과 아울러 동요운동도 해를 거듭할

사록 발전케 되었섯다. 그리하여 이 동요운동에 있어서도 자연성장기(自然性長期)로부터 의식적(意識的)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니, 그것이 곧 동요연구에 뜻 둔 한

— 『雪崗童謠集』, 한성도서, 1933. 5. 18

五月과 어린이날

五月은 모두가 새로워집니다. 하늘부터 유달리 좋아집니다. 첫 봄의 하늘처럼 흐리터분하지도 않고, 무슨 새로운 빛을 싫을 것 같이 맑아게 개이어서 오월의 하늘은 그야말로 행복이 가득한 하늘입니다. 그리고 해빛도 더 맑고 새롭게 빛외이는 때도 오월이며, 공기도 한층 더 깨끗해 지고 칩도 더웁지도 않고 따뜻하며 꼭 알맞은 철이 역시 오월입니다.

五月은 이어게 하늘이 새롭고, 햇빛이 새롭고, 산천초목이 모든 자연(自然)이 새롭어지니, 그 가운데 사람도 한층 더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산이나 들이나 사람이 산뜻하게 새 옷을 입고 나서는 때는 오월입니다.

五月은 싱싱한 철입니다. 그리고 우쭈우쭈 뻗어나는 철입니다. 못자리에 심은 모가 그러하고, 고사리순, 짙레가지, 호박폭이, 참외냉쿨들이 쑥-쑥 뻗어납니다. 엄마가 보얀 젖으로 애기의 목을 축여주듯이, 보드라운 봄바람에 비가 실실이 휘날릴 때, 잔디는 쑥쑥 고개를 내밀면서 푸른 내음새 피우며 힘있게 뻗습니다. 사람도 이 철쯤은 시원하고 몸이 갯든갯든하고 새 원기와 정력이 뻗어납니다.

오월! 이 달은 참말로 희망에 타는 듯한 신록(新綠)의 새 세상이 열리는 달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에 유명하다는 시인(詩人) 쳐놓고 오월을 예찬(禮讚)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양에는 오월 오일을 단오(端午)이라 하여 복사꽃과 창포꽃으로 써 꽃노리도 하며 여러 가지 재미있는 노리도 잇거니와, 서양서도 이 달에는 어린이들의 아버이를 위한 어머니날이 잇어 장미꽃과 그 외 여러 가지 꽃으로써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모듬이 많이 잇습니다.

五月! 이러케 쭈쭈 뻗어나고 희망과 새 생명을 가득 싫은 뜻 깊은 이 달에 조선에서 우리의 꽃이라 할만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을 택정하게 된 것도 한 겹 더 뜻 깊은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五月 첫 일요일(日曜日). 이 날은 아시다싶이 우리 육백만 소년소녀, 곧 어린이들을 위한 명절날(明節)이 되어 있습니다. 새싹같이 자라나는 그네들에게 새 희망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어 언제나 변치 않을 이 날을 행복과 함께 새 세상을 지을 그때까지 씩씩하게 나아가기를 축원할 따름이외다. 교회 안에서는 6월 둘째주일을 셋주일로 정하여 각 주일학교를 위하여 해마다 성대히 기림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에서는 오월달 메이데이를 해마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펍 즐겁게 또는 의미있게 지나왔습니다. 하여튼 오월은 이와 가티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씩씩한 힘을 길러주는 의미 깊은 달입니다.

- 『아이생활』, 1933. 5.

童謠運動의 當面任務

◇머리말

소년문학(少年文學)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동요(童謠)와 동화(童話)일 것이니 이게 나는 여기에 잇서서 동요 운동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조선에 동요가 업섯든 것이 아니엇 건만 재래로 소년문학을 꾸밈에 기초가 되는 이 동요를 니저바린 대신에 펍으나 등한이 취급하여 온 것은 부정할 수 업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선에도 막연하나마 신흥동요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지가 십이삼년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외국동요를 번역하며 조선전래(傳來)동요를 몬쓴 동요가 만이 나타나다가 다시금 새로운 형식으로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하게 되엇든 것입니다.

그리다가 조선에 소년운동이 기운찬 소리로 부르짖고 나타날때 소년문학운동의 일부분인 이동요 운동도 더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되엇습니다. 그 후 一九二七년 九월에 동요연구에 뜻둔 몇분들의 발기로 『朝鮮童謠研究協會』가 창립된 그 뒤에 그 선전(宣傳)과 보급(普及)에 힘쓴 결과로 그 보람이 만히 나타나게 되엇습니다.

그리하여 근래에 와서 신문이나 잡지상으로 조선의 어린 맘을 읊플 수 잇는 예술품(藝術品)인 이 동요를 차즈려고 애쓰는 어린 동무들이 날로 왕성하여 가는 것을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말이 선박그로 나선 것 갓습니다마는 동요운동의 당면임무를 말하라니까 우에 사말을 하는 것도 쫓업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전과가티 그저 막연하게 동요를 쓸 것이 아니라 지금의 조선현실이 어찌한 특수환경에 처하여 잇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붓을 들어야 할 것임을 말해둡니다.

◎첫재 동요를 보급(普及)식힐 것

근래 조선에도 동요에 대한 관심(關心)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급식힘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時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로 조선의 유치원이나 보통학교에서 배우는 창가(唱歌)는 어리이의 맘과는 조금도 부칠성이 없는 대개는 공리적(功利的) 목적을 가지고 지은 노래이기 때문에 다만 리지(理智) 그것에만 팔려서 마침내 평범한 수공품(手工品)을 만들어 교훈과 지식을 너혀주겠다는 공리적 가요(歌謠)이기 까닭에 아동의 감정생활(感情生活)과는 하등익교섭이 업섯다해도 과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불려야 아모 재미도 업고 부자연(不自然)에 빠지거나 사리(事理)만 밝히거나 한 창가만을 유치원이나 보통학교과정에 너혀서 배우게 한 것은 암만해도 찬성할 수 업습니다.

- 『조선일보』, 1933. 10. 26

【二】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 생활에 아모짝에도 쓸모업는 창가를 배격하는 동시에 한 거름 더 나아가 어린이 생활에 한지라도 업지 못할 예술적 향기가 놓흔 새로운 동요를 유치원이나 소학교 과정에 너혀 교수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 역시 동요운동으로써 무의의 당면임 하나입니다.

▲둘재 건실(健實)한 동요를 수립(樹立)할 것

우리의 모든 주위와 환경이 비참한 가운데 잇다고 락심하지 말 것입니다. 더욱이 압흐로 큰 희망을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슬픈 노래 『센티멘탈』한 동요만을 제공(提供)하여서는안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비참하게 되었스니 필연적 소산(所産)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갑싼 눈물만 흘리면서 신세타령! 팔자타령!으로 만족할 수 업는 박한 사정이니 좀 더 힘있는 압날의 희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난만 지도성(指導性)을 가진 씩씩한 노래(健全한童謠)또는 『유모어』적으로 뜻깊게 표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동요작가들은 어린이로 하여금 씩씩하게 뼈더 나아갈 길과 힘을 길러주자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흠점을 보충하기에 만족한 속살(內容)이나 꾸밈(形式)도 등한이 볼 수 업스나 예술적 향기가 있는 건실(健實)한 노래를 창작하여 어린이로 하여금 노래부를 수 있게 춤출 수(舞踊)이게 하겠다는 것이 신흥동요운동의 당면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동요작곡집 발행을 촉진할 것

— 『조선일보』, 1933. 10. 27

【삼(三)】

동요는 음악(音樂)과 서로 떨어지지 못할 친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요가 음악화(音樂化)하여 동요곡이 되고 무용화(舞踊化)하여 동요유희(童謠遊戱)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요는 말(言語)의 조자(調子)가 음악적으로 우수(優秀)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요 동요를 지을 때는 생각(思想)과 감정(感情)을 중요하게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어(用語)와 『리듬』에 일층 주의하여야 할 것이니 자 하나 글에도 길이(長) 넓이(廣) 높이(高)가 있고 강약(強弱)이 있으며 음색(音色)이 잇슴으로서외다. 동요작가들은 이점에 유의(留意)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는말은 아닙니다.

근년에 와서 동요작곡집이 종종 나타나게 됨은 반가운 일이나 유감스러운 것은 어떤 것은 대부분이 재래의 어른들의 불으든 노래와 가튼 어

러운 곡조에다가 역지로 동요를 끌어내어 곡조를 맨든 것이 잇스니 그 서택 취급에 등한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점에 잇서서 『조선동요연구협회』의 소임이 크다고 봅니다.

동요작곡가(童謠作曲家) 동심(童心)에 빚진 그 노래에 대한 정서(情緒)의 줄을 자기의 심금(心琴)에 울려 악상(樂想)으로 나타난(表現) 것 이라야 할 것이니 우리는 충일한 『동요작곡가』의 배출(輩出)을 요구하는 동시에 가급적 동요작가로서의 동요작곡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조선에 멧분 안 되는 음악가라 칭호를 받는 그네들중에는 큰 명곡(名曲)이나 대곡만을 씀꾸고 잇지만 실제로 동요(童謠)나 소곡(小曲) 방면에 작곡해보겠다고 그를 연구하며 착수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실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협(童協)에서는 동요집과 또한 그의 작곡집을 발행——혹은 추천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동요작곡집을 출판할려는 생각은 만히 가지고 잇섯스나 한갓 재정문제로 그 선전과 보급은 하여왔스나 실제로 이것을 착수하지 못하게 되었슴은 본회에서는 크게 늦기고 잇는일입니다. 그러나 얼마 아니 되어 새로운 작곡집이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회 작곡부 의원들은 예술적 감시 잇는 우수한 동요에 작곡하는 중에 잇스니 본회출판부에서는 계속하여 작곡집을 발행하게 될 것을 말해둡니다.

— 『조선일보』, 1933. 10. 27

童心과 藝術感

모든 일에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흔히 童心の 所有者라고 볼수 있겠다. 反面에 打算的 功利的 또 陰險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童心の 所有者라고 볼수 없다. 童心은 良心으로써 良心은 卽 童心이라고 해도 妄發은 아니다. 兒童에게는 打算的 功利的 또는 陰險性이 적은 까닭으로 兒童이 童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童心을 어려서부터 빼앗기지 않고 마음에 잘 간직한다면 一生 所有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런데 童心藝術이라고 하면 童心에 비쳐 事物의 藝術化가 그것이다. 그러길래 童心을 무시한 童心藝術은 存在하지 못할것이다. 童心藝術은 여러 가지 形式으로 표현된다. 童謠, 童話, 兒童舞蹈, 繪畫, 手工, 彫刻, 童劇, 兒童映畫 等等으로 나타날 수 있는것이다. 나는 이 童心藝術中에도 주로 童謠藝術에 있어서 取扱하고저 하는 것이다.

童謠가 兒童藝術의 하나라고 하면 童謠가 製作되기까지의 作者로서의 藝術感이 없고서는 결코 香氣가 있는 藝術品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것이 藝術이라할가? 아마 여러분은 산 높고 물맑은 山村이나 田野에 나아가서, 惑은 바다에서 惑은 街頭에서 모름직이 이러한 藝術感을 느껴본 일이 있었으리라.

假令 - 아름다운 꽃을 보고 美感이 생기는 것이라든지, 하늘에서 노래하는 종달새를 보고 같이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山谷에 흘러가는 맑은 샘물을 볼 때 그물에 들어가 물작난하고 싶은것, 물결치는 바다를 볼 때나 달 밝은 밤에 달을 보고 무슨 말을 걸어 보고 싶은것 그 모든 自然萬象을 볼 때 그것을 본 뒤에는 아름다운 느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맘이 생기고 노래짓고 싶은 맘이 나는 것이니, 이것이 곧 藝術感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리었을적에 지낸 일에서 지금도 分明히 생

각나는 것을 거짓과 꾸밈이 없이 맑고 깨끗한 맘으로 노래한다고 하면 그것이 곧 童謠藝術로서 표현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느낌이 생기고 愛着이 생기고 노래쓸 맘이 생기는 것이 藝術感이다.

果然 어린 아기네들의 生活을 有心히 觀察한다면 그들은 無意識한 가운데 藝術의 生活 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들의 생활은 자연그것이다. 양지바른 담장밑에서 웅알종알 앉아서 무어라 중얼대는것이라든지, 나무토막을 가지고 집을 짓는것이라든지, 지나가는 음악대의 송내 부리는것이라든지, 뼈구기 껌꼬리 입내내는것이라든지, 맑은물이 흐르는 시내가에서 갈잎배를 띄우고 노래부르는것이며, 모래城을 쌓아놓고 집을 맨드는 그것이 모두가 藝術的 衝動으로부터 나온것이다.그라말로 거짓 없는 있는 그대로의 自然性的 發露요 童心藝術의 藝術境이라 하겠다. 그렇다 兒童은 언제나 이러한 藝術속에서 生活하고 活動하고 遊戯하면서 성장되고 있는 것이다. (一九三四. 七. 九 於京城)

— 『학등』, 1934. 7.

童謠 藝術의 理論과 實際

序言

朝鮮에도 二十年 前부터 創作童謠가 發生된 以後로 近來 教育者와 少年 指導者 及 兒童들은 童謠藝術에 非常한 關心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幼稚園이나 普通學校에서 반드시 童謠를 가르켜야 되겠다는 必要를 다가타 甞기고 잇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도 童謠藝術이 一般的으로 普及되려면 相當한 時日을 要할 것이니, 惑은 文人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童謠에 對한 理解와 기쁜 研究도 업시 童謠를 輕蔑히 보는 傾向을 從從 發見한다.

『童謠는 아니들이나 할 수 잇는 하찬은 것이다. 童謠는 幼稚하다.』

이러한 攄된 觀念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못하고 童謠詩人이나 兒童文學者를 文壇 레벨에서 低下시키려는 沒理解의 行動을 敢行하는 사람이 잇다고 하면, 그 얼마나 自己의 無智를 暴露함이라! 그들은 大概 童謠藝術을 學問的 知識에 골어 너허 마치 工藝品과 가튼 作品이 참詩요, 童謠요, 藝術로 아는 사람들 중에서 흔히 볼 수 잇는 奇現象이다.

願컨대 이러한 誤謬를 犯하고 잇는 사람이 아직까지 存在하여 잇다고 하면 하로뵈비 淸算해주기를 바라서 마지 안는 바이다. 그것은 아직도 幼兒期를 버서나지 못한 朝鮮 文壇의 成長期에 잇서서는 兒童文學을 疎忽히 볼 수 업는 問題이나, 더군다나 文學 建設의 基礎工事가 되여 잇는 兒童文學에 至大한 關心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將來 朝鮮의 健實한 文學을 樹立하고 못함은 成人文學家 諸氏가 이에 한 가지 責任을 질 義務가 잇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童謠를 論하는 사람, 童謠를 創作하는 사람은 먼저 童謠藝術이란 무엇인가를 研究하지 안하면 아니 되겠다. 그리하여 이 알에 各 項目을 따라 研究와 批判의 態度로써 지금 童謠의 當面 問題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들어 가지고 愚論을 展開해 보고자 한다.

童謠藝術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童謠藝術이란 術語가 퍽으나 서투르게 들리실는지 몰은다. 그러나 童謠가 兒童藝術의 하나라고 하면 童謠는 亦然 童謠藝術이 되는 것이다. 童謠(동요)藝術이란 名稱은 筆者가 처음으로 力說한 듯하다. 그런데 童謠藝術은 童心藝術(野口雨情 氏의 名稱)의 一分野이다. 더 나아가서 童心藝術은 童謠뿐만이 아니라 여러 遊戲, 手工, 彫刻, 童話, 童劇, 이러한 모든 것이 다 童心藝術에 屬한다.

童謠는 言語의 音樂이다. 言語의 音樂이란 言語의 調子が 音樂的 音律을 가진 意味다. 그리고 言語의 音律과 調子라고 하는 것은 音律과 音律과의 交響樂이다. 왜 그러나 하면 童謠의 本質을 노래함으로 童謠藝術함으로 그 使命을 다하는 것이다.

童謠藝術을 다시금 分類하면 어린이 노래(童謠, 童謠 音樂, 童謠 舞踊, 童謠劇, 童謠 遊戲)로써 表現된다. 그리고 童謠藝術은 童心에 빚친 事物의 藝術化가 그것이다. 童心을 無關한 童謠藝術은 存在하지 못한다. 童謠란 다시 말하면 先天的으로 바든 天賦의 마음 그대로를 感知할 수 있는 藝術魂이 童謠藝術로써 後天的으로 注入한 偏學問的으로는 感知할 수 업는 藝術魂이라 하겠다.

— (1), 『조선중앙일보』, 1934. 7. 1

童謠舞踊과 童劇

兒童은 藝術的 本能이 있스니, 그들의 日常生活이 活動的이오 遊戲的이라 自由로운 舞臺에서 뛰놀기를 질겨 한다. 아이들이 마루 위에서 다름박질하기, 뽀뽀하기 또는 각금 제 흥에 겨워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將來에 자라서 舞踊家가 될려는 것이오, 조고마하 아가씨들이 솟꼭작난하는 것이나 동리집 아이들이 숨박꼭질, 도둑놈 잡기, 兵丁노리하는 것이 모도가 演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童謠가 童謠의 使命을 다하려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遊戲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童謠의 歌詞, 作曲, 舞蹈, 遊戲, 이것은 各 各 獨立된 藝術이나, 도모다 童心의 世界를 向하여 創案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면 童謠舞蹈이란 歌詞로부터 바든 作曲 또는 그것으로 『힌트』를 어더 童謠舞蹈化되는 것이다. 童謠藝術의 效果는 筋肉이 發達되고 起居動作이 고요하고 自然美가 나타나게 된다. 말하자면 身體의 調和的 發達에 가장 效果的일 것이다.

童謠藝術家는 童心의 世界를 理解하는 詩人的 素質을 가져야 할 것이다. 童劇을 指導하는 사람도 亦是 童心藝術을 充分히 理解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兒童의 世界를 理解하지 못한 童謠舞蹈이 成立되지 못한다.

童劇은 兒童의 綜合藝術이다. 假令 兒童의 生活를 有心히 본다고 하면, 아가씨들은 어머니도 되고, 貴婦人도 되고, 사나히도 되고, 어여쁜 색씨도 되어 솟급작난 가튼 것을 질겨 하며, 도련님들은 兵丁노름, 醫師노름, 뽕뽕기, 빨차기, 굴렁쇠 굴리기, 動物 송내, 어른 송내, 도둑놈 잡기 하는 모든 짓거리가 遊戲的이오, 活動的이오, 演劇的이다. 그리고 거짓 업는 眞實, 그것이다.

詩人 실러는 말하기를 『遊戲하고 있는 그때야 말로 眞實한 人間이다』고 遊戲의 價値를 力說하였고, 카서는 『劇的 本能은 모든 사람의 內容인 普遍的 本能이다』고 말하였다. 스펜서골스도 『藝術은 遊戲가 發達된 것이다』라고 主張하였거니와, 兒童에 잇서서는 더욱 그러하다.

朝鮮에 잇서서 童謠舞蹈이나 童劇은 아직 幼稚한 領域을 버서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方面에 健實한 關心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되지 못한 듯하다. 여기에 잇서서 童謠研究會에 提議하는 바는 特히 兒童劇部를 두어서 그 方面에 關心을 가진 분이 만히 研究하여 現實의 朝鮮 兒童이 要求하는 創作品을 提供하도록 努力하여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朝鮮童謠研究協會와 朝鮮兒童藝術研究協會에서도 이에 注力하였으면 한다. 往年 京城保育學校 緣羊會에서 從從 演劇을 試驗해 본 것

은 반가운 일이었으나, 웬일인지 近來에 와서 아모 消息이 업스니 궁금하다.

- (2), 『조선중앙일보』, 1934. 7. 3

童謠의 指導 問題

幼稚園이나 普通學校에서 童謠 指導의 責任을 마튼 保姆와 敎員은 童謠에 對한 理解와 常識이 잇서야 할 것은 勿論이다. 兒童에게 童謠를 가르키려고 하면 먼저 童謠의 本質을 알지 못하고는 不可能한 일이다. 童謠의 本質이란 童謠藝術을 理解하게 하는 童謠에 對한 鑑識眼을 말함이다. 이 鑑識眼 업시 童謠藝術이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럼으로 幼稚園, 普通學校 童謠團體에 잇서서 指導의 責任을 마튼 사람은 반드시 童謠에 對한 鑑識眼과 童心에 對한 理解가 잇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指導者는 童謠를 兒童에게 짓게 하는 것보다도 먼저 童謠에 對한 鑑賞을 시키는 것이 教育上 一層 有效하다고 생각한다. 鑑賞法은 두 가지 方法으로 할 수 잇다고 野口雨情氏는 말하기를 첫째로 歌詞에 잇서서 그 속에 包含된 內容의 맛을 알게 한 뒤에 노래를 줄 것이오, 둘째로 먼저 歌詞를 주고 그 노래의 氣分과 속뜻을 兒童 各自가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方法을 適當하게 利用하면 조흐나, 만일 指導者가 그 歌詞에 對하여 그 속살의 맛과 研究와 批判的 態度가 업시 그 歌詞를 잘못 理解하고 內容과 全然 다른 方法으로 解釋하는 것은 가장 危險한 일이 아닐 수 업다. 그럼으로 틀닌 鑑賞法을 써 가지고 歌詞의 內容을 充分히 깨다름 업시 兒童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教育上 等閒히 둘 수 없는 問題이다.

或者 兒童에게 童謠를 가르치는 敎員 中에도 往往 이러한 것을 發見할 수 잇다. 그것은 自己의 趣味 그것만 中心으로 하여 作品을 理解하고 兒童들이 要求하는 童謠를 沒覺하는 일이 만타. 或은 兒童의 多數決

定에 依하여 選定하는 일도 잇스나, 그것 亦是 指導 方法이라고 말할 수 업다.

童謠는 긴 것보다 짧은 것이 조타. 그것은 兒童의 생각은 單純함으로 單純化시키는 것이 가장 賢明한 일이다, 그리고 童謠는 永遠히 업서지 안는 兒童性이 잇고 藝術的 價値가 잇서야 하며, 語韻까지 音樂的인 것이 眞正한 童謠라 할 것이니, 童謠의 指導者는 그 歌詞의 解釋과 作曲에 잇서서도 關心의 注意를 가져야 할 것이다.

童謠 아닌 童謠

이 項目은 童謠의 指導 問題와 連絡이 잇는 問題이다. 現代 兒童文學 部門에 잇서서 가장 多量生産을 하고 잇는 童謠界에 遺憾이나 童謠아닌 童謠가 만히 잇슴은 속일 수 업는 事實이다. 少年運動과 童謠 指導者와 各 新聞 學藝部 責任者의 責任도 업지 안흐나, 흔히는 外國 童謠의 意譯의 童謠 또는 模倣的 童謠를 만히 보게 된다. 누구나 노래 짓는 初期에 잇서서는 남의 훌륭한 作品을 模倣하는 것이 쏘혀 업슬 수 업는 것이나, 언제까지나 남의 송내만 낸다면 그것은 藝術에서 第一 尊 重히 녀기는 個性, 곳 自己만 가지고 잇는 어느 特殊性을 自己 作品에 明白히 發揮할 수 업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노래로써의 生命이 죽게 되고, 나중에는 거짓 童謠藝術的 良心을 忘却한 童謠 아닌 童謠가 되고 마는 것이다.

近年 所謂 童謠作家然하는 사람의 童謠 中에서도 童謠 아닌 童謠를 發見할 수 잇는 것이니, 그 童謠 中에는 兒童들이 使用하는 달콤한 兒童語를 갖다 쓰기에 애쓰는 듯하나, 그 內容에 잇서서는 實로 보잘것이 업다. 그것이 언듯 보면 펍 조흔 듯하나, 永遠性이 업고 一時的 流行性 童謠에 不過하게 되는 것이니, 童謠는 뿐잇게 멋잇게 사탕발름 가티 솜 씨만 내랴고 해서는 큰 失敗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일직이 西條 八十 氏는 『童謠라고 하면은 調子の 아름다운 文句와 兒童이 조화할 題材만을 늘어노코 甘味가 만타고 보이는 노래만 써도 조타고 생각하

는 모양이다.』고 말하였다. 果然 그러한 童謠는 얼른 보면 잘 지은 것
가트나, 오래 갈수록 그 실속업는 것이 나타나고 말 것이니, 그야말로
빛갈 조흔 개살구격이 되지 안할 수 업다.

그리고 近來에 流行을 띤 童謠가 각금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時俗 레
코드에서 흘러나오는 流行歌를 본떠서 맨든 或은 日本 內地에서 부르
는 노래 또는 曲調를 조곰식 따서 지은 얼룩이 童謠가 라디오를 通하여
각금 듯게 된다. 이와 가티 流行性을 띤 童謠는 眞實치 못한지라, 그것
이 마치 魂 업는 부처님이나 生命 업는 人形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럼으
로 童謠運動하는 사람은 이러한 似而非 童謠를 防止하여야 할 것이며,
그 反面에 藝術的 香氣가 노픈 노래를 抽獎하여야 될 것이다.

— (3), 『조선중앙일보』, 1934. 7. 4

童謠 放送과 레코드 音樂

近年에 와서 朝鮮에도 안테나를 通하여 들리는 童謠 放送도 꽤 發達
되어 가는 中에 있다. 그것이 一週日이면 二三次 依例히 施行할 『프로
그람』으로 짜여진 듯하다. 생각하면 童謠의 普及上 便宜上 또는 教育
上으로 抽獎할 點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스럽지 못한
일로는 어떠한 流行歌의 流行性을 가진 童謠의 跳樂, 眞正한 童謠藝術
과는 距離가 떨어진 似而非의 童謠의 放送을 각금 듯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童謠藝術을 墮落하게 되는 危險性이 있다고 본다.

目前 本紙에 具王二 氏가 洋樂의 放送과 레코드 音樂에 對하여 簡略
히 論評한데 잇서서 나 亦是 同感이다. 그런데 여기에 取扱하고저 하는
것은 童謠에만 局限하고저 한다. 여기에 具體的으로 論及하자면 紙面
關係도 잇슴으로 될 수 잇는 대로 簡單히 말하고저 한다.

첫재로 童謠 選擇의 任務를 가진 放送課에서는 眞正한 童謠의 發展
을 爲해서는 注意와 鑑識眼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近年 童謠團體가
만히 생기었다. 나의 記憶으로는 緣星童謠研究會, 피꼬리會, 계수나무

會, 코스모스會, 달나라會, 其外 主日學校 普通學校에서 童謠 放送을 서로 다토아 하는 모양이다. 그 中에는 참다운 意味에서 童謠藝術을 研究하는 團體가 업지 안흔 바는 아니다. 或者는 童謠 放送을 爲하여 일어난 童謠團體가 업지 안타고 볼 수 업겠다.

그러면 둘째로 이 團體 指導者는 童謠 選擇과 作曲에 잇서서도 特別한 用意와 鑑賞眼을 가져야 할 것은 두말할 餘地가 업다. 放送局의 조그마한 마이크로폰을 通하여 放送되는 그것이 결코 적은 일이 나이다. 全朝鮮의으로 퍼진다는 意味에서 重大性을 發見함으로써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童謠의 레코드 吹込에 對한 問題이다. 朝鮮에 레코드會社의 經營者들은 流行歌나 朝鮮 소리盤 吹込에만 沒頭하고 童謠의 吹込은 等閒히 보는 모양이다. 某社 支店 文藝部에서는 特히 童謠와 民謠에 對하여 만흔 關心을 가지고 이에 實行할 것을 言明하는 것을 듣고 매우 반가웠다. 아프로 남 먼저 着手하여 鄉土藝術에 만흔 寄與가 잇기를 바라며 마지 안는 바이다.

레코드會社에서는 거의 頽廢的, 哀愁的 遊興的 또 에로그로넨센스의 低級한 流行歌를 一蹴하고, 今後로는 새로운 藝術品, 健全한 藝術品을 내어 달나는 것이다. 營業政策上 不可能하다고 辨明하기 쉬우나, 用意만 잇스면 次次 實行할 可能性이 업지 안흔 것이다. 그런데 朝鮮 童謠의 吹込은 가장 적은 數字를 말하고 잇다. 그나마도 吹込된 몇 個가 잇스나, 大部分이 日本 內地 童謠의 意譯이나, 그러치 안흐면 童謠다운 童謠가 別로 업다. 레코드가 家庭音樂上 必要不可缺의 것이라고 하면 特히 教育上 充分히 考慮할 問題라고 생각한다. 要컨대 童謠의 選定에 잇서서도 特別한 關心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幼稚園 童謠의 急務

지금은 때느진 感이 업지 안허 잇스나, 이 項目에 關聯된 實際的 行動임으로 그리 無意味한 일이 아닐까 하여 말하고저 한다. 筆者는 多幸히 지난 五月 十八日에 朝鮮日報社 主催인 第六回 全京城幼稚園聯合

園遊會에 가볼 機會를 어긋섰다. 參加한 一千五百餘名 園兒가 景武臺의 綠陰이 싱싱하고 풀香氣 그윽한 속에서 한 자리에 모혀 기쁘게 노래하고 질겁게 뛰노는 것은 實로 여러 가지 意味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 反面에 나는 失望을 느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처음 開式 劈頭에 불오는 園遊歌도 그렇커니와, 順序를 따라 隨行되는 各 幼稚園의 노래와 遊戲에 있어서도 만흔 不滿을 느끼게 되었다. 或 어느 幼稚園은 그 노래와 律動 遊戲에 있어서 相當한 考慮을 가지고 한 것도 업지 안허 잇섯으나, 그것은 極히 少數였다. 어느 幼稚園이라고 指目은 하지 안흐나, 아직까지도 天然의 美, 二人 兵隊, 小人王, 金錦割, 郵便配達夫, 飛行士, 海軍, 큐비즘, 빠스켓, 꽃꽃 等等, 外國 童謠의 意譯이나 翻案歌詞를 고대루 옮겨다가 어린 아기네들에게 注入시켜서 그러한 모듬에까지 내오 놓는다는 것은 實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군다나 人情 風俗과 兒童의 生活方式이 다른 外國 童謠를 그대로 直輸入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朝鮮 兒童의 童謠藝術에 關心을 가진 사람으로는 참아 하지 못할 노릇이다. 차라리 適當한 教材가 업스면 甲子 幼稚園과 같이 아기네들의 假裝行列이 더 조할것 것이다.

- (4), 『조선중앙일보』, 1934. 7. 5

그러면 幼稚園에서 부를만한 조흔 童謠를 주었느냐고 反問하리라. 果然 當然한 質問일 것이다. 그러기에 幼稚園 童謠의 急務가 그것이다. 筆者는 幼稚園 保姆와 當局者의 苦衷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實로 同情할 點이 만흔 것이다. 마음은 잇스나 그 教材와 設備가 充分치 못하고, 一般 父兄母妹의 幼稚園教育에 對한 沒理解와 或은 批評을 바다가면서 財政 困難을 맞보면서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誠意와 獻身의 努力에 남달리 敬意를 表하는 바이다.

그런데 여긔 말하는 童謠만이 아니라 童話, 手工, 童謠舞蹈, 童劇만 하여도 아직까지 우리네들 손으로 製作된 훌륭한 藝術品이 만치 못한

지라, 幼稚園 當局者는 苦悶을 느끼고 잇슴을 잘 알고 잇다.

그러면 兒童教育에 從事하신 여러분은 특히 幼稚園 教材에 適當한 材料를 만히 創作하기를 바라서 마지 안는다.

朝鮮『童謠』復興

朝鮮童謠研究協會는 지금으로부터 八年前, 一九二七年 九月에 創立되었다. 여기에 入會한 會員은 當時에 잇서서 童謠作家의 權威者와 童謠研究에 뜻을 둔 여러분이 거의 網羅하다십피 되어 가장 活氣를 띄고 苦業을 隨行하여 앞슴은 속일 수 업는 事實이다. 創立 時期를 다음해에 朝鮮 童謠人의 童謠를 收集하여 『朝鮮童謠選集(一九二八年版)』을 發行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童謠에 留意한 사람들은 朝鮮童謠研究協會의 不발 알레로 모혔든 것이니, 그때 幹部의 任에 當한 幹部 數氏의 努力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업게시리 되었다.

그러다가 繼續的으로 事業을 發展시키려고 애를 써왔스나, 한갓 財政 問題로 또는 幹部된 사람들이 地方에 만히 在住하는 關係로 事業의 發展이 如意치 못하고 沈默이라는이보담 沈滯狀態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런데 客年에 다시금 幹事會를 모히고 幹部 改善과 機關紙 『童謠運動』을 發行하기로 決定하매, 또다시 各 地方에서도 『童協』에 만흔 關心을 가지고 機關紙 促進에 對한 期待와 希望이 날로 더하엿섯다. 그러나 우리네들의 일이란 마음대로 되어지는 世上이 아니라, 그 亦是 實踐하지 못하는 맘인들 오작하엿스랴!

願컨대 이 事業을 爲해서 積極的으로나 物質的으로 새로운 運動家의 健實한 童謠作家들이 만히 輩出하여 이 運動에 努力하얏스면 한다. 그리고 新舊 幹部陣 여러분들과 서로 幄手하여 좀더 勇氣를 振作하여 運動 方針의 樹立과 그 打開策을 窮究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童協』에서 緊急한 事業으로는 機關紙 『童謠運動』의 發刊을 促成할 것이다. 그리하여 理論으로나 實際에 잇서서 그에 對한 作品行動과 宣傳 普及 또는 『童協』의 敏活한 活動이 잇서야 할 것이며, 특히 全朝鮮 幼稚園에

서 사용할 『幼稚園童謠案』을 出版하도록 實行할 것이다.

結論

좀더 具體的으로 論述해야 될 것임에도 不拘하고 이것으로써 곳 막으려 할 때 未安한 點을 늦긴다. 그러나 이것은 紙面의 關係도 잇거니와, 넘우 支離한 듯하여 後期를 約束한다. 여기에 附言하는 바는 野口雨情氏 著『童謠及 童心藝術』에서 더러 參照한 것도 있다. 그리고 童心藝術이란 말은 野口雨情氏가 맨 처음으로 主唱한 名稱인데, 그것이 適當하기에 그대로 使用해야 왔다.

끄트로 朝鮮에 童謠作家는 만히 輩出되고 잇스나, 이와 有機的 關係가 잇는 童謠作曲家는 적이나 들을다. 바라건대 童謠作曲家들의 꾸준한 努力을 갖기지 말허 주시기를 願望한다.

兒童文學에 留意하고 잇는 우리는 童謠藝術에 對하여 研究的 態度를 가지고 一般 兒童藝術에 잇서서도 根氣잇는 努力을 하여 冑잇고 底力잇는 藝術品이 만히 나오기를 願望한다. 이러한 微意에서 나는 이 글을 草하게 된 것을 말해 두고 이만 撤筆한다.(一九三四. 六. 二一 於京城)

— (5), 『조선중앙일보』, 1934. 7. 6

朝鮮 童謠와 鄉土 藝術

近年 兒童文學 가운데 가장 活氣를 띠면서 多量 生産을 하고 있는 童謠界는 實로 混沌을 極하고 있다. 종종 新進作家로부터 優秀한 作品을 發見하지 않는 바도 아니다. 그 大部分은 童謠 아닌 童謠의 跳梁 一種 流行性을 띤 童謠가 많이 나타나 있음은 속일 수 없는 事實이다. 더욱이 幼稚園이나 普通學校에서 가르치고 있는 童謠와 唱歌는 外國 童謠의 意譯이나 또는 아기네들 生活과 그들 年齡에 適合지 못한 노래를 그대로 注入시키고 있으니, 두말할 것 없이 그들 兒童들은 消化不良症이 생길 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러므로 朝鮮의 息으로부터 生産된 童謠다운 童謠를 많이 製作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幼稚園에 잇서서는 그 適當한 教材가 不充分하므로 十分 同情할 餘地가 잇거니와, 普通學校에서 지금 教授하고 있는 『初等唱歌集』(一年으로 六年까지)을 본다면 朝鮮 兒童의 日常生活과 또는 그들 情緒에는 너무도 동떨어진 教材를 羅列한 感이 없지 않다. 그 中에도 八十五퍼센트 가량이 일본말로 된 童謠와 唱歌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各 學年用에 朝鮮 童謠의 插入된 것이 겨우 三, 四篇에 不過하다.

그나마도 五, 六學年用에는 一篇도 發見할 수 없을 뿐 아니라, 間或 朝鮮 童謠의 編入된 것을 본다고 해도 그 選擇과 作曲에 잇서서도 不滿한 點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問題에 잇서서는 紙面 關係도 있으므로 다음 機會에 이에는 割愛하거니와, 어쨌던 唱歌集의 編輯 當事者들의 童謠에 對한 鑑別眼이 不足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었다. 그것이 朝鮮 兒童을 相對로 한 普通學校 教材로서는 適當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朝鮮 童謠와 鄉土 藝術』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朝鮮 童謠란 무엇을 意味한 것인가? 그것은 朝鮮말로 쓴 童謠 일 것이니, 무엇보다도 그 속살(內容)이 朝鮮 獨特의 魂과 情緒가 흘러

야 될 것은 勿論, 朝鮮 兒童의 生命이 움죽이어야 될 것이다. 거듭 말하자면 朝鮮 童謠는 鄉土 童謠를 意味한 것이니, 鄉土 童謠는 곧 故鄉의 말로 쓴 童謠를 鄉土 童謠라 하겠다. 그리고 鄉土 童謠는 흙의 노래요, 흙의 自然詩다.

우리는 朝鮮이라고 하는 큰 故鄉을 가졌다. 鄉土란 좁은 意味로는 故鄉을 말한 것이오, 넓은 意味로는 朝鮮을 말함이다. 朝鮮이란 땅덩이의 흙에서 나서 이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람이 어찌 朝鮮의 흙에 對한 愛着心이 없을 수 있으랴! 自己가 먹고 자라난 흙을 어찌 忘却하여 어찌 背叛할 수 있는 일이라!

朝鮮의 흙으로부터 난 흙藝術, 흙文學을 가르쳐서 鄉土藝術이라 하겠다. 그러면 童謠, 民謠, 時調 등이 다 朝鮮 藝術品이라 하겠다. 未來는 偉大한 흙의 畫家다. 佛蘭西 國民의 魂을 넣은 鄉土藝術品이다. 野口再情, 白鳥省吾, 加藤武熊, 犬田卯, 福田正夫, 諸氏は 鄉土詩人, 흙의 小說家다. 그밖에 뽀른손, 미스트발, 토마스 하디, 루이펠트 等, 諸氏가 또한 흙의 藝術家다.

그런데 童謠와 民謠는 方言에 依하여 表現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여기에는 農村을 背景으로 한 鄉土語로 된 田園童謠도 抽獎할 點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地方的이라 하더라도 제법 藝術的인 말을 골라서 아모 꾸밈이 없이 수수하게 노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今後로 더욱 朝鮮의 흙냄새 나는 童謠와 民謠-朝鮮의 흙의 生命이 躍動하는 藝術品을 兒童에게 提供하는 것이 教育上 有效한 일이며, 鄉土 教育의 本意가 여기에 잇는 것이다.

- (상), 『동아일보』, 1934. 7. 9

이 아래 朝鮮의 傳來童謠 及 民謠 數 篇을 들어 여러분의 鑑賞에 拂치기로 한다.

비아비야 오지마라
우리어니 시집갈 때
가마속에 물이들면
다홍치마 얼룩진다
(또 하나)
아가아가 우지마라
네가울어 날이새니
닭이울어 날이새지
고운낮에 얼룩진다
아가아가 우지마라

農夫歌(民謠)

여봐라! 벗님네야
이내말씀 들어보소
天下勝地 우리조선
간곳마다 片片沃土
얼 널널 상사디야(畧)

이밖에 全羅道 「옥자백이」, 平安道 「愁心」 또는 鄉土의 新童謠를 列舉할수 있으나 그만 畧하거니와, 이와 같이 山川風物과 人情 風俗에 對한 感情的 리듬을 가장 率直하게 나타낸 人情의 소리…… 이는 田園의 農夫와 山村의 婦女 그리고 兒童의 生活 中에서 가장 鄉土의 氣分과 感情的 活動을 鮮明하게 表現한 藝術品이 얼마나 貴重한 것이랴!

그런데 朝鮮 農村의 兒童들은 아직두 童謠 하나 변변히 불러 보지 못하고 있다. 回顧컨대, 지금으로부터 十二, 三年 前의 일! 筆者가 所謂 某 小學校 敎員으로 잇을 當時 그들에게 適當한 唱歌 敎材를 求하는대는 實로 苦悶을 느기었든 것이다. 그때의 各色 唱歌集이란 것이 모두가 敎訓 乃至 知識을 넣어주겠다는 公利的 歌謠뿐이요, 學問的 知識에 富

어 넣어 마치 手工品과 같은 意識的으로 어떠한 理論의 解釋的 作品이 그 大部分이엇기 때문에, 그들 兒童에게 適合할 리 萬無하였다.

그리하여 고대루 가르키기에는 良心의 苛責이 생기고 그러타고 해서 좋은 教材도 없는 터이니, 내가 지은 童謠를 손수 曲譜를 부쳐서 教授해 본 일이 다시금 回想된다. 그렇다. 그 當時 音樂敎員으로 어떤 분들은 누구나 同感하리라. 그만큼 朝鮮은 兒童藝術에 있어서 等閑하였고, 當場 道具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自己것을 自己가 貴愛하고 尊重하고 키워줄 向念과 努力이 업기 때문에, 남보다 뒤떨어질 것은 必然의 勢일 것이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가? 少數의 都市 學校의 有意한 先生이나 兒童 外에는 童謠다운 童謠를 불러보지 못하고 잇는 터이다. 朝鮮 童謠의 普及은 아직두 相當한 時日을 要求하고 잇나니, 于今것 或者 初等學校 先生이라 하드라도 童謠의 本疾을 알기는커녕, 童謠에 對한 理解도 가지지 못하고 잇다. 가르치는 것이라야 어린 兒童들에게는 適當치 못한 敎訓的이오, 不自由스런 큰 사람의 마음에 사로잡힌 學校 唱歌나, 그렇지 않으면 朝鮮의 鄉土를 떠난 外國 唱歌나 翻譯 唱歌를 고대루 가르키기에 餘念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鄉土에 살면서도 그들의 눈에 비친 自然의 노래, 鄉土의 노래를 불러보지 못하고, 남다른 環境 속에서 쓰라린 生活을 하고 잇는 것이다. 그네들 작난터의 꽃이오 보배인 이 노래를 맘대로 불러보지 못하고 잇다는 것은 못내 가슴 아픈 일이다. 三木露風 氏—

『童謠는 自己自身을 表現함이다. 自己自身을 表現하지 않으면 좋은 童謠가 아니다.』

고 말하였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主張하고 싶다.

『조선을, 흙을 떠난 童謠는 참 朝鮮 童謠가 되지 못한다.』고…….

— (하), 『동아일보』, 1934. 7. 12

兒童과 映畫

心理學上見地에서 兒童은 活動本能 卽遊戲本能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日常生活은 그本能을 滿足시키기위하여 不斷히 活動하기를 질겨한다. 例를들자면 솟곰작란 숨박국질 뽀뽀기 술레잡기 어른송내 動物송내 병정노리 음악대노름 편싸움 이러한 모든 짓거리가 그들의 藝術的活動에서 나온 演劇이요 그 樣박힌 寫眞을 곧 兒童映畫라고 하겠다. 그도 그럴것이 만일 어린이 生活에서 그러한 演劇과 映畫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無味乾燥한 生活이겠는가 더 나아가서 그를 禁止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들의 生活이 壓縮되고 無氣力하고 希望을 끈어즈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兒童과 映畫는 서로 떠나서는 아니될 密接한 官階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끄러운일로는 아직까지 우리의손으로 教育的價値가 있는 兒童映畫를製作한일이있었는가?

近年映畫藝術에 對하여 非常한 興味를 가지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肯定化하기에는 아직도 相當한 時期를 要求할터이요 더군다나 兒童映畫에 있어서는 實로 處女地의 狀態라 하겠다.

兒童映畫는 兒童의 綜合藝術이기까닭에 兒童文化向上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러나 童心을 떠난 兒童映畫는 存在치 못한다 있다고하면 그것을 無理다 그러므로 兒童映畫製作者는 잘 理解가지 못한다고하면 그것은 完全히 失敗의 作品이되고 말 것이다. 映畫그것은 民衆藝術이기 때문에 어떠한 貴族의 上流階級에만 豫속된 원배물이 아니다. 一般細民階級에까지 大多數의 (民衆娛樂 慰安)民衆藝術로서 必要하다는 것은 여기에 새삼스레 論及할바아니다. 今日의 映畫는 民衆藝術로서 首位를 占하고 있는이만치 자못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兒童에게 活動寫眞(映畫)를 보여주는 것이 教育上 有害無益하다고 反對乃至 阻止하는 父兄을 많이보게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兒童의 心理와 따라서 그들의 藝術的行動을 理解하는者라고 하면 다시금 考慮할 餘地가 있는것이다. 勿論商業化한 低級한 映畫 營利를 目的한 興業映畫는 兒童에게 보이는 것은 나의 贊成치안는바이다. 그러나 映畫라고 해서 어퍼놓고 못보게하는 것은 兒童의本能을 抹殺시키는 憂慮가있다. 그리하여 그들 兒童은 못보게하면 못보게할수록 보고 싶어하는 行動과 好奇心이 못견디게 發作한다. 그로말미암아 마침내 아버지의 포켓속에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劇場에 가게되는 實例를 從從볼수 있게된다. 그러면 거기까지 이르게된 그責任이 어디있는가 그러기까닭에 父兄된이는 여기에 細心의注意를가지고 小學校四五六學年期에 있는 兒童들은 더욱 映畫를 질겨하는 터이니 此時期의 兒童은 一箇月에 두 번이나 한번쯤은 좋은 映畫가 있거든 兒童에게 適當한 映畫가 있거든 미리 觀覽시켜주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나는 兒童映畫를 教育手段으로서 小學校教課에 編入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歷史 地理 理科를 教授할때에 平面的으로 不動하고 變化가없는 教科書보다도 活動에 依하여 直觀하게된 映畫教育이 보다더 效果의이라하겠다. 例를 들면 兒童自身이 가보지못한 또는 肉眼으로 보지도못한 有名한 山川草木, 日月星辰 바다, 都市, 漁村, 外國의風景, 鷄卵의成長, 파리의傳染病媒介 身體의發育 黴菌의繁殖狀態等の 地理映畫 理科映畫는 短時間에 많은 收穫을 얻게되는 것이다.

米國의 學者중에 映畫를 學校教科에 編入하자는 主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렌지市에서는 이미 活動寫眞學校라고 하는 것을 開設하고 映畫를가지고 教科書에 代用하고있다고한다. 英國에서도 倫敦에 六箇의 學校가 映畫教授를 開始하고 필립에依하여 直觀教授를 하고있다고 한다. 獨逸에서는 함부르크, 망하임, 하바- 諸市는 映畫를 가지고 兒童教育을 한다고한다. 그리고 通俗講演會에는 반드시 映畫를 利用한다는 것이다. 과연 映畫는 一時에 數千數萬觀衆에게 慰安과 教育을 주는 現代化한 尖端藝術이다.

그런데 한가지 問題되는 것은 映畫를 營利의 道具로 使用하여 한것

商業改策으로 製作된 映畫, 말하자면 低級한 人情風俗이라든가 또는 男女關係의 醜惡한 場面, 盜賊殺人, 強盜, 惡魔, 危險한 光景, 殘忍한 場面 이러한 것을 兒童에게 보이는 것은 재미없다는 생각한다. 그것은 藝術이란 兒童의 心靈을 美化시킴이 기00이다.

나의 00에 依하면 兒童이 映畫를 보고 印象깊게 남아있는 것이 가장 슬픈 映畫와 情緒의 映畫이다. 그러다 어떠한 悲慘한 場面에 드러가서는 實際自己가 그러한일을 當한 듯이 울고 안다까워한다. 그리하여 그 天真爛漫한 아름다운 마음이 깊이 印象되어 살아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최푸림」의 情緒的 活動을 좋아한다. 따라서 송내까지 내본다 그리고 少年期에 있어서는 勇敢冒險을 좋아한다. 따그러쓰의 冒險이나 달마치의 덤부링 송내를 곳잘부린다. 그리고 때로는 00의 송내도부린다. 그러나 映畫에 나타나는 冒險과 재주는 活動寫眞으로서의 속일수가 있는 것을 영문도 모르고, 그대로 송내내다가 각금 危險한일을 當하게 된다. 여기에 父兄되는 映畫에 對한 常識이 必要하다.

그러므로 필름活動의 風景은 無常 00하여서 注意를 集中0定할 수 없다. 그리하여 見0들은 그 寫眞이 正確하지 못하므로 父兄되는 映畫를 아이들과 본다음에는 正當한 批判을 하여주어야 效果的일 것이다. 와린氏는 말하기를 映畫에는 四十퍼-센트 이상이 有害한 것이 包含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몰리-뿌린드 人道協會의 調査한 二百九十의 필름 중에 有害한 것은 左記와 같다고 하였다.

()

이상과 같이 分類하였다. 이것은 더욱 兒童에게 있어서 그러하다. 兒童心理學上으로 보아서도 勿論 그러한 內包를 가진 映畫가 있다고 하면 教育上 有害無益한것이라 하겠다. 映畫는 兒童藝術에 있어서 다른 것에 比하여 直觀的 寫眞을 通하여 그影響됨이 빠르기 때문에 父兄된이나 兒童을 指導하는이들은 兒童에게 보여줄 映畫는 그 選擇取扱에

格外한 注意를 要하게 한다.

映畫라고해서 全部民衆에게 좋은影響을 준다고 斷言할 수는 없는 것이다. 勿論民衆의 娛樂, 民衆藝術로서의 役割을 하는 좋은 映畫가 있는 反面에 個中에는 所謂 商業的手段으로서 製作된 興業映畫는 文化向上에 害毒을 주는 것이 從從나타나기 때문이다.

今後로 映畫製作者의 責務는 그러한 商業映畫, 低級한 興業榮華를 一0하고 正히 民衆文化事業에 많은 寄與가될만한 좋은 藝術品을 내어 놓기를 바라매 따라서 純潔健全한 教育的 映畫, 兒童映畫, 促成에 邁進하여주기를 0망한다.

朝鮮에는 文藝映畫로서 처음으로 製作된 「春風」이 映畫界에 새로운 00을 주었음은 이미 自明한 事實이다. 그러나 아직조선에 있어서 藝術에있어서 本質的의 使命인 藝術映畫와 從屬的 使命을 띤 教育映畫의 眞正한 發展은 今後의 일이라 하겠다.

듯자오니 朝鮮映畫株式會社가 기계의 00가 세세하여 創立함과 同時에 그 機關誌로 「朝鮮映畫」를 發行하게된 것은 朝鮮映畫界를 爲하여 기뻐할 現狀이다. 願컨데 그 生命이 길게 빛나서 獨特한映畫 外國映畫의 송내 그것보다도 朝鮮的情調 즉 鄉土色을 띤 그림 그대로의 朝鮮映畫의 創作을 바라고 싶다. 따라서 0실한 朝鮮映畫의 理論樹立과 그 實踐에 꾸준하기를 付託하고 싶다. 끝으로 朝鮮兒童에게 適當한 兒童本位의 教育映畫, 藝術映畫에 좀더 關心하여 眞正한 映畫에 굶주린 朝鮮兒童에게 心靈의糧食이 될만한 좋은 作品을製作하여 주기를 期待하는바이다.

- 『조선영화』, 1936.10.

盧良根 氏의 童話集을 읽고

조선에서 童話로서의 形態를 가추어 가지고 나오기는 距今 二十餘年前의 일이다. 그 동안 傳來口傳童話의 活字化 惑은 改作 等を 거쳐, 그 다음 外國 童話의 翻譯期를 지나 四, 五年 以來 創作童話의 길을 밟게 된 後 最近에 이르러 創作熱이 더욱 旺盛하여 감은 實로 이에 關心을 가진 者, 앞으로의 兒童文學을 爲하여 欣喜하여 마지 아니 한다.

盧 氏의 童話集 『날아다니는 사람』을 펼쳐 들고 처음 「복단지」로부터 「날아다니는 사람」까지 二十餘 篇의 童話を 通讀하여 본다면, 「웃음꽃」, 「은승이와 까치알」, 「깽박대장」과 같은 興味와 喜悅을 주는 하나의 유모로스한 快感과 또는 勇敢 冒險을 즐기는 兒童의 心理와 生活相을 그리 것도 있고, 「임자 없는 책상」, 「의 조흔 동무」, 「눈오는 날」과 같은 아름다운 友情에서 나오는 同情, 和睦, 救助의 불타는 마음 「눈먼 소년」, 「순이와 빵장수」, 「피리 부는 억쇠」와 같은 人類 社會의 奉仕心과 同情心이라던지 그리고 傳來童話로는 「금애은애」(新콩쥐팍쥐)와 「이상한 멧돌」에서 보이는 惡行의 應報, 善行의 勝利, 「열두 고개」, 「한가마에 두 색시」, 「막내둥이별」은 口傳童話を 改作한 것 같은 느낌을 주며, 여기서는 兒童 心靈의 美化를 엿볼 수 있다. 「눈 오는 날」, 「순이와 빵장수」, 「날아다니는 사람」 등은 純童話라기보다도 少年小說이라 함이 조кет고, 나는 차라리 「웃음꽃」, 「눈먼 소년」, 「피리 부는 억쇠」를 優秀한 作品으로 推薦하고 싶다. 이는 그가 高踏的 超現實의 傾向보다도 民衆的이오, 現實의인 傾向에의 關心을 가지고 애써 조선 兒童의 生活相을 그리려 하는 자취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할 것은 자칫하면 童話인지 少年小說인지 分別하기 어려운 것을 맨드러 놓기 쉬운 것이다.

以上에서 例舉한 바와 같이, 이 童話集의 內容은 實로 여러 가지 思想과 敎訓이 內包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미』라는 魅力

으로 끌어 간다는 것이다. 이 『재미』라는 것이 그리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著者が 多年間 兒童教育 方面에 實際 體驗下에 얻은 모든 材料를 새기고 깎아 하나의 積功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으니, 全體를 通하여 느껴지는 것은 그가 兒童을 爲하는 精誠과 一貫하여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冊에는 童話의 本質的 使命인 文學的 價値와 從屬的 使命인 教育的 價値가 相伴되어 있어 兒童은 勿論, 어른이라 하더라도 一讀할만한 價値가 있다고 생각한다.

— 『동아일보』, 1938. 12. 27

안데르센의 生涯와 藝術

— 그의 死後 六十年을 當하야

一. 緒言

世界 童話史上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一八〇五 ~ 一八七五)의 存在는 너무도 有名하다. 八月 四日은 이 偉大한 童話 作者의 死後 六十五年 祭日이므로, 그의 偉大한 文學的 業績을 再認識하며, 그의 一生을 통한 兒童文學의 功績을 讚美하는 同時에, 그의 文學的 貢獻과 또는 意義깊은 生涯를 追慕하며 記念한다는 것은 우리의 義務라고 생각한다.

안데르센! 그의 名聲은 世界的 存在이어서 世界 各國의 兒童은 그의 童話を 읽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오, 朝鮮에 잇서서도 어린이나 成人이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別로 없을 것이다. 그가 童話作家일 뿐만 아니라 旅行家이어서 旅行을 素材로 한 紀行文은 勿論, 長短의 小說 또는 詩와 戲曲에 잇서서도 그의 文學的 遺産은 자못 크고 넓다 할 것이다.

少年小說風의 『卽興詩人』이 그를 出世케 한 것이라 하지만, 그가 世界文學上 地位를 確保하게 된 것은 그의 創作小說에 잇다고 하기보다도, 그가 創出하면 俗傳說과 民謠를 基盤으로 한 詩作에 잇다고 할 것이다.

그의 童話는 十八 世紀 佛蘭西風의 宮廷의 古典인 再來의 童話로부터 離脫하여 民衆的이오, 獨逸風으로서 로맨틱한 點은 『그림童話』와 一脈相通한다 할 것이다. 그는 貧困한 家庭에 태어나서 容貌가 못한 탓으로 女性의 사랑을 그리 받아보지 못한 채로 世界를 故郷으로 삼고 彷徨했든 것이다. 그러나 그의 素質은 純粹하며 로맨틱하였다. 그리고 事物에 感受性이 豊富하였고, 그의 作風은 想像的이오 藝術的이라 하겠다.

二. 그의 幼年 時代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은 一八〇五年 四月 二日 덴마크의 東北 카데갓트海와 발틱海와의 사이에 있는 뤼렌이라고 하는 小島 오덴스의 마을에서 誕生하였다. 그곳은 北方 神話 中の 오덴 神이 산다고 하는 곳이었다. 父親은 極貧한 靴工이요, 안데르센을 出生할 때 廿二歲였다. 母親은 正直은 하나 어질지 못한 洗濯女이었다 한다. 그리고 그의 祖父는 狂人이었다고 하니, 그것은 얼마나 沈鬱한 環境 속에서 幼少年 時代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想像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쓸쓸한 生活을 繼續하면서도 文學에 뜻을 두게 된 것은 父親에게 받은 影響은 크다 할 것이다. 아버지는 이따금 구두 밑창을 두들기면서도 흘베르크의 詩를 읽어주기도 하고, 아라비아 夜話를 들려주기도 하여 어린 안데르센은 거기에 재미를 붙쳐 아버지와 같이 여러 가지 冊을 읽기 始作하였다. 그리고 안데르센이 學校에 當길 적에도 틈있는 대로 人形을 맨드러 적은 模型 舞臺로 演劇을 보여주기도 하여 안데르센의 美的 感情, 詩的 情操는 이로부터 더욱 啓發하게 되었다.

이로 보건대, 안데르센은 장 작 루소의 幼年 時代를 彷彿케 하고, 貧寒한 母親과 祖母의 품에 자라난 惻愴한 少年의 모습이 어쩐지 狄켄스의 데비드 카파필드를 聯想케 한다. 그리고 안데르센의 幼少年 時代는 괴테의 그것과 같은 點이 적지 아니 하다. 그러나 藝術的이요, 想像的이요, 로맨틱한 點에 잇서서 안데르센은 루소의 型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안데르센의 生涯는 루소나 狄켄스에 지지 아니 한 로맨틱한 것이다.

그의 父親이 當時 나폴레옹戰爭에 參加하여 幸運의 代身에 病弱한 몸으로 도라와서 病床에서 呻吟한지 얼마 아니 되어 그가 九歲時 父親을 死別하였다. 그리하여 어린 안데르센은 더욱 쓸쓸함을 禁지 못하였다.

게다가 繼父를 맞지 않을 수 없게시리 되었다. 안데르센은 또 小學校를 退學하게 되었다.

— (1), 『동아일보』, 1940. 8. 2

一八一九年 오덴스의 훈군트 寺院에서 堅信禮를 받고 그해 九月 子
子單身으로 그곳에 二十二萬里 隔한 首都 코펜하겐으로 다라났었다.
그가 十五歲 되던 그때의 逃亡이야말로 그가 放浪 生活을 하게 된 動機
가 되었다 할 것이다.

그가 文學과 藝術에 志望하게 된 것은 그 翌年 一八二〇年에 處女 戲
曲을 써서 스스로 舞臺 우에 實演해 볼려고 했으나, 그의 못생긴 外貌
가 이를 失敗케 한 것이다. 이마는 불속 나오고, 머리는 적고, 매부리코
에 입술까지 송하게 생긴 데다가 포플라처럼 멋없이 자란 키로 두 팔을
휘저으며 다니는 꼴은 참아 볼 수 없었다 한다. 그의 童話에 「못생긴 집
오리새끼」가 놀림을 받는 場面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의 記憶에서 써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의 容貌에 比하여 목소리는 神이 준 膳物이
었는지 매우 곱고 아름다워서 假設劇場에서는 聲優로서 한동안 그를
받가히 맞아 준 적이 있었다고 한다.

三. 그의 放浪 時代

안데르센은 家庭이 不虞한 닳이었는데, 어려서부터 放浪과 旅行을
질겨 하였다. 그러기에 안데르센이 처음으로 쓴 것은 旅行日記風의 小
說이었다. 그는 兒時적부터 남같이 탐탁한 家庭에서 자라지 못하고 안
옥한 故鄉의 情다움을 그리 맛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世界를 집으로 삼
고, 발길 닳는대로 放浪의 旅行을 繼續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旅行은 그에게 있어서 唯一의 慰安이오 思索의 洞穴이었
다. 그의 休息處는 大概 旅宿이나 運河의 河畔이었는데, 運河 旅行의
愉快味를 느끼고 그곳 그곳의 風俗 情景이라든가, 自然과 人間 生活을
經驗하며 心的 營養을 攝取하면서 넓은 理解와 깊은 觀察을 가지고 그
마음의 世界는 더욱 潤澤해지고 豊富해진 것이다.

그의 出世作인 『卽興詩人』이 伊太利의 自然과 生活을 禮讚한 것은
偶然이 아닐 것이다. 이 『卽興詩人』의 出版은 그가 三十八歲時, 卽 一

八三五年이었다. 그보다도 먼저 나온 詩集 『파 하르츠 紀行』도 童話가 드러 있다. 이로 보아 그의 作品의 素材의 大概는 그의 放浪 生活인 旅行에서 얻음이 事實이었다.

四. 그의 著書와 作品 世界

그가 放浪 生活을 하다가 後援者를 얻어 學業을 마친 뒤 歐羅巴를 旅行하고 一八三四年 『卽興詩人』을 出版한 後, 그가 文學者로서 相當한 地位를 가지게 된 것이다.

童話에 붓을 들기는 翌年 一八三五年부터이었다. 그림없는 童話冊이 一八四〇년에 出版되었다. 其外의 童話는 一八三五年부터 一八七二年 동안의 出版이 그의 童話冊의 大部分이다. 『卽興詩人』外에 二三의 小說과 紀行文이 있다. 처음에는 詩도 쓰고, 劇과 小說을 썼으나, 어쨌든 그의 代表的인 文學的 業績은 童話라고 할 것이다. 特徵을 가장 鮮明히 具現한 것은 그가 三十歲 以後 四十五六歲에 이르기까지의 十數年間 이었다. 그 中 白眉에 托하는 作品은 이 時代의 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안데르센의 童話는 全部 純全한 創作이 아님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故國에 傳來하든 說話와 民譚 惑은 旅行 中에서 얻은 이야기 惑은 書冊을 통해서 얻은 것을 自己의 個性에 依하여 陶冶하고 潤色한 것이 적지 아니 하다. 넓은 意味에 있어서 童話에는 두 가지 種類가 있다고 하겠다. 하나는 民俗的 傳說로서 오랜 歲月에 만흔 사람에 依해서 지어진 것인데, 그림 童話가 그 典型的이오, 다른 하나는 在來의 傳說을 取扱한 것이라도, 獨特의 創意를 加해서 거이 새로운 童心 世界의 興味있는 이야기로 써낸 것인데, 그 方面에는 안데르센의 童話가 그 代表的인 것 이다. 이소프, 마리도 프란스, 라 폰텐 等과 같은 系統의 이야기가 取扱된 것 中에는 거이 普遍的으로 散在한 世界의 童話文學이 各其 個人의 獨特한 言語와 文彩이었음을 본다.

- (2), 『동아일보』, 1940. 8. 4

그런데 안데르센의 作品 世界는 自然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草木 禽獸 또는 家具, 文房具로부터 人形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生命을 갖게 해서 活動하는 幼兒의 꿈의 世界, 想像 세계에 이르러서도 안데르센만큼 自由스럽게 創造한 이는 아직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까 한다.

素朴하고 眞實하고 自然 그대로의 마음! 아기네의 마음을 가지는 때야말로 참다운 童話, 價値 있는 偉大한 藝術品이 生産된다 하겠다. 아기네의 마음-이는 詩人의 마음이다. 안데르센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그림 없는 그림책』, 『鍾』은 아름다운 詩가 아닌가. 『卽興詩人』, 『못생긴 집오리새끼』는 훌륭한 短篇小說이 아닌가. 『피꼬리』는 아름다운 로맨스가 아닌가. 그의 童話의 世界에 아기네의 마음, 天真無垢한 사람의 마음이 何等의 拘束이 없이 自由롭게 靑空을 날고 푸른 들판을 건느는 것이다.

그의 童話 外에 잊지 못할 것은 一八三一年의 『하르츠 登山記』, 戲曲 『幸運의 꽃』(一八四六年 作), 自傳 『내 生活의 童話』(一八四六年), 長篇小說 『二人의 男爵 夫人』(一八四八) 등의 재미있는 作品이 있다.

五. 그의 思想과 文學的 業績

안데르센의 作品을 通觀한다고 하면, 그는 思想的으로 라 폰텐과 페로오와 對立한다. 그것은 안데르센은 浪漫主義임에 反하여 라 폰텐은 古典主義임에 있다. 그리하여 라 폰텐의 이야기는 반드시 어떠한 結論을 必要로 한다. 페로오의 이야기는 極히 透明하다. 그들이 理智的인데 對하여 안데르센은 情緒的이고 浪漫的이다. 따라서 그의 思想은 想像的이고 夢幻的이다.

그는 人生에 對한 諧謔의 態度和 貧民의 同情은 디킨스를 彷彿케 하고, 自然에 對한 憧憬은 루소와 같다고 할 것이다. 以上 三人은 페스탈로치와 푸로벨과 같이 어린이를 사랑하였다. 그 사랑을 文學上으로 具象化한 것이 안데르센을 따를 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는 안데르센의 쏘人格이다. 그가 詩를 쓰고 小說을 쓰고 戲曲을 썼건만, 그의 作品中 千秋萬代에 빛나게 한 것은 童心에서 빚어낸 童話일 것이다. 그中 一百五六十篇이나 되는 童話는 안데르센의 이름을 永遠히 빛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文學的 偉大한 業績은 亦是 童話文學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안데르센은 집도 없고 안해도 없고 子息도 없이 단 한 몸이 一生涯를 旅行과 글쓰는 것으로 일을 삼고, 바람같이 떠돌아 댕겼다. 그러타고 自己의 故國인 덴마크를 잊지는 안었다. 그것은 外國에서 珍奇한 花草가 있다고 하면 그 씨를 가져다가 自己 故鄉에다 심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愛國의 向念이 살아진 적이 없다고 한다. 그가 七十回의 誕生日에 덴마크의 首都 코펜하겐과 그의 生地 오덴스에서 盛大한 祝賀式이 잇섯다고 한다.

그의 文學的 功績은 國民的인 것보다도 오히려 世界的일 것이요, 그가 丁抹의 훌륭한 詩人임에는 異議가 없을 것이다. 그는 一八七五年 八月 四日, 지금으로부터 六十五年 前 七十歲를 一期로 丁抹 全國民의 슬픔 속에서 고요히 잠들었다. 世界를 自己의 집으로 여기던 안데르센의 銅像이 지금도 丁抹의 서울 코펜하겐公園에 嚴然히 서있다고 한다.

— (3), 『동아일보』, 1940. 8. 6



제 5 부
연보 및 해설

아동문학 작품연보

1. 동요동시 연보

작품명	수록지	발표일자	수록집	비 고	중복
봄비	동아일보	1921.03. 02.			*
가을 맞는 제비	동아일보	1926.10. 10.		고깃빈 요, 김태오 곡	
입분달	동아일보	1926.10. 24.		SHN 요, 김태오 곡	*
흰나비	아이생활	1926.			
나물캐기	동광	1927. 03.			*
나물캐기	중외일보	1929.03. 09.		1929. 03. 06.	*
봄! 봄! 봄!	아이생활	1927.			
새별	아이생활	1930. 8.			
눈 서방님과 고드름 각시	어린이	1930.12.		조선동요	*
초가을밤	아이생활	1930.			
소년행진곡	아이생활	1930.			
가을철	아이생활	1930.			
종소리	아이생활	1931.			
구슬 병대	아이생활	1931. 07.		1931.6	*
가을추수	아이생활	1931.			
해변의 소녀	아이생활	1931.08.			*
해변의 소녀	조선일보	1933.06.25			
가마귀떼	아이생활	1931. 11.			
쥐들의 회의	아이생활	1931. 12.			*
흰눈	아이생활	1932. 02.			
진달래	아이생활	1932. 05.	1932.4.29		*
나물 캐든 색씨	아이생활	1932. 05.	1932.4.29		*
넙뛰기	조선일보	1933.2.14	완		
언제 오시나	매일신보	1933.04. 20.			
봄마지 노래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버들피리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1	

할미꽃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0	
봄바람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봄이 오면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4	
종달새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7	
봄은 옵니다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3	
봄비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7	*
강남 간 제비야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8	
농촌의 봄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진달래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9	*
나물 캐든 색씨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8	*
소경 잡기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6	
누가 오나요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7	*
나제비아(傳來)		1933.05. 18.	설강동요집		
나물 캐는 노래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2	
삼월 삼짇날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봄노래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5	
여름밤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4	
고추잡자리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8	
구슬 병대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07.	*
남남이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1.5 (아이생활)	*
개암이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2	
그림자		1933.05. 18.	설강동요집	1917	
여우가 시집간다네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6	
버레 음악회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나팔꽃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8	
굿노리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1	
해변의 소녀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9	*
쟁이 쟁이 쟁이야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가을의 달밤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7	
가을바람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6	
갈매이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9	
강강수월래		1933.05. 18.	설강동요집		
허수아비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4	

달 낙기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2	
반딧불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반달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0	
갈까마귀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숨박꼭질		1933.05. 18.	설강동요집	1918	
누나 생각		1933.05. 18.	설강동요집	1918	
밤나무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4	
외기력이		1933.05. 18.	설강동요집	1919	
가을 추수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тол감나무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외로운 갈닐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7	
솟꼭질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산스길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8	
눈이 오네		1933.05. 18.	설강동요집	1918	
겨울 아침		1933.05. 18.	설강동요집	1917	
흰눈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1	
야학교 반장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눈사람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2	
싸락눈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6	
눈 온 아침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9	
공장 누나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9	
쥐들의 회의(會議)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
나무꾼 아이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1	
눈 서방님과 고드름 각씨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동화시	*
선달 그믐날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7	
설날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3	
자장가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3	
입분 달		1933.05. 18.	설강동요집	1919	*
자장 노래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1	
숨박꼭질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3	
별! 별!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0	
새 봄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8	
그립은 옛 봄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4	

六月		1933.05. 18.	설강동요집	1931	
무지개		1933.05. 18.	설강동요집	1921	
가을밤				1930	*
눈 온 아침				1917	
보시랑눈				1931	
눈오는 날				1931	
孤兒의 昇天				1930 동화시	
남남이	아이생활	1933. 05.			*
풀잎배	조선일보	1933.6.30		완	
가을밤	아이생활	1933.09. 02		완	*
추석 노래	아이생활	1933. 10.			
군악대	동아일보	1934.07. 08.			
미끄럼타기	동아일보	1934.07. 11.			
깁청 거영청	동아일보	1934.07. 17.			
봉사꽃	동아일보	1934.07. 18.			
아기 노래	조선중앙일보	1934.07. 19.		전래동요 개작	
쟁아 쟁아	동아일보	1934.07. 20.			
비스방울	조선중앙일보	1934.08. 04.			
가락지 노래	한글	1935. 04.			
갈릴배	아이생활	1935.09.02		완	
별 하나	조광	1936. 11.			
딸레	조광	1936. 11.			
물오리	아이생활	1937. 02.			
해야 해야 붉은 해야	아이생활	1937. 03.			
새 잡으러 갈가나	아이생활	1937. 04			*
호박꽃초롱	동아일보	1938.08. 28.			
풍경	동아일보	1938.09. 04.			*
봄마지 가자	동아일보	1940.03. 03.			
해야 해야 붉은 해야	초원	1939.03. 20.			
달아 달아	초원	1939.03. 20.			
별	초원	1939.03. 20.			*
비야 비야 오너라	초원	1939.03. 20.			
동무	초원	1939.03. 20.		전래동요 개작	*

나비	초원	1939.03. 20.			
콩새야 팔새야	초원	1939.03. 20.			*
꼬꼬닭아	초원	1939.03. 2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초원	1939.03. 20.			
오리	초원	1939.03. 20.			

2. 동화·소년소설

작품명	발표지	발표일	
백조호	『아이생활』	1926. 2. 20.	
황금생선	『동아일보』	1926.7.21-7. 22	
종달새와 보리	『동아일보』	1926. 8. 5	
숫닭의 알	『동아일보』	1926. 8. 19-8. 26	
황금새	『동아일보』	1926. 9. 5	
장미의 꿈	『동아일보』	1926. 9. 16	
천하장사 명도령	『동아일보』	1926. 9. 22-9. 28	
보기드문 총각	『동아일보』	1926. 10. 25-10. 27	
애국의 물	『동아일보』	1926. 11. 16-11. 17	
메리의 나막신	『동아일보』	1926. 12. 26-12. 28	
길동의 회개	『동아일보』	1927. 2. 20-2. 21	
실 뽑는 색씨	『동광』	1927. 2.	
세 가지 선물	『동아일보』	1927. 3. 23-3. 25	
큰 게 정벌	『중외일보』	1927. 5. 23-5. 27	
겁쟁이 토끼	『동광』	1927. 5.	
일사람 바이올린	『아이생활』	1927.	
진정한 동무	『아이생활』	1927.	
효자 영팔이	『아이생활』	1927.	
貞男의 설음	『아이생활』	1927. 9.	
悉壯한 죽엄	『아이생활』	1927. 11.	
메리	『중외일보』	1928. 7. 23-7. 25	
말하는 말	『아이생활』	1928.	
두 형제와 호랑이	『조선일보』	1929. 10. 3-10. 9	없음
호랑이의 신의	『동아일보』	1929. 10. 10-10. 12	

吉童이의 꿈	『아이생활』	1929.	
파랑새	『아이생활』	1929.	
두 형제와 잉어의 구슬	『아이생활』	1929.	
잠자리	『조선중앙일보』	1934. 8. 2.	
눈사람	『동아일보』	1936. 1. 26	
과꽃남매	『동화』	1936.2	
쥐들의 會議	『사해공론』,	1936. 1.	
제비의 이야기	『아이생활』	1938.	

3. 동극

작품명	발표지	발표일	
어린音樂家	『아이생활』	1926.	
꿈에 본 仙女	『아이생활』	1926.	
老獸의 音樂會	『아이생활』	1929.	
양양 양돼지	조선일보	1933.8.19-18	완
숨박꼭질	『아이생활』,	1933. 9.	
크리쓰마쓰 추리	『아이생활』,	1933. 11.	
달밤	『동아일보』,	1937. 10. 17	

4. 아동문학평론

작품명	발표지	발표일
어린이의 동무『안더-센』선생 -51년제(祭)를 맞고	『동아일보』	1926. 8. 1-8. 4
童話의 元祖 안더-센氏 -五二年祭를 마지하여	조선일보	1927.8.1
全朝鮮少年聯合會 發起大會를압두고 一言함	『동아일보』	1927. 7. 29-7. 30
心理學上 見地에서 兒童 讀物 選擇	『중외일보』	1927. 11. 22-11. 26
西北 地方 童話 巡房記	『아이생활』,	1927. 11.-1927. 12.
丁卯 一年間 朝鮮 少年運動 一氣分運動에서 組織運動에	『조선일보』	1928. 1. 11-1. 12

少年運動의 指導 精神	『중외일보』	1928. 1. 13-1. 14
少年運動의 當面 課題 - 崔靑谷 君의 所論을 駁함	『조선일보』	1928. 2. 8-2. 16
認識 錯亂者의 排擊 - 曹文煥 君에게 與함	『중외일보』	1928. 3. 20-3. 24
理論 鬪爭과 實踐的 行爲 - 少年運動의 新展開를 爲하야	『조선일보』	1928. 3. 25-4. 5
어린이날을 當하야 어린이들에게 - 먼저 조선을 알고 수준이 힘써 뛰어나는 인물이 되자	『동아일보』	1929. 5. 4-5. 5
어린이날을 맞으며 學父妹님께!	『중외일보』	1929. 5. 6
童謠 雜考 斷想	『동아일보』	1929. 7. 1-7. 4
새해를 마지하며조선의어린이들에게 - 먼저 곳건한 뜻을 세우라	『동아일보』	1930. 1. 3-1.7
古代 兒童 生活의 研究	『동아일보』	1930. 3. 3- 4. 5
藝術教育의 理論과 實際	『조선일보』	1930. 9. 23- 9. 27
세계 어린이의 동무 안더-센 선생	『아이생활』	1931. 1.
少年文藝運動의 當面에 任務	『조선일보』	1931. 1. 30 - 2. 10
童謠運動의 當面 任務	『아이생활』	1933. 1.
가난한 설음-어린 동생 哲洙에게	『아이생활』	1931. 10
어린누이동생에게	『어린이』	1931. 10
東京잇는 兄님에게	『어린이』	1931. 11.
경성 동무에게	『어린이』	1931. 12.
北滿잇는 동무에게	『어린이』	1932.1.
農村의 봄 -서울유학간 동무에게	『어린이』	1932.4.
現代 童謠 研究1,2,3,4	『아이생활』	1932. 7. 8.9.10
새해 새날에 -어린 동무들에게	『아이생활』	1933. 1.
健實한 文學 樹立	『조선일보』	1933. 1. 2
朝鮮에 燈臺가 되라	『아이생활』	1933. 3
머리말	『雪崗童謠集』	1933. 5. 18
동요 짓는 법(童謠 作法)	『雪崗童謠集』	1933. 5. 18
五月과 어린이날	『아이생활』	1933. 5.
童心과 藝術感	『학등』	1934. 7.
童謠 藝術의 理論과 實際	『조선중앙일보』	1934. 7. 1-7.6
朝鮮 童謠와 鄉土 藝術	『동아일보』	1934. 7. 9 -7. 12

兒童과 映畵	『조선영화』	1936.10
盧良根 氏의 童話集을 읽고	『동아일보』	1938. 12. 27
	조선일보	1939.5.7
안데르센의 生涯와 藝術 - 그의 死後 六十年을 當하여	『동아일보』	1940. 8. 2-8.6

김태오 생애 연보

- 1903년 7월 16일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금계리 124번지에서 울산 김씨
운흥(金允興)과 광산 김씨 덕연(金德然)의 차남으로 태어남
- 1918년 3월 광주 송일학교 졸업
- 1918년 여름 '양파정'에서 동지 10여명이 모여 소년단 조직(조선 소년
운동의 최초 발산지는 광주)
- 1921년 평안북도 의주 양실학원 교사로 근무 (아이생활, 1927.11)
- 1922년 11월 6일 황해도 수해복구 제회서선 강연단 일행으로 의주 야
소교 서화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한 후 수해복구를 지원하기 위
해 후원, 손목의 시계를 내놓음
- 1925년 5월 1일 광주어린이회에서 주최하여 열린 '어린이날 기념식'이
양림기념각에서 있었음. 김태오의 사회로 소년소녀연합 토론
회를 개최하였는데 청중이 500여명에 달하였음
- 1925년 9월 8일 광주청년회에서 남조선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
데 음악부원으로 대회를 준비하기로 함
- 1925년 11월 나주 노동야학부 주최 조선·동아일보 광주지국, 나주청년
회 후원으로 나주청년회관에서 음악연극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광주여자청년회에 초청되어 4현금 독주를 함
- 1926년 신간회 광주지부 총무, 광주기독교소년회 임원
- 1927년 조선소년연합회 창립 준비위원
- 1927년 7월 30일 오월회와 소년운동협회가 손을 잡고 조선소년연합회
창립발기대회를 개최하고 남천석, 방정환, 정홍교, 최청곡 외 7인
과 함께 창립준비위원으로 선출됨.(참가단체는 4개연맹체와
64개단체)
- 1927년 8월 10일부터 29일 까지 『아이생활』사의 파견, 동아일보, 중외
일보 후원 서북지방 순회 동화강연회 개최(8월 11일 신의주,

13일 의주, 15일 안동현, 16일 선천, 17일 정주, 18일 안주, 19일 평양, 22일 황주, 23일 사리원, 24일 신천, 26일 재령, 27일 해주, 29일 인천, 30일 귀경)

1927년 8월 서울소년회 고문 (서울소년회 회장 고장환)

1927년 8월 14일 평안북도 의주읍 기독교소년회 및 의주소녀연합으로 소년회연합동화회에서 동화회를 열었음

1927년 9월 1일 정지용(鄭芝鎔), 윤극영(尹克榮), 한정동(韓鼎東), 신재항(辛在恒), 고장환(高長煥), 유도순(劉道順) 등과 함께 '조선동요연구협회'를 창립

1927년 9월 17일 광주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광주의용소년회 창립총회에서 강순명과 함께 지도위원으로 위촉

1927년 10월 5일 광주 흥학관에서 열린 광주청년동맹창립대회에 사회를 봄

1927년 10월 15일 광주소녀연합집행위원회에서 강석원(姜錫元)과 함께 조선소년연합회의 창립총회 전말을 보고하고 1927년 10월 30일 사립보통학교강당에서 김태오가 동화강연, 11월 2일에 소년소녀현상 웅변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함)

1927년 10월 16일 조선소년연합회 창립대회에서 위원장에 방정환(方定煥), 부위원장에 전백(全伯), 강석원(姜錫元), 최청곡(崔靑谷), 정홍교(丁洪敎)와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

1927년 10월 29일 광주 흥학관에서 열린 신간회 광주지회 창립총회에서 간사로 선출

1927년 10월 31일 제1회 신간회광주지회 간사회에서 출판정치문화부 간사로 위촉 (신간회 광주지회 회장 최흥종)

1927년 11월 26일 광주 흥학관에서 개최된 광주청년동맹 창립총회에서 위원으로 선출

1927년 12월 15일 만주 동포의 구축사건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 유지들과 동정금을 모금하면서 사립보통학교강당에서 재만동포 옹호

동맹 결성, 각 단체대표와 지방유지 수 백 명이 회합하여 광주 경찰서에서 수십 명의 정사복경관을 배치하여 단체대표가 아닌 개인의 참석을 불허하였으나 임시의장 정수태씨 사회로 개최하고 최흥종, 전용기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위원장은 정수태, 심선덕, 최상식, 김상순, 김용철, 현준호, 최한영, 김양실, 국채진, 강태성, 문태곤, 최흥종, 전도, 서광호, 최장진, 서봉옥, 인도환, 김태오를 위원으로 선정하였음.

1928년 1월 17일 광주사립보통학교에서 광주소년연맹 대강연회 개최

1928년 4월 20일 '광주 피의자 사건'의 2차 검속에 걸려 강석원, 김만년, 김판암, 김재천, 박광신 등과 함께 구금되었다가 방면됨

1928년 4월 28일 무등산 증심사에서 열린 광주기독교청년회 11회 정기 총회에서 최흥종(崔興琮), 서로득(徐路得), 김응규(金應圭), 최영욱(崔泳旭), 조중억(趙重億), 김승찬(金承贊), 최영균(崔煥均)과 이사로 선출

1928년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무등산 증심사에서 조선기독교 청년회 전남연맹대표로 광주기독교청년회와 공동으로 농촌지도자양성강습회에서 「소년운동의지도적 원칙」을 강연

1928년 8월 5일 전남소년연맹 조직하려는 집회를 일경이 불허하자 무등산 증심사에서 비밀회합을 갖던 중 일경이 증심사를 포위, 출석하였던 40여명을 총검거 당하여, 대부분 석방되었으나 김태오(金泰五), 유혁(柳赫庇), 조병철(曹秉哲), 강자수(姜子洙), 고장환(高長煥), 정홍교(丁洪教)등 7명만이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금고 4월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소년운동가의 첫 번째 희생자

1929년 1월 광주서북여자야학원(북문밖교회)원장

1929년 1월 광주소년연맹 위원장에 선출(회원 383명, 소화 2년 10월 설립)

1929년 4월 조선소년영화제작소에서 영화화를 추진하는 간사에 선출

1929년 6월 5일 임예술(任禮述)과 혼인

1930년 일본유학, 니혼대학 법문학부 문학과 재학 (미학 미술사 전공)

1930년 1월 기독교청년회 지육부주최 재동경 조선소년 동화동요대회
에서 「옥동이와 앵무새」 구연, 「네가지의부탁」이라는 훈화를 함

1930년 9월 28일 장남 김기웅 출생

1932년 2월 조선일보 광주지국 총무 겸 기자

1932년 12월 25일 장녀 김기주 출생

1933년 6월 『설강동요집』(한성도서주식회사)출판

1934년 2월 4일 차녀 김기숙 출생

1934년 7월 9일 조선문예가협회 회원 자격으로 「한글 철자법시비에 대
한 성명서」 발표에 참여

1936년 1월 6일 차남 김기철 출생

1936년 3월 설강동요시집 『동방의광명』 발간하려다 일제의 검열에 걸
려 출판하지 못함

1936년 4월 29일 조선중앙기독교 청년회소년부가 경성 기독교 청년회
관에서 주최한 동화의 밤 「둔길이」 등을 강연, 동화구연함

1936년 12월 23일 조선소년총연맹, 경기도소년연맹, 경성소년연맹의
해체를 만장일치로 합의

1937년 조선아동애호연맹 발기 창립준비위원으로 참가

1938년 5월 중앙보육학교 교무주임

1939년 5월 25일 김기진, 김광섭, 김상용 외 문단제씨의 발기로 시집 『
초원』출판기념회 가 명치제과 3층에서 개최함. 출판기념회 사
회는 임화가 봄

1940년 4월 중앙보육학교 서무주임

1945년 9월 10일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린 전문대학교 교육응급
대책협의회에서 중앙보육학교 소속 직원으로 참가

1945년 11월 중앙여자전문학교 설립자 겸 교수 취임

1946년 3월 13일 종로 YMCA에서 열린 전조선문필가협회 추천회원으로
등재

1947년 5월 중앙여자대학교 설립자 겸 교수(부학장) 취임

1948년 3월 조선소년운동자연맹 주최의 어린이날 행사를 덕수궁에서 기념식을 거행

1948년 12월 27일 시공관에서 열린 민족정신 양양 전국문화인 총결기 대회에 초청

1949년 12월 17일 한국문학가협회 추천 회원으로 등재

1949년 공보처에서 제정한 「건국의 노래」작사

1949년 4월 30일 아동문학가협회결성(최고위원 박영종, 김동리, 임원호)

1949년 『美學概論』(정음사)출판

1950년 『民族心理學』(동방문화사)출판

1954년 2월 중앙대학교 총장서리 취임, 『心理學』(을유문화사)출판

1955년 『教育學概論』(을유문화사)출판

1956년 3월 중앙대학교 총장서리 사임, 『教育心理學』(을유문화사)출판

1956년 4월 서울대학교 강사(미학, 심리학, 교육학 담당)

1957년 7월 17일 제9회 고등고시 행정과 위원으로 위촉

1958년 7월 31일 제10회 행정과 고등고시 위원으로 위촉

1960년 9월 14일 제12회 고등고시 위원으로 위촉

1963년 3월 1일 대동단 사건으로 민강(閔강), 정남용(鄭南用), 이신애(李信愛) 등과 건국공로훈장 단장을 수여받음

1964년 6월 경향신문 연재소설 『학용산』(『鷄龍山』, 박용구 작)이 풍속을 해하는 외설혐의로 입건하고 각계저명인사 40여명의 의견을 들어 증거로 보전하기로 한 바 유진오(고려대총장), 황산덕(법철학자), 백철(문학평론가) 등과 함께 의견 수렴 대상자가 됨. 당시 심리학자로 소개되었음

1993년 국가보훈처는 국민훈장 애족장을 수여함

1976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흑석동 270의 36에서 사망

2013년 10월 국립묘지에 안장

김태오의 삶과 아동문학

1. 김태오의 아동문학

근대 도시 광주의 첫 시인은 김태오다. 그동안 박용철과 김현승을 광주 문학의 앞자리에 호명하였던 것은 김태오가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광주에서 활동하다가 1933년에 동요집 『설강동요집』을 낸 뒤에 서울로 생활의 터전을 옮겼고, 1939년 시집 『초원』을 냈으나 1940년대에는 초반에 발표한 몇 편의 작품을 끝으로 작품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혔다. 김태오의 문학은 소년운동과 동요운동의 맥락 속에 있다. 소년운동과 동요운동의 한가운데 있었다. 소년운동과 동요운동이 따로 전개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이면서 둘이었다. 청년운동이 소년운동을 낳았고, 소년운동이 어린이를 주체로 호명하였고 그것이 동요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천도교는 ‘어린이’의 발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수운 최재우가 일으킨 종교인 천도교의 핵심교리서는 『내수도문』이다.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천도교는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고 잡지 『개벽』을 창간하여 민족 계몽운동을 주도하였다. 천도교는 여러 단체를 두고 있었는데 천도교 청년회도 그중 하나였다. 천도교청년회는 천도교소년회를 두고 소년운동을 시작했다. 천도교소년회는 방정환이 이끌었다. 방정환은 1920년 8월 『개벽』에 ‘어린이노래’를 발표, ‘어린이’라는 존재를 호출하였다. 그리고 1922년 5월 1일 천도교소년회 주체 어린이날을 개최하기까지 했다. 그날 “어린 사람을 빈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발이나 목욕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라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방정환은 소년운동을 어린이 인권운동이자 문화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방정환은 일본 유학 중이던 1923년 3월 16일에 손진태, 조재호, 정순철, 고한승, 진장섭, 윤극영과 함께 색동회를 조직하고 『개벽』을 낸 개벽사에서 어린이 전문잡지 『어린이』를 창간하였다. 『어린이』의 「창간사」에는 “새와 같이 꽃과 같이 앵두 같은 어린 입술로, 천진난만하게 부르는 노래, 그것은 고대로 자연의 소리이며, 고대로 한울의 소리입니다. 비둘기와 같이 토끼와 같이 부드러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면서 뛰노는 모양, 그대로가 자연의 자태이고 그대로가 한울의 그림자입니다. 거기에는 어른들과 같은 욕심도 있지 아니하고 욕심스런 계획도 있지 아니합니다. 죄 없고 허물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한울나라! 그것은 우리의 어린이의 나라입니다.”라고 썼다. 『어린이』를 발간하는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천도교소년회 주최 어린이날은 1회로 끝이 났고, 1923년 5월 1일에 ‘소년운동협회’가 주최하는 제1회 어린이날을 개최하면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어린이’를 어른들의 종속물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을 주문하고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양육과 교육, 위생 관리에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단지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어린이』가 그 역할을 했다.

어린이 전문잡지 『어린이』가 창간된 이후 『신소년』이, 1925년에는 『선명』, 『새벗』, 1926년에는 『소년계』, 『아동세계』, 『아희생활』, 『별나라』, 『영데이』 등이 연이어 창간되었다. 이른바 어린이 잡지의 전성시대가 된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많은 잡지가 출현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글을 쓸 수는 필자들이 한정된 것이다. 당시의 작가들로는 어린이 잡지의 지면을 채울 수가 없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독

자투고'를 받기로 했다. '독자투고' 받기 전략은 적중했다. 절대적인 독자층이었던 만큼 어린이/학생들의 투고가 선별할 수 없을 만큼 몰려들었다. 어린이/학생이 쓴 동요가 지면에 실리면 동요에 곡이 붙어 다시 발표되었다. 그래서 어린이 잡지는 동요운동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 어린이들의 작품에 어른 작곡가들의 합작품이 탄생했고 문학이었던 동요가 부르는 노래 동요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어린이 잡지에 작품을 투고한 어린이들은 해가 거듭함에 따라 작가로 성장했다. 윤석중, 서덕출, 이원수, 목일신, 강소천 등이 어린이 잡지 투고자에서 작가로 성장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윤석중은 15살이던 1925년 4월 『어린이』에 동요 「오뚜기」를 발표한 이후 잡지와 신문을 오가면서 작품을 발표하여 천재 소년으로 불렸다. <중외일보>에 발표한 「우산」은 「오뚜기」, 「낮에 나온 반달」 등과 함께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다. 한편으로 졸업을 앞두고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나선 학우들이 퇴학과 정학을 당하자 학교를 자퇴하는 결단을 내렸다. 한국 동요의 아버지로 기록된 것도 정신적인 토대가 있었다. 서덕출은 대청마루에서 다리를 다친 후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살았던 소년으로 1925년 4월호 『어린이』에 「봄편지」가 입선동요로 선정된 뒤 창작에 열중하였다. 윤석중은 1927년 8월 언양의 신고송, 대구의 윤복진과 함께 울산에 사는 서덕출을 찾아가 우정을 나누고 「슬픈밤」이라는 동요를 공동으로 창작하였다. 훗날 박태준이 곡을 붙여 『아동가요 300선』¹⁾에 수록되어 널리 알려졌다. 동요 「봄편지」와 더불어 「눈꽃송이」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원수는 1926년 4월 『어린이』에 「고향의봄」이 입선동요로 뽑혔고, 지속적인 투고와 창작은 그를 동요작가로 성장하게 했다. 후에 부인이 되는 최순애 역시 『어린이』에 동요 「오빠생각」이 입선동요에 뽑혔다. 두 사람은 잡지 『어린이』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부부가 되었다. 신문지면에 작품 투고를 시작했던 소년 목일신은 1928년 <동

1) 『아동가요 300선』, 농민생활사, 1936.1.15.

아일보>에 「산시내」를 발표한 뒤, 193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신춘현상에 당선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는데 1932년 『아희생활』에 발표한 작품 「자전거」를 비롯하여 「누가 누가 잠자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한정동은 1925년 동요 「소금쟁이」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고, 1925년 5월 『어린이』에 「두름이」(「따오기」)를 발표했다. 이렇게 동요는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잡지의 발행과 함께 어린이들의 창작활동으로 일으킨 동요운동은 민족운동이나 다름없었다. 어린이를 주체로 부상시키며 어린이 문화운동이자 어린이 인권운동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소년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잡지는 어린이 중심의 행사를 마련하여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동요운동을 확산시켰고, 동요창작론과 동요 지도론 등으로 지평을 확장하는 촉진제가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동요단체가 결성되고 동요집이 출판되었다. 동요운동의 성과는 청년들이 먼저 나서서 이끈 소년운동이 자생적인 문화운동이 되었고 그것은 애국심을 고취하는 민족혼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동요가 문학의 장르에서 부르는 장르의 변화로 이어졌고, 정서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됨으로써 식민지의 암담한 사회현실을 위로해주었다. 소년운동과 동요운동은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아동문학이 탄생했고 아동문학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일제의 강제점령에 분노하고 혁명을 꿈꾸며 해외로 망명하여 온몸으로 항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 이론으로 무장하여 항일운동을 편 사람들이 있었고, 독립군을 조직하거나 비밀결사체를 조직하여 일본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진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작품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한 작가들이 있었고, 우리말을 지키려 몸부림친 한글학자들이 있었다. 민족운동으로 동요운동은 어린이를 주체로 부상시키며 많은 작품이 발표되었다. 김태오도 동요 이론가이자 동요 작가로 활동했다. 그는 특히 동요창작과 관련한 동요의 이론체계를 확립하려 애썼다. 그가 쓴 「童謠 雜考 斷想」²⁾을 비롯하여 수편의 글에는

동요의 장르개념과 동요를 창작하는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現代 童謠 研究」³⁾에는 동요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동요란 것은 예술적 냄새가 풍부한 어린이들 노래이니, 마치 종달새가 맑아게 개인 푸른 하늘을 볼 때 노래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이, 제절로 터져나와서 부르는 어린이들 시(詩)를 동요라고 한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아동성이 있고, 가장 숭고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이요, 어운(語韻)까지 음악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동요 유희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위의 글에서 보여준 동요의 개념에 이어 동요를 잘 쓰려면 첫째로 “느낌(感興)이 생기고 사랑스러운 맘(愛着)이 생기고 노래 쓸 맘이 생기는” “예술감”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 “한번 놓치면 붓잡기가 어려운” “상상(想像)의 시상(詩想)”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동요창작이론은 그가 동요를 쓰면서 깨우친 것이기도 하다. 그가 쓴 동요에는 한자가 들어 있지 않다. 그의 『雪崗 童謠集』⁵⁾에는 동요를 쓴 시기를 밝히고 있는데 처음으로 동시를 쓴 해는 「그림자」, 「겨울아침」, 「눈온아침」 등을 쓴 1917년이다. “가난하고 설음 많은 우리 농향(農鄕)의 어린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써 앞길을 열어줄까함”⁶⁾에서 비롯되었다.

김태오가 동요를 쓰고, 동요 창작이론을 소개하고 비평 활동을 한 것은 소년운동과 더불어 금정교회 유치부와 주일학교 교사였던 것과 관련이 깊다. 조선야소교 주일학교연합회에서 발행한 기독교 계열의 잡지 『아희생활』의 주요 필진으로 활약했다. 1926년 3월 창간하여 1944년 4월 폐간 『아희생활』 1권 2호의 「아희생활사우방명」에는 광주 최흥

2) 동아일보, 1929. 7. 1.~1929. 7. 4.

3) 『아이생활』, 1932. 7.~1932. 10.

4) 김태오, 「現代 童謠 研究」, 『아이생활』, 1932. 10.

5) 김태오, 『雪崗 童謠集』, 한성도서, 1933.

6) 김태오, 「머리말」, 위의 책, 한성도서, 1933. 5쪽.

종, 김태오, 김창호, 김영식, 강태성, 장맹섭, 최영균, 김형민, 김동명, 이수현의 이름이 올라있다. 최흥종은 목사였고, 장맹섭은 훗날 김현승의 장인이 되는데 금정교회 장로였다. 1주에 5원 하는 주식을 최흥종은 6주, 김창호는 5주, 김영식, 강태성은 각 2주, 김태오는 2주, 장맹섭, 김동명, 김형민, 이수현, 최영균은 각 1주를 소유한 『아희생활』의 주주이기도 했다. 최흥종 목사가 아희생활사의 감사였던 것은 기독교 안에서 가진 영향력을 말해준다. 1927년의 『아희생활』 2권 3호의 아희생활사 이사에 김태오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흥종과 김태오는 아희생활사의 주주이자 임원으로 『아희생활』 발행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 한 편으로 그는 조선동요연구협회 결성에도 참여했다.⁷⁾ 조선동요연구협회는 조선소년운동 문화전선에서 조직된 단체로 동요의 연구와 현실을 기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그런만큼 소년문에 대강연회를 개최하고 동요, 음악, 승무대회를 개최하고 『년간동요집』을 발간하는 동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조선동요연구협회에는 김태오를 비롯하여 방정환, 정지용, 유지영, 흥난파, 윤극영, 윤석중, 신고송, 서덕출, 최순애, 이원수, 윤복진, 유도순, 박팔양 등이 함께했다. 1927년 10월 16일 조선소년연합회 창립대회에서 방정환을 위원장으로, 김태오와 강석원, 최청곡, 정홍교는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는데 김태오는 1929년 일본의 니혼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 중에도 소년운동 지도자로서 여러 매체에 소년운동과 관련한 글을 발표했다.

여러 매체에 작품을 발표하고 있던 김태오는 『아희생활』 동요에서 동화, 동극, 동요이론까지 다양한 장르를 창작하여 작품을 발표했다. 세계명작동화와 안데르센 동화도 번역하고 소개하는 등 어린 독자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었다. 그가 『아희생활』에 발표한 작품은 동요/동시, 동화, 동극, 평론과 번역작품이 수 편에

7) 동아일보, 1927. 9. 3.

이른다. 아동문학가로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적인 사명감이 작용했다. 그의 동극에는 기독교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대표적으로 동극 「어린음악가」와 「꿈에 본 선녀」가 기독교 사상의 색채가 깊다.

동극 「어린음악가」의 주인공 인남이는 13살이다. 바이올린 연주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아버지가 남긴 ‘짜요린’으로 열심히 연습해도 거친 소리만 나서 운다. 그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등장하여 인남이에게 ‘짜요린’연주를 부탁하자 마지못해서 연주를 시작하였으나 아이들은 인남이를 놀리면서 ‘짜요린’ 소리 흉내를 낸다. 그러자 인남이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한다. 울다가 잠이 든 인남이의 꿈속에 ‘짜요린’연주를 하는 백발노인이 두 손을 벌려 안아주는데 아버지의 영혼이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는 인남이를 어떤 청년이 깨운다. 그 청년은 인남이 아버지 월파선생의 제자였다. 사정을 알게 된 청년은 인남이에게 ‘짜요린’ 연주를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한 뒤 인남이 아버지 묘소에 참배하고 인남이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간단한 서사지만 어린이의 심정과 시선을 초점화하여 서사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아이들을 등장시켜 노래하고, 꿈속에서 만난 아버지와 대화도 노래다. 즐겁고 경쾌한 느낌으로 어린이들을 감화시키는 장치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기독교를 상징하고 기도를 통해서 소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의 불안한 심리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

동극 「꿈에 본 선녀」도 「가극」이다. 주인공 순옥이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해질녘 동무들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다 그만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선녀가 ‘선국’을 찾아오면 즐겁게 놀아줄 것이라고 한 뒤에는 여왕이 나타나 어여쁜 마음을 가졌으니 ‘선국’으로 초대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무들의 피임에 넘어가지 말고 ‘불상한 사람’을 구원하고 동정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잠에서 깬 순옥이는 찾아오라는 ‘선국’을 찾아가 보기로 하는데 그때 친구들이 노래하며 등장하여 무엇을 하고 있었나

고 묻는다. 실컷 잠을 잤다고 대답한 순옥이는 ‘선국’을 찾아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들은 순옥이가 아직 잠이 깨지 않았고 바보라고 놀리면서 막을 내린다. 두 작품 모두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둔 창작극이다. 동요극인 셈인데 극적인 효과와 함께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 동극에 동요를 넣어 노래로 부른 것은 분위기와 감정 전달에 매우 효과적인 장치다.

그는 1930년 『아희생활』 5권 3호에 “한결가튼 도움으로 더욱 새힘과 줄기찬 희망으로 이만큼 자라고 더욱 충실”해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비록 말과 풍속이 다른” 일본에서 어린 독자들에게 「새로 드리는 네 가지 부탁」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을 잘 아는 사람이 됩시다.

둘째, 조선말(言語)과 글(文字)을 잘 아는 사람이 됩시다.

셋째, 조선력사(歷史)를 잘 압시다.

넷째, 굳건한 뜻을 세웁시다.

조선이 처한 현실, 조선의 말과 문자, 조선의 역사를 잘 알고 굳건한 뜻을 세우라고 부탁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리고 있다. 그리고는 험벗고 굶주리는 현실을 알고 모세와 잔다르크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하고, 일본 말은 할 줄 알면서 조선말과 글을 모르면 안 되며, 이울곡, 이순신, 강감찬 같은 훌륭한 인물과 세계최초의 인쇄술을 가진 역사가 있었으니 뜻을 세워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년운동의 지도자다운 발언이다. 그리고는 『아희생활』 3권 2호부터는 「말하는 말」이라는 이태리 명작동화와 안데르센동화도 번역해서 소개하였다. 「동요운동의 당면임무」와 「현대동요연구」를 연재했다. 그런 창작활동이 1933년에 동요집 『설강동요집』⁸⁾발행으로 이어졌다. 그는 소년운동을 시작하

8) 김태오, 『雪崗 童謠集』, 한성도서, 1933.

기 전부터 동요를 창작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동요를 쓰는 방법, 동요에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동요 작가이자 동요 이론가로 성장하였고, 동요창작과 관련한 동요의 이론체계를 확립하는데도 기여한 것이다. 김태오의 동요 중에 잘 알려진 동요는 「봄맞이 노래」와 「강아지」다.

동무들아 오너라 봄맞이가자
너도나도 바구니 옆에끼고서
달래냉이 씹바귀 나물개오자
종다리도 높이떠 노래부르네

동무들아 오너라 봄맞이가자
시냇가에 앉아서 다리도쉬고
버들피리 만들어 불면서가자
꾀꼬리도 산에서 노래부르네
「봄맞이 가자」전문⁹⁾

농촌의 봄날 풍경 중의 하나를 잘 잡아낸 동요로 지금은 잘 부르는 동요는 아니지만 「봄맞이 가자」는 동요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우리집 강아지는 복슬강아지/어머니가 빨래가면 멍멍멍/졸랑졸랑 따라가며 멍멍멍”(「강아지」)도 시골집에서 마당에서 기르던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니던 추억이 되살아나게 하는 동요다. 강아지와 함께 마을을 돌았던 기억을 더듬게 하고 어린이가 되게 한다. 욕심 없이, 티 없이, 맑게 뛰어놀았던 어린 시절을 옮겨놓은 동요는 지금도 부르는 동요로 남아있다. 그가 쓴 동요들은 어린이들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9) 발표 당시의 원문의 제목은 1930년에 쓴 「봄맞이노래」이며, 원문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약간 다르다.

2. 김태오와 소년운동

광주에서 시작된 조선 소년운동의 앞자리에 김태오가 있다. 일제강점기의 소년운동은 항일운동이었다. 소년운동이 전개된 데에는 일찍이 근대교육을 받은 덕분에 주체적인 자질을 갖추게 된 것에 있다. “근대 주체의 대표적 표상이며,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선취해야 하는 이상적 주체 모델”¹⁰⁾이 된 소년들은 “항상 생활 불안과 사상의 고통으로 불만의 기분과 태도를 취치 안할”¹¹⁾ 수 없는 일제하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기표로 등장했다. 소년들이 사회변혁의 주인공으로 부상한 극적인 일이 벌어짐으로써 소년운동은 소년회, 동화회, 독서회, 야학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지역운동으로 출발했다는 점, 운동의 성격을 철저히 실력양성론에 맞추었다는 점, 운동의 대상 연령을 뚜렷이 범주화했다는 점, 분명한 목표의식을 내세웠다는 점”¹²⁾은 소년운동의 역사성을 담보한다.

김태오는 1903년 7월 16일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읍 금계리 124번지에서 김윤흥(金允興)과 김덕연(金德然)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처음으로 소년운동에 나선 것은 1919년 부동교 아래 작은 장터에서 열린 광주의 3·1만세 운동에 참여한 뒤 여름이다. 김태오가 “1919년 여름 양파정에서 동지 십여인이 회집하여 고고의 성을 발하여 소년단을 조직하고 씩씩한 동지를 규합”하면서 조선 소년운동의 최초 발상지는 “광주”¹³⁾가 되었다. ‘양파정’에서 결성한 광주소년단은 일제에 대항하는 조선 소년운동의 출발점이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일어난 구체적 실천 운동”¹⁴⁾이 되었다. 김태오는 16살에 불과했다.

10)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67쪽.

11) 김태오, 「정묘 일년간 조선 소년운동」, 조선일보, 1928. 1. 12.

12) 최명표, 「국권침탈기 전북 지역의 소년운동」, 『한국근대소년운동사』, 선인, 2011. 290쪽.

13) 김태오, 「소년운동의 당면과제」, 조선일보, 1928. 2. 12.

14) 최명표, 「‘조선적’ 소년운동의 논리와 실천」, 『한국근대 소년문예운동사』, 경진, 2012. 195쪽.

광주에서 소년단을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한 뒤 진주와 안변 등에서도 소년단을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천도교에서도 1921년 5월 천도교 소년회를 출범시켰다. 소년운동이 민족운동으로서 파괴력을 지니고 있음을 간파한 천도교단의 결단이었다. 후에 종단의 유지를 위하여 천도교단이 일제와 협력하게 되면서 천도교소년회는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어찌 되었든 소년운동은 일제강점하에서 억압받던 민족의 운명을 짊어질 주체가 된 소년들이 “소년에 의한 운동’과 ‘소년을 위한 운동’”을 너머 “소년운동 자체가 독립운동과 직결”¹⁵⁾된 민족운동으로 되었다. 소년단 출범 이후에 여러 방면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그는 먼저 1921년 평안남도 의주로 가서 양실학원(양실학교)의 교사로 유여대, 김정련과 함께 황해도 수재민 구제를 위해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내놓고¹⁶⁾ “1922년 5월에는 김정련 등과 한국독립단을 조직하여 독립결사대를 편성하여 군자금 모집과 일제 관공서 폭파 등의 활동”¹⁷⁾을 했다. 비밀리에 활동을 마치고 다시 광주로 돌아와 소년운동을 이어갔다.

그리는 광주 최초의 취주악대인 5인조 악단을 조직하여 코넷, 클라리넷, 바리톤, 드럼 등을 연주하면서 소년들에게 악기 연주법을 가르쳤다. 이 활동은 1921년부터 1929년까지 8년이나 지속했고 수피아여학교에서 학생들과 가극 「초영생」, 「열세집」을 공연했다. 뿐만 아니라 1922년에 광주의 첫 관현악단을 조직하였다. 최윤상과 흥학관에서 「황해도 수재민 돕기 구호금품 모집을 위한 가극, 음악, 무용의 향연」을 기획하여 개최한¹⁸⁾ 그는 1925년 5월 1일 양림기념각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5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 소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끌어 나갔다. 당시 광주전남 지역에는 목포소년회, 목포 소녀회, 광주기독교소년부, 광주화성단, 영암소년단, 영암 구림소년

15) 장석홍, 「근대 소년운동의 독립운동사적 위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45집, 2013. 254쪽.

16) 동아일보, 1922.11.15

17) 국가보훈처, 「김태오 공훈록」, 국사편찬위원회

18) 광주YMCA역사편찬위원회, 『광주 YMCA 90년사』, 광주YMCA, 120~121쪽 참조.

단이 있었다.¹⁹⁾

한편 김태오가 구제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면서 ‘무산자’와 ‘유산자’로 대립했다. 사회주의의 계급적인 개념의 대립향이 아니라 “소년들을 계급투쟁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²⁰⁾고 “지상의 진리와 선미와 자비와의 엄존을 입증할 새 천사”들의 “치욕”²¹⁾을 씻고자 하는 의지였다. 1925년 <동아일보>에 발표된 「광주유산자에게」는 의미심장하다.

今般 全鮮을 通하여 曠古 未曾有의 大水難은 實로 悽絶慘絶하였도다. 當時 全社會 及 各 個人이 總出動員하여 그 救護와 扶助와 盡力한 것은 實로 欣賀讚嘆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應急策은 그들을 永久히 根本的으로 救濟할 수는 업섯다. 그 畧으로 그들을 飢渴과 病에서 엇더케 救護할가 하는 것이 目下의 急務이다. 그러면 이 救護의 責任과 能力을 가진 者가 그 누구일가? 나는 무엇보다도 其事實에 잇서서 有產者, 卽 實力잇는 者의 奮起를 苦待하지 마지 안는 바이다.

우리 光州에서도 그들을 萬一이라도 救濟하겠다는 精神下에서 이미 水災 救濟會를 組織하고 音樂會까지 開催한 일이 잇섯는데, 참으로 가슴속에서 울어나온 熱情으로 同情하는 者는 오즉 無產者일 뿐이오, 所謂 有產者 兩班들의 同情이라고는 눈을 씻고 보아도 어더 볼 수가 업섯다.

光州 富者 諸君이여!

諸君도 耳目이 잇는 以上, 罹災民의 慘狀을 耳聞目睹하였슬 것이 아닌 가! 人面獸心이 아닌 以上, 엇지 彼岸의 火로만 보고 잇슬 수가 잇나!

諸君의 富는 길게 말할 것 업시 無產者의 皮뺨으로 된 結晶體이다. 人智는 發達되고 時代는 變하여야 于今까지 唯唯順從하든 無產大衆은 인제는 諸君에게 向하여 戰線을 整頓하는 中이다. 엇지 諸君에게만 限하여 永遠히 그 安逸을 許할소나!

19) 경종경고비 제8566호, 「조선소년연합회 발기 대회에 관한 건」, 1927. 8. 3. 국사편찬위원회.

20) 최명표, 앞의 책, 198쪽.

21) 김태오, 「전조선소년연합회 발기대회를 앞두고 일언함」, 동아일보, 1927. 7. 30.

諸君아!

互相扶助는 人類의 本性이니, 此 機會에 反省 懺悔하여 저들 罹災 同胞 救濟에 그 誠意를 다할지어다.

「光州 有産者에게」²²⁾

김태오는 당시 피해가 심각했던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구제회를 조직하고 돕기에 앞장섰다. 그러나 상호부조에 무관심한 광주 지역 유지들을 지켜보다가 수재민 돕기에 동참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미증유의 대수난’에 ‘우리 광주에서도 그들을 만일이라도 구제하겠다는 정신하에서 이미 수재 구제회를 조직하고 음악회까지 개최’하여 ‘가슴속에서 울어나온 열정으로 동정하는 자’들은 ‘오죽 무산자’라며 유산자들도 ‘반성 참회하여 저들 이재 동포 구제’에 나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유지들을 향하여 쓴소리를 서슴지 않은 것은 소년이조국의 광복을 의미하는 새로운 기표이자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 갈 주체의 목소리였다. 그의 소년운동은 청년운동으로 이어졌다. 십팔회, 광주청년회, 광주근로공제회, 광산회, 광주소작인회연합회, 광주임금노동조합, 자동차운전사조합 토목공조합, 광주소작인회, 광주소년군, 광주기독교청년회, 북문외일려청년회, 남문외일려청년회, 여자기독교청년회, 양림일려청년회, 광주정구단, 화성단, 육영단 등 19개²³⁾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지역사회운동과 민족운동에 심혈을 기울여 나갔다.

그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1926년 무렵으로 일경이 동화회를 금지하자 “自由를 拘束하여 苦生을 식한다고 少年運動者로 그 思想이 變革될 줄 아는가?”²⁴⁾ 라는 논설로 대항하고 “한업시 곱고 아름다운 동화의 뜻을 피여 놓아 가장 존경”²⁵⁾하는 동화작가 안데르센을 기리면서

22) 김태오, 「光州 有産者에게」, 『동아일보』, 1925. 8. 25

23) 시대일보, 1925. 6. 30.

24) 설강생, 「童話會와 警察當局에게」, 조선일보, 1926. 6. 25.

25) 김태오, 「어린이의 동무 『안더-센』 선생」, 동아일보, 1926. 8. 1

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1928년 1월 17일 광주사립 보통학교에서 광주소년동맹 대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소년운동의 지도 정신」을 강연하였다.²⁶⁾ 김태오는 “소년운동의 임무가 제이 국민으로의 교양에 있고, 현실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민족적 생활이 불가능”²⁷⁾하며 “현실을 경시하는 소년운동은 민족적 일 부문으로의 소년운동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²⁸⁾이라고 우려하였다. 식민지라는 시대적 현실을 직시하고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오월회’와 ‘소년운동자협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일되어야만 단결된 힘으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1927년 5월 17일 오월회와 소년운동협회가 서로 손을 잡고 방정환, 정홍교 등과 함께 “조선의 어린 영들을 위하여 아동 옹호 기관인 소년운동의 고조를 의미한 소년회 간판이 지금에 이백여 단체”²⁹⁾의 통일에 앞장섰다. 그 결과 ‘오월회’와 ‘소년운동자협회’는 ‘전조선소년연합회’로 통일되었다. 아래는 주장의 일부다.

그리하여 이에 만흔 늦김을 가진 五月會 幹部 및 사람과 斯界의 有志들이 糾合하여 全朝鮮에 흐트져 잇는 二百餘 少年團體의 運動을 統一하며 其 前進를 圖謀하기 爲하여

- 一. 朝鮮 少年運動은 統一的 組織의 充實과 發達의 敏活의 圖함
- 二. 朝鮮 少年運動에 關한 研究와 實現을 圖함

이란 二大 標語下에 全朝鮮 少年聯合會 發起 準備會를 새로히 組織하고, 各 地方에 잇는 團體에서도 이에 對한 共鳴이 증기부터 큰 바 잇서, 이제 六 十 個體 團體와 四個 聯盟 團體의 承認을 得하고 來 三日을 期하여 發起大會를 召集케 됨을 무엇보다도 朝鮮 어린이의 다시 업는 길잡이가 되고 將來 朝鮮의 幸福이 이에 잇슬 줄 確信한다.

그러나 意思別論으로 破裂의 感情을 唱導하는 幾個 團體가 잇는는지 모

26) 이 강연회에는 강석천은 「소년운동의 지위」, 강석원은 「소년운동과 임무」, 그리고 강해석, 현덕신, 홍마리아 등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다.(중외일보, 1928.1.15)

27) 김태오, 「소년운동의 지도정신」, 중외일보, 1928. 1. 14.

28) 김태오, 「소년운동의 지도정신」, 중외일보, 1928. 1. 13.

29) 동아일보, 1927. 7. 29.

른다. 그러나 在來의 因循과 習慣으로 相煎의 禍를 짓는 吝嗇의 賊이 되지 말아야 한다. 자- 吶吶히 말할 것 업시 朝鮮各地에 散在한 少年 細胞 團體를 總合하여 中央集權의 最大 機關을 造成하는 것이 急務이며, 가장 適切한 方法이오 武器이다.

자! 우리의 處地와 環境이 가튼 白衣 大衆아. 一致的으로 共鳴하여 한데 뭉치자! 그러면 우리의 運動과 使命을 다함에는 其 武器는 무엇인가. 一. 統一, 二. 組織, 三. 個體, 이것을 우리는 唯一한 武器로 活動하며 나아가자는 것이다.³⁰⁾

이처럼 김태오는 ‘조선 각지에 산재한 소년 세포 단체를 총합하여 중앙집권적 최대 기관을 조성하는 것이 급무이며, 가장 적절한 방법이오 무기’로 판단하여 ‘육십 개체 단체와 사개 연맹 단체’가 단일 조직체가 되어야만 망국민의 처지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봤다. 그래서 소년운동만이 ‘조선 어린이의 다시 업는 길잡이가 되고 장래 조선의 행복이 이에 잇슬 줄 확신’한 가운데 ‘일치적으로 공명하여 한데 뭉치자!’고 주장했다. 오월회와 소년운동협회의 발기대회 자리에 4개 연맹체와 64개 단체가 참여한 자리에서 창립준비위원으로³¹⁾ 선출되어 “조선의 어린 영들을 위하여 아동 옹호 기관인 소년운동의 고조를 의미한 소년회 간판이 지금에 200여 단체”³²⁾의 통일에도 앞장선 이유다.

당시 광주에서는 광주청년연맹을 해체하고 광주청년동맹을 창립한 가운데 “청년운동의 파쟁을 청산”하고 “광주청년운동을 통일”³³⁾시킴으로써 운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김태오는 광주의 청년동맹과 전국의 청년단체와 소년회와 연대하면서 조선 소년운동의 핵심인물로 부상했다. 동아일보와 중외일보의 후원으로 서북지방을 1927년 8월 10일부터 1개월 동안 순회강연을 한 것은 소년운동가의 위

30) 김태오, 「전조선소년연합회 발기대회를 앞두고 一言함」, 동아일보, 1927. 7. 29.

31) 동아일보, 1929. 1. 4.

32) 동아일보, 1927. 7. 29.

33) 동아일보, 1927. 11. 9. (창립준비위원은 오홍근, 이덕기, 강영석, 장석천, 김재명, 강해석, 오영, 서재익, 정운모, 국채진, 김창열이었다.)

상을 확인케 하는 것으로 「서북 지방 동화 순방기」³⁴⁾에 잘 나타나 있다. 대강을 살피면 신의주, 의주, 안동현, 선천, 정주, 안주, 평양을 거치는 여정과 소년운동을 비롯한 각 민족운동 단체들의 활동상을 살폈다. 신의주에는 사회단체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의주 사회여! 좀도 민중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의주는 “소년운동도 북선에는 가장” 잘하는 지역으로, 평양에서 만난 조만식 선생을 통해 배운 것과 감회를 썼다. 그의 서북지방 순회는 ‘동화구연’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각 지역의 소년운동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소년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서였다. 얼마 후 김태오는 ‘광주 피의자 사건’의 2차 검속에 걸려 구금되었다가 방면된 것이나, 전남소년연맹을 조직하기 위해 무등산 증심사에서 비밀회합 중에 검거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투옥³⁵⁾된 것은 소년운동에 전심전력으로 매진했던 그를 일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제는 11세에서 15세까지의 소년들로 구성된 광주 소년척후대가 “독립운동가들과 내통한 것이라 해서 시종 감시와 미행을 그치지 않았”고 “소년운동에까지 일경의 간섭과 압박”³⁶⁾이 가했다. 그래도 김태오는 「아기는 자라는 대한의 꽃」이라는 동요로 소년운동의 이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³⁷⁾

한편 서울에서 ‘완전독립’·‘절대독립’의 민족운동노선을 확고히 하고 ‘비타협적 민족협동전선’ 형성을 목적으로 홍명희·안재홍·신석우 등이 천도교의 권동진·박래홍, 기독교의 박동완, 불교의 한용운, 유교의 최익환, 북경의 신채호가 의기투합하여 신간회가 창립되었다.³⁸⁾ 1927년 1월 19일에 열린 신간회 발기인에는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동아일보 정치부장이던 최원순³⁹⁾도 있었다. 김태오는 최원순과도 긴밀한 관

34) 김태오, 「서북 지방 동화 순방기」, 『아이생활』, 1927. 2.

35) 동아일보, 1928.8. 26.

36) 광주YMCA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30쪽.

37) 광주YMCA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28쪽.

38)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계를 맺고 있었다. 신간회는 “모든 우경적 사상을 배척하고 민족주의 중 좌익전선을 형성하려는 것”⁴⁰⁾이 목표였다. 신간회는 전국의 민족운동을 주도하게 되면서 민족해방운동을 위해 각지에 지부를 설립했고 광주에도 1927년 10월 29일 지회가 설립되었다. 신간회 광주지회는 “조선의 모든 운동-소년, 청년, 노동, 농민, 형평, 여성, 각 운동을 신간회로 총역량을 집중”⁴¹⁾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당시 김태오는 신간회 활동뿐만 아니라 서북여자야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교육에도 힘쓰고 있었다.⁴²⁾

3. 김태오와 기독교 청년운동

미국 남장로회는 1897년 3월 목포에 배유지 선교사를 파견하여 목포 선교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목포에 교회와 병원, 학교를 설립하였다. 광주에도 1904년 4월부터 광주 선교부 설립준비에 들어갔다. 광주의 선교부는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에 두었다. 1904년 12월 20일 배유지 선교사와 오웬 선교사 가족이 광주로 이사하여 배유지 선교사 집에서 첫 예배를 봄으로써 광주기독교 역사는 시작되었다.⁴³⁾ 배유지 선교사는 광주 최초의 근대학교이자 최초의 사학인 송일학교를 설립하여 1909년 4월 10일 2년제 소학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⁴⁴⁾ 광주송일학교는 “보통과 4년, 고등과 2년제의 학제였지만 6년간 송일학교에서 배

39) 전남 광주군 광주면 기옥정이 본적으로, 당시 주소는 경성부 종로 옥정목 칠이번지였으며 직업은 동아일보 정치부장이었다. 그의 나이 22세였고 직책은 간사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신간회 임원명단 참조)

40) 동아일보, 1927. 1. 20.

41) 김태오, 「소년운동의 당면과제」, 조선일보, 1928.2.11.

42) 동아일보, 1929. 1. 7.(소설가 박화성이 서북여자야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박화성과는 서울로 이주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랜 인연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오의 회갑연에 참석하여 축하의 글을 남기고 있다.)

43) 광주제일교회 광주교회사연구소, 『광주제일교회100년사』, 2004, 쿰란출판사, 210-215쪽.

44) 광주송일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웠던 교육내용은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민족교육이어서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강하였다. 1923년부터 학제가 개편되어 일반 보통학교와 같이 보통과 4년제를 초등과 6년제로 하고, 새로이 중등과정인 고등과 4년제를 신설”⁴⁵⁾하였다. 김태오는 송일학교를 졸업했다.⁴⁶⁾

김태오는 정율성의 아버지인 정해업⁴⁷⁾과 금정교회 서리집사이자 “주일연보 담임”⁴⁸⁾으로 활동이 상당했다. 금정교회는 “1930년 9월 4일 북문밖교회가 분립되었고, 1924년 9월 30일 광주 양림교회로 분립”⁴⁹⁾하였다. 양림교회의 예배당 건축비에 “김창국은 칠십원 최흥종은 육십원”을, 김태오는 “이십오원”⁵⁰⁾을 출연했으니 양림교회 설립에 초석을 놓은 일원이기도 하고 주일학교 “유년부 부장”⁵¹⁾으로 1922년 4월 개원한 금정유치원에서 “주일학교 유년부 부장의 직책을 맡은 경험으로 금정유치원에서 유아교육에 힘썼다. 그리고는 소년군이 주최하는 음악대회를 열기도 하고, 최순호, 이태식, 이수경, 최운용, 정운모⁵²⁾와 함께 광주 소년군을 홍보할 목적으로 음악과 무용단을 조직하여 광주 근교의 지방을 순회도 했다. 8월 4일 담양, 5일은 창평, 6일 화순, 7일은 동복, 8일은 순천 9일은 별교 10일 보성 11일 능주, 12일은 남평, 13일

45) 광주제일교회 광주교회사연구소, 위의 책, 267~268쪽.

46) 송일학교 학생부는 6.25한국전쟁 때 대부분 소실되어 명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송일학교100년사』에 1917년 소풍때 찍은 사진이 실려 있다. 사진은 장맹섭선생님과 김철주, 김태오, 주형욱, 김금용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김태오가 송일학교를 졸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7) 금정교회 당회록, 1924. 12. 28 (광주제일교회 광주교회사연구소, 『광주제일교회 100년사』, 2004. 쿰란출판사, 279쪽에서 재인용)

48) 재직회 회록, 1925. 1. 15 (광주제일교회 광주교회사연구소, 『광주제일교회100년사』, 2004. 쿰란출판사, 279쪽에서 재인용)

49) 광주제일교회 광주교회사연구소, 앞의 책, 248쪽.

50) 기독교신보, 1925. 1. 7.(광주제일교회 광주교회사연구소, 『광주제일교회100년사』, 2004. 쿰란출판사, 248쪽에서 재인용)

51) 금정교회 당회록, 1929. 1(광주제일교회 광주교회사연구소, 『광주제일교회100년사』, 2004. 쿰란출판사, 282쪽에서 재인용)

52) 조선일보, 1924.5.29

은 나주, 14일은 송정리에서 공연도 하였다.⁵³⁾

그 뒤로도 양림기념각에서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토론대회를 이끌었고⁵⁴⁾ 광주기독교청년회가 주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사가 후원한 광주소년소녀옹변대회도 이끌었다.⁵⁵⁾ 그런가 하면 1927년에는 오웬기념각에서 기독교 면려청년회 주최한 신춘 음악연주회⁵⁶⁾를 비롯, 1927년 2월 26일 유치원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선 음악회를 주관⁵⁷⁾할 만큼 교회 일에 헌신하였다. 1929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조선을 알고 꾸준히 힘써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⁵⁸⁾ 다음해의 어린이날에는 「소년운동자에게」를 통해 소년운동단체가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⁹⁾ 김태오는 광주어린이회에서 주최하는 양림기념각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식’에는 500여명의 청중을 이끌었던 것은 소년운동 측면에서도 기독교운동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었다.

광주기독교청년회는 조선기독교청년회의 한 지체로 조직되었는데 송일학교 학생Y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국에서 돌아와 Y학생부 담당간사를 맡았던 이승만이 1911년 송일학교를 찾아와 Y학생부를 결성하도록 함으로써⁶⁰⁾ 1914년 당시 “정회원은 24명, 준회원은 4명”⁶¹⁾이었다. 송일학교 학생Y활동 대부분은 “망국을 슬퍼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민족의식,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⁶²⁾데 김태도 있었다. 그것이 광주기독교학생회의 출발이다.

53) 조선일보, 1924.7.27

54) 동아일보, 1925.5.8

55) 동아일보, 1925.5.31

56) 동아일보, 1927.3.1

57) 재직회 회록 1927. 3. 7(광주제일교회 광주교회사연구소, 『광주제일교회100년사』, 2004, 쿰란출판사, 291~292쪽 재인용)

58) 동아일보, 1929.5.4

59) 조선일보, 1930.5.4

60) 광주YMCA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0쪽.

61) 광주YMCA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0쪽.

62) 광주YMCA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3쪽.

광주기독교학생회는 김정련선생이 재직 중 가장 씩씩하고 왕성하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토론회와 웅변대회가 열려 용호 상박의 기백이 넘쳐 흐르고 비분강개한 애국투혼은 용솨음치고 불꽃이 튀는 듯한 그의 열화같은 강평은 천지가 뒤박힐 듯 했다. 경찰에 검속된 많은 학생들의 사식을 위해 그의 피끓는 현하의 웅변이 터지자 당장에 많은 금품이 쏟아져 나와 철장에서 굶주린 학생들의 배는 채워주었으나 이것이 죄가 되어 경찰에 끌려가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의 얼굴은 완전히 변형이 되고 말았다. 그 외에 대동단 사건등이 탄로되어 계속하여 철창의 옥고를 겪다가 출옥직후 김태오와 필자를 불러 비밀리에 독립결사대를 조직하였다.⁶³⁾

김정련은 김태오와 최윤상을 불러 비밀 독립결사대를 조직한 것으로 보이나 비밀리에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김정련은 김태오, 최윤상과 함께 연극반을 조직하여 크리스마스 때 시민들과 교인들 앞에서 연극공연을 하는 한편으로, 나주, 금성, 반남 사거리, 고창 등의 농촌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의 계몽에도 힘썼고 이 활동은 “광주 YMCA운동의 효시”⁶⁴⁾가 되었다. 김태오는 배우 역할도 잘해서 청중들의 호응이 깊었는데 이것은 농민과 어린이들을 계몽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는 오방 최흥종 목사와 함께 광주기독교청년회의 핵심에서 활동하면서 광주기독교청년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태오는 광주기독교청년회 3대 총무를 지낸 이력뿐만 아니라 그 외 기독교청년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의 주요인물이었다. 그는 초대 광주기독교청년회의 기틀을 다지는 데 일조했다.

63) 최윤상, 「광주60년사」(광주YMCA역사편찬위원회, 『광주YMCA90년사』, 광주YMCA, 2010, 123쪽에서 재인용.)

64) 광주YMCA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3쪽.

4. 나오며

김태오는 광주전남 최초의 현대 시인이자 아동문학가다. 그러나 그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문학가로서만 규정지을 수 없는 존재감을 갖고 있다. 특히 그가 광주의 인물로서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항일 민족운동은 문학가로서보다 앞선 활동이었다. 그리고 민족운동을 문학적으로 승화시켰기에 각별한 위상을 갖는다.

김태오는 광주가 소년운동의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갖게 한 장본인이다. 광주에서 시작된 소년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자연발생한 소년단체들을 전국적인 소년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 김태오는 광주 소년운동 경험을 이론적으로 무장한 이론가로 전국 소년단체의 단일조직체인 조선소년연합회의 지도인사가 되었다. 그는 소년들을 계몽하고 선도하면서 지역사회의 변혁운동을 이끌어 소년을 민족의 미래 기표로 상징하고 현실에 눈감지 않은 실천으로 활동했다. 김태오는 다양한 방면의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곧 일제하 민족운동이었다.

광주기독교청년회의 창립회원이었던 김태오는 광주 초대교회 설립과 운영에 있어 광주기독교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광주기독교소년회 회원으로 출발하여 광주기독교청년회의 간부가 되었고, 금정교회의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였던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하였던 그는 농촌계몽활동과 더불어 송일학교 교사인 김정련과 함께 비밀결사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그의 광주기독교청년회 활동은 민족운동의 연장선이었다. 김태오는 신간회 광주지회의 창립회원으로 시작하여 신간회 광주지회의 간부로 재만동포옹호동맹을 결성하고 구호활동을 펼쳤으며,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럼으로써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일제를 압박한 민족운동이 되었다. 김태오의 다방면에 걸쳐 펼친 활동은 결국 민족운동으로 수렴되고 활동은 문학으로 승화되었다.

그가 중앙여자전문학교의 설립자 겸 교수가 되면서부터는 문학과 거리

를 두고 교육자로 학자로 연구에 몰두하였다. 첫 연구서인 『미학개론』⁶⁵⁾은 김지하가 서울대 미학과로 진학하게 된 “첨단”⁶⁶⁾이었다. 그의 미학과 심리학, 교육학, 철학에 걸친 연구는 선구적이고 도전적이었다. 『미학개론』에서 시작하여 『민족심리학』(동방문화사, 1950), 『심리학』(동국문화사, 1954), 『교육학개론』(을유문화사, 1955), 『교육심리학』(을유문화사, 1956) 등이 그것을 말해준다.

아동문학가이자 비평가로, 시인으로, 그리고 민족운동가이자 학자이자 교육자로 살았던 그의 민족운동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즉 소년으로부터, 민중으로부터, 지역으로부터였다. 서울로 이주하여 광주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먼 하늘로 떠도는 구름/故郷 찾아가리.//송아지 뛰노는 草原에는/풀피리 소리도 어울렸다.//뽕 날리고 꿀망태 메고/아리랑 조로 도라 들다.//마을 앞을 흐르는 시냇물아/배 뱅뱅 도느냐 물레방아야//앞산 버꾸기 지금도 우느뇨/파랑새 훨 훨 날러라.//그옛날 행복은 한낱 꿈결이어/그래도 못잊는 내 故郷”(「故郷」부분)을 노래한 광주의 시인이다.

그러나 그의 삶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1942년 <매일신보> 일제에 부역한 시 3편 「동양 평화의 문이 열린다」, 「햇빛든 소년」, 「승전기」로 오점을 남겼다. 전국을 누비며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얼을 심었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오를 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년운동가로 독립단의 일원으로 아동문학가로서 민족의식을 심어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근대 도시 광주의 첫 문학인으로 달빛 스민 광주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자리에 광주 근대 문학의 첫 자리에 김태오가 있었다.

65) 김태오, 『美學概論』, 정음사, 1949.

66) 진중권, 「김태오 『미학개론』 읽기」, 『인문학의 싹』, 인물과사상사, 2011. 344쪽. (『미학개론』의 초판은 6·25한국전쟁 때 모든 것이 불에 타 소실되는 바람에 수정 보완하고 10장 ‘덜타이와 하이데거 시론’을 증보해서 1955년 재판판을 냈다. 진중권은 『미학개론』 재판(정음사, 1955.)을 텍스트로 삼았다.)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21

김태오 문학전집2

--동극·아동문학 평론편

인쇄 2024년 11월 20일

발행 2024년 11월 30일

발행인 홍영기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엮은이 이동순

편집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979-11-90608-84-8 (94910)

979-11-90608-28-2 (세트)

김태오는 소년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이자 시조시인이다. 김태오의 작품집은 동요집 1권과 시집 1권이 있을 뿐, 그가 쓴 산문집(동화, 동화비평, 소년운동론)은 없다. 이에 김태오의 아동문학에 해당하는 산문(동화, 동화비평, 소년운동론 등)을 한데 모아 엮었다.



값 20,000원

ISBN 979-11-90608-84-8
ISBN 979-11-90608-28-2 (세트)